정책보고서 2023-07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연 구 책 임 노 경 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공 동 연 구 정 형 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선임연구위원)
연 구 지 원 유 혜 인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발 행 인 김 혜 순

발 행 일 2023년 8월 31일

발 행 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 쇄 디자인펌킨

ISBN 978-89-6432-631-2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연구요약

1. 연구개요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경기도의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 및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이에,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도민의 성평등 인식의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의 성과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경기도민들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성평등 정책 수립과 성과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임.
- 그동안 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에서 성역할고정관념 등을 측정해 왔으나 측정지표 및 척도가 동일하지 않아서 자료의 비교와 축적에 한계가 있었음.
- 또한 전국단위로 추진되는 양성평등실태조사의 경우 5년 주기로 시행될 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특성을 면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함.

□ 성평등의식 및 실태, 그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성별, 세대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정기적인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성평등 정책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 중앙 및 경기도 성평등 정책현황을 검토하여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논의 사항을 정리하여 설문지 개발 시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았음.
- 중앙정부와 경기도, 타 지자체의 성평등 의식·실태 관련 기존 조사 및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문항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함.

□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문항 개발

- 성평등 정책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조사 문항 초안 마련
-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면 자문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영역과 세부영역별 문항 구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완성함.

□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 조사결과 논의 및 제언

- 성별과 연령을 포함한 다양한 응답자 특성을 기반으로 성평등 의식과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성평등한 경기도를 위한 정책을 제안함.

2.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 개요

□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12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26일 동안 조사기관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

[표 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 65세 미만 경기도민 2,000명
표본추출방법	성, 연령, 권역별[1] 인구 제곱근비례할당
조사표본	2,016명(유효표본 기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3년 5월 12일 ~ 6월 6일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 1)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할당함.
① 도시남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② 도시북부: 의정부시, 고양시, 동두천시, 구리시
③ 도·농복합남부: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④ 도·농복합북부: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⑤ 농촌: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 조사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016명이 조사에 유효하게 참여함.

□ 조사대상을 성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온라인 조사의 특성과 향후 조사의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임.

□ 설문문항 구성은 5년 주기로 수행되는 「양성평등실태조사」와 2016년 본 재단에서 추진한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정형옥·신경아, 2016)를 주요 토대로 함. 그 외 성평등 정책과 관련이 있는 국가단위 조사와 경기도 및 타 지자체의 각종 조사 문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하였음.

[표 2]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도입질문	•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성평등 의식	• 성별분업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 -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 변화하는 젠더관계 및 역할에 대한 태도 -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 성역할 변화 수용 정도 - 성차별주의 태도(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 성평등에 대한 이해 및 관심과 실천
	성평등 수준	•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및 미래 성평등 수준 전망(10년 후) • 삶의 만족
가족가치 및 가족생활	• 혼인상태 및 가족구성 • (미혼/비혼) 결혼에 대한 태도 • (무자녀)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 • (유배우자) 부부간 역할 분담과 평등 인식 - 주도적 의사결정자 - 주 역할수행자 및 역할분담의 공평성 - 부부간 평등 인식 • (유배우자) 맞벌이 여부 및 부부간 소득비교	
경제활동	• 경제활동여부 • (취업자) 사업체 규모, 월평균 근로소득, 직장에서의 지위, 근로시간 형태, 종사자 성비 등 근로조건 • (취업자) 성차별적 인사관행 및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 (취업자) 일-생활균형제도 이용의 용이성 • (취업자) 일과 가사 및 자녀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	

구분	내용	
	• (비취업자) 과거 경제활동 여부 및 일을 그만둔 이유 • (비취업자) 향후 경제활동 계획 유무 및 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차별과 안전	차별경험	•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 외모를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안전	• 안전 관련 두려움 및 불안 • 폭력상황 목격 시 행동의지
성평등 정책	• 성평등 정책 관련 생각 •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중요도 •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개인 일반 사항	•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경기도 거주기간, 주관적 계층의식	

□ 본 조사는 성별과 연령,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민 모집단 비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학력과 소득수준 등은 통제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가 추진되어 응답자의 학력과 소득수준 등이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조사 결과를 조사문항의 기초가 된 「양성평등실태조사」나 정형옥·신경아의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음.

□ 소수의 의견이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곱근비례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거주자는 전체 응답자의 5.9%에 불과하여 도농복합지역과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음. 조사에 참여한 패널들의 교육수준과 높은 디지털리터러시로 인하여 지역특성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음.

3.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 결과

가.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 성평등 의식 관련 문항은 총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수적이고 차별적인 의식과 관련한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로, 성역할에 대한 변화 수용과 성평등에 대한 이해 및 관심과 실천은 성평등 수용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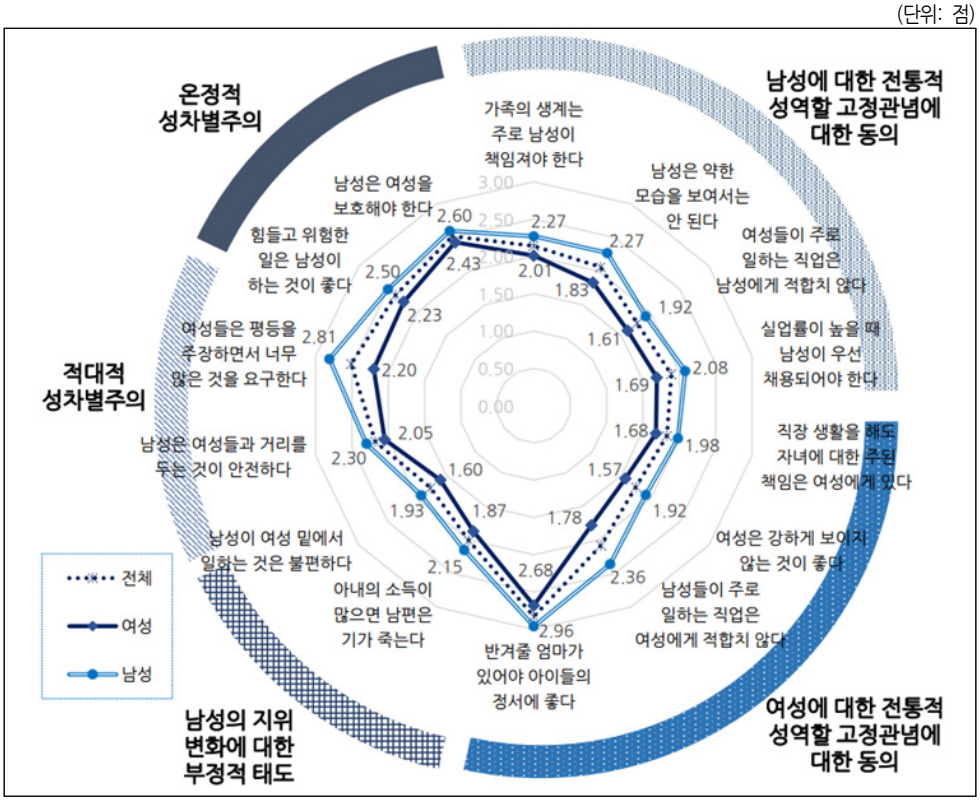
□ 성평등 수준 관련 문항은 갈등 및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5문항과 영역별, 전반적 성평등 수준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음.

1)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

□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성차별주의 태도(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에 있어서 남성이 더 동의하고 있었음. 문항 중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의율이 가장 높았음(여성 67.6%, 남성 80.0%).

[그림 1]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

(단위: 점)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 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여성들은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성차별주의 태도의 대부분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음.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일관적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음.

-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가족의 생계책임에 대해서는 20대 이하의 고정관념이 가장 낮고 60대의 고정관념이 가장 높았지만 남성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거나 여성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이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항에서는 30대 이하가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음(20대 이하 남성19.5%, 30대 남성 18.9%).
- 또한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30대 이하가 동의하는 비율이 높음(20대 이하 남성 48.8%, 30대 남성 50.3%). 이는 여성이 다수인 직업군에 남성이 진출하는 것에 비해 더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임.
- 남성의 지위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남녀 모두 연령의 증가와 함께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서 세대 간 인식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 차별주의와 관련해서는 전통적 역할을 따르는 여성을 보호하고 돌보는 호의적인 감정으로서의 온정적 차별주의는 남녀 모두 동의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음. 남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으로서의 적대적 차별주의 역시 남성의 응답이 높음. 50대 이상 남성보다 40대 이하 남성들에게서 더욱 동의율이 높음. 특히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에 대해서는 20대 이하 남성의 31.8%가 매우 그렇다고 동의하여 적대적 차별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

2) 성평등 수용

□ 성평등 수용은 성역할 변화 수용 정도와 성평등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데, 성별 인식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면, 성평등 수용은 성평등 실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여성의 동의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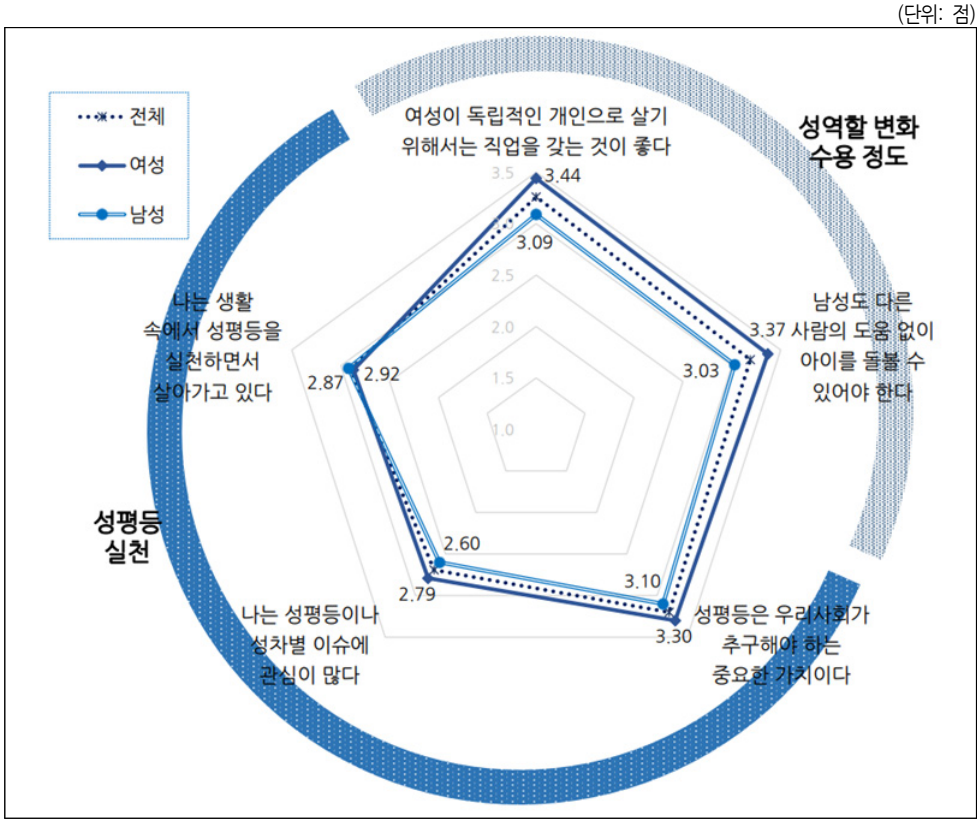
- 성평등 수용과 관련하여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와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해서 여성은 90% 이상, 남성은 80% 이상의 동의율을 나타내었음.
- 성평등 실천에 대해서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에 대

해서도 여성의 93.2%, 남성의 87.2%가 동의하였으나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에 대해서는 여성의 69.1%, 남성의 57.4%가 동의하여 가치의 중요성 인식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음. 반면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에 대해서는 여성의 80.1%, 남성의 82.7%가 동의한다고 하여 관심 정도에 비해서는 실천이 높게 나타났음.

- 남성들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주의에 동의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서 높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동의와 성평등 이슈에 대한 관심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비해 성평등 실천이 더 높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성평등과 성평등의 실천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함. 성평등 가치의 인정과 관심, 실천 간의 괴리는 향후 성평등 이슈의 확산 노력에 있어서 보다 고민이 필요한 지점임.

[그림 2] 성평등 수용

(단위: 점)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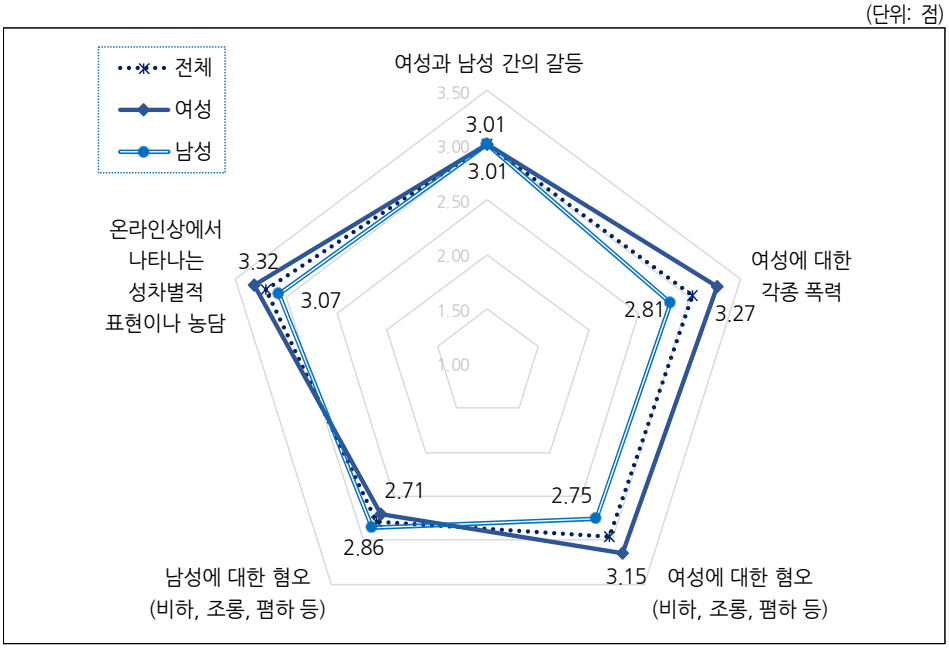
3)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 여성에 대한 폭력, 성별 혐오, 온라인상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남녀 모두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 여성들은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91.7%로 가장 높았고,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91.0%, 여성에 대한 혐오 84.6%,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 81.8%, 남성에 대한 혐오 60.2% 순이었음.
- 남성 역시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많았으나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 78.4%,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68.9%, 남성에 대한 혐오 68.4%, 여성에 대한 혐오 65.0% 순이었음.
- 남성에 대한 혐오만 남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외의 문항들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심각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음.

[그림 3]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단위: 점)



주: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 여성들은 모든 문항에 있어서 연령이 낮을수록 심각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음. 그러나 남성들은 성별 갈등과 성별 혐오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 폭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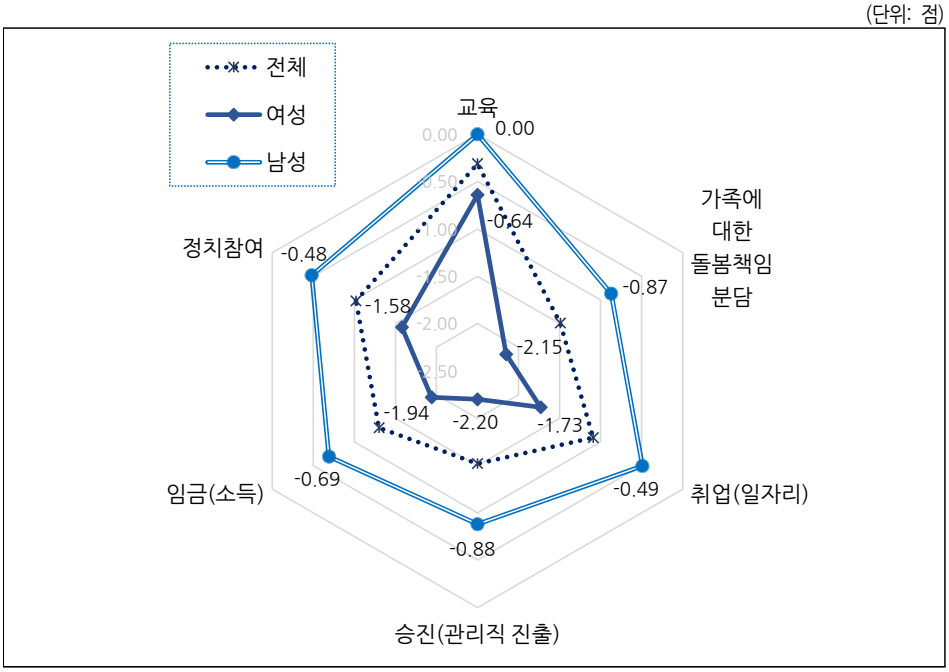
4)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 분야별 성평등 수준 인식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음.

- 남성들은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분야는 여성에게 약간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였음.
- 여성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또한 남성에 비해 높았음.

[그림 4] 분야별 성평등 수준 인식

(단위: 점)



주: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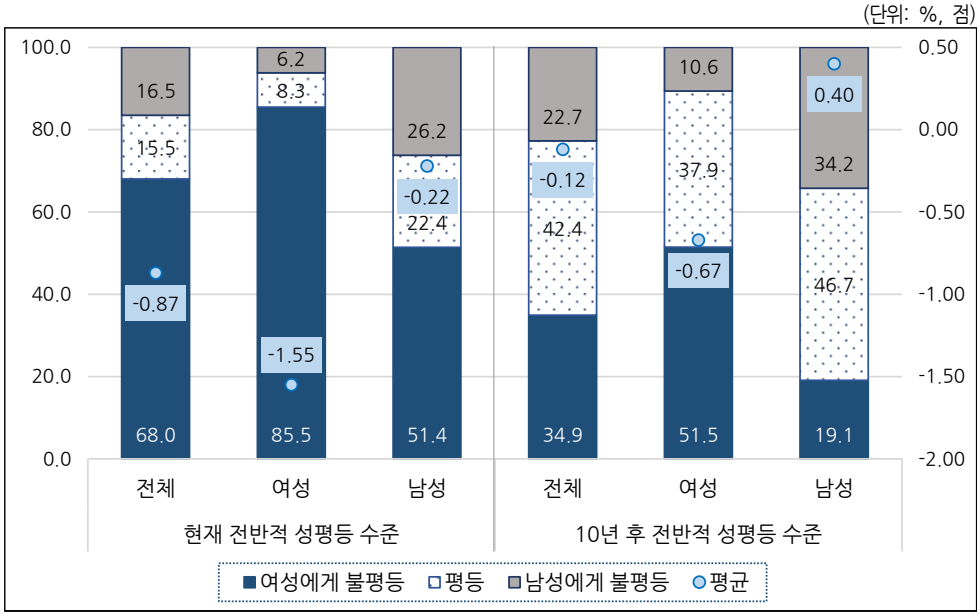
□ 여성은 6개의 영역 중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이 8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을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86.6%)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음. 남성은 63.7%가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라고 응답하였고, 승진이 62.3%로 뒤를 이음. 교육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응답(여성 56.0%, 남성 63.4%)이 가장 높은 영역이었음.

□ 연령별로 여성들은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나, 남성들은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을 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음. 영역별로 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은 여성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남성 역시 교육을 제외하고는 낮은 연령에서 해당 응답이 더 높았음.

□ 남성과 여성 모두 10년 후에는 성평등 수준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함. 여성들은 현재(-0.22점)도 미래도(-0.48점)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일 것으로 보는 반면, 남성들은 현재 사회는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나(-0.22점), 미래는 남성들이 더 불평등한(0.40점)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음.

[그림 5]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단위: %, 점)



주: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 특히 30대 이하 남성은 현재도 미래도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로 보는 경향이 있었음.

□ 이렇듯 20~30대 남성들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낮은 것에 비해 적대적 성차별주의에 대한 동의가 높게 나타고 우리 사회가 평등하거나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향성은 가족에서 개인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임혜경, 2020) 젠더갈등 문제가 보다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임.

나. 가족가치 및 가족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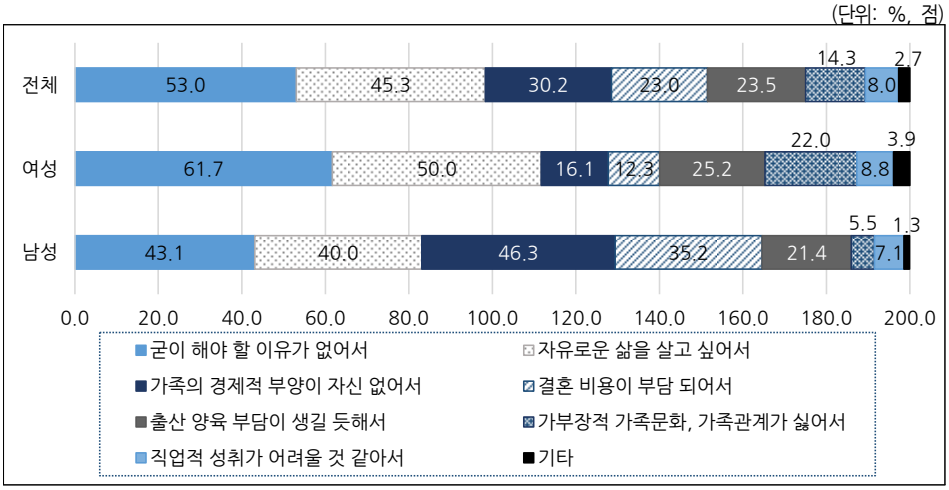
1) 결혼 의사 및 출산 의사

□ 미혼(비혼) 여성의 결혼의사는 남성에 비해 뚜렷하게 낮았음(여성 26.0%, 남성 46.0%).

- 결혼할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는 여성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1순위 35.6%, 1+2순위 61.7), 남성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자신 없어서(1순위 27.0%, 1+2순위 46.3%)로 가장 높았음.
- 여성은 결혼 자체나 결혼으로 인한 관계에 대한 부담이 남성보다 크다면, 남성은 결혼 준비나 결혼으로 인한 생계부양의 문제 등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고 볼 수 있음.

[그림 6]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2순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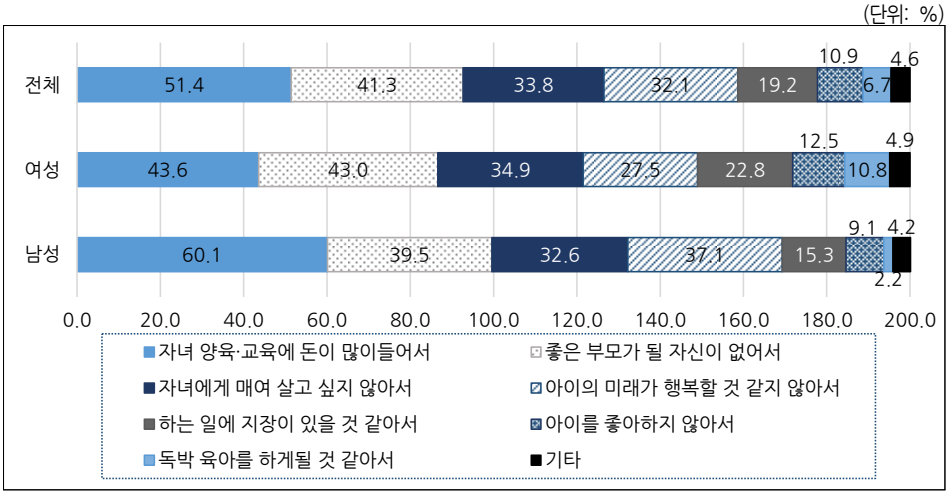


□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음(여성 55.2%, 남성 35.0%).

- 자녀를 가질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1순위(여성 27.1%, 남성 39.6%)와 1+2순위(여성 43.6%, 남성 60.1%) 모두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 양육과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음. 남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비용부담의 문제를 크게 느끼고 있었음.

[그림 7] 자녀를 가질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2순위)

(단위: %)



2) 부부간 의사결정 및 역할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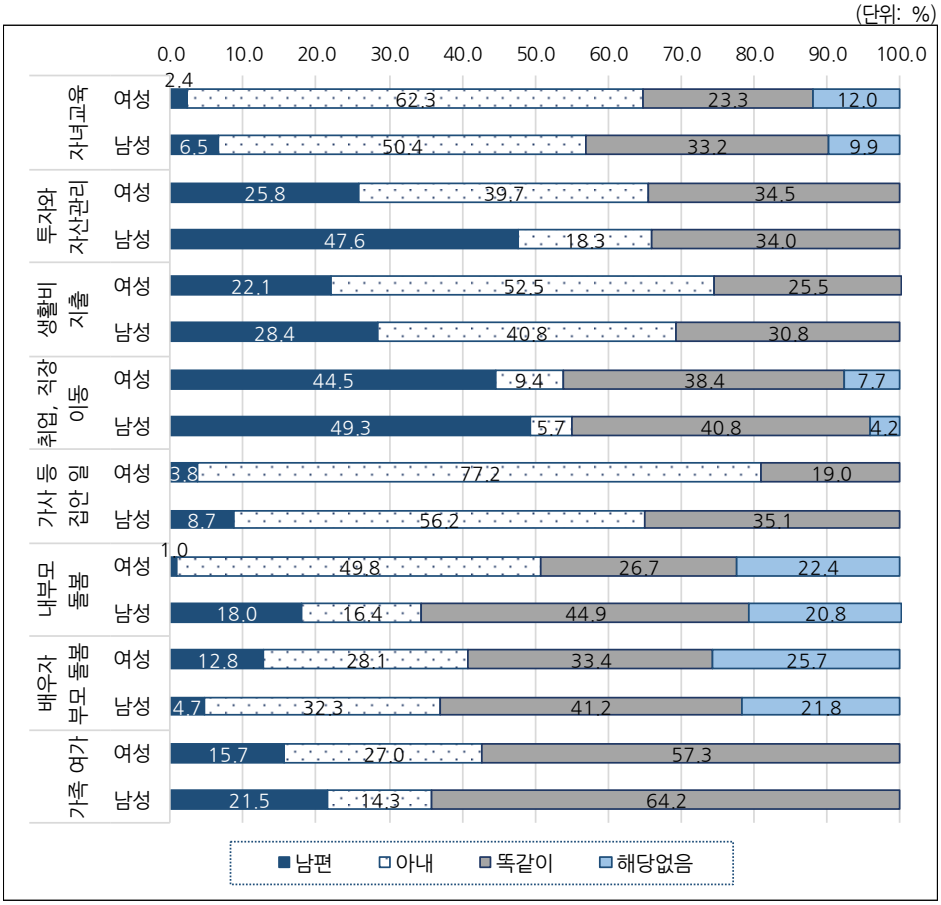
□ 부부간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자녀교육, 가사 등 집안일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부간 의사결정에서 부부가 가장 공평하게 똑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는 가족 여가로 여성과 남성 응답자 모두에서 과반 이상이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여성 57.3%, 남성 64.2%)하였음.
- 남성들은 자신의 부모를 돌보는 데는 비교적 의사결정 비율이 높으나, 여전히 돌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음.
- 부부간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사 등 집안일(여성의 77.2%, 남성의 56.2%가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과 자녀교육(여성의 62.3%, 남성의 50.4%가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

답), 생활비 지출(여성의 52.5%, 남성의 40.8%가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 관련 역할은 여성들이 주로 의사결정을 하고, 남성들은 취업이나 직장이동(여성의 44.5%, 남성의 49.3%가 남편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 투자와 자산관리(여성의 25.8%, 남성의 47.6%가 남편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 등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8] 부부간 의사결정

(단위: %)



□ 부부간 역할수행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여성의 74.8%, 남성의 52.7%가 아내가 역할수행을 한다고 응답)이나 자녀 양육과 교육(여성의 64.0%, 남성의 46.2%가 아내가 역할수행을 한다고 응답)은 여성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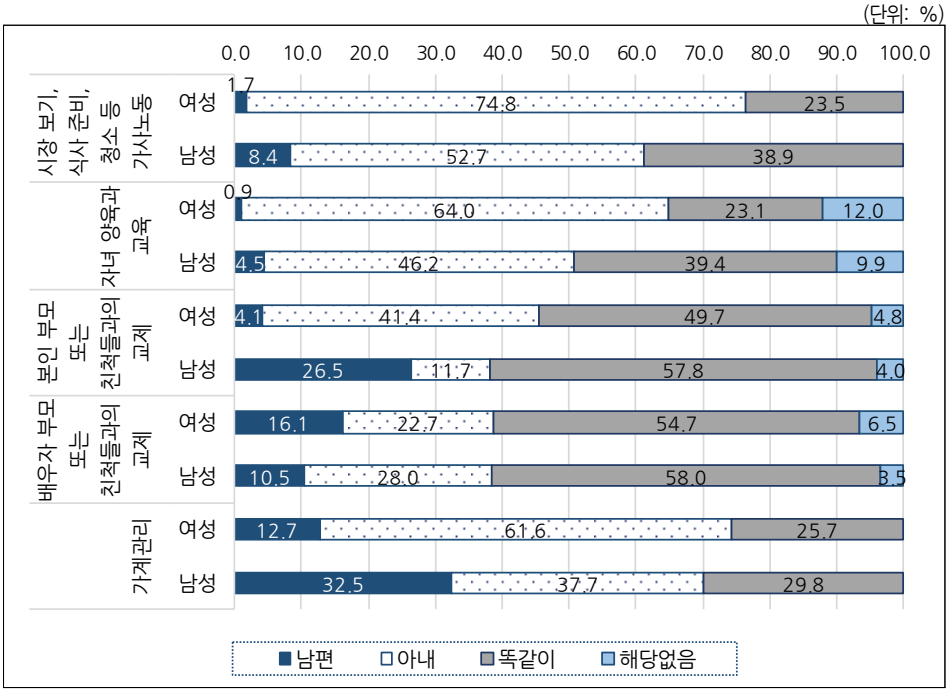
- 가계관리 역할과 관련해서는 여성은 아내가 더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여성 61.6%, 남성 37.7%), 남성은 남편이 해당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여성 12.7%, 남성 32.5%)이 여성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음.

- 남성들은 모든 역할에 있어서 부부가 똑같이 또는 남성이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역할수행의 강도와 의미에 있어서 남녀가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함.

[그림 9] 부부간 역할수행

(단위: %)



□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과 역할수행을 한다는 응답은 젊은 세대에서 더 높이 나타났음. 그러나 영역별 역할수행은 60대에 접어들면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다시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역할분담에 있어서 맞벌이인 경우 부부가 역할을 똑같이 분담한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역할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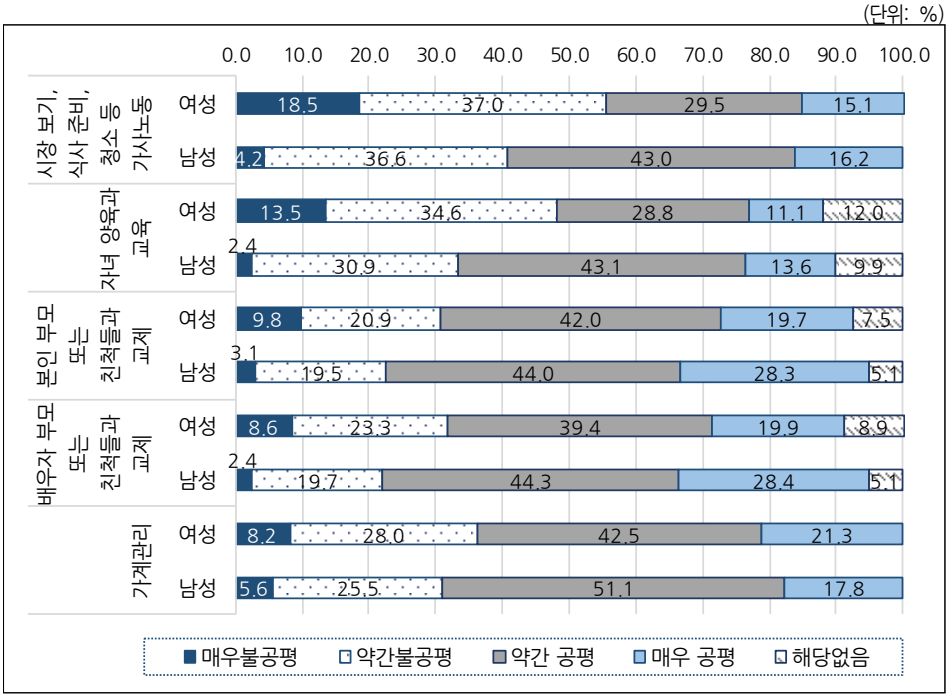
□ 역할수행의 공평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 부부간 역할 수행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에서 불공평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는 가사노동(여성 55.5%, 남성 40.8%), 자녀양육 및 교육(여성 48.1%, 남성 33.3%) 이었음.

□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분업은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가족 내에서 성역할 분업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부부관계 평등(여성은 -0.70점, 남성은 -0.03점)은 사회적 평등(여성 -1.55점, 남성 -0.22점)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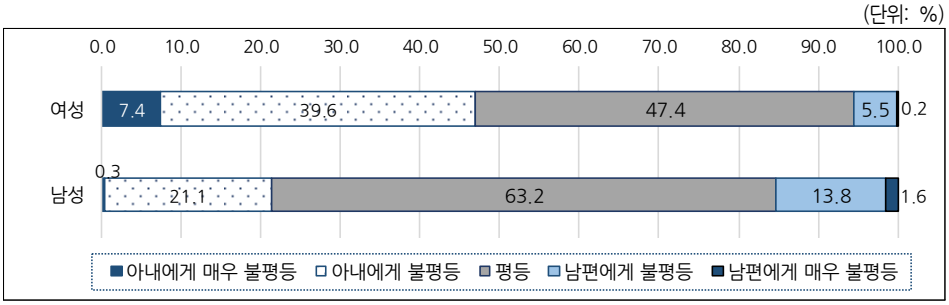
[그림 10]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단위: %)



[그림 11] 부부관계의 평등

(단위: %)



-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은 만큼, 가족 내 성역할 분업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음.

- 그러나 역할 수행의 공평성과 마찬가지로 부부간 관계의 평등에 대한 인식은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음. 여성이 여전히 가족 내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것이 역할 수행의 공평성과 배우자와의 관계 평등에 있어서 보다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임.

다. 경제활동

1) 취업자 관련 실태

□ 전체 응답자 2,016명 중에서 취업자는 1,583명(78.5%)이었음. 성별로는 남성은 응답자의 86.7%, 여성은 응답자의 69.9%가 취업자에 해당함.

가) 직장 내 조직문화

□ 현 사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은 남성이 49.8%로 여성(38.7%)에 비해 높음.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현 직장이 남성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성별 업종 분리 현상이 반영된 결과임.

□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에 대해서는 남성(42.4%)이 여성(37.0%) 보다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음. 남성이 많은 사업체일수록 현재 직장에 성별업무 분리가 존재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 응답자의 33.5%가 현재 사업체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직위) 이상 승진하는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고 답변하여 '유리천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함. 성별로는 여성이 40.2%로 남성(28.7%)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음. 전반적으로 남성이 많은 사업체일수록 현재 직장에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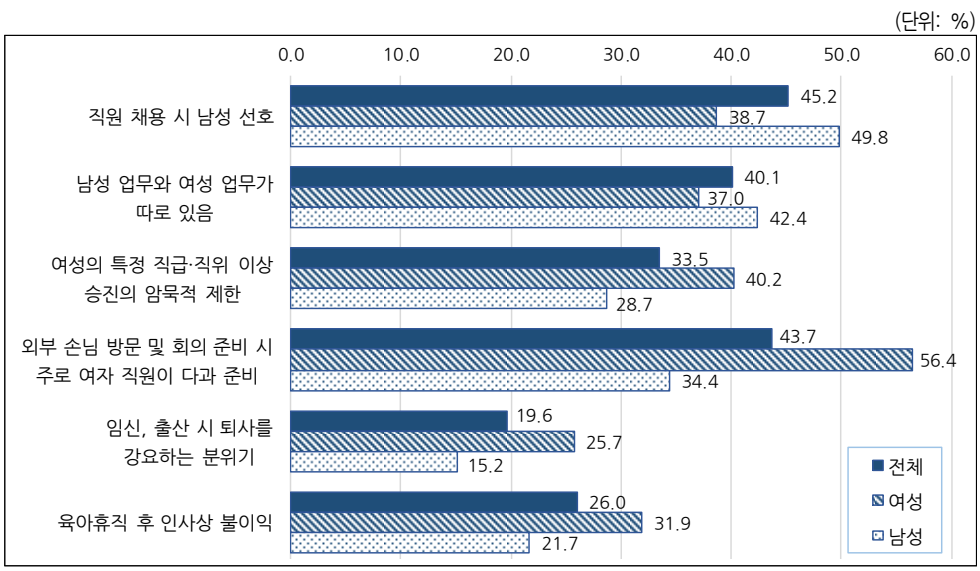
□ 응답자의 43.7%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주로 여자 직원이 음료나 다과를 준비한다고 함.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그렇다는 응답이 현저히 높음(여성 56.4%, 남성 34.4%) 30대의 경우 여성 62.0%, 남성 38.0%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음.

□ 현재 사업체에서 임신·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에 대해서는 19.6%가 그렇

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25.7%로 남성(15.2%)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특히, 주로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30대 여성의 경우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높았음.

□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 상 불이익에 대해서는 26.0%가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고, 여성이 31.9%로 남성 21.7%에 비해 현저히 높았음.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동일 집단 내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가 그렇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그림 12] 성차별적 인사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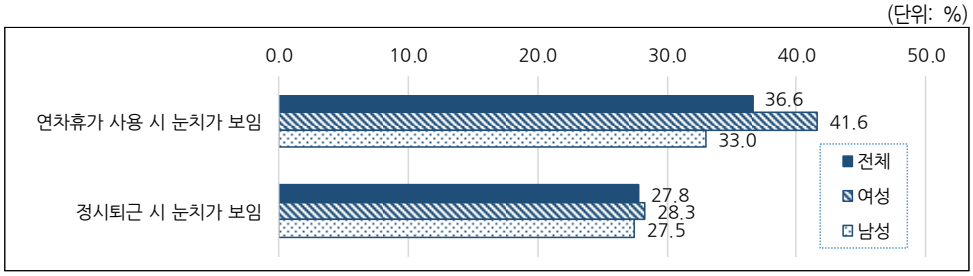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의 합계임.

□ 응답자의 36.6%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인다고 하였으며, 응답자의 27.8%는 정시퇴근 하면 눈치가 보인다고 하였음.

- 연차휴가에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은 여성이 41.6%로 남성(33.0%)에 비해 높았음. 여성은 40대 이하, 남성은 40대 이상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더 눈치를 보았음.
- 정시퇴근하면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의 성별 차이는 거의 없음.

[그림 13] 근로시간 관련 사업장 문화

(단위: %)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의 합계임.

나) 일-생활 균형

□ 취업자 중 출산전후휴가(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는 응답자의 36.9%가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고, 26.8%는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함. 15.2%는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없다, 21.2%는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고 응답함.

- 20대 여성의 36.7%가 직장 내 출산전후휴가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고 응답함.
- 또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휴가이므로 개별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님. 이는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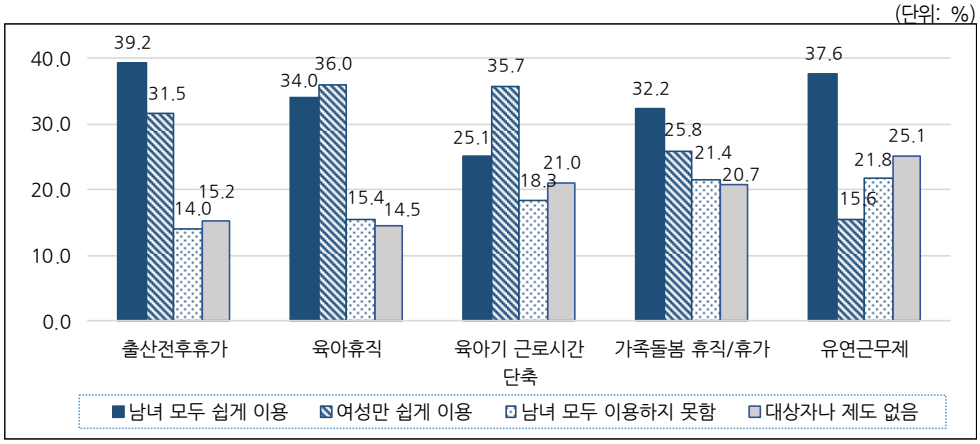
□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4%가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남성이 여성에 비해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높았음. 육아휴직의 경우도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54.9%나 되었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았음.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함.

□ 가족돌봄휴직(휴가)의 경우도 여성은 직장 내 대상자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37.0%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특히 20대 여성이 48.5%로 가장 높았음.

[그림 14]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단위: %)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려움'과 '매우 어려움'의 합계임.

□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도 여성은 직장 내 대상자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38.6%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다른 제도에 비해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남.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어렵다는 응답이 44.8%로 나타남. 여성의 48.1%, 남성의 42.4%가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음. 여성 중에서는 40대 여성이 53.0%로 가장 높았고, 남녀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자녀가 있는 취업자 중 49.3%가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함. 성별 차이는 다른 항목에 비해 크지 않았으나 여성 중에서는 20대~40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률이 높았음. 이는 자녀의 연령과 관계가 있는 것임.

3) 비취업자 관련 실태

□ 비취업자의 지난 1주일간 주된 활동은 가사육아(39.5%),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23.9%), 그냥 쉬었음(23.1%), 통학(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여성의 경우 가사육아가 54.8%로 과반을 차지한 반면, 남성은 구직활동(취업준비)가 41.9%로 현저하게 높았고, 그냥 쉬었음도 3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남녀 모두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 20대의 경우 남녀 모두 통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는 구직활동(취업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60대와 50대 여성은 그냥 쉬었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가사육아가 79.6%로 높게 나타났음. 남성은 30대와 40대가 구직활동(취업준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비취업자 중에서 여성의 88.5%, 남성의 80.8%가 과거 경제활동 경험이 있었음.

□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 둔 주된 이유로는 여성은 자녀 등 가족 돌봄, 임신출산, 결혼의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학업 등 다른 일 준비와 근로조건 문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여성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등 가족 돌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비취업자에게 향후 3년 이내의 경제활동 계획을 질문한 결과 남성은 취업이 68.2%로 여성의 48.2%에 비해 높았음.

- 여성의 경우 프리랜서를 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13~14%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음.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프리랜서가 17.0%로 상대적으로 높았음.
- 향후 3년 이내에 일할 계획이 있을 때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으로는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무시간(26.0%)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라. 차별경험 및 안전

1) 성차별과 외모차별

□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2.5%가 여자답게 또는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42.6%였고,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의 성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33.4%였다.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은 32.7%, 임금(소득)에서의 성차별은 32.3%,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은 31.8%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은 각 29.1%와 28.8%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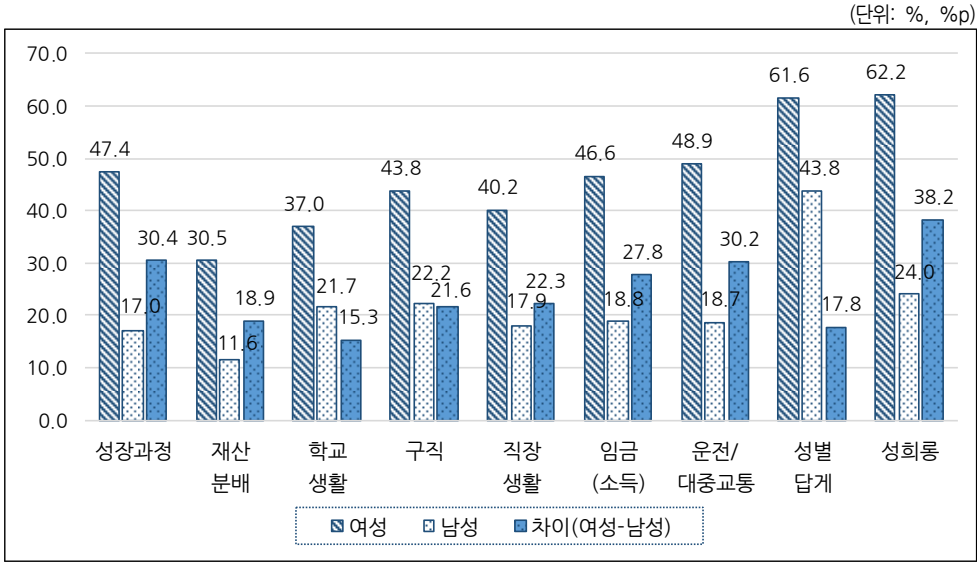
□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성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함.

- 성차별 경험에 있어서 가장 성별 경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성희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38.2%p 높았음.

-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은 30.4%p,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의 성차별은 30.2%p, 임금(소득)에서의 성차별은 27.8%p의 성별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음.

[그림 15] 성차별 경험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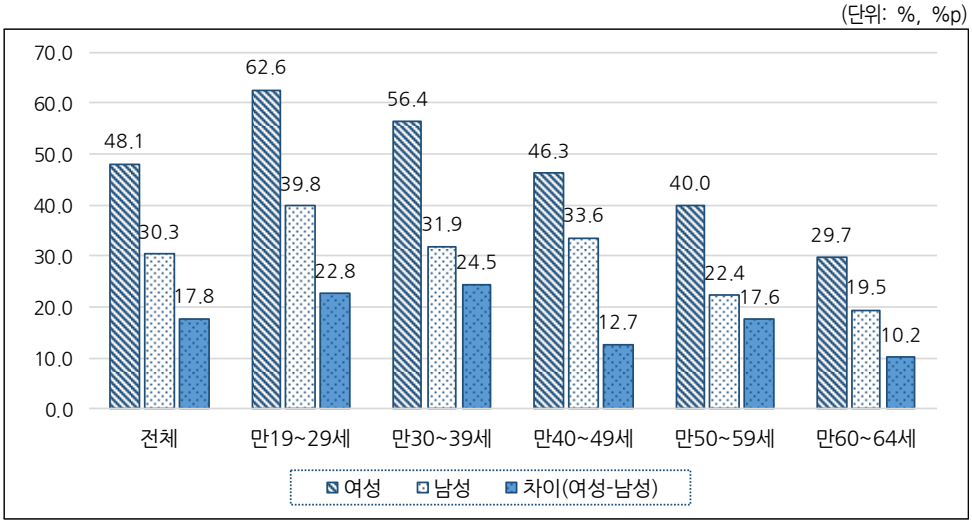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여성은 성장과정, 재산분배에서의 성차별은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이 경험하였으나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 성희롱은 40대 이하에서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음.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차별 경험이 적었으며, 학교생활이나 남성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은 40대 이하에서 더 많이 경험하였고 여성에 비해 차별 경험의 연령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았음.

□ 외모로 인한 차별과 관련하여 외모 지적 및 비하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38.9%, 실제로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0%였음.

- 외모 지적 및 비하 발언을 들은 경험과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여성이 각 48.1%와 26.4%로 남성의 30.3%와 14.0%에 비해 높았음.
- 남녀모두 20대 이하에서 외모에 대한 지적 및 비하발언을 들은 경험이 가장 높았고(여성 62.6%, 남성 39.8%),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경험은 감소하는 추세임.

[그림 16] 외모 지적 및 비하발언을 들은 경험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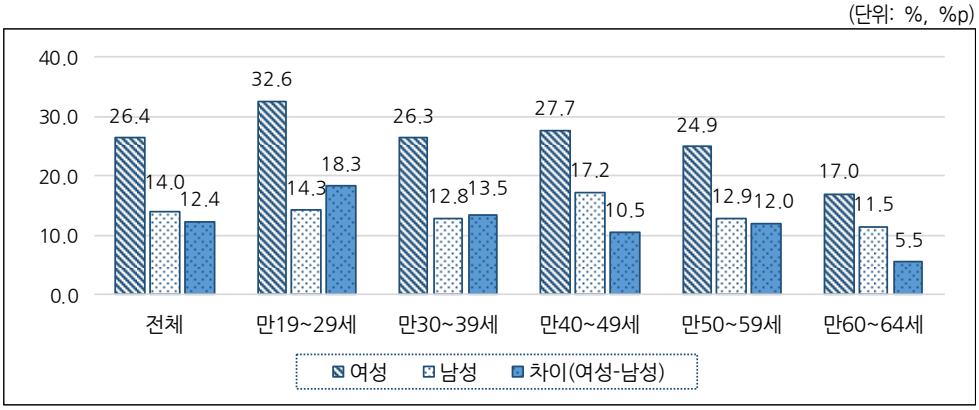


□ 여성이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음.

-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한 상황은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과정에서가 58.2%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직장 또는 학교에서가 51.0%로 가장 높았음.

[그림 17]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음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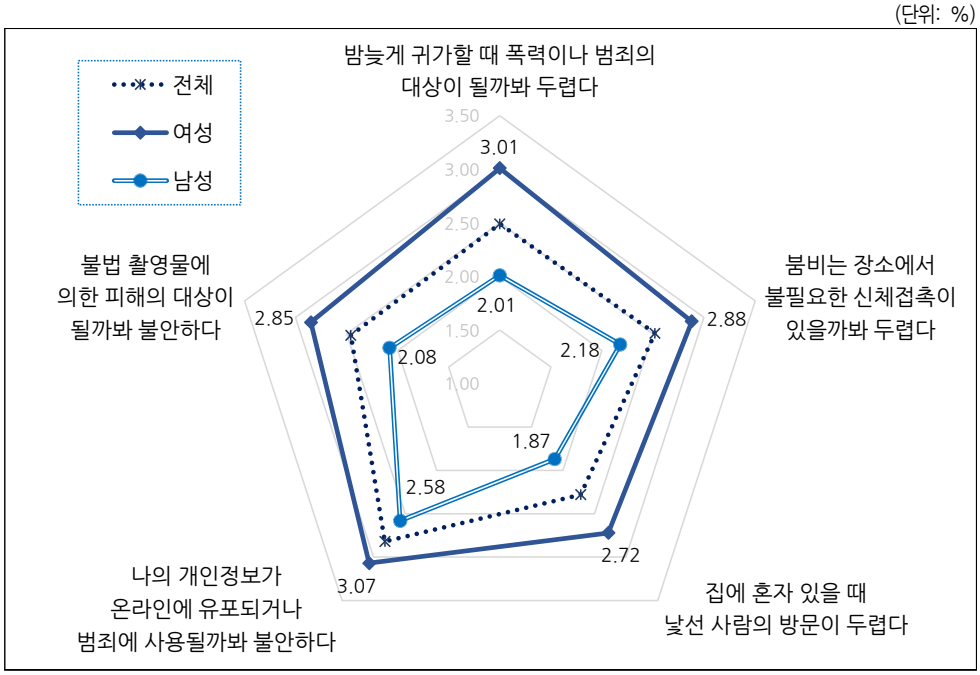
2) 안전 관련 불안 및 행동

□ 안전 관련 두려움 및 불안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불안과 두려움 가짐.

- 여성들이 가장 큰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죄에 사용되는 것(82.6%)이었고 밤늦게 귀가 시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82.8%) 또한 높았음.
- 남성들은 개인정보의 온라인 유포 및 범죄사용만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58.0%였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은 응답을 나타냄
- 두려움이나 불안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응답차이가 큰 항목은 밤늦게 귀가할 때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58.9%p 높았음.
-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높았고,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불안과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음.

[그림 18] 안전 관련 두려움 및 불안

(단위: %)



주: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을 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바로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을 때와 관련해서는 남녀 모두 관계기관에 알린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관계기관에 알린다는 응답이 높았고 남성들은 모든 문항에서 '관여하지 않는다'와 '직접 나서서 말린다'를 많이 선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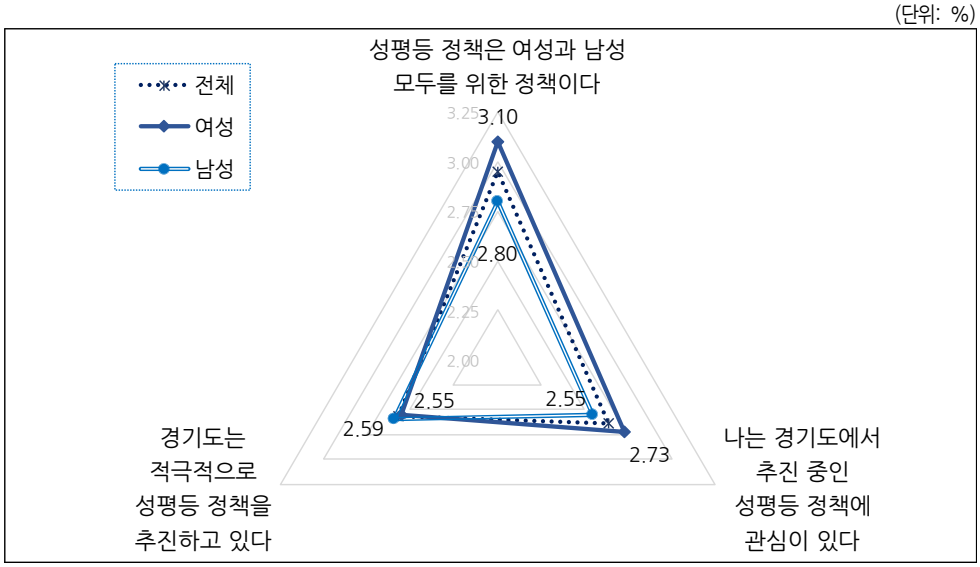
마. 성평등 정책

1)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과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음. 그러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약간 더 동의하고 있음.

[그림 19]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견

(단위: %)



주: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여성의 85.6%, 남성의 70.4%가 동의함.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었으나 남성들은 연령별로 응답차이가 매우 컸음.

- 40대 이하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0% 선이었으나 50대는 80.2%, 60대는 90.5%로 매우 높았음.
-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성평등 수용의 응답과 유사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음.

□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에 대해서는 여성의 65.5%와 남성의 56.6%가 동의함.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10.6%)이 여성(3.1%)보다 높았음.

- 남녀 모두 60대에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은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높았음.

□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와 관련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냄. 남성의 41.2% 여성의 32.2%가 동의함.

- 여성들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긍정 또는 부정의 반응보다는 모르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남성들은 긍정적 응답이 높았음.
- 자녀유무별로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음. 이것이 연령효과인지, 자녀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함.

□ 응답자들은 대체로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었으나 정책에 대한 관심은 정책에 대한 동의 보다는 낮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더욱 낮았음.

- 남성들이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모두가 여성에 비해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에 비해서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성평등 의식이 낮고, 성평등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욕구도 적어서 오히려 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여성에 비해 호의적일 수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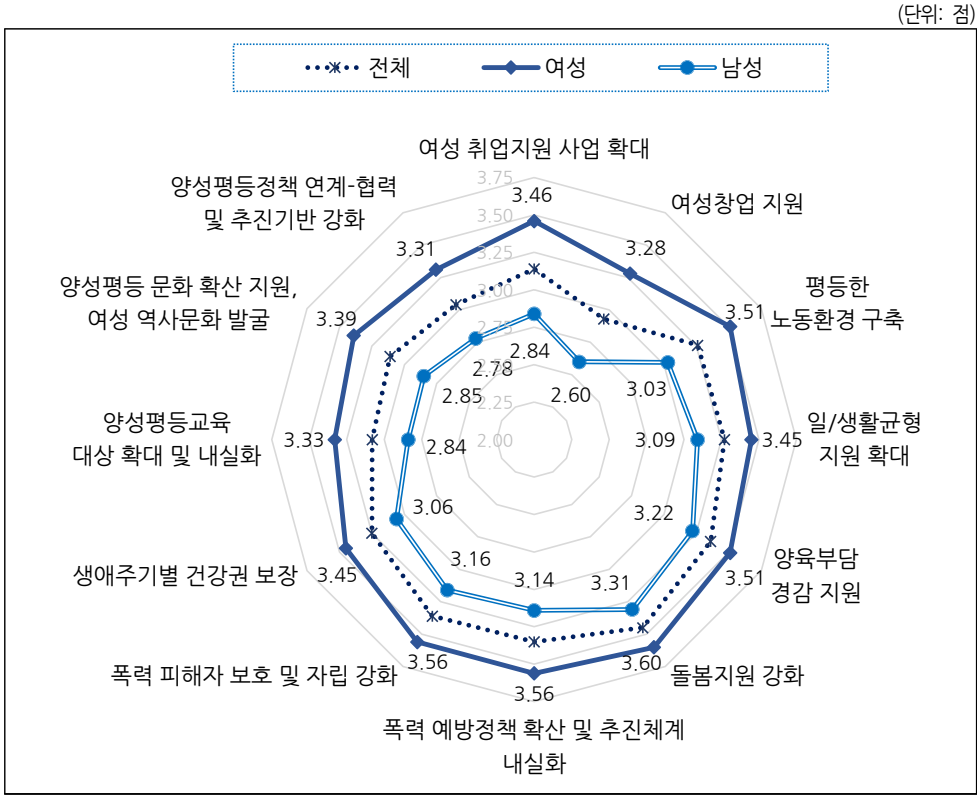
2)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

□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정책별 중요도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책별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음.

-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지원 강화 정책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여성 창업 지원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음.
- 여성들은 영역별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거나 90% 수준에 육박함.
- 반면 남성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정책 분야는 돌봄지원 강화로 88.2%였고, 중요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았던 정책은 여성창업지원으로 60.5%였음.

[그림 20]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

(단위: 점)



주: '전혀 중요하지 않음=1' ~ '매우 중요함=4'의 평균임.

□ 여성들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들이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남성

들은 여성 일자리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이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책추진기반 강화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지 않아 성별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남. 반면 자녀양육 및 돌봄, 안전과 건강권 등과 관련해서는 남성들도 정책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여 정책의 중요도에 있어서 성별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음.

□ 연령별로는 여성들은 다른 정책영역들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20대 이하에서 정책들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성들은 60대가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30대 이하의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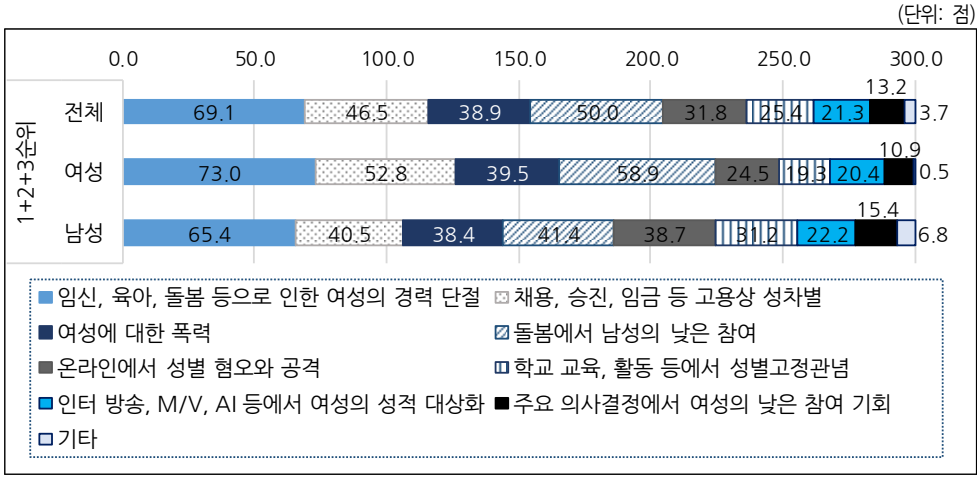
□ 자녀유무에 따라서도 남성들에 있어서 자녀 유무에 따른 응답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정책의 중요도를 높이 인식하고 있었음.

3)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1순위, 1순위+2순위에서 응답자들이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임신,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었음.

[그림 21]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1+2+3순위)

(단위: 점)



□ 1순위 응답에서는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나타내었으나 1~ 3순위 통합 결과에서는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가 두 번째로 많

이 응답한 항목이었으며, 특히 여성의 응답이 높았음(여성 58.9%, 남성 41.4%).

□ 여성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 학교 교육 및 활동 등에서의 성별고정관념과 같이 자녀 양육의 문제와 연결된 이슈들에 대한 응답이 높았음.

□ 남성은 자녀가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 학교 교육 및 활동 등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더 높았음.

4. 시사점 및 정책제언

가. 시사점

1) 성별, 세대별 인식격차

□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 의식과 관련 경험 및 정책관심사 등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

- 남성들은 여성들과 비교하여 모든 영역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음. 특히 남성의 적대적 차별주의 태도가 높은 것은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부분임. 실제로도 응답자들은 젠더갈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음.
-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이나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은 여성이 남성보다 매우 높았고,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에서도 여성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두드러지게 높음.
- 남성은 현재도 10년 후 미래에도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다거나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아서 성평등과 관련한 현실 인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냄. 성별 인식과 경험의 차이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도 영향을 미침.

□ 성차뿐 아니라 세대 간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 태도 또한 분명하게 증가함.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의 성평등 의식에는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하여 세대 간 이해와

인식격차 해소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 20~30대 남성들은 이후 연령대 남성들에 비해 우리 사회가 평등하거나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이는 성평등정책과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20~30대 남성들의 거부감을 반영하는 것인 동시에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 심화되는 젠더 갈등을 반영하는 것임.

2) 변화하는 인식, 변하지 않는 성역할

□ 전반적으로 성평등 가치에 대한 인정과 성평등 실천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성평등 의제의 지속과 함께 이제는 성평등이 하나의 도덕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실질적인 성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함.

□ 응답자의 대다수가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였지만, 유배우자의 경우 부부간에 여전히 전통적인 성역할 분업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었음.

□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문항은 성별 응답 차이도 적고 문항에 대한 동의율도 낮은 편이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는 응답은 고정관념 및 차별주의 관련 문항 중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하여 새로운 가치와 기존의 가치가 일치되지 못하고 혼재하는 양상임.

□ 성평등 가치의 인정과 관심, 실천 간의 괴리는 향후 성평등 이슈의 확산 노력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임.

3) 자녀유무 및 자녀 성별에 따른 인식격차

□ 자녀 유무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의 성역할 인식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들이 있음.

□ 조사 결과, 여성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보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중요도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아들만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딸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보수적인 가치

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성평등 수준을 딸만 있는 사람들에 비해 높게 보고 있었음.

□ 남성들은 자녀 유무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과 성평등 수용이 여성들만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음. 그러나 성평등 정책의 의미와 관심, 정책별 중요도에 있어서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동의와 중요성 인식이 뚜렷하게 높았음.

□ 이는 자녀의 존재와 자녀의 성별이 일정부분 부모의 가치관이나 젠더이슈 등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함.

4)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직간접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주지의 사실임. 조사결과 경기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가사 및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고, 취업한 경우에도 남성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사업체의 조직문화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성별직종(업종)분리,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임신·출산에 따른 퇴사강요,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 및 불이익 등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조직문화가 여전히 존재하였음. 이에 경기도민들은 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성차별 문제를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음.

5)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과 체감도

□ 조사 결과를 통해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 중 하나는 응답자들의 성평등 가치에 대한 동의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동의에 비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것임.

□ 20~30대 여성들은 성평등 의식이 높고, 성평등 관련 이슈와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민감

도 또한 높은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모르겠다고 하거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이는 적극적 성평등 정책의 추진과 성평등 정책 추진에 따른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임.

□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여성의 34.8%, 남성의 48.1%만이 경기도가 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향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과 홍보에 있어서 역시 시사점을 남기는 부분임.

나. 정책제언

1) 젠더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 전체응답자의 80.1%가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심각성의 인식은 30대 이하에서 보다 두드러짐.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젠더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청년세대의 젠더갈등이 가장 두드러지는 만큼 청년 중심의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미래사회의 성평등한 시민역량강화를 모색해야 함.
- 노년층과 청년층의 성평등 의식의 격차 또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노년 대상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해야 함
- 자녀의 성별이 부모의 성평등 의식 등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영유아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서도 성인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젠더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함.

- 젠더폭력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심도 있게 정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제안된 정책제언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의 확립이 요구됨.
-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을 확보하고 젠더폭력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또한 필요함.

2) 돌봄 이슈의 확장 및 지원 강화

□ 기존의 돌봄 지원 정책들을 강화하되 돌봄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과 성평등한 돌봄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 양육부담 경감과 돌봄지원 강화는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을 완화하여 여성들의 사회적 기회를 확대나 돌봄으로 인한 일-생활균형의 어려움 해소에 의미가 있음.
- 남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기획이 필요하며, 성평등한 돌봄참여의 의미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함.

□ 현재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돌봄지원 정책은 대부분 자녀돌봄에 한정된 경우가 많으나 노인 장애인을 포함하는 다양한 돌봄으로 정책 이슈의 확산이 필요함.

- 다양한 돌봄에 있어서 돌봄 대상자 뿐 아니라 돌봄자들의 젠더이슈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돌봄의 질과 다양한 돌봄의 욕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있는 돌봄노동 시장의 개선이 필요함.

3) 성평등한 노동시장 환경 구축 지원

□ 경기도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의 성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경기도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으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들이 성 평등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이 때 무엇보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요구됨.
- 현재 법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은 물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 돌봄휴직(휴가)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해 적극적 홍보가 요구됨.

□ 또한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지원 사업 등 경제활동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가 필요함.

- 노동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성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4) 정책홍보 강화

□ 조사 참여자들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양성평등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나, 정작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아 적극적 정책홍보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적극적인 정책 추진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도민들이 관심과 공감대를 가지게 하는 것 또한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필수 요소임

□ 본 조사에서 나타난 성별과 세대별 인식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정책홍보 노력이 요구됨.

5) 정기적인 조사 실시

□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는 2~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다음 조사 시에는 현재의 조사 추진 상에서 드러난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온라인 조사로 추진될 경우 조사 참여자의 학력과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함. 해석상의 여지가 있는 일부 문항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 지역별 특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내용 및 방법 ····· 5
   가. 연구내용 ····· 5
   나. 연구방법 ····· 5
   다. 분석방법 ····· 6
3. 연구절차 ····· 7

제2장 정책 환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성평등 정책 환경 분석 ····· 11
   가. 중앙정부 ····· 11
   나. 경기도 ····· 14
2. 선행연구 및 조사 현황 ····· 19
   가. 연구동향 ····· 19
   나. 조사현황 및 주요 내용 ····· 21

제3장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1. 조사개요 ····· 33
2. 조사결과 ····· 35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35
   나.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 39
   다. 가족가치 및 가족생활 ····· 103

라. 경제활동 ····· 147
마. 차별과 안전 ····· 180
바. 성평등 정책 ····· 199
사.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성평등 의식 ····· 221

제4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주요결과 요약 및 논의 ····· 233
가. 주요결과 요약 ····· 233
나. 시사점 ····· 247
2. 정책제언 ····· 253
가. 젠더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 253
나. 돌봄 이슈의 확장 및 지원 강화 ····· 254
다. 성 평등한 노동시장 환경 구축 지원 ····· 255
라. 정책홍보 강화 ····· 256
마. 정기적인 조사 실시 ····· 257

참고문헌 ····· 259

부 록 ····· 261

표 목 차

[표 1-1] 자문회의 현황 ····· 6

[표 2-1] 1~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 11
[표 2-2] 1~2차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 14
[표 2-3] 지역별 성평등지수 수준(통계생산 연도 기준) ····· 16
[표 2-4] 경기도 연도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2015-2020, 통계생산 연도 기준) ····· 16
[표 2-5] 성평등 의식 관련 연구 및 조사 현황 ····· 20
[표 2-6] 성평등 의식 관련 연구 및 조사의 주요 내용 ····· 21
[표 2-7] 주요 조사에 포함된 성평등 의식 관련 문항 ····· 29

[표 3-1] 조사 개요 ····· 33
[표 3-2] 조사 내용 ····· 34
[표 3-3] 응답자 특성 ····· 35
[표 3-4]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 42
[표 3-5]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 43
[표 3-6]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 45
[표 3-7]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 ····· 46
[표 3-8]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 49
[표 3-9]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 50
[표 3-10]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 52
[표 3-11]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 53
[표 3-12]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 56
[표 3-13]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 57
[표 3-14]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 60
[표 3-15]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 61

[표 3-16]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 63
[표 3-17]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 64
[표 3-18]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인 좋다 ····· 68
[표 3-19]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 69
[표 3-20]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 71
[표 3-21]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 72
[표 3-22]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 74
[표 3-23]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 78
[표 3-24]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 79
[표 3-25] 여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 81
[표 3-26] 남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 82
[표 3-27]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 84
[표 3-28]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교육 ····· 88
[표 3-29]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 ····· 89
[표 3-30]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취업(일자리) ····· 91
[표 3-31]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승진(관리직 진출) ····· 93
[표 3-32]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임금(소득) ····· 95
[표 3-33]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정치참여 ····· 96
[표 3-34]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 99
[표 3-35] 향후 10년 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 101
[표 3-36] 미혼(비혼)자의 결혼의사(응답자특성(1)) ····· 104
[표 3-37]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순위) ····· 106
[표 3-38]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2순위) ····· 108
[표 3-39] 자녀를 가질 의사 ····· 110
[표 3-40]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1순위) ····· 112
[표 3-41]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1+2순위) ····· 114
[표 3-42] 유배우자의 응답자 특성 ····· 116
[표 3-43] 부부간 의사결정: 자녀교육 ····· 118
[표 3-44] 부부간 의사결정: 투자와 자산관리 ····· 119

[표 3-45] 부부간 의사결정: 생활비 지출 ····· 121
[표 3-46] 부부간 의사결정: 취업, 직장 이동 ····· 122
[표 3-47] 부부간 의사결정: 가사 등 집안 일 ····· 124
[표 3-48] 부부간 의사결정: 가족 여가 ····· 125
[표 3-49] 부부간 의사결정: 내 부모 돌봄 ····· 127
[표 3-50] 부부간 의사결정: 배우자 부모 돌봄 ····· 128
[표 3-51] 부부간 역할 수행: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 ····· 131
[표 3-52] 부부간 역할 수행: 자녀 양육과 교육 ····· 132
[표 3-53] 부부간 역할 수행: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 134
[표 3-54] 부부간 역할 수행: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 135
[표 3-55] 부부간 역할 수행: 가계관리(각종 요금 납부, 생활비 관리, 저축 등) ····· 136
[표 3-56]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 ····· 139
[표 3-57]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자녀 양육과 교육 ····· 140
[표 3-58]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 141
[표 3-59]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 142
[표 3-60]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가계관리 ····· 143
[표 3-61]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평등 수준 ····· 146
[표 3-62] 취업자 특성 ····· 148
[표 3-63] 성차별적 인사관행: 직원 채용 시 남성 선호 ····· 151
[표 3-64] 성차별적 인사관행: 남성 업무와 여성 업무가 따로 있음 ····· 152
[표 3-65] 성차별적 인사관행: 여성의 특정 직급·직위 이상 승진의 암묵적 제한 있음 ····· 153
[표 3-66] 성차별적 인사관행: 외부 손님 방문 및 회의 준비 시 주로 여자 직원이 다과 준비 ·· 155
[표 3-67] 성차별적 인사관행: 임신, 출산 시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음 ····· 156
[표 3-68] 성차별적 인사관행: 육아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 있음 ····· 157
[표 3-69] 성차별적 인사관행: 연차휴가 사용 시 눈치가 보임 ····· 159
[표 3-70] 성차별적 인사관행: 정시퇴근 시 눈치가 보임 ····· 160
[표 3-71]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 출산전후휴가 ····· 163
[표 3-72]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 육아휴직 ····· 165
[표 3-73]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167

[표 3-74]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 가족돌봄 휴직/휴가 ····· 169
[표 3-75]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 유연근무제 ····· 170
[표 3-76] 일과 가사 병행의 어려움 ····· 172
[표 3-77]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 ····· 173
[표 3-78] 비취업자 하는 일 ····· 174
[표 3-79] 경제활동 여부 및 일을 그만둔 이유 ····· 176
[표 3-80] 비취업자의 향후 3년 이내 일할 계획 ····· 177
[표 3-81] 비취업자의 향후 직업 선택 시 중요한 요건 ····· 179
[표 3-82] 성차별 경험 ····· 181
[표 3-83]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 ····· 184
[표 3-84] 밤늦게 귀가할 때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려움 ····· 187
[표 3-85] 붐비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을까봐 두려움 ····· 188
[표 3-86]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택배, 수리기사 등)의 방문 두려움 ····· 189
[표 3-87] 나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죄에 사용될까봐 불안함 ····· 190
[표 3-88] 불법 촬영물에 의한 피해의 대상이 될까 불안함 ····· 191
[표 3-89] 폭력 및 범죄 상황에서 행동: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성추행 장면 목격 ····· 194
[표 3-90] 폭력 및 범죄 상황에서 행동: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장면 목격 ·· 195
[표 3-91] 폭력 및 범죄 상황에서 행동: 바로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 ····· 196
[표 3-92] 폭력 및 범죄 상황에서 행동: 직장, 학교 등에서 성적 불쾌감 일으키는 말과 행동 목격 ·· 197
[표 3-93]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 201
[표 3-94]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나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 ·· 202
[표 3-95]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04
[표 3-96]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1) ····· 208
[표 3-97]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2) ····· 209
[표 3-98]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3) ····· 211
[표 3-99]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4) ····· 212
[표 3-100]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1순위) ····· 216
[표 3-101]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1+2순위) ····· 218
[표 3-102]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1+2+3순위) ····· 219

[표 3-103]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성역할 고정관념 ····· 222
[표 3-104]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남성의 지위변화 수용과 성차별주의 태도 ··· 223
[표 3-105]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성역할 변화 수용 및 성평등 실천 ····· 224
[표 3-106]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성별 갈등, 폭력, 혐오 등의 심각성 인식 ··· 225
[표 3-107]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성평등 수준 인식 ····· 226
[표 3-108]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 227
[표 3-109]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경기도 성평등 정책 중요도 인식(1) ···· 228
[표 3-110]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경기도 성평등 정책 중요도 인식(2) ···· 229

그 림 목 차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 7

[그림 2-1]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생각 ····· 17
[그림 2-2] 남녀 역할에 대한 생각(2021) ····· 18
[그림 2-3] 남녀 역할에 대한 생각(2022) ····· 19

[그림 3-1] 성역할 고정관념 ····· 40
[그림 3-2]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 47
[그림 3-3]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 54
[그림 3-4]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한 동의 ····· 58
[그림 3-5] 성차별주의 ····· 65
[그림 3-6] 성평등 수용(평균) ····· 66
[그림 3-7] 성평등 수용(성별 차이) ····· 75
[그림 3-8]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평균) ····· 76
[그림 3-9]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성별 차이) ····· 85
[그림 3-10] 분야별 성평등 수준 인식 ····· 86
[그림 3-11] 우리 사회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1) ····· 97
[그림 3-12] 우리 사회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2) ····· 98
[그림 3-13]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 102
[그림 3-14] 미혼(비혼)자 결혼 의사 ····· 103
[그림 3-15]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순위) ····· 105
[그림 3-16]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2순위) ····· 107
[그림 3-17] 자녀를 가질 의사 ····· 109
[그림 3-18] 자녀를 가질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순위) ····· 111
[그림 3-19] 자녀를 가질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2순위) ····· 113

[그림 3-20] 부부간 의사결정 ····· 129
[그림 3-21] 부부간 역할수행 ····· 137
[그림 3-22]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 144
[그림 3-23]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평등 수준 ····· 145
[그림 3-24] 성차별적 인사관행 ····· 149
[그림 3-25] 근로시간 관련 사업장 문화 ····· 158
[그림 3-26]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 162
[그림 3-27] 일과 가사 및 자녀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 ····· 171
[그림 3-28] 비취업자의 향후 일할 계획 및 직업 선택의 요건 ····· 178
[그림 3-29] 성차별 경험 ····· 182
[그림 3-30] 외모 지적 및 비하발언을 들은 경험 ····· 183
[그림 3-31]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음 ····· 185
[그림 3-32]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한 상황 ····· 185
[그림 3-33] 안전 관련 두려움 및 불안 ····· 186
[그림 3-34] 폭력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 192
[그림 3-35] 폭력 및 범죄 상황에서의 행동 ····· 198
[그림 3-36]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 199
[그림 3-37] 성평등 정책에 대한 동의(성별 차이) ····· 205
[그림 3-38]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 ····· 206
[그림 3-39]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성별 차이) ····· 214
[그림 3-40]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 220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절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14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5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정책의 패러다임 또한 여성발전(Women in Development)에서 성평등(Gender Equality)으로 변화하였다. 「양성평등기본법」 제 3조,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 2조에 따르면 성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중앙정부는 5년 주기로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23년은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이 시행되는 첫 해이다. 새로이 수립된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은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를 비전으로,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기존 「제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서 이미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를 보장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 남녀평등 의식 함양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제를 포함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하면서 지난 5년간 양성평등 문화가 크게 확산되었으나 우리 사회 양성평등 수준을 둘러싼 인식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 양성평등 수준에 대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성별 인식격차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고(여성가족부, 2023) 이러한 문제의식이 3차 계획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10조에 근거하여 5년 주기로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의 주요 근거자료로서도 활용되고 있다. 가장 최근의 조사는 2021년에 수행되었다.

조사결과 201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남녀 모두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이라는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크게 완화되었으나 여성에 비해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의 생계부양책임, 직업의 성별분리 인식이 강한 경향이 있었다. 사회 전반 성평등 수준에 대해 여성 65.4%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27.8%가 '남녀평등하다'고 응답한데 반해, 남성은 41.4%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 41.7%가 '남녀평등하다'고 응답하여 성별 차이가 있었다. 영역별 성평등 수준의 경우, 모든 영역의 평균이 음(-)의 값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에게 가장 불평등한 것으로 인식된 영역은 돌봄 책임 분담(-1.26점)(-4점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0점이 남녀평등, 4점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

함)이었다. ‘남성은 생계부양, 여성은 자녀양육’ 이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됐으나 여성이 가사·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였고, 남녀 모두 ‘여성폭력이 심각하다’ 에 동의 비율 높고 청년층은 온라인에서의 성희롱, 성차별 등 문제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경기도 또한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에 발맞추어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를 추진하였다(임혜경 외, 2022).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수립 연구」에서도 정책환경 분석을 통해 정치권과 언론을 통해 양산되고 있는 세대 간 격차와 청년 세대 젠더 인식 격차가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과 요구는 세대와 성별에 따라 다르고, 언론과 정치의 장에서 보다 갈등 양상으로 발현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연구에서는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추진기반 강화’ 를 제안하였다. 젠더인식 격차 해소 등 세대별, 성별 양성평등에 대한 고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관련 정책추진 기반과 역량을 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경기도의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추진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 및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도민의 성평등 인식의 흐름과 현황을 파악하고, 성평등 정책 추진의 성과를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을 조사한 연구는 정형옥·신경아(2016)의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가 있다. 조사 결과 경기도민들은 아직도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지 않고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 불평등 51.6%, 남녀평등한 편 44.9%, 남성 불평등 3.5%). 연구자들은 여성 도민들은 남성 대비 사회의 각 분야에서 차별받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여성 역량강화를 통해 성별 격차를 줄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20대의 경우 성별 차이 및 다른 세대와의 인식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문항에서 20대 여성과 50대 남성의 인식차이가 가장 컸다. 성별 인식차이도 다른 어떤 세대보다 20대 안에서 크게 나타나 향후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성별차이와 세대별 차이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형옥·신경아(2016)의 연구 이후 경기도 차원의 도민 성평등 의식조사는 연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

경기도민들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성평등 정책 수립과 성과평가

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그동안 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여러 연구들에서 성역할고정관념 등을 측정해 왔으나 측정 지표 및 척도가 동일하지 않아서 자료의 비교와 축적에 한계가 있었다. 전국단위로 추진되는 양성평등실태조사의 경우 5년 주기로 시행될 뿐 아니라 경기도민의 특성을 면밀하게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성평등의식 및 실태, 그와 관련한 다양한 가치들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성별, 세대별 차이도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기적인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를 추진하여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 현황과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평등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일관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 ○ 성평등 정책현황 분석
- ○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 관련 선행연구 분석
- ○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문항 개발
- ○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결과 분석
- ○ 조사결과 논의 및 제언

나. 연구방법

1) 성평등 정책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중앙 및 경기도 성평등 정책현황을 검토하여 성평등 정책의 방향성과 주요 논의 사항을 정리하여 설문지 개발 시 중요한 기준점으로 삼고자 하였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타 지자체의 성평등 의식·실태 관련 기존 조사 및 연구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문항 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설문조사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남녀 2,000명을 대상(2016명 참여)으로 하였으며 2023년 5월 12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26일 동안 조사가 실시되었다.

3) 전문가 자문

조사문항 개발과 정책제언 발굴을 위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조사의 방향과 조사문항의 검토를 위해 2회의 자문회의와 1회의 서면자문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완료 후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책방향의 검토 및 제안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였다.

[표 1-1] 자문회의 현황

구분	목적	일자	참석자	외부	내부	연구진
전문가 자문회의	조사방향 및 내용 검토	2023.03.20. 14:00~16:00	5	2	-	3
		2023.03.28. 14:00~15:30	7	-	4	3
	정책방향 및 정책제안	2023.07.00. 14:00~16:00	6	-	-	3
전문가 서면자문	조사문항 세부검토	2023.04.07.~2023.04.13.	6	6	-	-

다. 분석방법

성별을 기본 변수로 하고 연령과 지역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자녀유무, 맞벌이여부, 사업체 특성 등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특성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했다. 패널조사의 특성 상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아 해당 특성은 분석에 활용하지 않았다. 모든 분석은 지역과 성별, 연령별 모집단 비율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하였다.

3. 연구절차

연구의 수행 절차는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그림 1-1] 연구수행 절차

Ⅱ

정책 환경 및 선행연구 분석

1. 성평등 정책 환경 분석
2. 선행연구 및 조사 현황

1. 성평등 정책 환경 분석

가. 중앙정부

1) 양성평등기본계획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의 잔여기간 동안의 계획을 「제1차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2015~2017)」으로 수정 및 보완하였고 이후 5년 주기로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그간의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주요 과제는 [표 2-1]과 같다.

세부내용에서 시기별로 내용과 중점 추진 과제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양성평등한 문화 확산, 노동환경, 폭력대응, 건강권, 정책추진 기반 강화 등이 지속적 과제로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양성평등 문화 확산은 국민의 성평등 의식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다른 과제들 또한 국민과 정책추진체계 및 실행자들의 성평등 의식을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다.

[표 2-1] 1~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구분	비전	정책목표	대과제	중과제
제1차 (2015 ~ 2017)	여성·남성이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	• 성별 격차 해소 • 일과 가정의 조화 • 차이와 인권 존중	1. 양성평등 문화 확산	1-1. 교육에서 양성평등 강화 1-2. 미디어와 문화·예술분야 양성평등 환경 조성 1-3. 생활 속 양성평등 실천차이와 인권 존중
			2. 일·가정 양립 확산	2-1.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2-2. 일·가정 양립 제도의 실효성 제고 2-3. 자녀 돌봄에 대한 지원 강화
			3. 고용 격차 해소	3-1.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 확대 3-2. 일자리에서 성차별 개선 3-3. 생애주기별 고용 활성화
			4.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4-1.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4-2.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 참여 활성화 4-3. 국제사회의 양성평등 실현 노력에 주도적 참여
			5.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5-1.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근절 5-2.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 내실화 5-3. 가해자 처벌과 재범방지의 실효성 제고 5-4.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6. 건강과 복지 증진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2. 맞춤형 복지 지원 강화
			7.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7-1.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정비 7-2. 양성평등 정책 추진역량 강화 7-3.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 내실화

구분	비전	정책목표	대과제	중과제
제2차 (2018 ~ 2022)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 가능한 민주사회	•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함양 • 여성의 고용과 사회참여 평등 • 일과 생활의 균형 • 여성 안전과 건강증진	1.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1-1.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1-2.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1-3.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1-4. 양성평등 시민교육의 실효성 제고
			2.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2-1. 고용 기회의 평등성 제고 2-2. 고용현장의 성차별 개선 2-3. 노동시장 내 여성의 지위 개선 2-4. 여성의 경력유지·개발지원
			3.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3-1. 정치·공공분야 여성 대표성 제고 3-2. 민간기업 등의 여성 대표성 제고 3-3. 여성 리더십 역량 강화
			4.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4-1. 돌봄의 사회적 책임 강화 4-2. 근로자의 모·부성권 보장 4-3. 기업의 가족친화경영 확산
			5.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 증진	5-1. 여성폭력 근절정책 추진기반 강화 5-2. 다양한 여성폭력 대응력 제고 5-3.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5-4. 성인지적 건강 증진 기반 강화
			6.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	6-1. 성주류화정책 추진기반 정비 6-2. 성인지적 정책 역량 강화 6-3. 시민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강화 6-4. 평화·통일 활동 및 국제협력 증진
제3차 (2023 ~ 2027)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 안전과 건강권 증진 • 양성평등 기반 확산	1.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1-1. 양성평등한 일자리 기반 구축 1-2.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1-3. 일·생활 균형 지원 강화
			2. 모두를 위한 돌봄 안전망 구축	2-1. 아동 돌봄 지원 강화 2-2. 양질의 성인 돌봄 서비스 증진 2-3.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및 역량강화
			3. 폭력 피해 지원 및 성인지적 건강권 보장	3-1. 피해자의 법·제도적 권리 보장 3-2. 성별 기반 폭력 대응 강화 3-3. 성인지적 건강정책 강화
			4. 남녀가 상생하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4-1. 양성평등한 성장 환경 조성 4-2.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4-3. 성별 대표성 제고
			5. 양성평등 정책 기반 강화	5-1.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5-2. 성 주류화 추진 역량 제고

2) 양성평등실태조사

여성가족부는 2022년 4월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민들은 한국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이 5년 전보다는 개선되었지만, 돌봄, 안전 등 분야에서의 양성평등 수준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지난 5년간 양성평등 인식・수준이 대폭 개선되었다.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은 완화되고 직장 내 성차별 관행은 감소하였으며, 일・생활 균형 제도 이용이 확산되었을 뿐 아니라 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성평등한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정 및 직장 내 성역할 고정관념은 청년층에서 더 많이 완화되었다.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 여성이 40.0%, 남성 47.5%인 반면 20대의 경우 여성은 9.6%, 남성 17.5%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60세 이상의 경우 여성의 46.4%, 남성 44.6%가 동의하였으나, 20대는 여성 4.4%, 남성 9.0%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가사・돌봄 분담에 있어서도 20~30대는 반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응답자의 68.9%가 부부간 가사・돌봄을 전적으로 또는 주로 아내가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20대의 경우 여성의 45.3%, 남성의 40.6%가 부부간 가사・돌봄을 아내와 남편이 반반 한다고 응답하였고, 30대는 여성의 32.2%, 남성의 36.7%가 반반이라고 응답하였다.

둘째, 성별에 관계없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의 경력단절, 고용에서의 성차별,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 다양화되고 있는 여성 폭력에 대한 두려움 등을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보고 있었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할 성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1~3순위를 통합하여 살펴본 결과, 여성의 경력단절(여성 73.4%/남성 65.1%), 고용 상 성차별(여성 62.3%/남성 59.9%), 남성의 낮은 돌봄참여(여성 61.3%/남성 51.1%) 순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성범죄, 성적 대상화, 성별 혐오문제와 관련된 문제의식은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높아졌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온라인 성별혐오'를 꼽은 경우는 청소년은 여성의 46.2%, 남성 44.5%였고, 20대는 여성 23.2%, 남성 48.0%였다.

셋째, 자녀에 대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인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봄부담은 여성에게 과중되고 있었다. 더욱이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돌봄의 일차적 책임이 여성에게 있다는 응답은 2016년 조사에서는 53.8%에 달했으나, 2021년 조사에서는 17.4%로 크게 감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 내 돌봄시간은 남성 0.7시간, 여성 1.4시간이었고,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는 평일 돌봄에 여성이 약 3배 더 많은 시간(3.7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를 통해 성평등 인식과 현실의 격차 해소 위해 일과 돌봄의 균형 있는 분배, 모두를 위한 사회적 돌봄 책임 강화, 성평등 가치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나. 경기도

1)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경기도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행정수요도 높은 지역이며 도시, 도농복합, 농촌 등이 공존하고 종사하는 산업과 인구 및 가구 특성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에 따른 성평등 정책 수요와 시군별 정책 추진역량 또한 상이하여 광역시도인 경기도의 역할에 대한 요구도 높다.

이에 중앙정부의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과 연계를 고려하면서 경기도의 성평등 수준 개선과 경기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여 중앙정보의 양성평등 정책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주요 과제는 [표 2-2]와 같다.

노동환경 및 가족생활, 젠더폭력, 사회문화 전반에 있어서 여전히 성차별적이고 불평등한 요소가 존재하므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뿐 아니라 경기도의 기본계획에 있어서도 성평등문화 확산은 주요 정책과제로서 지속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표 2-2] 1~2차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구분	비전	정책목표	대과제	중과제
제1차 (2018 ~ 2022)	생활 속의 성평등, 지속 가능한 경기도	• 성평등한 공동체 구현 • 고용격차 해소 • 일・생활 균형 • 여성 안전과 건강권 보장	1. 성주류화 정책기반 강화	1-1. 여성의 대표성 제고 1-2. 성주류화 정책 추진기반 정비 1-3. 성주류화 정책 내실화 1-4. 성평등한 '新주민 주체' 양성
			2. 성평등 문화 확산	2-1. 생활 속 성평등 문화 확산 2-2. 성평등한 지역사회 생활환경 조성 2-3.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 제고 2-4. 평화와 통일, 국제교류를 통한 성평등 문화 확산
			3.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 보장	3-1. 성평등한 고용 노동정책 추진 3-2. 고용현장 성차별 개선 3-3. 생애주기별, 수요 맞춤형 여성 고용 서비스 지원 강화 3-4.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여성 일자리 확대
			4. 일・생활 균형 기반 구축 및 강화	4-1. 돌봄의 사회적 환경 제고 4-2. 일・생활 균형 사회기반 조성 4-3. 성평등한 가족돌봄과 여성노동자의 자기돌봄권 강화
			5. 젠더폭력 방지 및 여성 건강권 강화	5-1.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5-2. 다양한 젠더 폭력에 대한 대응력 제고 5-3. 젠더폭력 방지 정책 추진기반 강화 5-4. 성평등한 건강 증진 기반 강화 5-5. 생애주기별 여성의 건강권 확보와 강화 5-6. 여성의료취약계층 지원

구분	비전	정책목표	대과제	중과제
제2차 (2023 ~2027)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사회	•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 여성 안전과 평등한 건강권 보장 • 양성평등 기반 확산	1. 성평등한 경제활동 지원 강화	1-1. 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 1-2.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1-3. 고용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2. 일・생활 균형 및 돌봄 지원 강화	2-1.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2-2. 모・부성보호제도 지원 강화 2-3. 다양한 돌봄지원 강화
			3. 여성폭력 방지 및 건강권 강화	3-1. 예방정책 확산 및 추진체계 내실화 3-2. 피해자 보호 및 자립 강화 3-3.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3-4.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보장
			4.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추진기반 강화	4-1.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 4-2.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4-3. 정책 연계-협력체계 강화 4-4. 성주류화를 위한 실질적 기반 마련

임혜경 외(2022)는 성평등 의식과 문화 확산 사업은 대상과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명확한 타깃 집단과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재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정책 영역에서도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정책 체감도와 실효성 또한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2) 지역성평등지수

여성가족부는 매년 지역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경기도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성평등 중상위권 지역으로, 2018년 이후 중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6년간 상위지역에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영역별로는 성평등한 사회참여 영역은 순위가 하락하는 추세이므로 관리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며, 여성의 인권과 복지 영역은 지속적으로 순위가 상승하고 있고, 성평등 의식문화는 하락세를 나타내다가 2021년 다시 반등하였다.

[표 2-3] 지역별 성평등지수 수준(통계생산 연도 기준)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성평등 상위지역	광주	대구	대구	광주	대구	대전
	대전	대전	부산	대구	대전	부산
	부산	전북	서울	대전	부산	서울
	전북	제주	제주	부산	서울	세종
	-	-	-	제주	제주	제주
성평등 중상위지역	강원	광주	경기	경기	경기	경기
	대구	부산	대전	서울	광주	광주
	서울	서울	울산	세종	세종	대구
	제주	인천	충북	인천	울산	울산
성평등 중하위지역	경기	강원	강원	강원	강원	강원
	인천	경기	광주	울산	경남	경남
	전남	울산	인천	전북	인천	인천
	충북	충북	전북	충북	전북	충북
성평등 하위지역	경남	경남	경남	경남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경북	전남	전남
	울산	전남	전남	전남	충북	전북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충남

자료: 주재선 외.(2022): v.

[표 2-4] 경기도 연도별 성평등 수준과 순위(2016-2021, 통계생산 연도 기준)

구분	성평등한 사회참여		여성의 인권복지		성평등 의식문화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016	64.9	7	84.4	12	73.4	5
2017	65.8	9	85.1	10	73.9	6
2018	69.3	7	85.8	8	74.9	5
2019	69.8	7	86.5	9	75.6	7
2020	69.4	9	87.3	7	75.7	7
2021	70.2	9	87.6	4	76.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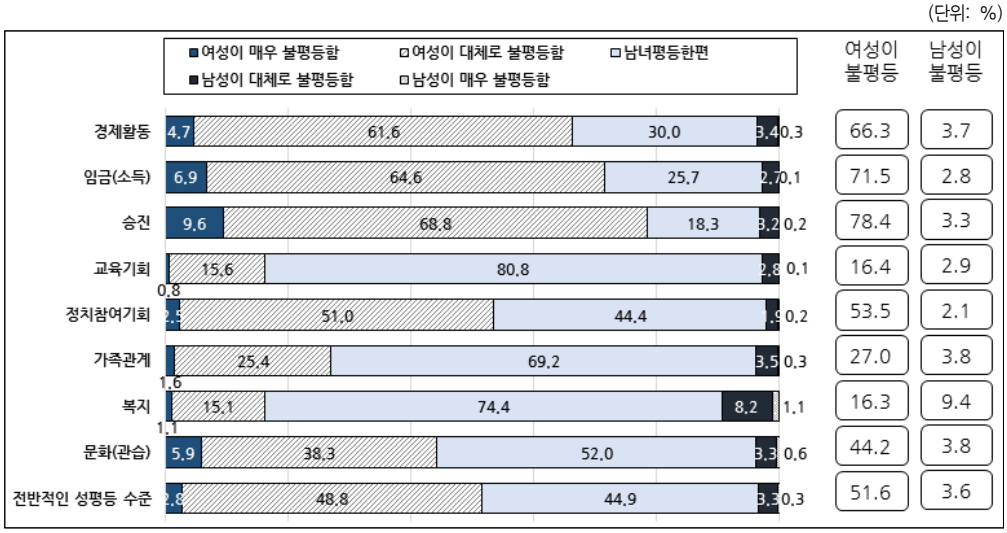
자료: 주재선 외.(2022): 113.

3) 경기도민 대상 관련 조사 결과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는 2016년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조사에서 나타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생각은 [그림 2-1]과 같다(정형옥, 신경아, 2016).

[그림 2-1]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생각

(단위: %)



출처: 정형옥·신경아(2016).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vi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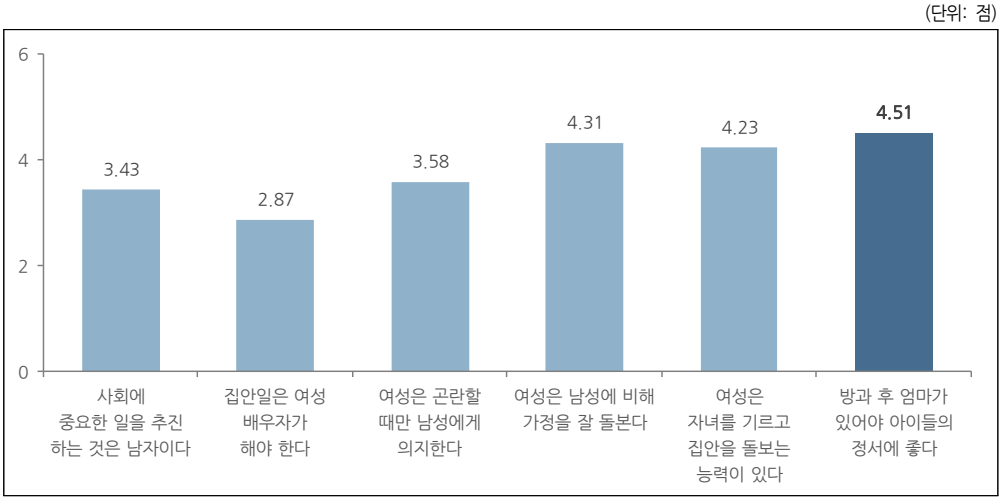
경기도민 중 현재 우리 사회가 남녀평등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4.9%에 불과하였다. 교육기회는 남녀 평등한 편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야였고(80.8%),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승진분야가 78.4%로 가장 높았다. 남성이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복지(9.4%)를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4% 미만 수준이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 성별 차이가 있었으며 연령별 차이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망에 있어서는 74.6%가 현재보다 남녀평등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10년 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변화 수준에 대한 전망 역시 성별, 연령별 차이가 존재하였다.[1)]

1) 중앙정부의 「양성평등실태조사」 결과 지난 5년간 양성평등 인식·수준이 대폭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도 현시점에서 수행한다면 인식의 개선은 뚜렷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후속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인식의 개선 수준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추진하게 되는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조사」는 「양성평등실태조사」와 더불어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의 문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은 여성정책 뿐 아니라 가족정책에서도 중요한 정책이슈인 만큼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 경기도민의 생활변화조사를 중심으로」(정혜원·김미정·노경혜, 2021)와 「경기도민 가족다양성 인식조사」(이나련·정유진, 2022)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2] 두 연구 모두 경기도민의 적대적 성역할 고정관념(사회에서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집안일을 주로 여성 배우자가 해야 한다, 여성들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에 비해 온정적 성역할 고정관념(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방과 후 엄마가 집에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두 연구 모두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정관념이 더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고정관념 또한 높음을 분석하고 있다.

[그림 2-2] 남녀 역할에 대한 생각(2021)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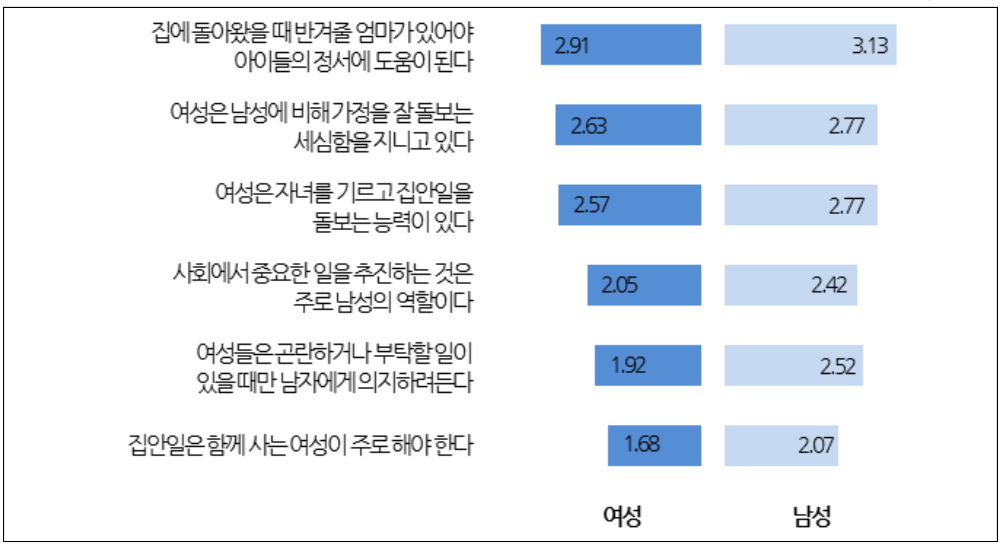
출처: 정혜원·김미정·노경혜(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 경기도민의 생활변화조사를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83

주: '전혀 그렇지 않다'=1 ~ '매우 그렇다'=7의 평균점수임.

2)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 경기도민의 생활변화조사를 중심으로」는 7점 척도, 「경기도민 가족다양성 인식조사」는 4점 척도로 조사를 진행한 점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향후 설문문항 구성 시 척도 사용의 통일성 또한 고려해야 한다.

[그림 2-3] 남녀 역할에 대한 생각(2022)

(단위: 점)



출처: 이나련·정유진(2022). 경기도민의 가족다양성 인식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93
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 ~ '매우 동의한다'=4의 평균점수임.

2. 선행연구 및 조사 현황

가. 연구동향

중앙정부 및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성평등 의식 관련 연구 및 조사 현황은 [표 2-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국가단위 조사로는 양성평등 실태조사가 5년 주기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조사는 2021년에 수행되었으며 아직 원자료는 배포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1999년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를 개발하였고(김양희·정경아, 1999) 2016년과 2019년에는 각각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I)」(안상수 외, 2016)과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II)」(이수연 외, 2019)를 통하여 '한국형성평등의식검사' 개정판을 개발하였다. 개정판 검사는 성평등성, 성차별성 관련 시대 변화를 반영하여 현재에 맞는 성평등과 성차별 개념을 측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이수연 외, 2019).

마경희 외(2019)는 정책개발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과 더불어 성평등사회로의 진전을 위

한 정책에서 남성의 지지와 참여 필요성의 근거자료를 마련하고 남성을 포괄하는 성평등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2018년에는 미투운동,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등을 통해 나타난 한국사회 20대의 성평등 현안에 대한 인식에 주목하여 전화조사로 성평등 현안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성평등 의식 관련 연구로는 「2012년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가 추진된 바 있다. 경기도 이외의 지역에서도 다양하게 성평등 의식과 관련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대부분이 단회성이었으며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은 없었다.

[표 2-5] 성평등 의식 관련 연구 및 조사 현황

구분	관련 연구 및 조사	연도
중앙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2016 2021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Ⅰ): 검사 타당화 기초연구	2016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Ⅱ): 표준화 규준 마련 및 검사활용 매뉴얼 제작	2019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2019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 인식조사	2018
경기도	2012년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2012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	2016
서울특별시	대학생 성평등 의식 및 성평등교육 실태조사	2018
부산광역시	부산지역 양성평등 정책 성별 수용성 분석과 정책과제	2017
	부산지역 가족 내 성평등 실태와 개선방안	2018
대구광역시	대구여성정책 풍향계 : 대구청년여성 실태와 시민양성평등 의식 연구	2017
인천광역시	인천시 성평등 수준 및 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201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성평등 정책 수요조사	2018
대전광역시	성차인식 및 성평등 실태조사를 통한 성주류화전략 확산방안	2012
충청남도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2015
경상북도	경상북도 남성의 양성평등의식 및 정책수용성 조사	2015
제주도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2019

주: 최근 10년간 일반 국민/시민/도민 대상 연구만을 포함하였음.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조사연구 제외.

나. 조사현황 및 주요 내용

주요 정책연구기관의 성평등 의식 관련 조사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세부 연구주제와 목적에 따라 조사내용에서 차이가 있지만, 성평등 의식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 차원에서의 개인의 고정관념과 성평등 인식, 국가 또는 지역사회의 성평등 수준, 성평등 관련 정책에 대한 평가, 각 영역(가족, 건강, 문화, 경제활동, 안전 등) 에서의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정책 평가 및 수요, 미래 전망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사방법은 과거에는 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대면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조사가 병행되거나 온라인 조사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표 2-6] 성평등 의식 관련 연구 및 조사의 주요 내용

연구/조사명	구분	주요내용	비고
양성평등 실태조사 (2021)	성평등 의식 및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	• 성별고정관념 • 변화하는 성역할과 지위에 대한 태도 • 우리사회 남성과 여성의 평등 수준 • 성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 5년 뒤 남성과 여성의 평등 수준 전망 • 코로나19로 인한 삶의 변화 • 삶에 대한 만족도	전국 4,490가구 만15세 이상 가구원 8,358명 설문조사 (인터넷 조사 병행)
	가족 가치관 및 가족생활	• 가족구성원에 대한 돌봄 노동 분담(돌보는 사람, 비용, 장소) • 결혼의사 • 부부간 역할분담 및 평등의식 • 돌봄활동 참여 및 자녀계획	
	사회관계 및 사회참여	•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시민의견 수렴 활동 및 정치적 활동 참여 경험 및 의사 • 정치・사회적 이슈 관련 온라인 활동 정도 • 관심 있는 뉴스 및 관심사에 대한 정보 습득 매체	
	시간 활용	• 일상생활 영역별 현재 사용하는 시간 및 희망 사항 • 시간 부족 인식	
	건강	• 전반적 건강상태, 정신건강(우울, 자살생각) • 현재 고민 • 외모 차별 피해 경험, 외모 만족도 • 자신의 체형에 대한 평가, 현재 다이어트 여부 •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정책의 필요성	
	인권과 안전	• 폭력 허용도, 폭력 상황별 목격자 행동 의지 • 낯선 사람으로부터 성추행, 성폭력 등 위협적 상황 경험 •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성추행, 성폭력 등 위협적 상황 경험 • 온라인 범죄피해 불안,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의 심각성 • 인터넷에서의 성적 대상화 등 문제의 심각성	

연구/조사명	구분	주요내용	비고
	경제활동	• 경제활동 상태 및 병행 활동 • 근로자 성별 비율, 성차별적 조직 문화 •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의 용이성 • 월평균 임금, 순수익 • 자영업자(또는 고용주)의 사업체 경영의 어려움 • 구직활동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창업의향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2018)	전통적 남성성과 변화하는 남성	• 남성적 규범과 기질에 대한 동의: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규범 또는 기질에 대한 동의 정도	만19~59세 남성 3,000명 온라인조사
		• 남성성 상실 불안감: 사회/경제적 능력과 지위, 신체적/성적 매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의 정도	
		• 여성적 역할과 자질에 대한 관심과 역량 - 가사, 자녀 양육 능력 및 관심과 관련된 자기 평가 - 요리, 가사, 가족원에 대한 돌봄 등의 가족 내 분담 정도 - 주위 사람 또는 가족과의 관계의 친밀성	
		• 군대 인식과 경험 - 군대에 대한 인식 - 군 복무 경험	
	성차별주의와 성차별적 행동	• 성차별주의 - 여성에 대한 성차별주의적 인식 - 페미니즘에 대한 인식 및 정보 습득 경로	
		• 성차별적 행동 - 온라인을 통한 성차별 정보 접촉 경험 - 온라인을 통한 성차별적 행동 경험 - 성구매 경험 및 인식	
	삶의 질	• 심리적 안녕감 - 삶의 만족도 - 관계만족도 - 자아존중감	
		• 신체적, 정신적 건강 - 주관적 건강상태 - 음주, 흡연 행태 - 우울증, 공격성, 자살생각 등 정신건강	
	남성/성의 변화 전망	• 우리 사회 성차별 인식 -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 정도 -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의 심각성 인식	
		• 성차별 반대 운동에 대한 태도 - 여성운동 및 여성정책 지지 정도 -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들의 캠페인 등 참여 의사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안 인식조사 (2018)	페미니스트 인식	• 자신을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지 여부	전국 거주 만19~29세 성인 남녀 전화조사 (2회)
	미투운동 지지	• 미투운동 지지	
	성차별 문제 관심	• 우리 사회 성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 있다 •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심각성 인식 비율 • 우리 사회의 여성혐오가 심각하다	
	2018년 성평등 현안 인식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반대, 낙태죄 폐지 지지, 홍대 불법촬영 편파수사에 대한 규탄 시위(일명 혜화시위) 지지 • 가정폭력 사건 대응 시 우선순위	

연구/조사명	구분	주요내용	비고
경기도민 여성가족 정책 수요조사 (2012)	여성경제활동	• 경제활동여부, 고용형태, 종사산업, 종사직업, 월평균급여, 일・가정 양립 어려움, 근로시간 • 구직여부 및 희망고용형태, 구직어려움, 구직활동하지 않는 이유 •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정책,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여성경제활동 활성화 정책 우선순위	경기도거주 만19~64세 남녀가구주 여성가구원 1,995가구3, 647명 설문조사
	취약계층 여성복지	• 한부모 여성지원정책 • 미혼모 지원정책 • 여성노인 지원정책 • 여성 장애인 지원정책 • 결혼이주여성 지원정책 • 취약계층 여성정책 우선순위	
	여성폭력 및 안전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예방정책 • 여성이 안전한 지역을 위한 정책 • 여성이 생활하기에 편리한 지역을 위한 정책 • 여성폭력 및 안전 정책 우선순위	
	여성건강, 문화, 여가	• 건강상태, 여성건강을 위한 정책 • 문화 및 여가생활 만족도와 불만족 이유, 여성의 문화 및 여가생활 지원정책 • 참여하고 싶은 사회활동, 희망하는 평생교육 분야	
	돌봄	• 취학전 자녀유무(만 6세미만), 자녀현황, 자녀 양육의 어려움, 취학전 자녀양육정책 우선순위 • 취학자녀 유무, 아동청소년 정책 우선순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정책 우선순위 •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정책 우선 순위	
	가족	• 출산계획, 출산을 계획하지 않는 이유 •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를 위한 정책 • 다양한 가족지원을 위한 정책의 중요도	
	정책추진체계	• 경기도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여성・가족정책 향상도, 우선순위	• 여성정책이 성평등에 미친 영향 •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여성정책/가족정책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 (2016)	성평등 의식 및 사회변화 전망	• 평소 생각하고 있는 성평등 의식 • 10년 후 사회변화에 대한 전망	경기도거주 만19~64세 성인남녀 1,045명 설문조사
	성차별 경험 및 성평등 수준에 대한 평가	• 성별에 따른 차별 경험 유무 • 현재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에 대한 생각 • 10년 후 우리 사회 성평등 수준 변화에 대한 전망	
	경기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의견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들의 중요성 • 경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성평등 정책 •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 경력유지(경력단절예방)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연구/조사명	구분	주요내용	비고
		•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 고용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근절과 인권보호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 폭력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 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 여성참여 확대를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 지역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방안 • 경기도 성평등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사안	
대학생의 성의식, 성평등 의식과 성희롱 인식 수준 (2015)	성의식 측정도구	• 성에 대한 기본적인 의식 • 이성교제 • 순결 • 임신 • 결혼 • 성충동	서울 소재 대학 재학 남녀대학생 1,000명 설문조사
	성평등 의식	• 가정생활 • 교육생활 • 사회・문화생활 • 직업생활	
	성희롱 인식 수준	• 성희롱의 개념 • 성희롱 유형 • 성희롱 원인	
부산지역 양성평등 정책 성별 수용성 분석과 정책과제 (2017)	양성평등 인식	• 현재 부산지역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 향후 부산지역 양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 개선해야 할 불평등 문제에 대한 인식 •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정책분야별 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 부산시민의 양성평등 인식 정도	20세 이상 부산시민 1,000명 설문조사
	양성평등 정책 인지도와 수용도	• 현재 추진 중인 양성평등 정책 분야에 대한 인지도 • 현재 추진 중인 양성평등 정책 분야에 대한 수용도	
	양성평등 정책 관련 요구도	• 양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인식 • 현재 실질적 도움이 되는 양성평등 정책 • 향후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점 추진 정책 • 향후 남성을 위해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정책	
부산지역 가족 내 성평등 실태와 개선방안 (2018)	가족 내 성평등에 대한 인식	• 가족 내 성평등 중요도 • 가족 내 성평등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정도 • 성평등에 대한 인식 • 성평등 관련 생각/태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	부산지역 부인연령 기준 30대~60대 부부 400쌍 설문조사
	가족 내 성평등 실태와 요구사항	• 전반적 인식 • 가사노동 • 자녀돌봄 • 의사소통영역 • 여가활동영역 • 경제분담영역	

연구/조사명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족 내 성평등을 위한 개선방안, 의견		• 가족 내 성평등 수준 향상 시, 예상되는 변화 • 역차별에 대한 생각・태도 • 가족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 가족 내 성평등 문화확산・접근성에 대한 필요 정도 • 가족 내 성평등 제도화에 대한 필요 정도	
대구 청년여성 실태와 시민 양성평등 의식 연구 (2017)	1차	가치관	• 결혼, 동거, 출산 인식 • 주로 고민을 나누는 대상 • 수저론	대구거주 25세~35세 청년여성 500명 설문조사
		일자리	• 주당 근무시간 • 고용형태 • 월 평균 수입/ 월 평균 희망 수입 • 대구에서 청년여성이 일할 기회 •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업종 • 취업에 영향을 끼치는 부문 • 향후 일하고 싶은 분야	
		사회전반	• 고민 부분 • 대구시 청년정책 인지 • 대구 거주, 이주 • 대구 이미지 • 대구의 성평등 인식 • 대구시 우선 수행 여성정책	
		주거・안전	• 동거 구성원 • 주거형태 • 생활환경 안전 인식 • 데이트폭력 경험 • 생활환경의 안전상태	
		생활・건강	• 하루 평균 식사 시간 • 식사 유무 • 식사대상 • 식사유형 • 체중조절 노력	
	2차	수저 계급론	• 수저론 분류/ 수저론 기준표에 따른 분류	
		정책・사회부문	• 포기 부문 • 청년여성의 문제 • 청년유출 현상 및 원인 • 청년유출 방지 정책 • 청년수당 및 배당 정책	
		폭력・안전 부문	• 성폭력 경험 • 데이트폭력 인지정도 • 데이트폭력 경험 • 데이트폭력 대처 방법 • 데이트폭력 근절 노력 • 생활환경 전반적인 안전 상태	

연구/조사명	구분		주요내용	비고
	양성평등실태	양성평등 부문	• 양성평등 점수 • 대구에서 살기 좋은 연령 • 성인지 수준 • 우리나라 남녀 갈등 정도 • 대구 남녀 갈등 정도 • 대구에서 차별받은 경험 • 대구의 양성평등 정도	만19세 이상 대구시민 554명 설문조사
		혐오 부문	• 혐오표현 경험 • 혐오표현 유형 경험 • 여성혐오 문제의 심각성 • 여성혐오 표현을 접한 경로 • 여성혐오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 최근 이슈가 되는 여성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 여성혐오 현상의 사회적 전망 • 관련 법조항 제정 시 포함될 대상	
인천시 성평등 수준 및 성평등 의식에 관한 연구 (2014)	개인생활 만족도		• 현재 경제상황 • 일 • 건강상태 • 외모 • 사회적 지위 • 가족관계	19세 이상 인천시민 1,000명 설문조사
	인천 지역환경 만족도		• 경제활동 기회, 의료환경, 복지환경, 여가 및 문화환경, 주거환경, 안전환경 만족도	
	성평등의식		• 가정생활, 교육, 직장 및 사회문화영역에서의 성평등의식	
	다면 성별의식 검사문항		• 적대적 성차별주의 및 온정적 성차별 주의	
	성별 지위 및 정체성 인식		• 우월적 지위 및 주도권, 평등대우, 차별 시 처벌 당위성	
			• 성별 정체성	
			• 주요 성평등 현실지표에 대한 주관적 평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 군가산점제, 기업고위직 여성비율, 여교수 채용목표제 등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	
	차별경험 및 사회의식		• 직장생활, 가정 내 성장과정, 학교생활 등에서의 차별경험	
			• 사회참여여부 및 사회적 가치관	
광주 광역시 성평등 정책 수요조사 (2017)	양성평등 문화 확산		• 광주광역시 양성평등 문화 확산 분야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 강화해야 할 정책 과제 •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 및 내용 • 중점과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과제 및 중요도 평가	전문가 33명 대상 설문조사
	일가정양립 확산		•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 확산 분야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 강화해야 할 정책 과제 •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 및 내용 • 중점과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과제 및 중요도 평가	

연구/조사명	구분	주요내용	비고
	고용격차 해소	• 광주광역시 고용격차 해소 분야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 강화해야 할 정책 과제 •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 및 내용 • 중점과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과제 및 중요도 평가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 광주광역시 공공·국제 분야 여성 참여 확대 분야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 강화해야 할 정책 과제 •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 및 내용 • 중점과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과제 및 중요도 평가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 광주광역시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분야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 강화해야 할 정책 과제 •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 및 내용 • 중점과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과제 및 중요도 평가	
	건강과 복지 증진	• 광주광역시 건강과 복지 증진 분야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 강화해야 할 정책 과제 •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 및 내용 • 중점과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과제 및 중요도 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 광주광역시 양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분야 과제 수행에 대한 평가 • 강화해야 할 정책 과제 • 개선이 필요한 정책 과제 및 내용 • 중점과제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과제 및 중요도 평가	
성차 인식 및 성평등 실태조사를 통한 성 주류화 전략 확산 방안 (2012)	대전 시민들의 성차인식	• 가정생활영역 • 직장생활영역 • 기타생활영역	20대~50대 대전시민 750명 설문조사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수준에 대한 시민 평가	•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 평가 • 지역 내에서의 성차별 경험 정도 • 지역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 평가	
	대전광역시의 성평등 제고를 위한 정책 요구	• 전체 요구도 우선 순위 • 성별에 따른 요구도 • 연령에 따른 요구도 • 거주지에 따른 요구도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2015)	성평등 의식수준	• 가정생활영역 • 학교생활영역 • 사회문화영역 • 직장생활영역	충남 거주 만 20세 이상 남성 600명
	성평등 의식 및 가사활동 참여에 미친 요인	• 성평등 의식 형성에 미친 요인에 대한 의견 • 가사활동(노동) 참여에 미친 요인에 대한 의견	
	가사활동 참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참여정도	• 쌀 씻어 밥짓기, 김치썰기, 평일 저녁 설거지, 세탁기 돌리기, 빨래개기, 이부자리정리, 청소기 돌리기, 화장실변기청소, 재활용 쓰리기 분리 배출 등	

연구/조사명	구분	주요내용	비고
	가사활동 참여자, 참여 이유, 참여 장애 요인	• 가사활동 전담자 및 보조자 • 가사활동 참여 이유 • 가사활동 참여 장애요인	
	사회적 네트워크	• 동호회, 사회모임, 지역사회모임, 동창회/친구 모임 등에 참여 정도 • 개인 및 가정의 문제 발생 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직장과 가정에서의 사용 시간	• 업무시간 ,초과근무시간, 가사활동시간, 자기개발시간, 술자리 등 회식 시간, 대화, 산책 등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가정과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 및 성평등에 대한 의견 등	• 가정과 직장에서의 성평등 정도에 대한 의견 • 가정과 직장에서의 인정감 및 느끼는 감정 • 일가정 양립 갈등 발생 시 대처 방법 • 가정과 직장에서 느끼는 역차별 • 가정과 직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불안 등	
경상북도 남성의 양성평등 의식 및 정책수용성 조사 (2015)	삶의 가치관과 만족도	• 삶의 가치관 정도 • 전반적인 생활만족도	경북 거주 20대 이상 남녀 500명 설문조사
	양성평등의식 및 정책수용성	• 국제수준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성별지위 인식 •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점과 남녀관계에 대한 생각 •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검사도구에 의한 성차별의식 •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도구에 의한 성차별의식 •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용성	
	양성평등의식 수준 증진 방안	• 경상북도의 양성평등의식 수준 증진을 위한 방안 • 경상북도 양성평등의식과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방안	
제주도민 성평등의식 실태조사 (2019)	성 역할 인식 (성평등 의식)	• 주도적 책임의 성 역할 • 경제, 돌봄, 직종 성 역할	만 19~64세 제주도민 606명
	가족 돌봄	• 가족 돌봄 주체 • 유배우자 분담	
	시간 활용	• 분야별 시간 • 활용 및 요구	
	사회,경제 활동	• 사회활동 • 경제활동	
	폭력과 안전	• 폭력에 대한 태도 • 안전에 대한 태도	
	외모와 건강	• 외모 중요성 • 건강 인식	
	성평등 정책 수요	• 정책체감 • 우선 개선사항	

성평등 의식 실태 분석이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목적은 아니지만, 유관 정책의 추진 및 현황파악을 위한 조사 및 연구들에서도 성평등 의식 관련은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7] 주요 조사에 포함된 성평등 의식 관련 문항

연구/조사명	구분	주요내용	비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2020)	가족 내 성역할 책임	• '육아는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 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 '가족의 의사결정권은 주로 남성이 가져야 한다' 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 '가사노동은 여성이 주로 담당해야 한다' 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 '경제적 부양 책임은 주로 남성이 담당해야 한다' 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 '가족의 법적 대리인 및 가구주는 주로 남성이어야 한다' 는 생각은 현 시대에 맞지 않다	19세 이상 성인 8,000명 설문조사
	가족 내 성평등 정도에 대한 동의	• 남녀가 동등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 남녀가 재산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 남녀가 경제적 부양책임을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 • 남녀가 육아를 공평히 분담하고 있다 • 남녀가 가사노동을 공평히 분담 하고 있다	
여성가족 패널조사 (2020) 8차 웨이브 (격년)	가족 내 역할 인식	• 남자는 직장을 가지고 여자는 가정을 돌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 여자도 직장을 다녀야 부부관계가 평등해진다 • 취학 전 자녀를 둔 주부가 일을 하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 맞벌이 부부는 집안일도 공평히 분담해야한다 • 부부라도 수입은 각자 관리해야 한다 • 같이 사는 주택은 부부공동명의로 해야 한다	만19~64세 여성가구원 7,672가구 9,175명 컴퓨터를 이용한 면접조사
사회통합 실태조사 (2021) (매년)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	• 성별에 다른 대우(전혀 공정하지 않다-매우 공정하다)	만19세 이상 가구원 약 8,000명 (약 4,000가구) 면접조사
	집단 구성원 포용 정도	• 성적 소수자	
	자녀의 배우자로서 집단 구성원별 포용정도	• 성적 소수자	
	집단별 감정적 거리에 대한 인식	• 나와 성별이 다른 사람 • 성적 소수자	
	우리 사회 갈등 정도	• 남자와 여자	
사회조사 (매년)	여성취업 견해 (홀수년)	• 여성취업 시기 • 여성취업 장애요인	약 27,336 표본가구의 만13세 이상 상주 가구원 면접조사
	가사분담 견해 (짝수년)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 가사분담 실태	

연구/조사명	구분	주요내용	비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가족 정책 변화와 미래 (2021)	성역할 고정관념	• 적대적 성역할 고정관념 - 사회에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 집안일은 여성 배우자가 주로 해야 한다 - 여성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 • 온정적 성역할 고정관념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 여성은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집을 지켜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 배우자와의 성평등	만19~69세 경기도민 2,000명 온라인조사
경기 도민의 가족 다양성 인식조사 (2022)	성역할 태도	• 적대적 성역할 고정관념 - 사회에 중요한 일을 추진하는 것은 주로 남자의 역할이다 - 집안일은 여성 배우자가 주로 해야 한다 - 여성은 곤란하거나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남자에게 의지하려 든다 • 온정적 성역할 고정관념 - 여성은 남성에 비해 가정을 잘 돌보는 세심함을 지니고 있다 - 여성은 자녀를 기르고 집안일을 돌보는 능력이 있다 - 방과 후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	만15~64세 경기도민 2,053명 온라인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에서는 가족 내 성역할 책임과 가족 내 성평등 정도에 대한 동의 등이 조사문항에 포함되어 있고, 격년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수행되는 「여성가족패널조사」는 가족 내 역할 인식에 성 고정관념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매년 추진되는 사회통합 실태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에 대한 인식에 성별이 포함되어 있으며, 집단 구성원 포용과 자녀의 배우자로서 집단 구성원별 포용정도에 성적 소수자가 포함되어 있다. 집단별 감정적 거리에 대한 인식과 우리 사회 갈등 정도에 있어서도 성별이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매년 실시되는 사회조사에는 홀수년에 여성 취업에 대한 견해, 짝수년에는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에서 성별고정관념과 관련된 문항이 포함된다.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정혜원·김미정·노경혜, 2021), 「경기도민의 가족다양성 인식조사」(이나련·정유진, 2022)에서는 적대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온정적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이 포함되어 조사가 실시되었다.

Ⅲ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1. 조사개요
2. 조사결과

1. 조사개요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12일부터 6월 6일까지 총 26일 동안 조사기관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016명이 조사에 유효하게 참여하였다. 조사대상을 성인으로만 한정한 것은 온라인 조사의 특성과 향후 조사의 반복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의 개요는 [표 3-1]과 같다.

[표 3-1] 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대상	만 19세 이상 ~ 65세 미만 경기도민 2,000명
표본추출방법	성, 연령, 권역별[1] 인구 제곱근비례할당
조사표본	2,016명(유효표본 기준)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
조사기간	2023년 5월 12일 ~ 6월 6일
조사기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주: 1) 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할당함.
① 도시남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② 도시북부: 의정부시, 고양시, 동두천시, 구리시
③ 도·농복합남부: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④ 도·농복합북부: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⑤ 농촌: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설문문항 구성은 5년 주기로 수행되는 「양성평등실태조사」와 2016년 본 재단에서 추진한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정형옥·신경아, 2016)를 주요 토대로 하였으며, 그 외 성평등 정책과 관련이 있는 국가단위 조사와 경기도 및 타 지자체의 각종 조사 문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완하였다. 이후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서면 자문 등을 통하여 전반적인 영역과 세부영역별 문항 구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조사의 주요 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조사 내용

구분	내용	
도입질문	•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성평등 의식	• 성별분업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 -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 변화하는 젠더관계 및 역할에 대한 태도 -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 성역할 변화 수용 정도 - 성차별주의 태도(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 성평등에 대한 이해 및 관심과 실천
	성평등 수준	•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및 미래 성평등 수준 전망(10년 후) • 삶의 만족
가족가치 및 가족생활	• 혼인상태 및 가족구성 • (미혼/비혼) 결혼에 대한 태도 • (무자녀)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 • (유배우자) 부부간 역할 분담과 평등 인식 - 주도적 의사결정자 - 주 역할수행자 및 역할분담의 공평성 - 부부간 평등 인식 • (유배우자) 맞벌이 여부 및 부부간 소득비교	
경제활동	• 경제활동여부 • (취업자) 사업체 규모, 월평균 근로소득, 직장에서의 지위, 근로시간 형태, 종사자 성비 등 근로조건 • (취업자) 성차별적 인사관행 및 남성 중심적 직장문화 • (취업자) 일-생활균형제도 이용의 용이성 • (취업자) 일과 가사 및 자녀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 • (비취업자) 과거 경제활동 여부 및 일을 그만둔 이유 • (비취업자) 향후 경제활동 계획 유무 및 일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차별과 안전	차별경험	•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 외모를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
	안전	• 안전 관련 두려움 및 불안 • 폭력상황 목격 시 행동의지
성평등 정책	• 성평등 정책 관련 생각 •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중요도 •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개인 일반 사항	• 최종학력, 월평균 가구소득, 경기도 거주기간, 주관적 계층의식	

2. 조사결과

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의 특성은 [표 3-3]과 같다.

[표 3-3]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가중치 적용 전	가중치 적용 후[1]		
			사례수(비율)	전체	여성	남성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전체			2,016 (100.0)	2,016 (100.0)	982(100.0)	1,034(100.0)
성별	여성		992 (49.2)	982 (48.7)	982(100.0)	-
	남성		1,024 (50.8)	1,034 (51.3)	-	1,034(100.0)
연령	만19~29세		393 (19.5)	401 (19.9)	190(19.3)	211(20.4)
	만30~39세		407 (20.2)	405 (20.1)	194(19.8)	211(20.4)
	만40~49세		463 (23.0)	491 (24.4)	241(24.6)	250(24.2)
	만50~59세		450 (22.3)	495 (24.6)	245(25.0)	250(24.2)
	만60~64세		303 (15.0)	224 (11.1)	111(11.3)	113(10.9)
거주 지역[2]	도시남부		673 (33.4)	902 (44.8)	442(45.0)	460(44.5)
	도시북부		363 (18.0)	270 (13.4)	135(13.8)	135(13.0)
	도·농복합남부		531 (26.3)	582 (28.9)	278(28.3)	304(29.4)
	도·농복합북부		331 (16.4)	233 (11.6)	113(11.5)	120(11.6)
	농촌		118 (5.9)	29 (1.4)	14(1.4)	15(1.5)
세대 유형	1세대 가구		270 (13.4)	245 (12.1)	135(13.8)	110(10.6)
	2세대 가구		1,426 (70.7)	1,443 (71.6)	706(71.9)	736(71.2)
	3세대 가구		68 (3.4)	67 (3.3)	38(3.8)	29(2.8)
	1인 가구		236 (11.7)	245 (12.1)	92(9.4)	152(14.7)
	기타 가구		16 (0.8)	17 (0.8)	11(1.1)	6(0.6)
혼인 상태	미혼(비혼)		760 (37.7)	786 (39.0)	357(36.4)	429(41.5)
	이혼/별거/사별		78 (3.9)	73 (3.6)	41(4.2)	32(3.1)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1,178 (58.4)	1,157 (57.4)	584(59.5)	573(55.4)
	맞벌이 여부	맞벌이	613 (52.0)	615 (53.1)	317(54.3)	298(51.9)
		남편 외벌이	493 (41.9)	481 (41.6)	228(39.0)	253(44.2)
		아내 외벌이	36 (3.1)	31 (2.7)	20(3.5)	11(1.8)
		모두 일하지 않음	36 (3.1)	30 (2.6)	19(3.2)	12(2.0)

구분			가중치 적용 전	가중치 적용 후[1]		
			사례수(비율)	전체	여성	남성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자녀 유무	자녀 없음		901 (44.7)	923 (45.8)	431(43.9)	492(47.6)
	자녀 있음		1,115 (55.3)	1,093 (54.2)	551(56.1)	542(52.4)
	자녀수	1명	414 (37.1)	409 (37.4)	190(34.6)	218(40.2)
		2명	634 (56.9)	624 (57.1)	336(60.9)	289(53.2)
		3명 이상	67 (4.8)	60 (5.5)	25(4.5)	35(6.5)
	자녀 성별	딸만 있음	327 (29.3)	326 (29.8)	158(28.7)	168(31.0)
		아들만 있음	409 (36.7)	402 (36.8)	208(37.7)	195(35.9)
		딸아들 모두 있음	379 (34.0)	365 (33.4)	185(33.6)	180(33.1)
경제 활동	일함		1,576 (78.2)	1,583 (78.5)	686(69.9)	896(86.7)
	일하지 않음		440 (21.8)	433 (21.5)	296(30.1)	138(13.3)
교육 수준	고등학교 졸업 이하		299 (14.8)	277 (13.8)	154(15.7)	123(11.9)
	전문대학 재학/졸업		236 (11.7)	232 (11.5)	128(13.1)	104(10.1)
	대학교 재학/졸업		1,269 (62.9)	1,284 (63.7)	598(60.9)	685(66.3)
	대학원 이상		212 (10.5)	223 (11.1)	101(10.3)	122(11.8)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141 (7.0)	138 (6.9)	58(5.9)	80(7.7)
	200만원~400만원 미만		509 (25.2)	487 (24.1)	224(22.8)	263(25.4)
	400만원~600만원 미만		589 (29.2)	597 (29.6)	277(28.2)	320(31.0)
	600만원~800만원 미만		334 (16.6)	336 (16.7)	189(19.3)	147(14.2)
	800만원 이상		443 (22.0)	458 (22.7)	234(23.8)	224(21.7)
주관적 계층	상층		15 (0.7)	16 (0.8)	5(0.5)	11(1.1)
	중상층		235 (11.7)	244 (12.1)	118(12.0)	127(12.2)
	중층		974 (48.3)	969 (48.1)	481(48.9)	489(47.3)
	중하층		665 (33.0)	657 (32.6)	328(33.4)	328(31.8)
	하층		127 (6.3)	130 (6.4)	51(5.2)	79(7.6)
경기도 거주 기간	5년 미만		179 (8.9)	168 (8.3)	79(8.1)	88(8.6)
	5년 이상~10년 미만		264 (13.1)	264 (13.1)	113(11.5)	151(14.6)
	10년 이상~15년 미만		268 (13.3)	269 (13.4)	122(12.4)	148(14.3)
	15년 이상~20년 미만		261 (12.9)	271 (13.5)	125(12.7)	146(14.1)
	20년 이상		1,044 (51.8)	1,044 (51.8)	543(55.3)	501(48.5)

주 1) 지역별, 성별 연령별 모집단 비율 반영 가중치 적용
2) 도시남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도시북부: 의정부시, 고양시, 동두천시, 구리시
도·농복합남부: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도·농복합북부: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농촌: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전체 2,016명의 조사 참여자 중 여성은 982명으로 48.7%였으며 남성은 1,034명으로 51.3%였다. 조사 참여자의 평균연령은 43.0세로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19.9%, 30대 20.1%, 40대 24.4%, 50대 24.6%, 60대 11.1%였다. 지역별로는 도시남부 44.8%, 도시북부 13.4%, 도농복합남부 28.9%, 도농복합 북부 11.6%, 농촌 1.4%이며 도시지역 거주자는 전체 중 58.2%였고 도농복합지역과 농촌지역 거주자는 41.8%였다.

세대유형은 2세대 가구가 71.6%로 가장 많았고, 1인가구와 1세대 가구가 각각 12.1%였으며, 3세대 가구는 3.3%, 기타가구는 0.8%였다. 여성은 1세대 가구가 13.8%로 남성의 10.6%보다 많았고, 남성은 1인가구가 14.7%로 여성의 9.4%보다 많았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자가 57.4%로 가장 많았고 미혼(비혼)인 사람이 39.0%, 이혼·별거·사별자가 3.6%이다. 여성은 남성보다 기혼자 비율이 약간 높았고(여성 59.5%, 남성 55.4%), 남성은 미혼(비혼)자 비율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았다(여성 36.4%, 남성 41.5%). 기혼자 중 맞벌이는 전체 응답자의 53.1%였고, 남편 외벌이 41.6%, 아내 외벌이와 부부 모두 일하지 않는 경우는 각각 2.7%와 2.6%였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맞벌이 비율이 약간 높고(여성 54.3%, 남성 51.9%), 남편 외벌이 비율이 약간 낮았다(여성 39.0%, 남성 44.2%).

자녀수는 자녀가 없는 사람이 전체 중 45.8%였으며 자녀가 1명 있는 사람은 20.3%, 2명 있는 사람은 31.0%, 3명 이상인 사람은 3.0%였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자녀가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여성 56.1%, 남성 52.4%). 자녀가 있는 사람의 자녀수는 2명이 57.2%로 가장 많았고, 1명 37.4%, 3명이상은 5.4%였다. 자녀가 있는 사람 중 자녀의 성별은 아들만 있는 사람이 36.8%로 가장 많았고, 딸아들 모두 있는 사람이 33.4%, 딸만 있는 사람이 29.8%였다.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78.5%였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21.5%였으며, 일하지 않는 사람 중 여성의 비율이 남성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

조사 참여자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이 63.7%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8%, 전문대학 재학 및 졸업 11.5%, 대학원 이상 11.1% 순으로 대체로 조사 참여자의 학력이 높은 수준이었다. 여성에 비해서는 남성의 학력수준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400만 원 이상 600만원 미만이 29.6%로 가장 많았고 200만 원 이상 400만원 미만 24.1%, 800만 원 이상 22.7%, 600만 원 이상 800만원 미만 16.7%, 200만원 미만 6.9% 순이었다. 여성 응답자는 남성에 비해 600만원 이상의 가구소득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았고, 남성은 6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이 약간 더 많았다. 이는 남성 응답자가 여성 응답자에 비해 남편 외벌이와 1인가구 등이 많은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편, 조사 응답자가 전반적으로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은 패널조사의 한계로 해석할 수 있다.

조사 참여자 중 절반에 가까운 48.1%가 자신의 주관적 계층을 중층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중하층 32.6%, 중상층 12.1%, 하층 6.4%, 상층 0.8% 순으로 응답하였다.

경기도 거주기간은 20년 이상이 51.8%였고, 15년 이상~20년 미만 13.5%, 10년 이상~15년 미만 13.4%, 5년 이상~10년 미만이 13.1%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5년 미만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8.3%였다. 조사 대상자가 만19세 이상 성인인 점을 감안하였을 때 적어도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경기도 외의 지역에서 출생하여 경기도로 이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0년 이상의 장기 거주자가 더 많았고 남성은 20년 미만 거주자가 더 많았다.

본 조사는 성별과 연령,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민 모집단 비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학력과 소득수준 등은 통제하지 않은 상태로 온라인 패널을 활용하여 추진되었다. 조사업체의 패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패널로 등록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만큼 대체로 디지털리터러시가 높고, 전체 모집단에 비하여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낸다. 실제로 본 조사에서도 학력과 소득수준이 뚜렷하게 높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특히 50대 이상은 다른 연령대보다도 실제 모집단에 비해 디지털리터러시 뿐 아니라 학력이나 경제적 수준 등에서의 차이가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조사방법 상의 한계로 인하여 조사 결과를 조사문항의 기초가 된 「양성평등실태조사」나 정형옥·신경아의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경기도는 31개 시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인구 분포와 지역별 특성 등에서 차이가 큰 편이다. 따라서 경기도민 대상 조사연구에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 워낙 경기도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 인구비례로 표집을 할 경우 소수의 응답이 전체를 대표하는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표집 시 제곱근 비례할당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거주자는 전체 응답자의 5.9%에 불과하여 개별적인 분석이 불가하여 도농복합지역과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 높은 디지털리터러시로 인하여 지역별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1) 성평등 의식

성평등 의식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는 성별분업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태도(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와 변화하는 젠더관계 및 역할에 대한 태도(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성역할 변화 수용 정도, 성차별주의 태도), 성평등에 대한 이해 및 관심과 실천으로 구성하였다.

이중 기존의 보수적이고 차별적인 의식과 관련한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성역할에 대한 변화 수용과 성평등에 대한 이해 및 관심과 실천은 성평등 수용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성역할 고정관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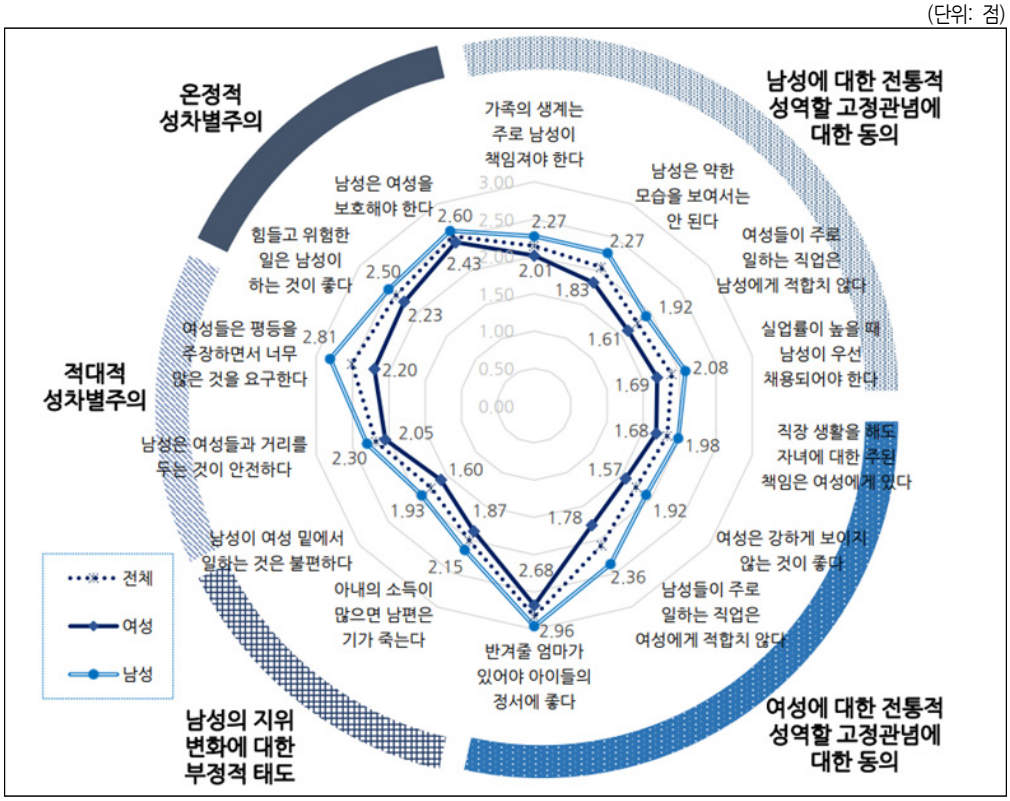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 남성의 지위변화에 대하나 부정적 태도, 성차별주의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는데,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간호사, 보육교사 등)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 가 포함된다.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는 3문항으로,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의 2문항이다. 성차별주의 태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구성되는데,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2문항,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2문항이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주의 태도가 높다고 해석한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성별에 따라서 그림과 같이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그림 3-1] 성역할 고정관념

(단위: 점)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성차별주의 태도(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에 있어서 남성이 더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표 3-4])는 문항에 있어서는 동의한다(매우 동의함 포함)는 의견은 29.9%였고,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음 포함)는 응답은 70.1%였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응답에 차이가 있어서 여성은 동의한다는 의견이 20.9%였으나 남성은 38.3%였다.

연령별로는 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남성은 20대 이하 33.3%, 50대 36.0%, 50대 36.0%, 30대 41.2%, 50대 36.0%, 60대 43.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해당 질문에 동의한다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특히 20대 이하와 30대의 경우 동의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두 배 이상 차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도 응답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였으나 성별이나 연령별 생각의 차이와 비교했을 때 차이가 크지는 않았다.

자녀유무와 자녀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은 아들만 있는 사람이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20.7%로 가장 낮았으나 여성전체 응답의 20.9%, 미혼(비혼)자의 15.1%에 비해서는 높다. 그러나 여성 기혼자의 동의비율 24.5%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다. 남성의 경우 딸만 있는 사람들이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남성 평균 38.3%에 비해 8.1%p 높은 것이다.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표 3-5])는 문항과 관련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4.6%가 동의(매우 동의함 포함)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성별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은 12.2%만 동의한다고 응답한 데 비하여 남성은 36.6%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3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은 남성이 약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이 높아지고 있었으나 40대는 12.9%, 50대는 12.6%로 근소한 차이로 40대의 응답이 50대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는 60대가 42.9%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20대 이하가 41.4%로 뒤를 이었으며 30대의 응답이 30.3%로 가장 낮았다.

[표 3-4]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7.1	53.1	28.1	1.8	70.1	29.9	100.0	2.14(.71)
성별		여성		982	20.4	58.8	20.4	0.5	79.1	20.9	100.0	2.01(.65)
성별		남성		1,034	14.0	47.6	35.4	2.9	61.7	38.3	100.0	2.27(.73)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28.9	58.4	12.1	0.5	87.6	12.6	100.0	1.84(.63)
연령	여성	만30~39세		194	26.7	56.4	15.9	1.0	83.1	16.9	100.0	1.91(.68)
연령	여성	만40~49세		241	19.9	58.1	22.0	-	78.0	22.0	100.0	2.02(.65)
연령	여성	만50~59세		245	13.4	59.8	26.0	0.8	73.2	26.8	100.0	2.14(.64)
연령	여성	만60~64세		111	9.8	62.5	26.8	0.9	72.3	27.7	100.0	2.18(.61)
연령	남성	만19~29세		211	23.8	42.9	29.5	3.8	66.7	33.3	100.0	2.14(.82)
연령	남성	만30~39세		211	14.7	44.1	36.5	4.7	58.8	41.2	100.0	2.31(.78)
연령	남성	만40~49세		250	10.4	49.6	37.2	2.8	60.0	40.0	100.0	2.32(.70)
연령	남성	만50~59세		250	11.6	52.4	34.4	1.6	64.0	36.0	100.0	2.26(.67)
연령	남성	만60~64세		113	8.0	48.7	42.5	0.9	56.7	43.4	100.0	2.37(.65)
지역	여성	도시		578	19.4	60.2	19.9	0.5	79.6	20.4	100.0	2.01(.64)
지역	여성	도농복합·농촌		404	21.8	56.7	21.0	0.5	78.5	21.5	100.0	2.01(.67)
지역	남성	도시		595	13.5	47.3	36.9	2.4	60.8	39.2	100.0	2.28(.72)
지역	남성	도농복합·농촌		439	14.8	48.1	33.5	3.6	62.9	37.1	100.0	2.26(.75)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26.5	57.1	16.0	0.5	83.5	16.5	100.0	1.90(.66)
자녀유무	여성	자녀 있음		551	15.6	60.1	23.8	0.5	75.7	24.3	100.0	2.09(.64)
자녀유무	여성	자녀 성별	모두	186	14.0	55.4	30.1	0.5	69.4	30.6	100.0	2.17(.66)
자녀유무	여성	자녀 성별	아들만	208	18.3	61.1	19.7	1.0	79.3	20.7	100.0	2.03(.64)
자녀유무	여성	자녀 성별	딸만	159	13.8	64.2	21.4	0.6	78.0	22.0	100.0	2.09(.61)
자녀유무	남성	자녀 없음		492	18.5	46.7	31.3	3.5	65.2	34.8	100.0	2.20(.77)
자녀유무	남성	자녀 있음		542	10.0	48.5	39.1	2.4	58.5	41.5	100.0	2.34(.69)
자녀유무	남성	자녀 성별	모두	179	8.9	53.1	35.2	2.8	62.0	38.0	100.0	2.32(.67)
자녀유무	남성	자녀 성별	아들만	195	10.3	49.2	37.9	2.6	59.5	40.5	100.0	2.33(.69)
자녀유무	남성	자녀 성별	딸만	168	11.3	42.3	44.0	2.4	53.6	46.4	100.0	2.38(.71)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표 3-5]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22.7	52.7	21.1	3.5	75.4	24.6	100.0	2.06(.76)
성별	여성			982	30.2	57.6	11.1	1.0	87.8	12.2	100.0	1.83(.65)
	남성			1,034	15.5	48.0	30.7	5.9	63.4	36.6	100.0	2.27(.79)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45.3	46.8	7.4	0.5	92.1	7.9	100.0	1.64(.65)
		만30~39세		194	38.1	52.6	7.7	1.5	90.7	9.3	100.0	1.73(.67)
		만40~49세		241	31.1	56.0	12.4	0.4	87.1	12.9	100.0	1.82(.65)
		만50~59세		245	18.4	69.0	11.0	1.6	87.4	12.6	100.0	1.96(.59)
		만60~64세		111	16.1	62.5	20.5	0.9	78.6	21.4	100.0	2.06(.63)
	남성	만19~29세		211	26.7	31.9	29.0	12.4	58.6	41.4	100.0	2.27(.99)
		만30~39세		211	21.8	47.9	24.6	5.7	69.7	30.3	100.0	2.14(.82)
		만40~49세		250	10.4	52.4	33.2	4.0	62.8	37.2	100.0	2.31(.71)
		만50~59세		250	10.4	55.4	30.9	3.2	65.8	34.1	100.0	2.27(.69)
		만60~64세		113	5.4	51.8	39.3	3.6	57.1	42.9	100.0	2.41(.65)
지역	여성	도시		578	30.5	56.8	12.0	0.7	87.3	12.7	100.0	1.83(.65)
		도농복합·농촌		404	29.9	58.8	9.9	1.5	88.6	11.4	100.0	1.83(.66)
	남성	도시		595	16.2	46.0	32.2	5.7	62.2	37.9	100.0	2.28(.80)
		도농복합·농촌		439	14.8	50.6	28.7	5.9	65.4	34.6	100.0	2.26(.78)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39.0	50.8	9.5	0.7	89.8	10.2	100.0	1.72(.66)
		자녀 있음		551	23.4	63.0	12.3	1.3	86.4	13.6	100.0	1.92(.63)
		자녀 성별	모두	185	19.5	62.7	15.7	2.2	82.2	17.8	100.0	2.01(.67)
			아들만	209	27.3	61.7	10.0	1.0	89.0	11.0	100.0	1.84(.62)
			딸만	158	22.8	64.6	12.0	0.6	87.3	12.7	100.0	1.90(.61)
	남성	자녀 없음		493	22.1	41.8	28.4	7.7	63.9	36.1	100.0	2.22(.88)
		자녀 있음		542	9.4	53.5	32.8	4.2	62.9	37.1	100.0	2.32(.70)
		자녀 성별	모두	179	6.7	52.5	35.8	5.0	59.2	40.8	100.0	2.39(.69)
			아들만	194	9.8	55.2	32.5	2.6	64.9	35.1	100.0	2.28(.67)
			딸만	168	11.9	53.0	29.8	5.4	64.9	35.1	100.0	2.28(.74)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표 3-5])와 관련하여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자녀가 있는 사람(13.6%)이 자녀가 없는 사람(10.2%)에 비해, 남성 역시 자녀가 있는 사람(37.1%)이 없는 사람(36.1%)에 비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딸과 아들이 모두 있는 경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여성은 아들만 있는 경우 동의한다는 비율이 11.0%로 가장 낮았으나 남성은 아들 또는 딸만 있는 경우 동의한다는 응답이 35.1%로 동일했다. 그러나 딸만 있는 남성 응답자는 아들만 있는 남성 응답자에 비해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매우 동의함에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간호사, 보육교사 등)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표 3-6])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10.9%, 여성의 5.1%, 남성의 16.2%가 동의(매우 동의함 포함)하였다.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하는 응답이 증가하지만, 남성의 경우는 20대 이하가 19.5%로 가장 높고 50대까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데, 50대가 11.2%로 가장 낮은 동의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도시지역이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보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남성들이 스스로 여성들이 주로 일하는 분야는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는 사람들(5.8%)이, 남성의 경우는 자녀가 없는 사람들(17.9%)이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는 딸과 아들 모두 있는 사람이 동의한다는 응답이 8.1%로 가장 높았고, 남성들은 아들만 있는 경우가 17.4%로 가장 높았다.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 ([표 3-7])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20.1%, 여성 응답자 중 12.6%, 남성 응답자 중 27.1%가 동의(매우 동의함 포함)한다고 하였다. 역시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한다는 응답이 증가한데 반해, 남성들은 50대가 30.4%로 가장 높고, 40대 24.4%로 가장 낮았다. 여성에 비해 남성들의 연령별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남녀 모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동의율이 높았다. 자녀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딸만 있는 사람들이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각각 8.2%와 25.7%로 가장 낮았다.

[표 3-6]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35.4	53.7	9.4	1.4	89.1	10.9	100.0	1.77(.67)
성별	여성			982	45.0	49.9	4.9	0.2	94.9	5.1	100.0	1.61(.59)
	남성			1,034	26.4	57.4	13.7	2.5	83.8	16.2	100.0	1.92(.70)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59.8	37.0	2.6	0.5	96.8	3.1	100.0	1.45(.59)
		만30~39세		194	51.8	43.1	5.1	-	94.9	5.1	100.0	1.53(.60)
		만40~49세		241	47.7	46.9	5.4	-	94.6	5.4	100.0	1.57(.59)
		만50~59세		245	32.4	61.9	5.3	0.4	94.3	5.7	100.0	1.74(.57)
		만60~64세		111	28.8	64.9	6.3	-	93.7	6.3	100.0	1.77(.55)
	남성	만19~29세		211	41.2	39.3	15.2	4.3	80.5	19.5	100.0	1.82(.84)
		만30~39세		211	28.4	52.6	15.6	3.3	81.0	18.9	100.0	1.94(.75)
		만40~49세		250	21.6	62.0	13.6	2.8	83.6	16.4	100.0	1.98(.68)
		만50~59세		250	23.2	65.6	11.2	-	88.8	11.2	100.0	1.88(.57)
		만60~64세		113	12.5	71.4	13.4	2.7	83.9	16.1	100.0	2.08(.62)
지역	여성	도시		578	43.0	51.5	5.4	0.2	94.5	5.6	100.0	1.63(.60)
		도농복합·농촌		404	47.8	47.8	4.2	0.2	95.6	4.4	100.0	1.57(.59)
	남성	도시		595	26.4	56.6	14.3	2.7	83.0	17.0	100.0	1.93(.71)
		도농복합·농촌		439	26.4	58.3	13.0	2.3	84.7	15.3	100.0	1.91(.69)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53.6	42.2	3.9	0.2	95.8	4.2	100.0	1.51(.59)
		자녀 있음		551	38.1	56.1	5.6	0.2	94.2	5.8	100.0	1.68(.59)
		자녀 성별	모두	186	34.4	57.5	7.5	0.5	91.9	8.1	100.0	1.74(.62)
			아들만	208	37.0	58.7	4.3	-	95.7	4.3	100.0	1.68(.56)
			딸만	157	43.9	51.0	5.1	-	94.9	5.1	100.0	1.61(.59)
	남성	자녀 없음		492	33.1	49.0	14.8	3.0	82.1	17.9	100.0	1.88(.76)
		자녀 있음		543	20.3	64.8	12.7	2.2	85.1	14.9	100.0	1.97(.64)
		자녀 성별	모두	179	16.8	70.4	11.7	1.1	87.2	12.8	100.0	1.98(.58)
			아들만	195	20.0	62.6	15.9	1.5	82.6	17.4	100.0	1.99(.65)
			딸만	168	24.4	61.9	10.1	3.6	86.3	13.7	100.0	1.92(.69)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표 3-7]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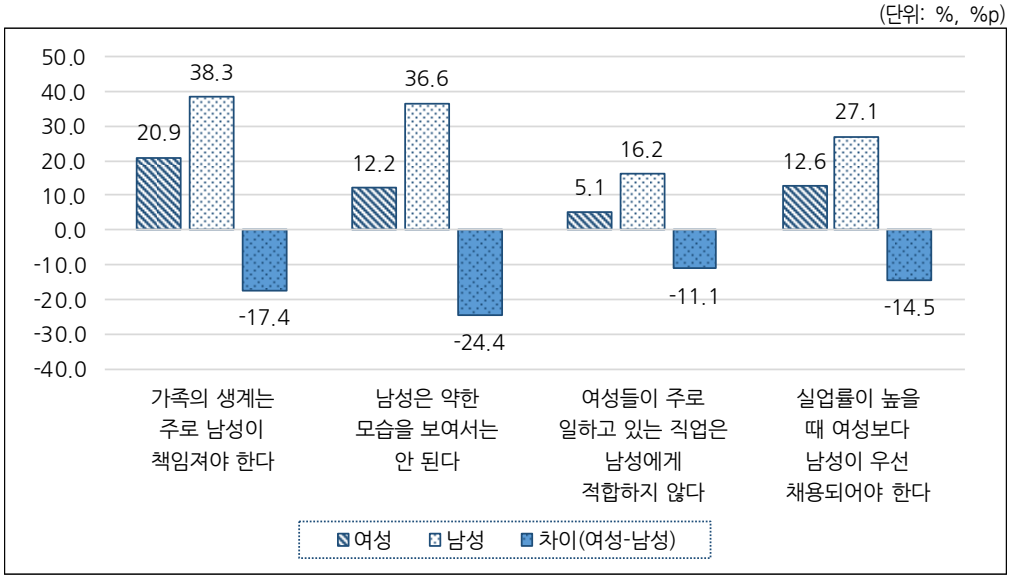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33.6	46.3	17.3	2.7	79.9	20.1	100.0	1.89(.78)
성별	여성			982	44.8	42.6	11.5	1.1	87.4	12.6	100.0	1.69(.71)
성별	남성			1,034	23.0	49.9	22.8	4.3	72.9	27.1	100.0	2.08(.79)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71.4	23.8	4.8	-	95.2	4.8	100.0	1.34(.57)
연령	여성	만30~39세		194	53.6	39.7	5.7	1.0	93.3	6.7	100.0	1.54(.66)
연령	여성	만40~49세		241	43.8	44.2	11.2	0.8	88.0	12.0	100.0	1.69(.70)
연령	여성	만50~59세		245	30.1	51.2	16.7	2.0	81.3	18.7	100.0	1.91(.73)
연령	여성	만60~64세		111	18.8	57.1	22.3	1.8	75.9	24.1	100.0	2.07(.69)
연령	남성	만19~29세		211	34.6	39.8	19.0	6.6	74.4	25.6	100.0	1.97(.89)
연령	남성	만30~39세		211	28.1	45.2	22.9	3.8	73.3	26.7	100.0	2.02(.82)
연령	남성	만40~49세		250	18.0	57.6	19.2	5.2	75.6	24.4	100.0	2.11(.75)
연령	남성	만50~59세		250	17.2	52.4	28.0	2.4	69.6	30.4	100.0	2.16(.72)
연령	남성	만60~64세		113	15.9	54.0	26.5	3.5	69.9	30.1	100.0	2.17(.73)
지역	여성	도시		578	45.1	41.6	12.1	1.2	86.7	13.3	100.0	1.70(.73)
지역	여성	도농복합·농촌		404	44.6	44.1	10.6	0.7	88.7	11.3	100.0	1.68(.70)
지역	남성	도시		595	22.2	48.7	25.7	3.4	70.9	29.1	100.0	2.10(.78)
지역	남성	도농복합·농촌		439	24.3	51.1	19.1	5.5	75.4	24.6	100.0	2.06(.81)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61.0	32.7	5.6	0.7	93.7	6.3	100.0	1.46(.63)
자녀유무	여성	자녀 있음		551	32.1	50.3	16.2	1.5	82.4	17.6	100.0	1.87(.72)
자녀유무	여성	자녀 성별	모두	185	31.4	45.9	21.1	1.6	77.3	22.7	100.0	1.93(.77)
자녀유무	여성	자녀 성별	아들만	207	33.8	46.4	18.4	1.4	80.2	19.8	100.0	1.88(.76)
자녀유무	여성	자녀 성별	딸만	158	31.0	60.8	7.6	0.6	91.8	8.2	100.0	1.78(.61)
자녀유무	남성	자녀 없음		492	28.3	46.7	20.1	4.9	75.0	25.0	100.0	2.02(.82)
자녀유무	남성	자녀 있음		542	18.5	52.6	25.3	3.7	71.0	29.0	100.0	2.14(.75)
자녀유무	남성	자녀 성별	모두	180	16.7	53.3	26.7	3.3	70.0	30.0	100.0	2.16(.73)
자녀유무	남성	자녀 성별	아들만	194	19.6	49.0	26.3	5.2	68.6	31.4	100.0	2.17(.80)
자녀유무	남성	자녀 성별	딸만	167	18.6	55.7	22.8	3.0	74.3	25.7	100.0	2.10(.72)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에서 성별 인식의 격차가 가장 많이 나타난 문항은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는 것이었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여성 12.2%, 남성은 36.6%로 24.4%p의 큰 차이가 났다. 다음은 ‘가족의 생계는 남성이 주로 책임져야 한다’ 는 것으로 17.4%p(여성 20.9%, 남성 38.3%)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 는 14.5%p(여성 12.6%, 남성 27.1%),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는 11.1%p(여성 5.1%, 16.2%)의 차이가 나서 모든 문항에 있어서 성별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10%p 이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서 전통적인 남성상을 보다 강하게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남성들의 특권에 대한 의식도 여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2]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단위: %, %p)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합계임.

(2)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표 3-8])는 문항에 있어서는 동의한다(매우 동의함 포함)는 의견은 14.5%였고,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음 포함)는 응답은 85.5%였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의 응답에 차이가 있어서 여성은 동의한다는 의견이 10.6%였으나 남성은 18.3%였다.

연령별로는 여성들은 20대 이하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낮았고 40대 8.3%, 30대 11.9%, 50대 12.6%, 60대 16.4% 순으로 높아졌다. 남성은 50대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12.8%로 가장 낮았고 20대 이하 18.5%, 30대 19.9%, 40대 20.1%, 60대 21.4% 순이었다. 그러나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남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다. 이에 여성의 경우 4점 척도의 평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으며, 남성은 동의한다는 응답과 마찬가지로 50대에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여성의 경우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보다 2.6%p(도시 11.6%, 농촌 9.0%) 높았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에 없는 사람들에 비해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응답이 3.9%p 차이로 높았으나, 남성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동의한다는 응답이 2.0%p 낮았다. 여성의 경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딸만 있는 사람이 10.1%로 가장 낮았고, 딸과 아들 모두 있는 사람이 13.6%로 높았으나, 평균은 아들만 있는 사람이 1.83점으로 가장 높았다. 남성은 동의한다는 응답이 딸과 아들이 모두 있는 경우 14.4%, 딸만 있는 경우 18.5%, 아들만 있는 경우 19.1% 순이었으나 평균은 딸과 아들 모두 있는 경우와 딸만 있는 경우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표 3-9])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은 4.8%, 남성은 16.0%가 동의(매우 동의함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경우는 매우 동의한다는 응답은 없었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남성에 비해서 높았다. 20대 이하 여성의 경우는 71.6%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졌고, 평균은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으나, 남성의 경우 50대가 40대보다 약간 낮았다.

자녀유무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보다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자녀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는 아들만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2.9%로 가장 낮았고, 남성의 경우는 딸만 있는 사람이 동의하는 비율이 13.1%로 가장 낮았다.

[표 3-8]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32.5	53.0	13.4	1.1	85.5	14.5	100.0	1.83(.69)
성별	여성			982	43.1	46.3	10.2	0.4	89.4	10.6	100.0	1.68(.67)
	남성			1,034	22.4	59.3	16.4	1.8	81.7	18.3	100.0	1.98(.68)
연령	여성	만19~29세		189	65.1	29.6	5.3	-	94.7	5.3	100.0	1.40(.59)
		만30~39세		193	51.8	36.3	11.4	0.5	88.1	11.9	100.0	1.61(.72)
		만40~49세		241	40.7	51.0	8.3	-	91.7	8.3	100.0	1.68(.62)
		만50~59세		245	32.2	55.1	11.8	0.8	87.3	12.6	100.0	1.81(.66)
		만60~64세		110	20.0	63.6	15.5	0.9	83.6	16.4	100.0	1.97(.63)
	남성	만19~29세		210	35.7	45.7	15.2	3.3	81.4	18.5	100.0	1.87(.80)
		만30~39세		211	27.5	52.6	17.1	2.8	80.1	19.9	100.0	1.95(.74)
		만40~49세		249	16.5	63.5	18.1	2.0	80.0	20.1	100.0	2.06(.66)
		만50~59세		250	16.4	70.8	12.8	-	87.2	12.8	100.0	1.97(.54)
		만60~64세		112	15.2	63.4	21.4	-	78.6	21.4	100.0	2.06(.61)
지역	여성	도시		578	41.3	47.1	10.9	0.7	88.4	11.6	100.0	1.71(.68)
		도농복합·농촌		404	45.5	45.5	9.0	-	91.0	9.0	100.0	1.63(.64)
	남성	도시		594	21.2	60.6	16.7	1.5	81.8	18.2	100.0	1.99(.66)
		도농복합·농촌		440	24.1	57.5	16.1	2.3	81.6	18.4	100.0	1.96(.70)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55.5	36.2	8.1	0.2	91.6	8.4	100.0	1.53(.66)
		자녀 있음		552	33.3	54.3	11.8	0.5	87.7	12.3	100.0	1.79(.65)
		자녀 성별	모두	184	34.2	52.2	13.6	-	86.4	13.6	100.0	1.80(.66)
			아들만	209	30.6	56.5	12.4	0.5	87.1	12.9	100.0	1.83(.65)
			딸만	159	35.8	54.1	8.8	1.3	89.9	10.1	100.0	1.75(.65)
	남성	자녀 없음		493	29.4	51.3	16.6	2.6	80.7	19.3	100.0	1.92(.75)
		자녀 있음		542	16.2	66.4	16.2	1.1	82.7	17.3	100.0	2.02(.61)
		자녀 성별	모두	180	15.6	70.0	12.8	1.7	85.6	14.4	100.0	2.01(.59)
			아들만	194	14.9	66.0	18.6	0.5	80.9	19.1	100.0	2.05(.60)
			딸만	168	18.5	63.1	17.3	1.2	81.5	18.5	100.0	2.01(.63)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표 3-9]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하지않음	② 동의하지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36.6	52.8	9.5	1.1	89.4	10.6	100.0	1.75(.67)
성별	여성			983	47.9	47.3	4.8	-	95.2	4.8	100.0	1.57(.58)
	남성			1,034	25.9	58.0	13.9	2.1	84.0	16.0	100.0	1.92(.69)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71.6	23.7	4.7	-	95.3	4.7	100.0	1.33(.57)
		만30~39세		194	59.3	38.7	2.1	-	98.0	2.0	100.0	1.43(.53)
		만40~49세		242	45.9	47.9	6.2	-	93.8	6.2	100.0	1.60(.60)
		만50~59세		245	32.7	62.0	5.3	-	94.7	5.3	100.0	1.73(.55)
		만60~64세		111	26.1	68.5	5.4	-	94.6	5.4	100.0	1.79(.52)
	남성	만19~29세		211	41.2	42.7	12.8	3.3	83.9	16.1	100.0	1.78(.79)
		만30~39세		211	32.7	51.7	11.4	4.3	84.4	15.7	100.0	1.87(.77)
		만40~49세		250	20.8	62.0	15.6	1.6	82.8	17.2	100.0	1.98(.65)
		만50~59세		249	19.7	66.3	14.1	-	86.0	14.1	100.0	1.94(.58)
		만60~64세		112	9.8	72.3	15.2	2.7	82.1	17.9	100.0	2.11(.59)
지역	여성	도시		578	47.8	47.4	4.8	-	95.2	4.8	100.0	1.57(.58)
		도농복합·농촌		405	48.1	47.2	4.7	-	95.3	4.7	100.0	1.56(.58)
	남성	도시		594	25.8	56.9	15.5	1.9	82.7	17.3	100.0	1.93(.70)
		도농복합·농촌		439	26.2	59.5	11.8	2.5	85.7	14.3	100.0	1.91(.69)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60.6	34.3	5.1	-	94.9	5.1	100.0	1.45(.59)
		자녀 있음		552	38.0	57.4	4.5	-	95.5	4.5	100.0	1.66(.56)
		자녀 성별	모두	185	31.9	62.7	5.4	-	94.6	5.4	100.0	1.74(.55)
			아들만	208	40.9	56.3	2.9	-	97.1	2.9	100.0	1.62(.54)
			딸만	158	41.1	53.2	5.7	-	94.3	5.7	100.0	1.64(.58)
	남성	자녀 없음		492	33.5	51.4	11.8	3.3	85.0	15.0	100.0	1.84(.75)
		자녀 있음		543	19.0	63.9	15.8	1.3	82.9	17.1	100.0	1.99(.63)
		자녀 성별	모두	179	15.1	68.7	15.1	1.1	83.8	16.2	100.0	2.03(.60)
			아들만	194	16.5	62.9	20.1	0.5	79.4	20.6	100.0	2.05(.62)
			딸만	168	26.2	60.1	11.9	1.8	86.3	13.7	100.0	1.90(.67)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표 3-10])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매우 동의함 포함)는 응답이 27.7%였다. 그러나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의 응답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은 13.3%가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으나 남성은 41.3%가 동의 또는 매우 동의한다고 하여 3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

연령별로 여성은 동의율은 30대에서 17.0%로 가장 높았으나, 평균은 50대가 1.89점으로 가장 높았다. 남성은 30대에서 동의율이 50.3%로 가장 높았고, 평균도 2.52점으로 높았다.

자녀 유무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자녀 유무에 따라 동의하는 비율에 있어서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남성들은 자녀가 없는 사람(47.6%)이 자녀가 있는 사람(35.6%)에 비해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자녀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딸만 있는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응답이 11.3%로 가장 낮았고, 남성의 경우는 딸아들 모두 있는 사람과 딸만 있는 사람들이 각각 29.1%와 35.9%로 아들만 있는 사람들(41.0%)에 비해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표 3-11])는 여성에 대한 성역할 고정관념 문항 중 가장 높은 동의율을 나타내는 문항이다. 전체 응답자의 73.9%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함 포함)고 응답하였으며, 여성의 67.6%, 남성의 80.0%가 동의하였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동의한다는 응답률도 높아졌으며 40대 이상에서 70% 이상의 높은 동의율을 보였다. 남성은 30대가 71.6%, 20대 이하가 74.4%로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율을 나타내었으나 60대는 90.3%가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있는 사람이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미혼(비혼)자와 자녀가 없는 사람에 비해 높았으며 자녀 성별에 따라 응답의 차이가 있었으나 자녀유무간의 사이에 비하면 격차가 적었다.

[표 3-10]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26.4	45.9	21.2	6.4	72.3	27.7	100.0	2.08(.85)
성별		여성		982	37.0	49.7	11.9	1.4	86.7	13.3	100.0	1.78(.71)
		남성		1,034	16.4	42.3	30.1	11.2	58.7	41.3	100.0	2.36(.89)
연령	여성	만19~29세		189	54.5	36.5	7.4	1.6	91.0	9.0	100.0	1.56(.70)
		만30~39세		194	40.2	42.8	15.5	1.5	83.0	17.0	100.0	1.78(.76)
		만40~49세		242	35.1	51.2	12.4	1.2	86.3	13.6	100.0	1.79(.69)
		만50~59세		246	28.5	56.9	12.2	2.4	85.4	14.6	100.0	1.89(.70)
		만60~64세		111	23.4	64.9	11.7	-	88.3	11.7	100.0	1.88(.59)
	남성	만19~29세		211	21.3	29.9	33.6	15.2	51.2	48.8	100.0	2.42(.99)
		만30~39세		211	16.6	33.2	31.8	18.5	49.7	50.3	100.0	2.52(.98)
		만40~49세		250	14.0	39.2	36.8	10.0	53.2	46.8	100.0	2.43(.85)
		만50~59세		250	17.2	54.4	22.4	6.0	71.6	28.4	100.0	2.17(.78)
		만60~64세		112	10.7	62.5	22.3	4.5	73.2	26.8	100.0	2.22(.69)
지역	여성	도시		578	36.7	50.9	11.2	1.2	87.6	12.4	100.0	1.77(.69)
		도농복합·농촌		404	37.4	48.0	12.9	1.7	85.4	14.6	100.0	1.79(.73)
	남성	도시		594	17.3	39.9	32.2	10.6	57.2	42.8	100.0	2.36(.89)
		도농복합·농촌		439	15.3	45.6	27.1	12.1	60.9	39.1	100.0	2.36(.88)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2	44.7	41.7	12.0	1.6	86.3	13.7	100.0	1.70(.74)
		자녀 있음		550	30.9	56.0	11.8	1.3	86.9	13.1	100.0	1.84(.67)
		자녀 성별	모두	185	29.7	56.2	12.4	1.6	85.9	14.1	100.0	1.85(.68)
			아들만	207	29.5	56.0	13.5	1.0	85.5	14.5	100.0	1.86(.67)
			딸만	159	33.3	55.3	9.4	1.9	88.7	11.3	100.0	1.79(.67)
	남성	자녀 없음		492	19.1	33.3	33.5	14.0	52.4	47.6	100.0	2.42(.95)
		자녀 있음		542	14.0	50.4	26.9	8.7	64.4	35.6	100.0	2.30(.82)
		자녀 성별	모두	179	12.3	58.7	21.2	7.8	70.9	29.1	100.0	2.25(.77)
			아들만	195	12.8	46.2	32.8	8.2	59.0	41.0	100.0	2.37(.81)
			딸만	167	17.4	46.7	26.3	9.6	64.1	35.9	100.0	2.28(.87)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표 3-11]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7.5	18.6	57.7	16.2	26.1	73.9	100.0	2.83(.79)
성별		여성		983	10.3	22.2	56.6	11.0	32.5	67.6	100.0	2.68(.80)
성별		남성		1,034	4.8	15.2	58.8	21.2	20.0	80.0	100.0	2.96(.74)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28.9	21.1	44.7	5.3	50.0	50.0	100.0	2.26(.94)
연령	여성	만30~39세		194	16.0	29.4	47.9	6.7	45.4	54.6	100.0	2.46(.84)
연령	여성	만40~49세		241	4.1	22.4	60.6	12.9	26.5	73.5	100.0	2.82(.70)
연령	여성	만50~59세		245	1.2	20.8	63.3	14.7	22.0	78.0	100.0	2.92(.63)
연령	여성	만60~64세		110	0.9	14.5	69.1	15.5	15.4	84.6	100.0	2.99(.59)
연령	남성	만19~29세		211	9.0	16.6	51.7	22.7	25.6	74.4	100.0	2.88(.87)
연령	남성	만30~39세		211	8.5	19.9	56.9	14.7	28.4	71.6	100.0	2.77(.80)
연령	남성	만40~49세		249	3.2	16.9	59.4	20.5	20.1	79.9	100.0	2.97(.71)
연령	남성	만50~59세		250	0.8	11.6	63.6	24.0	12.4	87.6	100.0	3.11(.62)
연령	남성	만60~64세		113	1.8	8.0	64.6	25.7	9.8	90.3	100.0	3.14(.62)
지역	여성	도시		577	11.6	21.8	56.2	10.4	33.4	66.6	100.0	2.65(.82)
지역	여성	도농복합·농촌		404	8.4	22.5	57.2	11.9	30.9	69.1	100.0	2.72(.78)
지역	남성	도시		595	5.5	15.1	59.7	19.7	20.6	79.4	100.0	2.94(.75)
지역	남성	도농복합·농촌		439	3.9	15.3	57.9	23.0	19.2	80.9	100.0	3.00(.73)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20.2	23.2	49.4	7.2	43.4	56.6	100.0	2.44(.89)
자녀유무	여성	자녀 있음		551	2.5	21.4	62.3	13.8	24.0	76.0	100.0	2.87(.66)
자녀유무	여성	자녀 성별	모두	185	2.7	22.2	62.2	13.0	24.9	75.1	100.0	2.85(.67)
자녀유무	여성	자녀 성별	아들만	207	2.9	20.8	60.9	15.5	23.7	76.3	100.0	2.89(.69)
자녀유무	여성	자녀 성별	딸만	158	1.3	21.5	64.6	12.7	22.8	77.2	100.0	2.89(.62)
자녀유무	남성	자녀 없음		492	7.1	18.3	55.9	18.7	25.4	74.6	100.0	2.86(.80)
자녀유무	남성	자녀 있음		543	2.8	12.3	61.5	23.4	15.1	84.9	100.0	3.06(.68)
자녀유무	남성	자녀 성별	모두	180	2.2	11.1	58.9	27.8	13.3	86.7	100.0	3.13(.68)
자녀유무	남성	자녀 성별	아들만	194	3.1	11.9	61.3	23.7	14.9	85.1	100.0	3.06(.69)
자녀유무	남성	자녀 성별	딸만	168	3.0	14.3	64.9	17.9	17.3	82.7	100.0	2.9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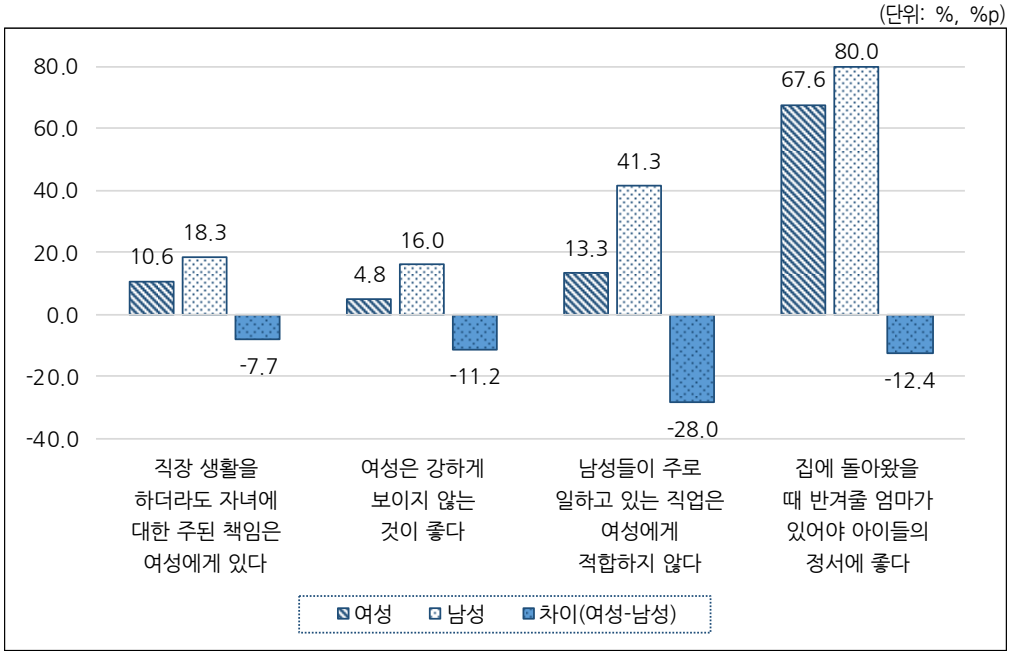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에서 성별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문항은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는 것으로 성별 응답에 있어서 28%p(여성 13.3%, 남성 41.3%)의 차이가 나타났다. 앞서 살펴본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여성 5.1%, 16.2%) 는 문항에 비해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고 성별 인식 차이도 커서, 남성들이 주로 근무하는 직종에 여성들이 진입하는 것에 대한 상대적으로 큰 진입장벽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는 문항은 성별 응답 차이가 7.7%p로 가장 작았고 동의율도 낮은 편이다(여성 10.6%, 남성 18.3%). 그러나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는 여성의 67.6%, 남성 80.0%)을 나타내어 여전히 돌봄 역할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돌봄이 여성의 주된 역할은 아니라고 응답하였지만, 여전히 아이들 돌보는 엄마의 존재의 필요성에는 높게 동의하고 있어 불일치를 나타낸다.

[그림 3-3]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단위: %, %p)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합계임.

(3)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표 3-12])에 대해서는 전체의 27.5%, 여성의 22.1%, 남성의 32.7%가 동의(매우 동의함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남성은 30대(24.3%)가 20대(25.1%)보다 약간 낮았다. 그러나 평균은 모두 연령이 증가하면 함께 증가하였다. 자녀유무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동의율이 높았다. 자녀의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딸만 있는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평균 또한 낮았다.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표 3-13])에 대해서는 전체의 12.9%, 여성의 6.4%, 남성의 19.1%가 동의(매우 동의함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의한다는 응답은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다. 여성의 경우 20대 이하의 2.1%, 30대의 3.6%, 40대의 4.9% 만이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 자녀유무별로는 역시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동의율이 높았다. 자녀의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딸만 있는 경우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평균 또한 낮았다.

[표 3-12]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28.8	43.7	25.0	2.5	72.5	27.5	100.0	2.01(.80)
성별		여성		982	36.2	41.8	21.1	1.0	78.0	22.1	100.0	1.87(.77)
		남성		1,035	21.8	45.5	28.8	3.9	67.3	32.7	100.0	2.15(.80)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63.2	24.7	11.6	0.5	87.9	12.1	100.0	1.49(.71)
		만30~39세		195	47.7	31.8	19.0	1.5	79.5	20.5	100.0	1.74(.81)
		만40~49세		242	26.9	47.5	24.8	0.8	74.4	25.6	100.0	2.00(.74)
		만50~59세		244	23.8	51.6	23.4	1.2	75.4	24.6	100.0	2.02(.72)
		만60~64세		112	17.9	52.7	27.7	1.8	70.6	29.5	100.0	2.13(.71)
	남성	만19~29세		211	37.9	37.0	19.4	5.7	74.9	25.1	100.0	1.93(.89)
		만30~39세		210	31.0	44.8	21.4	2.9	75.8	24.3	100.0	1.96(.80)
		만40~49세		251	16.3	48.2	32.3	3.2	64.5	35.5	100.0	2.22(.75)
		만50~59세		249	12.4	48.2	36.5	2.8	60.6	39.3	100.0	2.30(.72)
		만60~64세		113	8.0	51.3	34.5	6.2	59.3	40.7	100.0	2.40(.72)
지역	여성	도시		579	36.3	42.1	20.4	1.2	78.4	21.6	100.0	1.86(.77)
		도농복합·농촌		404	35.9	41.3	22.0	0.7	77.2	22.7	100.0	1.88(.77)
	남성	도시		594	21.7	45.8	28.8	3.7	67.5	32.5	100.0	2.14(.80)
		도농복합·농촌		438	21.9	45.2	29.0	3.9	67.1	32.9	100.0	2.15(.80)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49.2	32.0	17.9	0.9	81.2	18.8	100.0	1.70(.79)
		자녀 있음		551	25.8	49.5	23.6	1.1	75.3	24.7	100.0	2.00(.73)
		자녀 성별	모두	185	25.4	48.1	24.9	1.6	73.5	26.5	100.0	2.03(.76)
			아들만	208	24.5	51.0	24.0	0.5	75.5	24.5	100.0	2.01(.71)
			딸만	158	27.8	49.4	21.5	1.3	77.2	22.8	100.0	1.96(.74)
	남성	자녀 없음		492	29.7	41.7	25.0	3.7	71.3	28.7	100.0	2.03(.83)
		자녀 있음		542	14.8	49.1	32.3	3.9	63.8	36.2	100.0	2.25(.75)
		자녀 성별	모두	179	10.1	54.2	31.3	4.5	64.2	35.8	100.0	2.30(.71)
			아들만	195	16.4	45.1	34.9	3.6	61.5	38.5	100.0	2.26(.77)
			딸만	168	17.9	48.2	30.4	3.6	66.1	33.9	100.0	2.20(.77)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표 3-13]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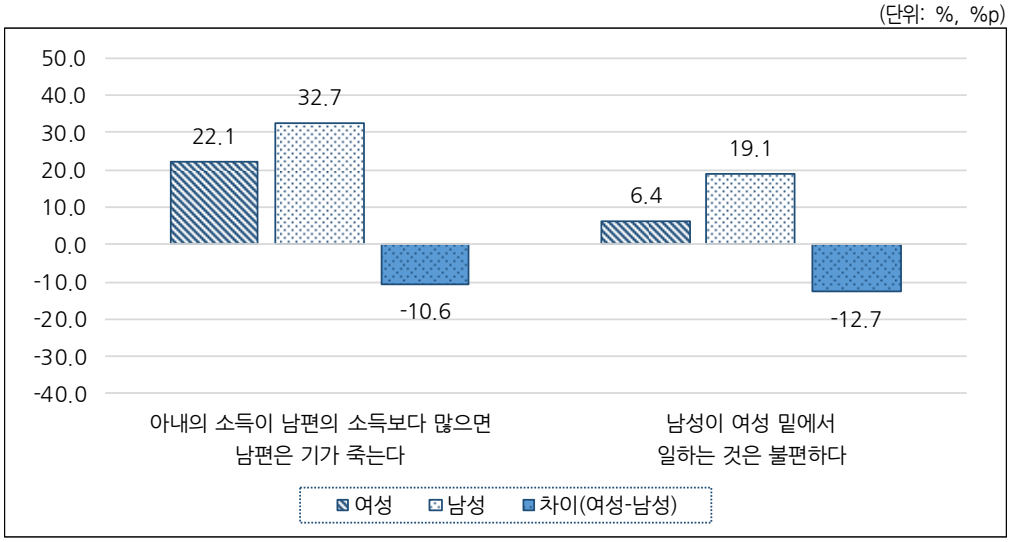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37.8	49.3	11.2	1.7	87.1	12.9	100.0	1.77(.71)
성별		여성		982	46.9	46.6	6.0	0.4	93.5	6.4	100.0	1.60(.62)
		남성		1,033	29.1	51.8	16.1	3.0	80.9	19.1	100.0	1.93(.75)
연령	여성	만19~29세		191	76.4	21.5	2.1	-	97.9	2.1	100.0	1.25(.48)
		만30~39세		193	63.7	32.6	2.6	1.0	96.3	3.6	100.0	1.41(.60)
		만40~49세		242	41.3	53.7	4.5	0.4	95.0	4.9	100.0	1.63(.58)
		만50~59세		245	29.0	60.8	9.8	0.4	89.8	10.2	100.0	1.82(.61)
		만60~64세		111	18.9	67.6	13.5	-	86.5	13.5	100.0	1.95(.57)
	남성	만19~29세		211	48.8	37.9	9.0	4.3	86.7	13.3	100.0	1.69(.81)
		만30~39세		210	39.0	47.6	10.5	2.9	86.6	13.4	100.0	1.78(.75)
		만40~49세		250	26.4	54.0	16.4	3.2	80.4	19.6	100.0	1.97(.74)
		만50~59세		250	15.2	60.4	22.4	2.0	75.6	24.4	100.0	2.11(.67)
		만60~64세		113	12.4	61.1	23.9	2.7	73.5	26.6	100.0	2.18(.66)
지역	여성	도시		579	46.8	46.8	6.2	0.2	93.6	6.4	100.0	1.60(.61)
		도농복합·농촌		404	47.0	46.5	5.7	0.7	93.5	6.4	100.0	1.60(.63)
	남성	도시		595	30.3	49.1	17.0	3.7	79.4	20.7	100.0	1.94(.79)
		도농복합·농촌		440	27.7	55.2	15.0	2.0	82.9	17.0	100.0	1.91(.71)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64.0	32.7	2.6	0.7	96.8	3.2	100.0	1.40(.58)
		자녀 있음		551	33.8	57.5	8.5	0.2	91.3	8.7	100.0	1.75(.61)
		자녀 성별	모두	185	32.4	57.8	9.7	-	90.3	9.7	100.0	1.77(.61)
			아들만	208	30.8	60.1	9.1	-	90.9	9.1	100.0	1.79(.60)
			딸만	158	39.2	53.8	6.3	0.6	93.0	7.0	100.0	1.69(.62)
	남성	자녀 없음		491	37.5	46.8	12.4	3.3	84.3	15.7	100.0	1.82(.77)
		자녀 있음		542	21.6	56.3	19.4	2.8	77.9	22.1	100.0	2.03(.72)
		자녀 성별	모두	179	13.4	55.9	27.4	3.4	69.3	30.7	100.0	2.20(.71)
			아들만	195	23.6	55.9	19.0	1.5	79.5	20.5	100.0	1.98(.70)
			딸만	168	28.0	57.1	11.3	3.6	85.1	14.9	100.0	1.91(.73)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하여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남성의 지위변화에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남녀 모두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보다 높았으며 성별 동의 정도의 차이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3-4]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대한 동의

(단위: %, %p)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합계임.

(4) 성차별주의 태도

성차별주의 태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전통적 역할을 따르는 여성을 보호하고 돌보는 호의적 감정' 으로 정의할 수 있다(재인용, 마경희 외, 2021: 65). 적대적 성차별주의 문항은 '남성은 여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와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정적 성차별주의 문항은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로 구성되어 있다.

(가) 적대적 성차별주의

‘남성은 여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표 3-14])에 대해 동의하는(매우 동의함 포함) 비율은 전체 31.9%, 여성 26.2%, 남성 37.4%였다.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우 20대의 동의율이 22.2%로 가장 낮았고, 40대 22.4%, 50대 28.1%, 30대 29.3%, 60대 30.6% 순이었다. 남성은 60대가 32.8%로 가장 낮은 동의율을 나타내었고 50대 34.1%, 20대 이하 36.5%, 30대 39.1%, 40대 41.7% 순으로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도시지역 거주자가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특히 남성의 경우 도시지역 응답자의 40.5%가 동의한다고 하여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33.3%에 비해 7.2%p 높았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는 사람이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낮았으나,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 동의한다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딸만 있는 경우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과 평균점수가 모두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표 3-15])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전체의 51.8%가 동의(매우 동의함 포함)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여성 중 37.2%, 남성 중 65.9%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한다는 비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였으며, 남성의 경우는 반대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여성과 비교하였을 때 응답에 있어서 연령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은 20대 이하(22.1%)와 60대(52.6%)가 동의율에 있어서 30.5%p(약 2.4배)의 차이가 나타나나 남성은 가장 동의율이 높은 30대(69.5%)와 가장 동의율이 낮은 60대(61.1%) 사이의 차이가 8.4%p에 불과하다.

자녀유무별로는 여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54.6%) 자녀가 없는 사람에 비해(26.7%), 남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68.4%)이 자녀가 있는 사람(63.5%)에 비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자녀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아들만 있는 사람(여성 51.4%, 남성 64.1%)이 요즘 여성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장 높았다.

[표 3-14]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9.5	48.6	26.4	5.5	68.1	31.9	100.0	2.18(.80)
성별		여성		983	24.0	49.8	23.0	3.2	73.8	26.2	100.0	2.05(.77)
		남성		1,035	15.2	47.4	29.7	7.7	62.6	37.4	100.0	2.30(.82)
연령	여성	만19~29세		189	38.6	39.2	18.5	3.7	77.8	22.2	100.0	1.87(.84)
		만30~39세		195	23.1	47.7	22.6	6.7	70.8	29.3	100.0	2.13(.84)
		만40~49세		241	26.1	51.5	21.6	0.8	77.6	22.4	100.0	1.97(.72)
		만50~59세		245	17.1	54.7	25.7	2.4	71.8	28.1	100.0	2.13(.71)
		만60~64세		111	10.8	58.6	27.9	2.7	69.4	30.6	100.0	2.23(.68)
	남성	만19~29세		211	24.6	38.9	27.5	9.0	63.5	36.5	100.0	2.21(.92)
		만30~39세		210	15.7	45.2	31.0	8.1	60.9	39.1	100.0	2.32(.84)
		만40~49세		249	13.7	44.6	31.7	10.0	58.3	41.7	100.0	2.38(.84)
		만50~59세		249	11.6	54.2	27.7	6.4	65.8	34.1	100.0	2.30(.76)
		만60~64세		113	8.0	59.3	31.0	1.8	67.3	32.8	100.0	2.26(.62)
지역	여성	도시		578	22.8	50.3	22.8	4.0	73.1	26.8	100.0	2.08(.78)
		도농복합·농촌		405	25.7	49.1	23.2	2.0	74.8	25.2	100.0	2.02(.76)
	남성	도시		596	12.6	47.0	31.9	8.6	59.6	40.5	100.0	2.36(.81)
		도농복합·농촌		439	18.7	48.1	26.7	6.6	66.8	33.3	100.0	2.21(.82)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29.5	44.5	21.8	4.2	74.0	26.0	100.0	2.01(.83)
		자녀 있음		552	19.7	54.0	23.9	2.4	73.7	26.3	100.0	2.09(.72)
		자녀 성별	모두	186	21.5	51.6	23.7	3.2	73.1	26.9	100.0	2.09(.76)
			아들만	207	16.9	56.5	25.1	1.4	73.4	26.6	100.0	2.11(.69)
			딸만	158	21.5	53.2	22.8	2.5	74.7	25.3	100.0	2.06(.73)
	남성	자녀 없음		491	18.5	43.0	29.9	8.6	61.5	38.5	100.0	2.29(.86)
		자녀 있음		542	12.0	51.7	29.3	7.0	63.7	36.3	100.0	2.31(.77)
		자녀 성별	모두	180	8.9	52.2	32.8	6.1	61.1	38.9	100.0	2.36(.73)
			아들만	195	12.3	50.3	28.7	8.7	62.6	37.4	100.0	2.33(.80)
			딸만	168	14.9	52.4	26.8	6.0	67.3	32.7	100.0	2.24(.78)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표 3-15]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4.4	33.7	38.0	13.8	48.1	51.8	100.0	2.51(.90)
성별	여성			982	23.6	39.2	30.7	6.5	62.8	37.2	100.0	2.20(.87)
	남성			1,034	5.7	28.4	45.1	20.8	34.1	65.9	100.0	2.81(.83)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41.1	36.8	18.4	3.7	77.9	22.1	100.0	1.85(.85)
		만30~39세		195	36.4	34.4	25.1	4.1	70.8	29.2	100.0	1.96(.88)
		만40~49세		242	19.8	43.0	31.4	5.8	62.8	37.2	100.0	2.23(.83)
		만50~59세		244	10.7	41.4	36.9	11.1	52.1	48.0	100.0	2.49(.83)
		만60~64세		112	8.0	39.3	45.5	7.1	47.3	52.6	100.0	2.53(.75)
	남성	만19~29세		211	8.5	24.2	35.5	31.8	32.7	67.3	100.0	2.91(.95)
		만30~39세		210	8.6	21.9	45.2	24.3	30.5	69.5	100.0	2.85(.89)
		만40~49세		250	4.4	26.8	49.2	19.6	31.2	68.8	100.0	2.84(.79)
		만50~59세		250	3.6	35.2	45.6	15.6	38.8	61.2	100.0	2.73(.76)
		만60~64세		113	2.7	36.3	53.1	8.0	39.0	61.1	100.0	2.67(.66)
지역	여성	도시		577	23.4	37.1	33.6	5.9	60.5	39.5	100.0	2.22(.87)
		도농복합·농촌		405	24.0	42.2	26.4	7.4	66.2	33.8	100.0	2.17(.88)
	남성	도시		595	5.9	27.2	45.5	21.3	33.1	66.8	100.0	2.82(.83)
		도농복합·농촌		439	5.5	29.8	44.4	20.3	35.3	64.7	100.0	2.79(.82)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37.1	36.2	21.8	4.9	73.3	26.7	100.0	1.95(.89)
		자녀 있음		551	13.1	41.6	37.6	7.8	54.6	45.4	100.0	2.40(.81)
		자녀 성별	모두	185	11.4	43.8	40.0	4.9	55.1	44.9	100.0	2.38(.75)
			아들만	208	12.0	36.5	39.4	12.0	48.6	51.4	100.0	2.52(.85)
			딸만	158	16.5	45.6	32.3	5.7	62.0	38.0	100.0	2.27(.81)
	남성	자녀 없음		493	7.7	23.9	40.6	27.8	31.6	68.4	100.0	2.89(.90)
		자녀 있음		542	4.1	32.5	49.1	14.4	36.5	63.5	100.0	2.74(.75)
		자녀 성별	모두	180	1.7	34.4	52.2	11.7	36.1	63.9	100.0	2.74(.68)
			아들만	195	5.1	30.8	48.7	15.4	35.9	64.1	100.0	2.75(.78)
			딸만	168	5.4	32.7	45.8	16.1	38.1	61.9	100.0	2.73(.79)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나) 온정적 성차별주의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표 3-16])는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의 46.1%가 동의(매우 동의함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35.8%, 남성의 55.9%가 동의한다고 하였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40대 이하에서는 동의 정도가 비교적 유사하게 나타났고(40대 30.5%, 20대 이하 31.0%, 30대 32.3%) 40대 이후 동의율이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남성은 30대 41.9%, 20대 이하 45.9%로 30대 이하에서 상대적으로 동의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40대 이후 동의한다는 응답이 연령의 증가와 함께 크게 증가하고 있었다. 60대 남성의 경우는 81.4%가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였다.

자녀유무에 있어서는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 성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딸만 있는 경우가 동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으나(여성 29.7%, 남성 59.5%) 남성의 경우는 아들이 있는 사람들과의 응답 차이가 여성에 비해 크지 않았다.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표 3-17])에 대해서는 전체의 56.1%, 여성의 50.1%, 남성의 61.8%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응답하여 여성의 경우도 과반 이상이 해당 문항에 동의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해당 문항에 동의한다는 응답 또한 높아졌으며 남성도 유사한 경향성을 띄고 있으나 30대(47.2%)가 동의한다는 응답이 20대(49.1%)보다 약간 낮았다. 그러나 평균은 20대가 2.36점으로 남성 중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서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 성별로는 남녀 모두 딸과 아들이 모두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차이가 3~4%p 내외 수준으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평균은 아들만 있는 사람들이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표 3-16]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3.5	40.4	41.6	4.5	53.9	46.1	100.0	2.37(.77)
성별		여성		982	15.2	49.0	33.5	2.3	64.2	35.8	100.0	2.23(.73)
		남성		1,033	11.9	32.2	49.4	6.5	44.1	55.9	100.0	2.50(.79)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29.5	39.5	28.9	2.1	69.0	31.0	100.0	2.04(.82)
		만30~39세		195	20.5	47.2	29.2	3.1	67.7	32.3	100.0	2.15(.78)
		만40~49세		242	11.2	58.3	29.3	1.2	69.5	30.5	100.0	2.20(.64)
		만50~59세		245	8.2	50.6	38.4	2.9	58.8	41.3	100.0	2.35(.67)
		만60~64세		112	5.4	44.6	46.4	3.6	50.0	50.0	100.0	2.49(.65)
	남성	만19~29세		211	20.4	33.6	37.4	8.5	54.0	45.9	100.0	2.34(.90)
		만30~39세		210	18.6	39.5	36.2	5.7	58.1	41.9	100.0	2.29(.83)
		만40~49세		250	10.4	37.2	46.0	6.4	47.6	52.4	100.0	2.49(.77)
		만50~59세		250	5.2	26.8	61.2	6.8	32.0	68.0	100.0	2.69(.67)
		만60~64세		113	1.8	16.8	77.0	4.4	18.6	81.4	100.0	2.84(.51)
지역	여성	도시		579	15.0	48.7	33.7	2.6	63.7	36.3	100.0	2.24(.73)
		도농복합·농촌		405	15.3	49.4	33.1	2.2	64.7	35.3	100.0	2.22(.72)
	남성	도시		595	12.3	33.3	48.7	5.7	45.6	54.4	100.0	2.48(.78)
		도농복합·농촌		439	11.4	31.0	50.1	7.5	42.4	57.6	100.0	2.54(.79)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22.5	43.9	31.1	2.6	66.4	33.6	100.0	2.14(.79)
		자녀 있음		551	9.3	53.2	35.2	2.4	62.4	37.6	100.0	2.31(.67)
		자녀 성별	모두	185	8.6	47.6	40.0	3.8	56.2	43.8	100.0	2.39(.70)
			아들만	208	10.1	51.9	36.5	1.4	62.0	38.0	100.0	2.29(.66)
			딸만	158	8.9	61.4	28.5	1.3	70.3	29.7	100.0	2.22(.62)
	남성	자녀 없음		492	17.5	34.1	42.5	5.9	51.6	48.4	100.0	2.37(.84)
		자녀 있음		542	6.8	30.4	55.7	7.0	37.3	62.7	100.0	2.63(.71)
		자녀 성별	모두	180	6.7	25.6	59.4	8.3	32.2	67.8	100.0	2.69(.71)
			아들만	194	6.2	33.0	54.1	6.7	39.2	60.8	100.0	2.61(.71)
			딸만	168	7.7	32.7	53.6	6.0	40.5	59.5	100.0	2.58(.72)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표 3-17]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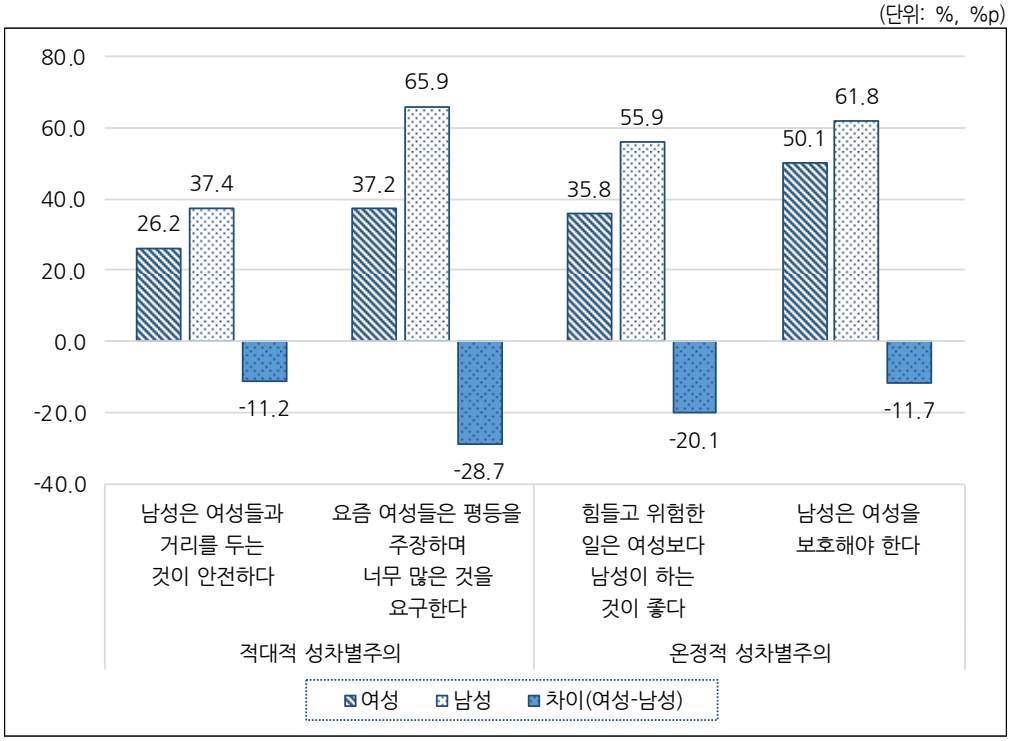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0.1	33.8	50.1	6.0	43.9	56.1	100.0	2.52(.76)
성별	여성			982	10.9	39.0	46.0	4.1	49.9	50.1	100.0	2.43(.74)
	남성			1,034	9.4	28.8	54.1	7.7	38.2	61.8	100.0	2.60(.76)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18.4	38.4	42.1	1.1	56.8	43.2	100.0	2.26(.77)
		만30~39세		194	14.9	39.2	37.6	8.2	54.1	45.8	100.0	2.40(.84)
		만40~49세		241	10.0	43.2	44.4	2.5	53.2	46.9	100.0	2.39(.70)
		만50~59세		244	4.9	38.9	52.5	3.7	43.8	56.2	100.0	2.55(.65)
		만60~64세		111	6.3	31.5	56.8	5.4	37.8	62.2	100.0	2.61(.70)
	남성	만19~29세		210	20.0	31.0	42.4	6.7	51.0	49.1	100.0	2.36(.88)
		만30~39세		210	15.2	37.6	40.5	6.7	52.8	47.2	100.0	2.38(.83)
		만40~49세		250	4.0	29.6	57.6	8.8	33.6	66.4	100.0	2.71(.68)
		만50~59세		250	4.4	22.8	66.0	6.8	27.2	72.8	100.0	2.75(.64)
		만60~64세		113	1.8	20.4	67.3	10.6	22.2	77.9	100.0	2.88(.59)
지역	여성	도시		577	12.0	39.7	45.2	3.1	51.7	48.3	100.0	2.39(.74)
		도농복합·농촌		404	9.4	38.1	47.0	5.4	47.5	52.4	100.0	2.49(.74)
	남성	도시		594	10.8	29.3	53.2	6.7	40.1	59.9	100.0	2.56(.77)
		도농복합·농촌		439	7.5	28.2	55.1	9.1	35.7	64.2	100.0	2.66(.75)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0	15.1	38.6	41.6	4.7	53.7	46.3	100.0	2.36(.79)
		자녀 있음		552	7.6	39.3	49.5	3.6	46.9	53.1	100.0	2.49(.69)
		자녀 성별	모두	185	8.1	37.3	51.9	2.7	45.4	54.6	100.0	2.49(.68)
			아들만	208	8.7	38.5	50.0	2.9	47.1	52.9	100.0	2.47(.70)
			딸만	158	5.7	42.4	46.2	5.7	48.1	51.9	100.0	2.51(.69)
	남성	자녀 없음		492	15.4	34.1	44.5	5.9	49.6	50.4	100.0	2.41(.82)
		자녀 있음		542	3.9	24.0	62.7	9.4	27.9	72.1	100.0	2.78(.66)
		자녀 성별	모두	180	4.4	21.1	65.6	8.9	25.6	74.4	100.0	2.79(.66)
			아들만	195	4.1	25.1	62.1	8.7	29.2	70.8	100.0	2.75(.67)
			딸만	168	3.0	25.6	60.1	11.3	28.6	71.4	100.0	2.80(.67)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성차별주의 문항 중에서 여성은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50.0%),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37.2%),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35.8%), ‘남성은 여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26.2%) 순으로 동의하였으나, 남성은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65.9%),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61.8%),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55.9%), 남성은 여성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37.4%) 순으로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여성에 비해 성차별주의와 관련한 모든 문항에 있어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동의율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은 여성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문항으로 28.7%p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힘들고 위험한 일은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는 문항으로 20.1%p의 응답 차이가 있었다. 이외의 문항들은 이보다는 동의율에 있어서 차이가 작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10%p 이상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그림 3-5] 성차별주의

(단위: %, %p)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합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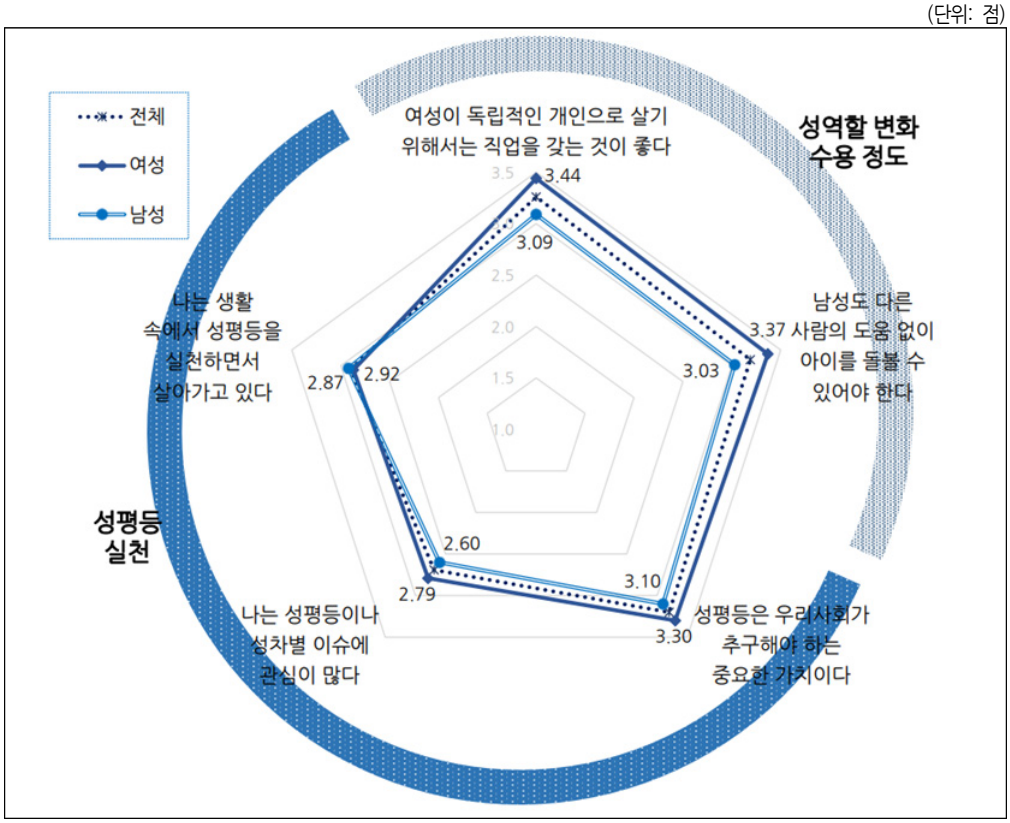
나) 성평등 수용

성평등 수용은 성역할 변화 수용 정도와 성평등 실천을 포함하고 있다. 성역할 변화 수용 정도에는 2문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의 2문항이 포함된다. 성평등 실천과 관련하여서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의 3문항이 조사되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성평등 수용 역시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는데,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들이 높았다면, 성평등 수용은 성평등 실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여성들의 동의율이 높았다.

[그림 3-6] 성평등 수용(평균)

(단위: 점)



주: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1) 성역할 변화 수용 정도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표 3-18])는 문항에 있어서 동의한다는 응답(매우 동의함 포함)은 전체 중 88.6%, 여성 중 93.0%, 남성 중 84.3%였다. 성별 차이는 존재하나 대다수의 응답자가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의 97.3%가 동의하여 가장 높은 동의율을 나타내었고, 40대가 91.7%로 가장 낮은 동의율을 나타내었으나 그럼에도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독립된 개인으로 살기 위해 직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90% 이상이었다. 남성의 경우도 60대에서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91.2%로 가장 높았으나 20대 이하 남성의 76.3%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93.7%)이 없는 사람(92.5%)보다,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85.8%)이 자녀가 없는 사람(82.5%)보다 동의율이 높았으나,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딸만 있는 사람(90.6%)이, 남성은 딸과 아들 모두 있는 사람(83.4%)이 동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낮았다.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표 3-19])에 있어서도 여성과 남성 모두에 있어서 높은 동의율이 나타났다. 여성의 89.1%, 남성의 85.2%가 해당 문항에 동의하고 있었으며(매우 동의함 포함) 여성이 독립적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직업이 필요하다는 응답에 비해 동의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20대 이하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95.8%로 가장 높았고, 40대에서 91.3%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최고와 최저의 차이는 4.5%p에 불과하다. 남성의 경우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의율은 높아져서 20대 이하가 80.5%로 가장 낮고, 60대가 93.0%로 가장 높아 12.5%p의 차이가 나타난다. 그러나 평균은 근소한 차이이긴 하지만 20~30대가 3.04점으로 가장 높고 60대가 3.01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20대 안에서 생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 ① 전혀 동의하지 않음과 ④ 매우 동의함의 비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

자녀가 있는 사람 중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딸과 아들이 모두 있는 사람(94.1%), 남성은 아들만 있는 사람(89.2%)의 동의율이 가장 높았으나, 평균은 남녀 모두 딸만 있는 사람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3-18]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인 좋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하지않음	② 동의하지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3.4	8.0	47.5	41.1	11.4	88.6	100.0	3.26(.75)
성별		여성		982	3.1	4.0	38.5	54.5	7.1	93.0	100.0	3.44(.71)
		남성		1,034	3.8	11.9	56.0	28.3	15.7	84.3	100.0	3.09(.74)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3.2	3.2	36.8	56.8	6.4	93.6	100.0	3.47(.71)
		만30~39세		195	4.1	3.1	34.9	57.9	7.2	92.8	100.0	3.47(.75)
		만40~49세		241	3.3	5.0	35.7	56.0	8.3	91.7	100.0	3.44(.75)
		만50~59세		244	2.5	4.9	42.6	50.0	7.4	92.6	100.0	3.39(.71)
		만60~64세		111	0.9	1.8	45.0	52.3	2.7	97.3	100.0	3.48(.59)
	남성	만19~29세		211	8.1	15.6	46.9	29.4	23.7	76.3	100.0	2.97(.88)
		만30~39세		210	4.8	10.5	56.7	28.1	15.3	84.8	100.0	3.08(.76)
		만40~49세		250	2.8	13.2	56.0	28.0	16.0	84.0	100.0	3.09(.71)
		만50~59세		250	1.2	10.8	58.4	29.6	12.0	88.0	100.0	3.16(.66)
		만60~64세		113	1.8	7.1	66.4	24.8	8.9	91.2	100.0	3.15(.60)
지역	여성	도시		578	3.3	3.6	39.1	54.0	6.9	93.1	100.0	3.44(.72)
		도농복합·농촌		405	2.7	4.4	37.8	55.1	7.1	92.9	100.0	3.45(.71)
	남성	도시		594	3.7	12.1	55.9	28.3	15.8	84.2	100.0	3.09(.74)
		도농복합·농촌		439	3.9	11.4	56.3	28.5	15.3	84.8	100.0	3.09(.74)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3.0	3.2	35.7	58.0	6.3	93.7	100.0	3.48(.71)
		자녀 있음		550	2.9	4.5	40.7	51.8	7.5	92.5	100.0	3.41(.72)
		자녀성별	모두	185	1.6	4.3	44.9	49.2	5.9	94.1	100.0	3.41(.66)
			아들만	209	2.4	5.3	39.2	53.1	7.7	92.3	100.0	3.44(.70)
			딸만	159	5.7	3.8	37.7	52.8	9.4	90.6	100.0	3.38(.80)
	남성	자녀 없음		492	5.1	12.4	55.7	26.8	17.5	82.5	100.0	3.04(.77)
		자녀 있음		543	2.8	11.4	56.2	29.7	14.2	85.8	100.0	3.13(.71)
		자녀성별	모두	181	3.3	13.3	54.7	28.7	16.6	83.4	100.0	3.09(.74)
			아들만	195	2.6	9.7	61.0	26.7	12.3	87.7	100.0	3.13(.67)
			딸만	168	2.4	11.3	52.4	33.9	13.7	86.3	100.0	3.18(.72)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표 3-19]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2.2	8.7	56.6	32.5	10.9	89.1	100.0	3.19(.68)
성별		여성		982	2.3	4.5	46.9	46.2	6.8	93.1	100.0	3.37(.68)
		남성		1,035	2.1	12.7	65.8	19.4	14.8	85.2	100.0	3.03(.64)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2.1	2.1	34.7	61.1	4.2	95.8	100.0	3.55(.64)
		만30~39세		195	2.6	4.6	35.4	57.4	7.2	92.8	100.0	3.48(.70)
		만40~49세		241	3.3	5.4	41.1	50.2	8.7	91.3	100.0	3.38(.74)
		만50~59세		244	1.6	5.3	59.4	33.6	6.9	93.0	100.0	3.25(.63)
		만60~64세		112	1.8	4.5	74.1	19.6	6.3	93.7	100.0	3.12(.54)
	남성	만19~29세		211	5.2	14.2	52.1	28.4	19.4	80.5	100.0	3.04(.80)
		만30~39세		210	2.4	14.8	60.0	22.9	17.2	82.9	100.0	3.04(.68)
		만40~49세		250	1.6	14.0	64.8	19.6	15.6	84.4	100.0	3.03(.63)
		만50~59세		251	0.8	11.2	74.1	13.9	12.0	88.0	100.0	3.02(.53)
		만60~64세		114	0.9	6.1	85.1	7.9	7.0	93.0	100.0	3.01(.40)
지역	여성	도시		578	2.6	4.2	48.8	44.5	6.8	93.3	100.0	3.35(.68)
		도농복합·농촌		405	2.0	5.2	44.2	48.6	7.2	92.8	100.0	3.40(.67)
	남성	도시		595	2.2	12.9	65.4	19.5	15.1	84.9	100.0	3.02(.64)
		도농복합·농촌		439	1.8	12.3	66.5	19.4	14.1	85.9	100.0	3.03(.63)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1.9	3.5	37.4	57.3	5.3	94.7	100.0	3.50(.66)
		자녀 있음		550	2.5	5.3	54.5	37.6	7.8	92.2	100.0	3.27(.68)
		자녀 성별	모두	185	0.5	5.4	57.3	36.8	5.9	94.1	100.0	3.29(.61)
			아들만	207	3.9	4.8	58.0	33.3	8.7	91.3	100.0	3.21(.70)
			딸만	158	3.2	5.7	46.8	44.3	8.9	91.1	100.0	3.32(.73)
	남성	자녀 없음		492	3.7	12.8	61.2	22.4	16.5	83.5	100.0	3.02(.71)
		자녀 있음		543	0.7	12.5	70.0	16.8	13.3	86.7	100.0	3.03(.57)
		자녀 성별	모두	180	0.6	14.4	72.8	12.2	15.0	85.0	100.0	2.97(.53)
			아들만	194	1.0	9.8	72.7	16.5	10.8	89.2	100.0	3.04(.55)
			딸만	168	0.6	13.7	64.3	21.4	14.3	85.7	100.0	3.07(.61)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2) 성평등 실천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표 3-20]) 역시 대부분의 응답자가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90.2%, 여성의 93.2%, 남성의 87.2%가 동의한다고 하였으며(매우 동의함 포함), 여성이 남성에 비해 5.0%p 높았으며, ④ 매우 동의함의 비율은 13.1%p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20대 이하의 96.3%가 동의한다고 하여 가장 높은 동의율을 나타내었고, 40대의 동의율이 91.7%로 가장 낮았다. 그러나 평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는데, 이는 ④ 매우 동의함의 응답 비율과 관련이 있다. 남성은 60대의 동의율이 92.0%로 가장 높았고, 30대가 84.0%로 가장 낮았으며, 평균은 20대(3.14점)에서 가장 높고, 50대(3.06점)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94.9%)이,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88.6%)이 성평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약간 더 높았다. 그런데 여성의 경우는 자녀가 없는 사람의 50.1%가 ④ 매우 동의한다고 하여 자녀가 있는 사람의(28.3%)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성평등 가치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자녀 유무에 따른 매우 동의의 차이가 1.2%p에 불과하여 여성과는 차이가 있었다. 자녀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딸과 아들이 모두 있는 사람(95.7%)과 딸만 있는 사람(92.4%)이 아들만 있는 사람(88.9%)에 비해 성평등 가치에 보다 동의하고 있었고, 남성의 경우는 아들만 있는 사람(90.3%)이 딸과 아들 모두 있거나(86.6%), 딸만 있는 사람(88.7%)에 비해 성평등이 중요한 가치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표 3-21])는 성평등 실천의 다른 문항들에 비해서는 동의율이 낮았다. 전체의 63.1%, 여성의 69.1%, 남성의 57.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역시 여성이 남성보다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대 이하에서 동의율(73.3%)과 평균(2.94점)이 높았고, 30대 이후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동의율과 평균이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다. 남성은 60대의 동의 비율이 68.2%로 가장 높았으나 평균은 20대 이하가 2.74점으로 가장 높았고, 30대는 동의한다는 응답(49.0%)과 평균(2.50점) 모두 가장 낮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④ 매우 동의함에 대한 응답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높았다.

성평등 및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 역시 성평등 가치에 대한 동의와 마찬가지로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72.6%),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59.2%) 동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딸과 아들이 모두 있는 사람들에게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다른 집단과의 차이가 뚜렷하게 크지는 않았다.

[표 3-20]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8	8.0	59.1	31.1	9.8	90.2	100.0	3.20(.65)
성별		여성		983	1.3	5.4	55.4	37.8	6.7	93.2	100.0	3.30(.63)
성별		남성		1,035	2.3	10.4	62.5	24.7	12.7	87.2	100.0	3.10(.66)
연령	여성	만19~29세		189	1.1	2.6	38.6	57.7	3.7	96.3	100.0	3.53(.61)
연령	여성	만30~39세		194	3.1	4.1	47.9	44.8	7.2	92.7	100.0	3.35(.70)
연령	여성	만40~49세		240	1.3	7.1	59.6	32.1	8.4	91.7	100.0	3.22(.64)
연령	여성	만50~59세		246	0.8	6.1	65.0	28.0	6.9	93.0	100.0	3.21(.57)
연령	여성	만60~64세		112	-	6.3	67.9	25.9	6.3	93.8	100.0	3.20(.53)
연령	남성	만19~29세		211	3.8	10.4	54.0	31.8	14.2	85.8	100.0	3.14(.74)
연령	남성	만30~39세		212	2.4	13.7	55.7	28.3	16.1	84.0	100.0	3.10(.71)
연령	남성	만40~49세		250	2.8	9.2	66.4	21.6	12.0	88.0	100.0	3.07(.64)
연령	남성	만50~59세		249	2.0	10.0	68.3	19.7	12.0	88.0	100.0	3.06(.61)
연령	남성	만60~64세		113	-	8.0	69.0	23.0	8.0	92.0	100.0	3.15(.53)
지역	여성	도시		578	1.4	4.2	57.1	37.4	5.6	94.5	100.0	3.31(.61)
지역	여성	도농복합·농촌		404	1.2	6.9	53.2	38.6	8.1	91.8	100.0	3.29(.65)
지역	남성	도시		595	3.2	9.7	63.7	23.4	12.9	87.1	100.0	3.07(.67)
지역	남성	도농복합·농촌		439	1.1	11.4	60.8	26.7	12.5	87.5	100.0	3.13(.64)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1.6	3.5	44.8	50.1	5.1	94.9	100.0	3.43(.65)
자녀유무	여성	자녀 있음		551	1.1	6.7	63.9	28.3	7.8	92.2	100.0	3.19(.60)
자녀유무	여성	자녀성별	모두	184	-	4.3	64.7	31.0	4.3	95.7	100.0	3.27(.54)
자녀유무	여성	자녀성별	아들만	208	1.4	9.6	65.4	23.6	11.1	88.9	100.0	3.11(.61)
자녀유무	여성	자녀성별	딸만	158	1.9	5.7	61.4	31.0	7.6	92.4	100.0	3.21(.63)
자녀유무	남성	자녀 없음		493	3.2	11.0	60.4	25.4	14.2	85.8	100.0	3.08(.70)
자녀유무	남성	자녀 있음		542	1.5	10.0	64.4	24.2	11.4	88.6	100.0	3.11(.62)
자녀유무	남성	자녀성별	모두	179	1.7	11.7	65.9	20.7	13.4	86.6	100.0	3.05(.63)
자녀유무	남성	자녀성별	아들만	195	0.5	9.2	65.1	25.1	9.7	90.3	100.0	3.15(.58)
자녀유무	남성	자녀성별	딸만	168	2.4	8.9	61.9	26.8	11.3	88.7	100.0	3.14(.66)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표 3-21]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3.7	33.2	53.2	9.9	36.9	63.1	100.0	2.69(.70)
성별	여성			982	2.3	28.5	56.6	12.5	30.8	69.1	100.0	2.79(.68)
	남성			1,034	4.9	37.6	50.0	7.4	42.5	57.4	100.0	2.60(.70)
연령	여성	만19~29세		191	2.6	24.1	50.8	22.5	26.7	73.3	100.0	2.94(.75)
		만30~39세		194	3.1	30.4	51.0	15.5	33.5	66.5	100.0	2.79(.74)
		만40~49세		242	2.5	29.3	58.7	9.5	31.8	68.2	100.0	2.75(.65)
		만50~59세		244	2.5	28.3	60.7	8.6	30.8	69.3	100.0	2.75(.64)
		만60~64세		111	0.9	31.5	63.1	4.5	32.4	67.6	100.0	2.71(.56)
	남성	만19~29세		211	6.6	28.4	49.8	15.2	35.0	65.0	100.0	2.74(.80)
		만30~39세		210	6.2	44.8	41.4	7.6	51.0	49.0	100.0	2.50(.73)
		만40~49세		250	4.0	38.4	51.2	6.4	42.4	57.6	100.0	2.60(.67)
		만50~59세		250	4.0	42.4	49.6	4.0	46.4	53.6	100.0	2.53(.64)
		만60~64세		113	2.7	29.2	65.5	2.7	31.9	68.2	100.0	2.67(.58)
지역	여성	도시		579	2.2	29.5	56.1	12.1	31.7	68.2	100.0	2.78(.68)
		도농복합·농촌		405	2.7	27.2	57.0	13.1	29.9	70.1	100.0	2.81(.69)
	남성	도시		596	5.5	37.2	49.3	7.9	42.7	57.2	100.0	2.60(.71)
		도농복합·농촌		439	4.3	38.0	50.8	6.8	42.3	57.6	100.0	2.60(.68)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2.8	24.6	55.2	17.4	27.4	72.6	100.0	2.87(.72)
		자녀 있음		550	2.0	31.6	57.8	8.5	33.6	66.4	100.0	2.73(.64)
		자녀 성별	모두	184	-	32.1	58.7	9.2	32.1	67.9	100.0	2.77(.60)
			아들만	208	2.4	32.2	59.6	5.8	34.6	65.4	100.0	2.69(.62)
			딸만	159	4.4	30.2	54.1	11.3	34.6	65.4	100.0	2.73(.71)
	남성	자녀 없음		492	7.5	37.0	46.1	9.3	44.5	55.5	100.0	2.57(.76)
		자녀 있음		542	2.6	38.2	53.5	5.7	40.8	59.2	100.0	2.62(.63)
		자녀 성별	모두	180	1.7	38.3	56.1	3.9	40.0	60.0	100.0	2.62(.59)
			아들만	194	2.6	38.7	55.7	3.1	41.2	58.8	100.0	2.59(.60)
			딸만	167	3.6	37.7	48.5	10.2	41.3	58.7	100.0	2.65(.71)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표 3-22])에 대해서는 근소하지만 남성이 동의한다는 응답(매우 동의함 포함)이 82.7%로, 여성의 80.1%에 비해서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20대 이하가 성평등 실천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92.1%), 40~50대가 가장 낮았다. 남성은 60대에서 성평등 실천에 대한 동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86.0%) 평균은 20대 이하가 3.02점으로 가장 높다. 20대 이하와 30대의 경우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성평등 실천에 대한 동의율과 평균 모두 높았으나, 40대 이후는 남성의 동의율과 평균이 높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 비해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이 8.7%p 높았으나 남성은 자녀유무에 따른 차이가 0.1%p 차이에 불과하였다. 자녀의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딸과 아들이 모두 있는 경우 성평등 실천에 대한 동의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성평등 실천 관련 문항에서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자의 93% 이상, 남성 응답자의 84%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었으나, 성평등 실천의 정의와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분석한 문항들에서 남성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에 동의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았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동의와 성평등 이슈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게서 성평등 실천에 대한 응답이 더 높은 것은 여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성평등과 성평등 실천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전반적으로 성평등 가치에 대한 인정과 성평등 실천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은 성평등 의제의 지속과 함께 이제는 하나의 도덕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도 해석 가능하다.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는 성평등 수용 관련 문항에서 응답자들에게 가장 적은 동의를 받은 문항이며, 성별 응답의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이기도 하다. 이는 도덕적이고 사회적 가치에 따른 응답이 아니라 응답자의 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성평등 가치의 인정과 관심, 실천 간의 괴리는 향후 성평등 이슈의 확산 노력에 있어서 보다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표 3-22]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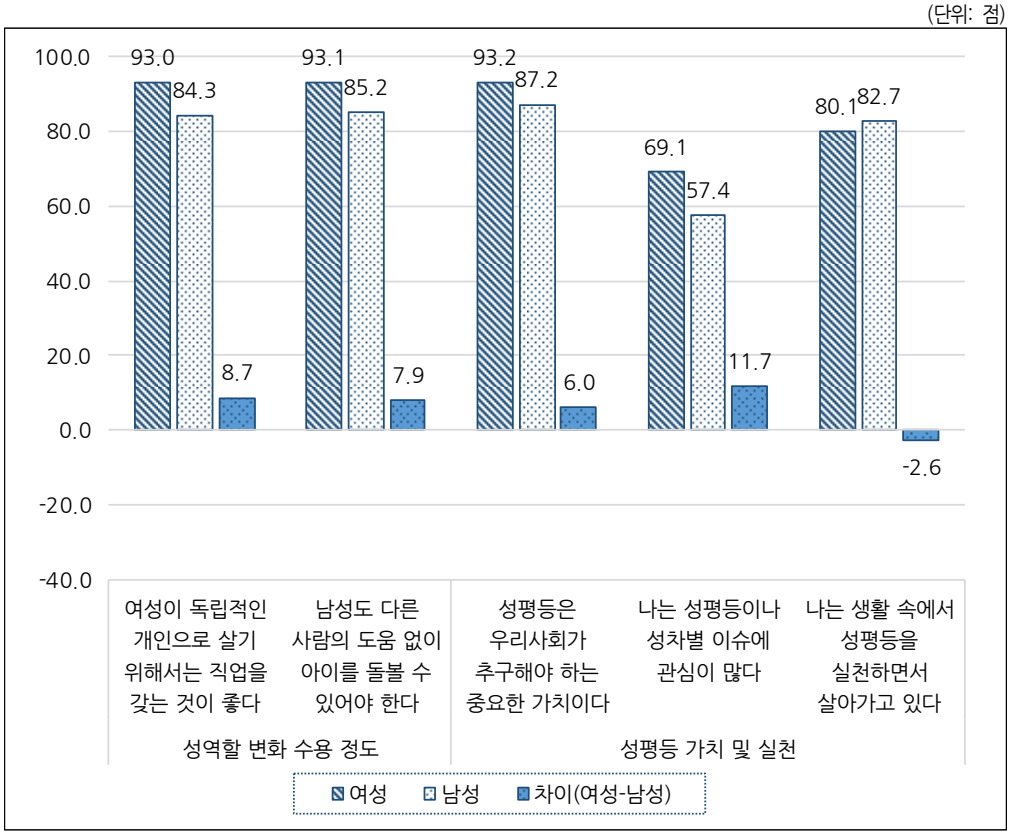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하지않음	② 동의하지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동의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3	17.3	71.9	9.5	18.6	81.4	100.0	2.90(.56)
성별		여성		981	0.6	19.4	72.0	8.1	20.0	80.1	100.0	2.87(.53)
성별		남성		1,034	1.9	15.4	71.8	10.9	17.3	82.7	100.0	2.92(.58)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0.5	7.4	76.3	15.8	7.9	92.1	100.0	3.07(.50)
연령	여성	만30~39세		194	0.5	17.0	73.2	9.3	17.5	82.5	100.0	2.91(.53)
연령	여성	만40~49세		241	0.4	24.5	70.1	5.0	24.9	75.1	100.0	2.79(.53)
연령	여성	만50~59세		245	0.8	24.1	70.2	4.9	24.9	75.1	100.0	2.79(.53)
연령	여성	만60~64세		111	-	22.5	70.3	7.2	22.5	77.5	100.0	2.84(.52)
연령	남성	만19~29세		211	2.4	13.3	64.5	19.9	15.7	84.4	100.0	3.02(.65)
연령	남성	만30~39세		211	3.8	16.6	67.8	11.8	20.4	79.6	100.0	2.88(.65)
연령	남성	만40~49세		251	1.2	18.3	70.5	10.0	19.5	80.5	100.0	2.89(.56)
연령	남성	만50~59세		251	1.6	14.7	78.9	4.8	16.3	83.7	100.0	2.87(.49)
연령	남성	만60~64세		114	1.8	12.3	78.1	7.9	14.1	86.0	100.0	2.93(.50)
지역	여성	도시		577	0.3	17.9	73.0	8.8	18.2	81.8	100.0	2.90(.52)
지역	여성	도농복합·농촌		404	1.0	21.5	70.5	6.9	22.5	77.4	100.0	2.83(.55)
지역	남성	도시		595	2.5	15.5	71.6	10.4	18.0	82.0	100.0	2.90(.59)
지역	남성	도농복합·농촌		440	1.4	15.2	71.8	11.6	16.6	83.4	100.0	2.94(.56)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0.9	14.2	74.2	10.7	15.1	84.9	100.0	2.95(.53)
자녀유무	여성	자녀 있음		550	0.4	23.5	70.2	6.0	23.8	76.2	100.0	2.82(.53)
자녀유무	여성	자녀성별	모두	185	-	21.6	73.0	5.4	21.6	78.4	100.0	2.84(.50)
자녀유무	여성	자녀성별	아들만	208	0.5	24.5	70.2	4.8	25.0	75.0	100.0	2.80(.52)
자녀유무	여성	자녀성별	딸만	158	0.6	24.1	67.1	8.2	24.7	75.3	100.0	2.83(.57)
자녀유무	남성	자녀 없음		491	2.0	15.3	69.7	13.0	17.3	82.7	100.0	2.94(.60)
자녀유무	남성	자녀 있음		541	1.8	15.5	73.8	8.9	17.4	82.6	100.0	2.90(.56)
자녀유무	남성	자녀성별	모두	179	1.7	13.4	76.5	8.4	15.1	84.9	100.0	2.91(.53)
자녀유무	남성	자녀성별	아들만	194	2.6	15.5	74.7	7.2	18.0	82.0	100.0	2.86(.57)
자녀유무	남성	자녀성별	딸만	168	1.2	17.3	70.2	11.3	18.5	81.5	100.0	2.91(.58)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동의하지 않음=1' ~ '매우 동의함=4'의 평균임.

[그림 3-7] 성평등 수용(성별차이)

(단위: 점)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의 합계임.

2) 성평등 수준

성평등 수준과 관련한 내용은 크게는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과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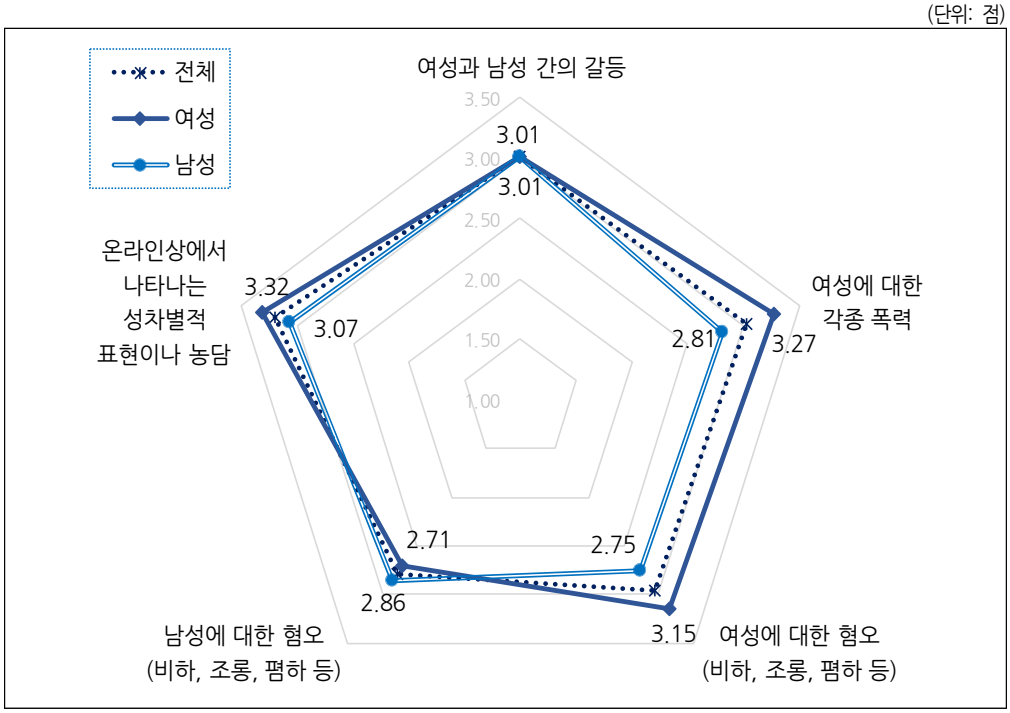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여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남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심각하다, ④ 매우 심각하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심각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반적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은 여성과 남성 모두 심각성을 인지하는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여성에 대한 혐오,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의 심각성은 여성이 더 심각하게 인지하였고, 남성에 대한 혐오는 남성이 더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림 3-8]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평균)

(단위: 점)



주: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세부 문항별로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표 3-23])은 여성의 81.8%, 남성의 78.4%가 심각하다고(매우 심각함 포함)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에 비해 ④ 매우 심각함에 대한 응답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에서 가장 심각하다는 응답이 높았고(여성 91.7%, 남성 85.3%), 근소한 차이로 20대(여성 90.5%, 84.9%)로 심각성

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평균은 ④ 매우 심각함의 응답이 가장 높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과 남성 간 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감소하였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딸과 아들 모두 있는 사람보다 딸만 또는 아들만 있는 사람들이 성별 간 갈등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다.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표 3-24])에 대해서는 성별 인식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의 91.0%가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으나(매우 심각함 포함), 남성은 68.9%가 심각하다고 하여 22.1%p의 차이가 났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20대 이하의 98.8%가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았고, 30대도 94.4%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심각성 인식이 가장 낮은 60대의 경우도 86.6%가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20~30대 여성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④ 매우 심각함에 응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60대 남성들이 79.5%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 남성은 56.4%로 가장 낮았다. 남성의 경우 모든 연령에서 ④ 매우 심각함에 응답한 비율이 20% 미만이었다.

지역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도시지역보다는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성별 차이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의 경우 자녀가 없는 사람들(94.0%)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88.6%)보다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남성의 경우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75.1%)이 자녀가 없는 사람들(62.0%)에 비해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성별로는 여성은 딸만 있는 사람들이 해당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인식(92.4%)하고 있었는데 특히 아들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④ 매우 심각함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남성의 경우 딸과 아들 모두 있는 사람(78.8%)이 여성 폭력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아들만 있는 사람에 비해 딸이 있는 사람들이 ④ 매우 심각함에 응답하는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

[표 3-23]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심각하지않음	② 심각하지않음	③ 심각함	④ 매우심각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0.9	19.0	58.3	21.8	19.9	80.1	100.0	3.01(.67)
성별	여성			982	0.1	18.1	62.1	19.7	18.2	81.8	100.0	3.01(.62)
	남성			1,034	1.6	19.9	54.6	23.8	21.5	78.4	100.0	3.01(.71)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	9.5	54.7	35.8	9.5	90.5	100.0	3.27(.62)
		만30~39세		194	-	8.2	64.9	26.8	8.2	91.7	100.0	3.18(.57)
		만40~49세		242	-	21.1	61.6	17.4	21.1	79.0	100.0	2.96(.62)
		만50~59세		244	-	24.2	64.8	11.1	24.2	75.9	100.0	2.87(.58)
		만60~64세		112	0.9	30.4	65.2	3.6	31.3	68.8	100.0	2.71(.54)
	남성	만19~29세		211	2.4	12.8	42.2	42.7	15.2	84.9	100.0	3.25(.77)
		만30~39세		211	1.9	12.8	49.8	35.5	14.7	85.3	100.0	3.19(.73)
		만40~49세		249	1.6	19.7	59.8	18.9	21.3	78.7	100.0	2.96(.67)
		만50~59세		250	0.8	25.2	62.8	11.2	26.0	74.0	100.0	2.84(.61)
		만60~64세		113	0.9	36.3	57.5	5.3	37.2	62.8	100.0	2.67(.58)
지역	여성	도시		579	0.2	17.8	64.1	18.0	18.0	82.1	100.0	3.00(.60)
		도농복합·농촌		405	-	18.5	59.3	22.2	18.5	81.5	100.0	3.04(.64)
	남성	도시		595	1.7	20.3	55.0	23.0	22.0	78.0	100.0	2.99(.71)
		도농복합·농촌		439	1.6	19.6	54.0	24.8	21.2	78.8	100.0	3.02(.71)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	11.1	57.5	31.3	11.1	88.9	100.0	3.20(.62)
		자녀 있음		551	0.2	23.6	65.7	10.5	23.8	76.2	100.0	2.87(.58)
		자녀 성별	모두	185	-	27.0	67.0	5.9	27.0	73.0	100.0	2.79(.54)
			아들만	208	0.5	21.6	65.9	12.0	22.1	77.9	100.0	2.90(.59)
			딸만	157	-	22.3	64.3	13.4	22.3	77.7	100.0	2.91(.59)
	남성	자녀 없음		492	1.6	14.2	48.0	36.2	15.9	84.1	100.0	3.19(.73)
		자녀 있음		541	1.5	25.1	60.8	12.6	26.6	73.4	100.0	2.84(.64)
		자녀 성별	모두	180	1.7	26.7	62.2	9.4	28.3	71.7	100.0	2.80(.62)
			아들만	195	1.5	26.2	59.5	12.8	27.7	72.3	100.0	2.84(.65)
			딸만	168	1.8	22.6	60.1	15.5	24.4	75.6	100.0	2.90(.66)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표 3-24]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심각하지않음	② 심각하지않음	③ 심각함	④ 매우심각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2.3	18.0	53.9	25.8	20.3	79.7	100.0	3.03(.73)
성별	여성			981	0.2	8.8	54.8	36.2	9.0	91.0	100.0	3.27(.62)
성별	남성			1,033	4.4	26.7	53.0	15.9	31.1	68.9	100.0	2.81(.75)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	4.2	47.9	47.9	4.2	95.8	100.0	3.44(.58)
연령	여성	만30~39세		195	0.5	5.1	46.7	47.7	5.6	94.4	100.0	3.42(.62)
연령	여성	만40~49세		241	0.4	10.4	55.2	34.0	10.8	89.2	100.0	3.23(.64)
연령	여성	만50~59세		245	-	11.8	63.7	24.5	11.8	88.2	100.0	3.13(.59)
연령	여성	만60~64세		112	-	13.4	59.8	26.8	13.4	86.6	100.0	3.13(.62)
연령	남성	만19~29세		211	10.9	32.7	42.7	13.7	43.6	56.4	100.0	2.59(.86)
연령	남성	만30~39세		211	2.4	30.3	52.6	14.7	32.7	67.3	100.0	2.79(.71)
연령	남성	만40~49세		250	3.6	25.2	55.6	15.6	28.8	71.2	100.0	2.83(.73)
연령	남성	만50~59세		250	2.4	23.6	56.0	18.0	26.0	74.0	100.0	2.89(.71)
연령	남성	만60~64세		112	0.9	19.6	60.7	18.8	20.5	79.5	100.0	2.97(.66)
지역	여성	도시		578	-	9.2	55.5	35.3	9.2	90.8	100.0	3.26(.61)
지역	여성	도농복합·농촌		405	0.5	8.4	53.6	37.5	8.9	91.1	100.0	3.28(.64)
지역	남성	도시		595	4.4	28.1	52.6	15.0	32.5	67.6	100.0	2.78(.75)
지역	남성	도농복합·농촌		440	4.3	24.8	53.6	17.3	29.1	70.9	100.0	2.84(.75)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2	0.2	5.8	45.4	48.6	6.0	94.0	100.0	3.42(.61)
자녀유무	여성	자녀 있음		551	0.2	11.3	62.1	26.5	11.4	88.6	100.0	3.15(.60)
자녀유무	여성	자녀성별	모두	184	0.5	14.1	60.3	25.0	14.7	85.3	100.0	3.10(.64)
자녀유무	여성	자녀성별	아들만	208	-	11.5	65.9	22.6	11.5	88.5	100.0	3.11(.57)
자녀유무	여성	자녀성별	딸만	158	-	7.6	59.5	32.9	7.6	92.4	100.0	3.25(.59)
자녀유무	남성	자녀 없음		492	6.5	31.5	48.2	13.8	38.0	62.0	100.0	2.70(.79)
자녀유무	남성	자녀 있음		542	2.4	22.5	57.4	17.7	24.9	75.1	100.0	2.90(.70)
자녀유무	남성	자녀성별	모두	179	2.8	18.4	60.9	17.9	21.2	78.8	100.0	2.94(.69)
자녀유무	남성	자녀성별	아들만	195	1.5	22.6	60.0	15.9	24.1	75.9	100.0	2.90(.67)
자녀유무	남성	자녀성별	딸만	169	3.0	26.6	50.9	19.5	29.6	70.4	100.0	2.88(.75)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여성에 대한 혐오’([표 3-25]) 역시 성별 인식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은 84.6%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매우 심각함 포함) 남성은 65.0%가 심각하다고 인식하였다. ② 심각하지 않음과 ④ 매우 심각함에 대한 응답차이가 성별로 2배 이상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에 대한 혐오의 심각성 인식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④ 매우 심각함에 대한 응답이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의 증가에 따라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남녀 모두 도시지역보다는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가 여성에 대한 혐오문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약간 더 높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 비해 심각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여성은 딸만 있는 경우가 여성 혐오의 심각성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82.8%), ④ 매우 심각함에 대한 응답(25.5%)도 가장 높았다. 남성은 아들만 있는 사람들이 여성 혐오문제가 심각하다는 비율(63.1%) 높았으며 ④ 매우 심각함에 대한 응답(13.8%)도 가장 높았다.

‘남성에 대한 혐오’([표 3-26])는 ‘여성에 대한 혐오’ 와 달리 남성들이 심각하다고(매우 심각함 포함) 인식하는 비율(68.4%)이 여성(60.2%)에 비해 높았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혐오’에서 심각성에 대한 성별 응답차이가 19.6%p였던 데 반해 ‘남성에 대한 혐오’의 성별 응답차이는 8.2%p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혐오보다는 남성에 대한 혐오를 약간 더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의 남성 혐오가 ④ 매우 심각함에 대한 응답과 문항의 평균이 여성혐오에 비해 높았다(5.6%p, 0.11점)

연령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연령이 증가할수록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감소하였다. 20대 이하 남성의 83.8%와 30대 남성의 80.0%가 남성에 대한 혐오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20대 이하 여성의 72.1%, 30대 여성의 70.1%가 남성 혐오가 심각하다고 하였다.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 거주자가 남녀 모두에 있어서 남성 혐오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④ 매우 심각함에 대한 응답은 여성의 경우 도시보다는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여성 혐오와 마찬가지로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 비해 남성 혐오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 성별로도 여성은 딸만 있는 사람(59.5%), 남성은 아들만 있는 사람(62.6%) 남성 혐오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표 3-25] 여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심각하지않음	② 심각하지않음	③ 심각함	④ 매우심각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2.3	23.1	52.2	22.3	25.4	74.5	100.0	2.95(.74)
성별	여성			982	0.3	15.2	53.8	30.8	15.5	84.6	100.0	3.15(.67)
	남성			1,033	4.3	30.7	50.7	14.3	35.0	65.0	100.0	2.75(.75)
연령	여성	만19~29세		191	0.5	5.8	49.7	44.0	6.3	93.7	100.0	3.38(.61)
		만30~39세		194	0.5	6.2	49.5	43.8	6.7	93.3	100.0	3.36(.63)
		만40~49세		242	-	18.2	50.4	31.4	18.2	81.8	100.0	3.13(.69)
		만50~59세		245	-	20.4	61.2	18.4	20.4	79.6	100.0	2.98(.62)
		만60~64세		111	0.9	28.8	58.6	11.7	29.7	70.3	100.0	2.81(.64)
	남성	만19~29세		211	6.6	21.8	48.8	22.7	28.4	71.5	100.0	2.88(.83)
		만30~39세		211	4.7	30.3	44.5	20.4	35.0	64.9	100.0	2.80(.81)
		만40~49세		250	4.0	30.0	54.8	11.2	34.0	66.0	100.0	2.73(.71)
		만50~59세		249	3.2	35.7	51.4	9.6	38.9	61.0	100.0	2.67(.69)
		만60~64세		112	1.8	38.4	55.4	4.5	40.2	59.9	100.0	2.62(.61)
지역	여성	도시		578	0.2	16.3	54.5	29.1	16.5	83.6	100.0	3.12(.67)
		도농복합·농촌		405	0.5	13.6	52.6	33.3	14.1	85.9	100.0	3.19(.67)
	남성	도시		594	4.4	31.8	49.7	14.1	36.2	63.8	100.0	2.74(.75)
		도농복합·농촌		439	4.1	29.2	52.2	14.6	33.3	66.8	100.0	2.77(.74)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2	0.5	7.4	47.9	44.2	7.9	92.1	100.0	3.36(.64)
		자녀 있음		551	0.2	21.2	58.3	20.3	21.4	78.6	100.0	2.99(.65)
		자녀 성별	모두	185	-	25.4	56.8	17.8	25.4	74.6	100.0	2.92(.65)
			아들만	208	0.5	20.2	60.6	18.8	20.7	79.3	100.0	2.97(.64)
			딸만	157	-	17.2	57.3	25.5	17.2	82.8	100.0	3.08(.65)
	남성	자녀 없음		492	5.7	25.8	49.4	19.1	31.5	68.5	100.0	2.82(.80)
		자녀 있음		542	3.1	35.1	51.8	10.0	38.2	61.8	100.0	2.69(.69)
		자녀 성별	모두	180	3.9	35.0	55.0	6.1	38.9	61.1	100.0	2.64(.66)
			아들만	195	3.1	33.8	49.2	13.8	36.9	63.1	100.0	2.74(.73)
			딸만	168	2.4	36.3	51.8	9.5	38.7	61.3	100.0	2.69(.67)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표 3-26] 남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심각하지않음	② 심각하지않음	③ 심각함	④ 매우심각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2.7	32.9	47.7	16.8	35.6	64.5	100.0	2.79(.75)
성별	여성			982	3.2	36.6	46.8	13.4	39.8	60.2	100.0	2.71(.74)
	남성			1,034	2.2	29.4	48.5	19.9	31.6	68.4	100.0	2.86(.75)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7.4	20.5	55.8	16.3	27.9	72.1	100.0	2.82(.79)
		만30~39세		194	5.2	24.7	51.5	18.6	29.9	70.1	100.0	2.84(.78)
		만40~49세		241	2.1	42.7	41.1	14.1	44.8	55.2	100.0	2.68(.74)
		만50~59세		245	1.2	45.7	43.3	9.8	46.9	53.1	100.0	2.62(.68)
		만60~64세		111	-	51.4	43.2	5.4	51.4	48.6	100.0	2.54(.60)
	남성	만19~29세		211	4.3	11.8	46.4	37.4	16.1	83.8	100.0	3.17(.80)
		만30~39세		210	1.9	18.1	51.4	28.6	20.0	80.0	100.0	3.07(.73)
		만40~49세		251	0.8	29.5	54.2	15.5	30.3	69.7	100.0	2.85(.68)
		만50~59세		249	2.0	41.8	46.6	9.6	43.8	56.2	100.0	2.64(.69)
		만60~64세		113	2.7	55.8	38.1	3.5	58.5	41.6	100.0	2.43(.60)
지역	여성	도시		578	3.6	35.8	49.1	11.4	39.4	60.5	100.0	2.68(.72)
		도농복합·농촌		404	2.5	37.6	43.6	16.3	40.1	59.9	100.0	2.74(.76)
	남성	도시		595	2.0	28.2	48.9	20.8	30.2	69.7	100.0	2.89(.75)
		도농복합·농촌		440	2.5	30.9	47.7	18.9	33.4	66.6	100.0	2.83(.75)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6.3	26.9	49.2	17.6	33.2	66.8	100.0	2.78(.81)
		자녀 있음		551	0.7	44.1	45.0	10.2	44.8	55.2	100.0	2.65(.67)
		자녀성별	모두	186	1.6	47.3	42.5	8.6	48.9	51.1	100.0	2.58(.66)
			아들만	208	1.0	43.8	45.2	10.1	44.7	55.3	100.0	2.64(.67)
			딸만	158	-	40.5	46.8	12.7	40.5	59.5	100.0	2.72(.67)
	남성	자녀 없음		492	1.8	19.1	50.4	28.7	20.9	79.1	100.0	3.06(.74)
		자녀 있음		542	2.6	38.7	46.7	12.0	41.3	58.7	100.0	2.68(.71)
		자녀성별	모두	180	3.3	43.3	46.1	7.2	46.7	53.3	100.0	2.57(.67)
			아들만	195	2.6	34.9	44.6	17.9	37.4	62.6	100.0	2.78(.77)
			딸만	167	1.8	37.7	50.3	10.2	39.5	60.5	100.0	2.69(.68)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표 3-27])은 여성의 91.7%, 남성의 82.1%가 심각하다고(매우 심각함 포함)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20세 이하 중 96.8%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였는데 특히 ④ 매우 심각함에 응답한 여성이 전체의 60.0%였고, 30대의 경우도 96.9%가 심각하다고 하였으며 ④ 매우 심각함에 응답한 사람이 50.5%였다.

남성은 30대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87.2%로 가장 높았고, ④ 매우 심각함에 응답한 사람도 36.2%로 남성 중에서는 가장 높았고, 40대가 79.9%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가 남녀 모두 도시지역 거주자들에 비해서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약간 높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온라인상의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높았다. 자녀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딸만 있는 사람들(93.7%)이 심각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었고, 남성의 경우는 아들만 있는 사람들(81.5%)이 심각성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모두 딸만 있는 사람들이 ④ 매우 심각함에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여성 37.7%, 남성 29.2%).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 여성들은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91.7%로 가장 높았고,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91.0%, 여성에 대한 혐오 84.6%,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 81.8%, 남성에 대한 혐오 60.2% 순이었다. 남성 역시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많았으나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 78.4%,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68.9%, 남성에 대한 혐오 68.4%, 여성에 대한 혐오 65.0% 순이었다. 남성에 대한 혐오만 남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외의 문항들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심각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이중 여성과 남성의 인식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으로 22.1%p의 차이가 나타났고, 여성에 대한 혐오도 19.6%p로 차이가 컸다.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은 남녀 간 심각성 인식의 차이가 3.4%p로 가장 차이가 적었다.

[표 3-27]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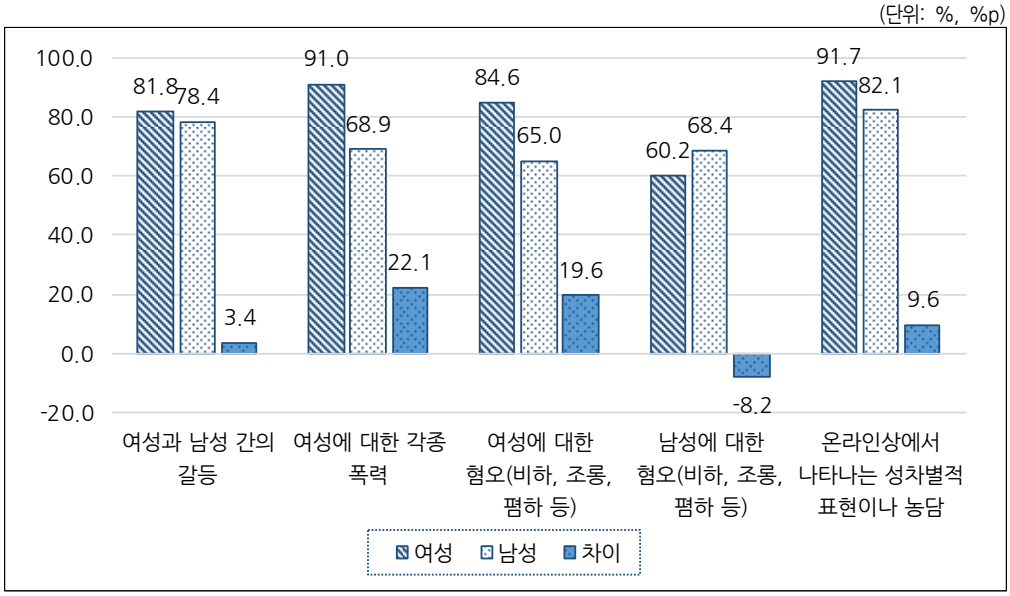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심각하지않음	② 심각하지않음	③ 심각함	④ 매우심각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0.9	12.3	53.2	33.6	13.2	86.8	100.0	3.20(.68)
성별	여성			982	0.2	8.0	50.9	40.8	8.2	91.7	100.0	3.32(.63)
	남성			1,034	1.5	16.3	55.3	26.8	17.8	82.1	100.0	3.07(.70)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	3.2	36.8	60.0	3.2	96.8	100.0	3.57(.56)
		만30~39세		194	0.5	2.6	46.4	50.5	3.1	96.9	100.0	3.47(.58)
		만40~49세		241	0.4	7.5	52.7	39.4	7.9	92.1	100.0	3.31(.63)
		만50~59세		244	-	11.5	58.2	30.3	11.5	88.5	100.0	3.19(.62)
		만60~64세		111	-	18.9	64.0	17.1	18.9	81.1	100.0	2.98(.60)
	남성	만19~29세		210	2.9	15.2	49.5	32.4	18.1	81.9	100.0	3.11(.77)
		만30~39세		210	1.9	11.0	51.0	36.2	12.9	87.2	100.0	3.22(.71)
		만40~49세		249	1.6	18.5	58.6	21.3	20.1	79.9	100.0	3.00(.68)
		만50~59세		250	0.4	19.2	58.8	21.6	19.6	80.4	100.0	3.01(.66)
		만60~64세		112	-	17.9	58.9	23.2	17.9	82.1	100.0	3.05(.64)
지역	여성	도시		578	-	9.2	50.5	40.3	9.2	90.8	100.0	3.31(.63)
		도농복합·농촌		405	0.5	6.4	51.6	41.5	6.9	93.1	100.0	3.34(.62)
	남성	도시		595	1.3	17.0	54.6	27.1	18.3	81.7	100.0	3.08(.70)
		도농복합·농촌		439	1.8	15.5	56.3	26.4	17.3	82.7	100.0	3.07(.70)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0	0.2	4.4	39.5	55.8	4.7	95.3	100.0	3.51(.60)
		자녀 있음		551	0.2	10.9	59.9	29.0	11.1	88.9	100.0	3.18(.61)
		자녀성별	모두	185	0.5	11.9	61.1	26.5	12.4	87.6	100.0	3.13(.63)
			아들만	208	-	13.5	61.5	25.0	13.5	86.5	100.0	3.11(.61)
			딸만	159	-	6.3	56.0	37.7	6.3	93.7	100.0	3.32(.58)
	남성	자녀 없음		492	1.8	14.4	51.2	32.5	16.3	83.7	100.0	3.14(.72)
		자녀 있음		543	1.3	18.0	58.9	21.7	19.3	80.7	100.0	3.01(.67)
		자녀성별	모두	180	1.7	18.3	61.7	18.3	20.0	80.0	100.0	2.97(.65)
			아들만	195	1.5	16.9	63.1	18.5	18.5	81.5	100.0	2.99(.64)
			딸만	168	1.2	19.0	50.6	29.2	20.2	79.8	100.0	3.08(.72)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그림 3-9]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성별 차이)

(단위: %, %p)



주: '전혀 심각하지 않음=1' ~ '매우 심각함=4'의 평균임.

나)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과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교육', '가족에 대한 돌봄 책임', '취업(일자리)', '승진(관리직 진출)', '임금(소득)', '정치참여'의 6항목으로 나누어 질문하였고, 이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과 '향후 10년 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을 질문하였다. 문항에 대해서는 ㉣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 ⓪ 평등 ④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평균값은 -4~4점 사이에 분포하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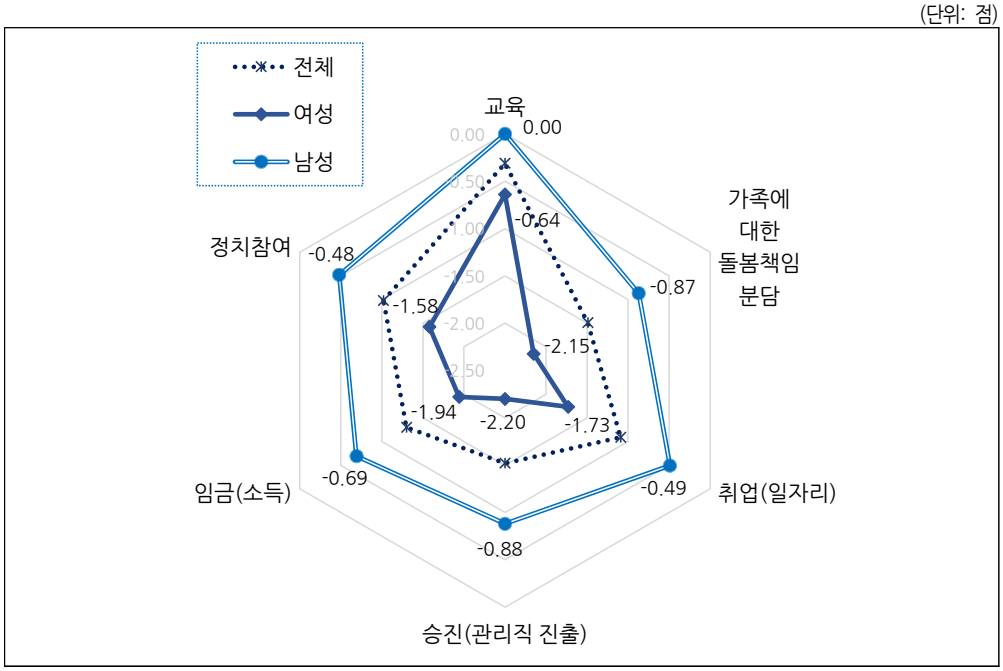
(1) 분야별 성평등 수준

분야별 성평등 수준 인식을 살펴보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 인식에 있어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남성들은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가 성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분야는 여성에게 약간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였다. 여성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또한 남성에 비해 높았다.

[그림 3-10] 분야별 성평등 수준 인식

(단위: 점)



주: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교육' ([표 3-28])에 있어서의 성평등 수준은 남성은 평등(0.00점)하게 인식하고 있는 데 반해, 여성은 여성에게 불평등(-0.64)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교육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 하다는 응답은 여성은 56.0%, 남성은 63.4%였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20대가 -0.69점으로 평균이 가장 낮았고, 교육이 여성에게 불평등 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60대가 평균 -0.58점으로 여성 중에는 가장 높았으나 역시 교육이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로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여성 중 20대 이하에서 58.4%가 교육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다고 여기고 있어 교육이 평등하다는 응답이 여성 연령대중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20대(0.36점)와 30대(0.07점)는 교육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40대 이상의 남성들은 교육이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고, 60대 남성들이 불평등성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교육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는 응답이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보다 높았으며, 30대(68.2%)와 60대(66.7%)에서 평등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20대 이하 남성의 28.9%는 교육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남녀 모두 도시지역 거주자가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에 비해서 교육이 남성에게 불리하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여성의 경우 지역별 평균은 동일하였으나(여성에게 불평등) 남성의 경우는 도시지역 남성들은 교육이 남성에게 약간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보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교육이 여성 또는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나 평균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0.01점 높았다. 남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보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높고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더 낮았으며, 평균 또한 낮아서 교육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무자녀 남성들은 교육이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하였다. 자녀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아들만 있을 경우 교육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고,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가장 낮아서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 ([표 3-29])은 여성은 평균 -2.15점, 남성은 -0.87점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의 86.6%는 가사노동에 있어서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라고 응답하였고 특히 ㉣+㉢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47.0%에 이르렀고 평등하다는 응답은 5.7%에 불과하였다. 남성들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63.7%였으나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도 13.8%였다.

연령별로는 30대 여성의 90.2%가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이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90.2%, -2.44점) 60대 여성이 해당 응답이 가장 낮았다(80.3%, -1.41점). 남성은 50대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71.2%, 평균 -1.10점으로 여성이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고, 20대 남성은 여성에 불평등한 사회라고 응답한 사람이 52.8%, 평균 -0.61점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20대 이하 남성의 17.7%와 30대 남성의 14.7%가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이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28]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교육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 여성에 게매우 불평등	㉡+㉠	⓪ 평등	①+②	③+④ 남성에 게매우 불평등	㉣+㉢+㉡+㉠ 여성에 불평등	①+②+③+④ 남성에 불평등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6.1	22.8	59.8	9.0	2.3	28.9	11.3	100.0	-0.31(1.25)
성별		여성	982	9.5	28.9	56.0	5.1	0.5	38.4	5.6	100.0	-0.64(1.23)
		남성	1,033	2.9	17.0	63.4	12.7	4.0	19.9	16.7	100.0	0.00(1.19)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10.0	28.9	58.4	2.1	0.5	38.9	2.6	100.0	-0.69(1.16)
		만30~39세	195	9.2	30.8	54.9	5.1	-	40.0	5.1	100.0	-0.66(1.18)
		만40~49세	242	7.4	28.1	58.3	6.2	-	35.5	6.2	100.0	-0.62(1.19)
		만50~59세	245	11.4	27.8	54.3	5.3	1.2	39.2	6.5	100.0	-0.65(1.33)
		만60~64세	111	8.1	30.6	52.3	7.2	1.8	38.7	9.0	100.0	-0.58(1.29)
	남성	만19~29세	211	3.3	8.5	59.2	20.4	8.5	11.8	28.9	100.0	0.36(1.39)
		만30~39세	211	1.4	15.6	68.2	10.4	4.3	17.0	14.7	100.0	0.07(1.11)
		만40~49세	251	2.4	19.1	62.2	13.9	2.4	21.5	16.3	100.0	-0.03(1.11)
		만50~59세	250	4.0	22.0	62.0	8.8	3.2	26.0	12.0	100.0	-0.20(1.16)
		만60~64세	114	4.4	20.2	66.7	7.9	0.9	24.6	8.8	100.0	-0.28(1.03)
지역	여성	도시	577	9.7	28.6	55.5	5.7	0.5	38.3	6.2	100.0	-0.64(1.27)
		도농복합·농촌	405	9.1	29.4	56.8	4.2	0.5	38.5	4.7	100.0	-0.64(1.17)
	남성	도시	595	2.4	14.6	64.5	13.8	4.7	17.0	18.5	100.0	0.10(1.18)
		도농복합·농촌	439	3.6	20.3	61.7	11.4	3.0	23.9	14.4	100.0	-0.13(1.20)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3	9.7	25.9	61.4	2.8	0.2	35.6	3.0	100.0	-0.65(1.16)
		자녀 있음	549	9.3	31.3	51.7	6.9	0.7	40.6	7.7	100.0	-0.64(1.28)
		자녀성별 모두	185	8.1	33.0	53.5	4.3	1.1	41.1	5.4	100.0	-0.65(1.20)
		자녀성별 아들만	208	8.2	27.4	53.4	10.1	1.0	35.6	11.1	100.0	-0.51(1.31)
		자녀성별 딸만	158	12.0	34.8	46.8	5.7	0.6	46.8	6.3	100.0	-0.81(1.31)
	남성	자녀 없음	491	2.4	14.1	62.1	15.1	6.3	16.5	21.4	100.0	0.16(1.30)
		자녀 있음	542	3.3	19.7	64.6	10.5	1.8	23.1	12.4	100.0	-0.15(1.07)
		자녀성별 모두	180	3.9	25.0	60.0	10.0	1.1	28.9	11.1	100.0	-0.28(1.09)
		자녀성별 아들만	194	3.1	16.5	64.9	12.9	2.6	19.6	15.5	100.0	-0.04(1.06)
		자녀성별 딸만	167	3.0	17.4	69.5	8.4	1.8	20.4	10.2	100.0	-0.14(1.06)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표 3-29]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 여성에 게매우 불평등	㉡+㉠	⓪ 평등	①+②	③+④ 남성에 게매우 불평등	㉣+㉢+ ㉡+㉠ 여성에 불평등	①+② +③+④ 남성에 불평등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28.1	46.8	14.3	8.8	2.0	74.9	10.8	100.0	-1.49(1.68)
성별	여성		982	47.0	39.6	5.7	6.6	1.0	86.6	7.6	100.0	-2.15(1.60)
	남성		1,033	10.1	53.6	22.5	10.8	3.0	63.7	13.8	100.0	-0.87(1.51)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55.3	32.1	5.8	6.8	-	87.4	6.8	100.0	-2.36(1.53)
		만30~39세	194	56.2	34.0	3.1	6.2	0.5	90.2	6.7	100.0	-2.44(1.51)
		만40~49세	242	49.6	37.6	4.5	7.9	0.4	87.2	8.3	100.0	-2.28(1.61)
		만50~59세	245	42.0	42.9	6.5	6.5	2.0	84.9	8.5	100.0	-1.97(1.64)
		만60~64세	112	21.4	58.9	10.7	5.4	3.6	80.3	9.0	100.0	-1.41(1.53)
	남성	만19~29세	210	9.0	43.8	29.5	12.9	4.8	52.8	17.7	100.0	-0.61(1.64)
		만30~39세	211	6.6	55.0	23.7	12.3	2.4	61.6	14.7	100.0	-0.76(1.47)
		만40~49세	250	10.8	54.4	18.4	14.0	2.4	65.2	16.4	100.0	-0.91(1.54)
		만50~59세	250	12.4	58.8	19.2	6.8	2.8	71.2	9.6	100.0	-1.10(1.44)
		만60~64세	113	10.6	56.6	23.9	6.2	2.7	67.2	8.9	100.0	-0.98(1.35)
지역	여성	도시	578	48.8	38.2	4.8	6.7	1.4	87.0	8.1	100.0	-2.16(1.61)
		도농복합·농촌	404	44.6	41.6	6.9	6.4	0.5	86.2	6.9	100.0	-2.13(1.60)
	남성	도시	595	9.6	51.9	22.7	12.3	3.5	61.5	15.8	100.0	-0.79(1.55)
		도농복합·농촌	438	10.5	55.9	22.4	8.9	2.3	66.4	11.2	100.0	-0.98(1.45)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0	53.5	35.6	5.6	5.1	0.2	89.1	5.3	100.0	-2.38(1.51)
		자녀 있음	550	42.0	42.9	5.8	7.6	1.6	84.9	9.3	100.0	-1.97(1.65)
		자녀성별 모두	186	38.2	48.9	5.4	6.5	1.1	87.1	7.5	100.0	-2.00(1.49)
		자녀성별 아들만	208	37.5	43.8	6.7	9.1	2.9	81.3	12.0	100.0	-1.76(1.81)
		자녀성별 딸만	158	52.5	34.2	5.1	7.6	.6	86.7	8.2	100.0	-2.20(1.57)
	남성	자녀 없음	492	8.5	49.4	24.4	13.6	4.1	57.9	17.7	100.0	-0.70(1.60)
		자녀 있음	543	11.4	57.3	20.8	8.5	2.0	68.7	10.5	100.0	-1.02(1.41)
		자녀성별 모두	180	10.0	62.8	18.9	5.0	3.3	72.8	8.3	100.0	-1.08(1.38)
		자녀성별 아들만	195	11.3	53.8	24.1	9.2	1.5	65.1	10.8	100.0	-0.96(1.39)
		자녀성별 딸만	168	13.1	55.4	19.0	11.3	1.2	68.5	12.5	100.0	-1.04(1.47)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 ([표 3-29])의 성평등 수준과 관련하여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가족 돌봄에서 여성이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더 높았던 반면,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 가족 돌봄에서 여성이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사람들의 자녀 성별에 따른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과 남성 모두 아들만 있는 사람들이 가족 돌봄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아들만 있는 사람들은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고 응답하거나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일자리)’ ([표 3-30]) 관련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여성은 전체의 84.0%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고 평등하다는 응답은 11.7%,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4.3%였다. 남성은 전체의 52.6%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하였고, 평등 28.9%, 남성에게 불평등은 18.5%였다. 남성들에게서 평등하다는 응답과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이에 여성의 평균은 -1.73점, 남성은 -0.49점이었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평균이 30대에서 -1.84점으로 가장 낮았고, 남성은 60대에서 -1.05점으로 가장 낮았다.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취업이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인식이 더 높아졌다. 특히 20대 남성의 경우 취업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1%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1.85점으로 자녀가 있는 사람의 -1.63점에 비해서 더 낮아서 여성이 취업에서 더 불리하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0.83점, 자녀가 없는 사람이 -0.11점으로 점수 차이가 여성에 비해 컸다. 자녀가 있는 남성의 65.1%는 취업에 있어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무자녀 남성의 38.7%만이 취업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응답하여 큰 차이가 있었다. 자녀 성별로는 남녀 모두 아들만 있는 사람이 취업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가장 높게 보고 있었으며(여성 -1.52점, 남성 -0.70점) 딸만 있는 사람들은 여성과 남성 모두 ㉣+㉢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30]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취업(일자리)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 여성에 게매우 불평등	㉡+㉠	⓪ 평등	①+②	③+④ 남성에 게매우 불평등	㉠+㉢+ ㉡+㉠ 여성에 불평등	①+② +③+④ 남성에 불평등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7.4	50.5	20.6	9.3	2.2	67.9	11.5	100.0	-1.09(1.56)
성별	여성		981	28.2	55.8	11.7	3.8	0.5	84.0	4.3	100.0	-1.73(1.37)
	남성		1,033	7.1	45.5	28.9	14.6	3.9	52.6	18.5	100.0	-0.49(1.49)
연령	여성	만19~29세	191	30.9	47.1	19.9	2.1	-	78.0	2.1	100.0	-1.76(1.41)
		만30~39세	195	31.8	51.3	11.3	5.6	-	83.1	5.6	100.0	-1.84(1.42)
		만40~49세	241	30.3	57.7	7.9	3.7	0.4	88.0	4.1	100.0	-1.82(1.36)
		만50~59세	245	26.1	60.8	9.4	3.3	0.4	86.9	3.7	100.0	-1.72(1.26)
		만60~64세	113	16.8	61.9	13.3	5.3	2.7	78.7	8.0	100.0	-1.32(1.36)
	남성	만19~29세	212	3.8	25.5	39.6	21.7	9.4	29.3	31.1	100.0	0.19(1.61)
		만30~39세	210	5.2	41.4	33.8	16.7	2.9	46.6	19.6	100.0	-0.36(1.41)
		만40~49세	249	6.4	50.2	26.5	14.9	2.0	56.6	16.9	100.0	-0.53(1.37)
		만50~59세	251	11.2	53.4	21.9	10.8	2.8	64.6	13.6	100.0	-0.86(1.45)
		만60~64세	113	9.7	61.9	20.4	6.2	1.8	71.6	8.0	100.0	-1.05(1.24)
지역	여성	도시	579	27.6	54.4	14.0	3.5	0.5	82.0	4.0	100.0	-1.71(1.36)
		도농복합·농촌	405	29.1	57.3	8.6	4.2	0.7	86.4	4.9	100.0	-1.76(1.37)
	남성	도시	595	6.6	43.0	30.8	15.1	4.5	49.6	19.6	100.0	-0.41(1.51)
		도농복합·농촌	439	8.0	48.7	26.4	13.9	3.0	56.7	16.9	100.0	-0.59(1.45)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0	31.9	50.7	14.4	2.8	0.2	82.6	3.0	100.0	-1.85(1.42)
		자녀 있음	551	25.4	59.7	9.6	4.5	0.7	85.1	5.3	100.0	-1.63(1.32)
		자녀성별 모두	185	22.2	65.4	6.5	4.3	1.6	87.6	5.9	100.0	-1.62(1.28)
		자녀성별 아들만	208	23.1	58.7	13.0	4.8	0.5	81.7	5.3	100.0	-1.52(1.32)
		자녀성별 딸만	158	32.3	54.4	8.9	4.4	-	86.7	4.4	100.0	-1.80(1.36)
	남성	자녀 없음	493	5.3	33.5	35.7	19.3	6.3	38.7	25.6	100.0	-0.11(1.56)
		자녀 있음	542	8.9	56.3	22.7	10.5	1.7	65.1	12.2	100.0	-0.83(1.33)
		자녀성별 모두	181	8.3	61.3	22.1	7.7	0.6	69.6	8.3	100.0	-0.97(1.18)
		자녀성별 아들만	195	8.2	49.7	27.7	11.8	2.6	57.9	14.4	100.0	-0.70(1.39)
		자녀성별 딸만	168	10.1	57.7	17.9	12.5	1.8	67.9	14.3	100.0	-0.81(1.41)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승진(관리직 진출)’ ([표 3-31])에 있어서 역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매우 불평등 포함)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 중 89.6%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하였고 평등하다는 응답은 7.0%,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하였다. 남성은 전체의 89.6%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하였고, 평등 7.0%, 남성에게 불평등은 10.6%였다. 역시 남성들에게서 평등하다는 응답과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으며 이에 여성의 평균은 -2.20점, 남성은 -0.88점이었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30대가 여성에게 불평등함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2.45점) 남성들은 60대가 여성에게 불평등함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1.48점). 30대 여성의 과반이 넘는 52.3%는 승진에 있어서 우리 사회는 ㉠+㉢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남성들은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 비율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높아졌고 평균 또한 여성에게 불평등한 방향으로 감소하였다.

지역별로는 여성은 지역별 응답의 차이가 크지 않았으나 남성은 도시지역 거주 남성이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남성들보다 평등 또는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이 높아 평균 또한 더 높게 나타났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역시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가 있는 사람보다 우리 사회를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었고, 남성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여성에게 더 불평등한 사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의 경우는 딸만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가장 불평등하게 인식하였고(-2.45점), 남성의 경우도 아들만 있는 경우보다 딸만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더 불평등한 사회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딸만 있는 사람의 53.2%가 승진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임금(소득)’ ([표 3-32])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역시 성별 인식의 차이가 두드러졌다. 여성(-1.94점)이 남성(-0.69점)에 비해 임금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더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성의 84.7%가 여성에게 불평등(매우 불평등 포함)하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들은 52.0%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하였다. 반면 남성들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10.5%로 여성의 2.8%에 비해 높았다.

[표 3-31]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승진(관리직 진출)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 여성에 게매우 불평등	㉡+㉠	⓪ 평등	①+②	③+④ 남성에 게매우 불평등	㉣+㉢+㉡+㉠ 여성에 불평등	①+②+③+④ 남성에 불평등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27.4	48.2	17.3	5.6	1.5	75.6	7.1	100.0	-1.52(1.58)
성별	여성		983	43.6	46.0	7.0	2.8	0.5	89.6	3.3	100.0	-2.20(1.39)
	남성		1,034	12.0	50.3	27.1	8.1	2.5	62.3	10.6	100.0	-0.88(1.47)
연령	여성	만19~29세	189	44.4	43.9	9.0	2.1	0.5	88.3	2.6	100.0	-2.19(1.44)
		만30~39세	195	52.3	39.0	3.1	5.6	-	91.3	5.6	100.0	-2.45(1.40)
		만40~49세	242	49.2	40.1	9.5	1.2	-	89.3	1.2	100.0	-2.28(1.31)
		만50~59세	246	37.0	54.5	5.7	2.4	0.4	91.5	2.8	100.0	-2.15(1.31)
		만60~64세	111	29.7	55.9	7.2	4.5	2.7	85.6	7.2	100.0	-1.74(1.55)
	남성	만19~29세	211	7.1	35.5	37.4	12.8	7.1	42.6	19.9	100.0	-0.27(1.66)
		만30~39세	210	6.7	50.5	33.8	8.1	1.0	57.2	9.1	100.0	-0.76(1.27)
		만40~49세	251	9.6	50.2	28.3	10.4	1.6	59.8	12.0	100.0	-0.76(1.43)
		만50~59세	249	20.5	55.4	18.9	4.4	0.8	75.9	5.2	100.0	-1.33(1.34)
		만60~64세	112	17.9	67.9	9.8	2.7	1.8	85.8	4.5	100.0	-1.48(1.32)
지역	여성	도시	578	43.8	45.8	7.1	2.9	0.3	89.6	3.2	100.0	-2.21(1.40)
		도농복합·농촌	405	43.5	46.2	6.9	2.7	0.7	89.7	3.4	100.0	-2.20(1.39)
	남성	도시	595	10.9	47.6	29.6	8.7	3.2	58.5	11.9	100.0	-0.74(1.50)
		도농복합·농촌	440	13.4	53.9	23.6	7.5	1.6	67.3	9.1	100.0	-1.06(1.42)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50.6	39.9	7.0	2.3	0.2	90.5	2.6	100.0	-2.38(1.39)
		자녀 있음	552	38.2	50.7	7.1	3.3	0.7	88.9	4.0	100.0	-2.07(1.38)
		자녀성별 모두	185	31.9	57.3	4.9	4.3	1.6	89.2	5.9	100.0	-1.92(1.38)
		자녀성별 아들만	208	32.2	54.3	10.6	2.4	0.5	86.5	2.9	100.0	-1.90(1.37)
		자녀성별 딸만	158	53.2	38.0	5.7	3.2	-	91.1	3.2	100.0	-2.45(1.32)
	남성	자녀 없음	491	8.6	42.6	34.8	10.2	3.9	51.1	14.1	100.0	-0.59(1.53)
		자녀 있음	542	15.1	57.4	19.9	6.3	1.3	72.5	7.6	100.0	-1.14(1.37)
		자녀성별 모두	179	18.4	60.9	15.6	4.5	0.6	79.3	5.0	100.0	-1.32(1.26)
		자녀성별 아들만	194	11.9	58.8	20.6	7.2	1.5	70.6	8.8	100.0	-1.03(1.38)
		자녀성별 딸만	167	15.6	52.1	24.0	7.2	1.2	67.7	8.4	100.0	-1.07(1.45)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연령별로는 여성은 30대와 40대가 2.09점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60대가 -1.49점으로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적게 느꼈다. 남성은 40대가 -0.60점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가장 강했고 20대 이하의 경우는 -0.04점으로 거의 평등한 사회로 인식하였다. 실제로 남성은 20~30대가 우리 사회가 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이 과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역시 남성의 경우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가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서 임금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유무별로 살펴보면 다른 변인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자녀가 있는 사람에 비해 임금에서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더 강한 반면, 남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더 강했다. 또한 남성은 자녀 유무에 따른 인식의 격차가 여성에 비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녀 성별에 따라서는 아들만 있는 사람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상대적으로 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치참여' ([표 3-33])에 대해서는 여성의 76.0%, 남성의 40.3%가 여성에게 불평등(매우 불평등 포함)한 사회라고 보았고, 여성의 20.8%, 남성의 46.9%가 평등한 사회, 여성의 3.3%, 남성의 12.8%가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였다. 여성의 평균은 -1.58점, 남성은 0.48점으로 평균에 있어서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성은 평균이 40대와 50대에서 -1.6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60대가 -1.29점으로 가장 높았다. 남성은 60대가 -1.00점으로 가장 낮았고 20대 이하가 -0.01점으로 가장 높았다. 20~30대 남성들의 50% 이상이 우리 사회가 정치참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도시지역 거주자에 비해 도농복합지역 거주자가 정치참여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자녀유무에 있어서는 승진이나 임금 등에 비해서는 자녀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인식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더 크게 인식하는 경향은 동일하였다. 여성은 딸만 있는 사람이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으나(-1.78점) 남성은 아들만 있는 사람이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1.27점).

[표 3-32]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임금(소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 여성에 게매우 불평등	㉡+㉠	⓪ 평등	①+②	③+④ 남성에 게매우 불평등	㉣+㉢+ ㉡+㉠ 여성에 불평등	①+② +③+④ 남성에 불평등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21.2	46.7	25.3	5.6	1.2	67.9	6.8	100.0	-1.30(1.50)
성별		여성	981	35.3	49.4	12.4	2.4	0.4	84.7	2.8	100.0	-1.94(1.39)
		남성	1,034	7.8	44.2	37.4	8.5	2.0	52.0	10.5	100.0	-0.69(1.35)
연령	여성	만19~29세	189	36.5	41.3	20.1	2.1	-	77.8	2.1	100.0	-1.90(1.51)
		만30~39세	194	40.2	43.8	11.3	4.1	0.5	84.0	4.6	100.0	-2.09(1.51)
		만40~49세	240	39.6	50.4	7.9	2.1	-	90.0	2.1	100.0	-2.09(1.25)
		만50~59세	245	30.6	57.1	10.6	1.2	0.4	87.7	1.6	100.0	-1.92(1.24)
		만60~64세	111	25.2	55.0	15.3	2.7	1.8	80.2	4.5	100.0	-1.49(1.43)
	남성	만19~29세	212	4.7	19.3	57.1	13.7	5.2	24.0	18.9	100.0	-0.04(1.41)
		만30~39세	211	2.8	34.1	51.2	9.5	2.4	36.9	11.9	100.0	-0.33(1.13)
		만40~49세	250	4.8	49.2	32.0	12.0	2.0	54.0	14.0	100.0	-0.60(1.30)
		만50~59세	250	14.8	57.6	24.8	2.8	-	72.4	2.8	100.0	-1.28(1.19)
		만60~64세	113	14.2	68.1	15.0	1.8	0.9	82.3	2.7	100.0	-1.46(1.17)
지역	여성	도시	577	34.1	49.4	13.3	2.6	0.5	83.5	3.1	100.0	-1.90(1.42)
		도농복합·농촌	404	36.9	49.5	11.1	2.2	0.2	86.4	2.4	100.0	-1.99(1.34)
	남성	도시	595	7.6	41.7	39.2	9.1	2.5	49.3	11.6	100.0	-0.61(1.38)
		도농복합·농촌	439	8.2	47.6	35.1	7.7	1.4	55.8	9.1	100.0	-0.80(1.30)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0	41.2	42.6	13.7	2.6	-	83.7	2.6	100.0	-2.09(1.46)
		자녀 있음	551	30.7	54.8	11.4	2.4	0.7	85.5	3.1	100.0	-1.82(1.31)
		자녀성별 모두	184	31.5	54.3	9.8	3.8	0.5	85.9	4.3	100.0	-1.83(1.36)
		자녀성별 아들만	208	24.0	59.1	14.9	1.4	0.5	83.2	1.9	100.0	-1.64(1.26)
		자녀성별 딸만	158	38.6	50.0	8.9	1.3	1.3	88.6	2.5	100.0	-2.05(1.30)
	남성	자녀 없음	492	5.1	31.3	49.2	11.2	3.3	36.4	14.4	100.0	-0.33(1.35)
		자녀 있음	542	10.3	55.9	26.8	6.1	0.9	66.2	7.0	100.0	-1.02(1.26)
		자녀성별 모두	181	10.5	64.1	20.4	4.4	0.6	74.6	5.0	100.0	-1.22(1.17)
		자녀성별 아들만	195	7.7	54.4	30.3	6.2	1.5	62.1	7.7	100.0	-0.86(1.24)
		자녀성별 딸만	167	13.2	49.1	29.3	7.8	0.6	62.3	8.4	100.0	-0.99(1.36)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표 3-33]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정치참여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 여성에 게매우 불평등	㉡+㉠	⓪ 평등	①+②	③+④ 남성에 게매우 불평등	㉣+㉢+㉡+㉠ 여성에 불평등	①+②+③+④ 남성에 불평등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6.6	41.1	34.1	6.4	1.7	57.7	8.1	100.0	-1.02(1.49)
성별		여성	982	26.1	49.9	20.8	3.0	0.3	76.0	3.3	100.0	-1.58(1.37)
		남성	1,033	7.6	32.7	46.9	9.7	3.1	40.3	12.8	100.0	-0.48(1.38)
연령	여성	만19~29세	191	28.8	46.1	23.0	2.1	-	74.9	2.1	100.0	-1.68(1.43)
		만30~39세	195	27.2	45.1	24.1	3.6	-	72.3	3.6	100.0	-1.55(1.40)
		만40~49세	242	26.9	52.1	17.8	2.9	0.4	79.0	3.3	100.0	-1.62(1.33)
		만50~59세	246	26.4	50.4	20.3	2.0	0.8	76.8	2.8	100.0	-1.62(1.36)
		만60~64세	112	17.0	58.0	18.8	5.4	0.9	75.0	6.3	100.0	-1.29(1.36)
	남성	만19~29세	211	5.7	15.2	59.2	13.7	6.2	20.9	19.9	100.0	-0.01(1.43)
		만30~39세	211	4.3	23.2	56.4	11.8	4.3	27.5	16.1	100.0	-0.17(1.32)
		만40~49세	251	6.4	37.5	41.4	11.6	3.2	43.9	14.8	100.0	-0.46(1.38)
		만50~59세	251	13.5	40.2	38.2	6.8	1.2	53.7	8.0	100.0	-0.91(1.35)
		만60~64세	113	6.2	55.8	36.3	1.8	-	62.0	1.8	100.0	-1.00(1.02)
지역	여성	도시	578	25.1	49.5	21.3	3.6	0.5	74.6	4.1	100.0	-1.52(1.40)
		도농복합·농촌	404	27.5	50.5	20.0	2.0	-	78.0	2.0	100.0	-1.67(1.33)
	남성	도시	595	7.2	32.9	45.0	11.3	3.5	40.1	14.8	100.0	-0.44(1.41)
		도농복합·농촌	439	8.2	32.3	49.2	7.7	2.5	40.5	10.2	100.0	-0.53(1.35)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2	28.9	47.0	21.5	2.3	0.2	75.9	2.5	100.0	-1.65(1.41)
		자녀 있음	552	23.7	52.0	20.3	3.4	0.5	75.7	4.0	100.0	-1.53(1.35)
		자녀성별 모두	186	25.3	50.5	18.8	3.8	1.6	75.8	5.4	100.0	-1.52(1.41)
		자녀성별 아들만	207	15.5	57.0	23.2	4.3	-	72.5	4.3	100.0	-1.34(1.27)
		자녀성별 딸만	158	32.9	47.5	18.4	1.3	-	80.4	1.3	100.0	-1.78(1.34)
	남성	자녀 없음	491	6.7	23.4	51.9	13.0	4.9	30.1	17.9	100.0	-0.21(1.45)
		자녀 있음	542	8.5	41.1	42.3	6.6	1.5	49.6	8.1	100.0	-0.73(1.27)
		자녀성별 모두	180	7.8	39.4	47.8	3.3	1.7	47.2	5.0	100.0	-0.70(1.25)
		자녀성별 아들만	195	9.2	46.2	35.4	7.2	2.1	55.4	9.2	100.0	-0.81(1.27)
		자녀성별 딸만	168	8.3	36.9	44.0	10.1	0.6	45.2	10.7	100.0	-0.65(1.28)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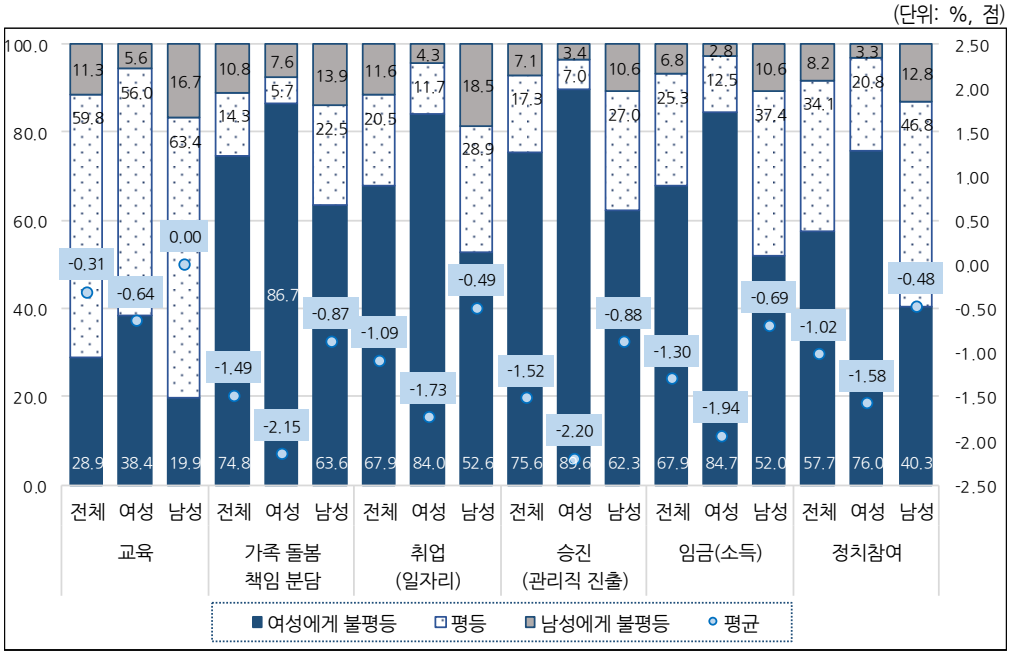
교육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응답(여성 56.0%, 남성 63.4%)이 가장 높은 영역이었다.

여성은 6개의 영역 중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이 8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을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86.6%)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남성은 63.7%가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라고 응답하였고, 승진이 62.3%로 뒤를 잇는다.

남성에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은 여성은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에서 나타나나 7.6%에 불과하였고, 남성은 취업에 있어서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18.5%, 교육이 16.7%였다.

[그림 3-11] 우리 사회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1)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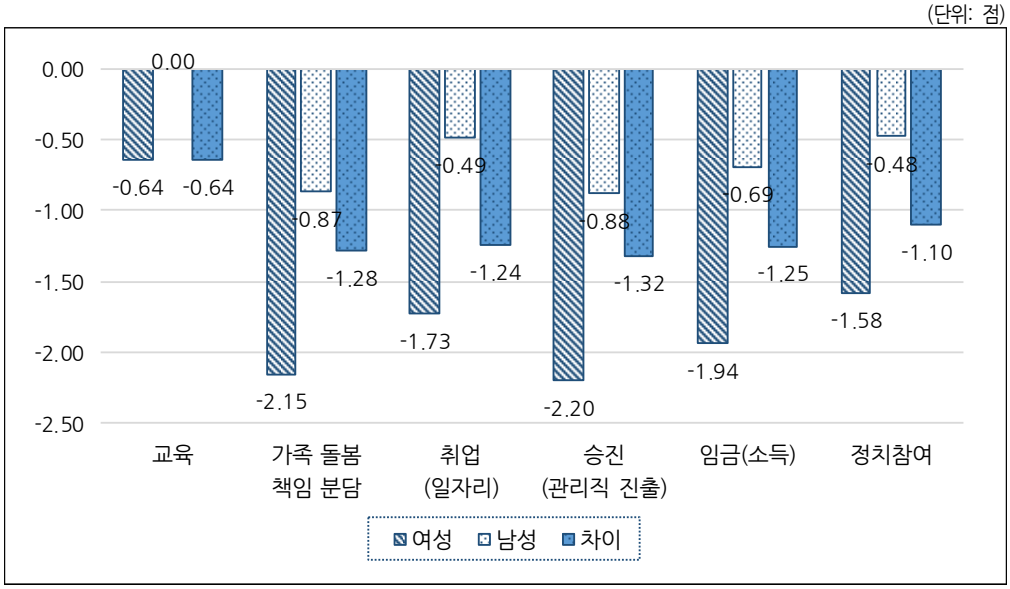
주: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여성들은 승진(관리직 진출) -2.20점,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 -2.15점, 임금(소득) -1.94점, 정치참여 -1.58점, 교육 -0.64점 순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남성 역시 승진(관리직 진출) -0.88점,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 -0.87점, 임금(소득) -0.69점, 정치참여 -0.48점, 교육 0.00점 순이었다. 우리 사회의 분야별 성평등 정도를 인식하는 순위는

동일하였지만, 교육을 제외하고는 여성과 남성의 평균이 1점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여성들이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2] 우리 사회의 분야별 성평등 수준(2)

(단위: 점)



주: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2) 전반적 성평등 수준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표 3-34])에 대해서 여성의 평균은 -1.55점, 남성은 -0.22점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여성이 불평등을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여성은 여성의 85.5%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고 평등은 8.4%, 남성에게 불평등은 6.2% 수준이었다. 반면 남성들은 51.4%가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고 응답한 반면 평등은 22.4%, 남성에게 불평등은 26.2%였다.

연령별 평균은 여성은 20대 이하가 -1.75점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가장 강했고, 60대 이상이 -1.13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역시 여성에 대해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남성은 60대가 -0.92점으로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남성 중에서는 가장 강했으나 20대 이하(0.45점)와 30대(0.18점)는 남성에게 약간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4]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 여성에 게매우 불평등	㉡+㉠	⓪ 평등	①+②	③+④ 남성에 게매우 불평등	㉣+㉢+㉡+㉠ 여성에 불평등	①+②+③+④ 남성에 불평등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1.5	56.5	15.6	13.2	3.3	68.0	16.5	100.0	-0.87(1.57)
성별	여성		982	19.6	65.9	8.4	5.8	0.4	85.5	6.2	100.0	-1.55(1.28)
	남성		1,035	3.9	47.5	22.4	20.2	6.0	51.4	26.2	100.0	-0.22(1.55)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25.8	61.6	8.9	3.7	-	87.4	3.7	100.0	-1.75(1.31)
		만30~39세	194	19.6	68.0	8.2	4.1	-	87.6	4.1	100.0	-1.62(1.21)
		만40~49세	242	18.6	68.6	8.3	4.5	-	87.2	4.5	100.0	-1.62(1.15)
		만50~59세	244	18.9	65.2	7.4	7.8	0.8	84.1	8.6	100.0	-1.45(1.35)
		만60~64세	111	13.5	64.9	9.0	10.8	1.8	78.4	12.6	100.0	-1.13(1.41)
	남성	만19~29세	210	3.3	23.3	32.4	28.6	12.4	26.6	41.0	100.0	0.45(1.69)
		만30~39세	210	1.4	38.6	21.4	30.5	8.1	40.0	38.6	100.0	0.18(1.56)
		만40~49세	250	2.8	53.2	16.0	22.0	6.0	56.0	28.0	100.0	-0.24(1.57)
		만50~59세	249	5.2	62.2	22.9	8.8	0.8	67.4	9.6	100.0	-0.79(1.17)
		만60~64세	113	7.1	65.5	18.6	7.1	1.8	72.6	8.9	100.0	-0.92(1.16)
지역	여성	도시	579	19.2	64.9	8.5	6.9	0.5	84.1	7.4	100.0	-1.52(1.33)
		도농복합·농촌	404	20.3	67.1	8.2	4.2	0.2	87.4	4.4	100.0	-1.59(1.22)
	남성	도시	595	3.7	45.5	22.9	22.0	5.9	49.2	27.9	100.0	-0.15(1.53)
		도농복합·농촌	440	4.1	50.2	21.8	17.7	6.1	54.3	23.8	100.0	-0.31(1.57)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2	24.1	64.8	6.7	4.4	-	88.9	4.4	100.0	-1.76(1.27)
		자녀 있음	551	16.0	66.6	9.6	7.1	0.7	82.6	7.8	100.0	-1.38(1.27)
		자녀성별 모두	185	14.6	71.4	8.1	5.4	0.5	85.9	5.9	100.0	-1.40(1.14)
		자녀성별 아들만	207	13.0	63.8	12.1	10.1	1.0	76.8	11.1	100.0	-1.18(1.37)
		자녀성별 딸만	158	20.9	65.2	8.2	5.1	0.6	86.1	5.7	100.0	-1.61(1.23)
	남성	자녀 없음	491	3.1	34.2	26.7	26.3	9.8	37.3	36.0	100.0	0.20(1.67)
		자녀 있음	542	4.6	59.8	18.5	14.6	2.6	64.4	17.2	100.0	-0.60(1.32)
		자녀성별 모두	179	4.5	64.8	20.1	9.5	1.1	69.3	10.6	100.0	-0.77(1.16)
		자녀성별 아들만	194	3.1	56.2	19.6	18.0	3.1	59.3	21.1	100.0	-0.42(1.35)
		자녀성별 딸만	167	6.6	58.7	15.6	16.2	3.0	65.3	19.2	100.0	-0.63(1.44)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여성에게 더 불평등한 사회라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성별에 따라서는 여성은 딸만 있는 경우(-1.61점), 남성은 딸과 아들 모두 있는 경우(-0.77)가 여성에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강했고 아들만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여성에 대한 불평등 인식이 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10년 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표 3-35])과 관련해서는 여성은 성평등 수준은 현재보다 개선되겠지만 여전히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고(-0.67점), 남성은 남성에게 더 불평등한 사회일 것으로 예상하였다(0.40점).

여성들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평등한 사회인 평균 0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남성들은 모든 연령에서 평균이 0점을 넘어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할수록 점수는 0에 가까워졌고 20대가 0.9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자녀유무에 따른 미래 전망 역시 현재의 성평등 수준과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여성의 경우 딸만 있는 사람이 10년 후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여전히 여성에게 더 불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였고, 남성들의 경우는 아들만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남성에게 불리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였다.

[표 3-35] 향후 10년 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 여성에 게매우 불평등	㉡+㉠	⓪ 평등	①+②	③+④ 남성에 게매우 불평등	㉣+㉢+ ㉡+㉠ 여성에 불평등	①+② +③+④ 남성에 불평등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4.8	30.1	42.4	17.7	5.0	34.9	22.7	100.0	-0.12(1.46)
성별		여성	982	7.9	43.6	37.9	9.8	0.8	51.5	10.6	100.0	-0.67(1.24)
		남성	1,034	1.7	17.3	46.7	25.2	9.0	19.0	34.2	100.0	0.40(1.45)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13.2	47.9	32.1	6.8	-	61.1	6.8	100.0	-0.99(1.28)
		만30~39세	194	11.9	51.0	30.9	5.7	0.5	62.9	6.2	100.0	-0.96(1.26)
		만40~49세	241	5.8	49.0	36.5	8.3	0.4	54.8	8.7	100.0	-0.76(1.13)
		만50~59세	246	4.9	35.4	43.9	13.8	2.0	40.3	15.8	100.0	-0.33(1.28)
		만60~64세	111	3.6	29.7	50.5	16.2	-	33.3	16.2	100.0	-0.21(.96)
	남성	만19~29세	211	0.9	9.5	43.1	28.0	18.5	10.4	46.5	100.0	0.93(1.64)
		만30~39세	210	1.9	12.4	41.9	31.4	12.4	14.3	43.8	100.0	0.66(1.54)
		만40~49세	250	2.0	21.2	41.2	29.6	6.0	23.2	35.6	100.0	0.30(1.40)
		만50~59세	250	2.8	22.0	52.8	18.8	3.6	24.8	22.4	100.0	0.02(1.24)
		만60~64세	113	0.9	21.2	61.1	13.3	3.5	22.1	16.8	100.0	0.01(1.03)
지역	여성	도시	578	8.5	43.6	36.5	10.9	0.5	52.1	11.4	100.0	-0.69(1.26)
		도농복합·농촌	404	7.4	43.3	40.1	8.2	1.0	50.7	9.2	100.0	-0.65(1.21)
	남성	도시	594	1.5	16.5	47.6	24.6	9.8	18.0	34.4	100.0	0.45(1.46)
		도농복합·농촌	438	2.1	18.3	45.7	26.0	8.0	20.4	34.0	100.0	0.34(1.44)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12.8	48.0	31.8	7.4	-	60.8	7.4	100.0	-0.97(1.27)
		자녀 있음	550	4.2	40.0	42.7	11.6	1.5	44.2	13.1	100.0	-0.44(1.17)
		자녀성별 모두	185	3.2	37.8	51.4	7.0	0.5	41.1	7.6	100.0	-0.45(0.95)
		자녀성별 아들만	209	3.3	34.4	42.1	17.2	2.9	37.8	20.1	100.0	-0.24(1.28)
		자녀성별 딸만	157	7.0	49.7	33.1	9.6	0.6	56.7	10.2	100.0	-0.70(1.22)
	남성	자녀 없음	492	2.2	14.0	39.4	29.7	14.6	16.3	44.3	100.0	0.70(1.63)
		자녀 있음	541	1.3	20.1	53.4	21.3	3.9	21.4	25.1	100.0	0.13(1.22)
		자녀성별 모두	180	2.8	19.4	55.0	20.0	2.8	22.2	22.8	100.0	0.03(1.21)
		자녀성별 아들만	194	-	21.1	50.0	23.7	5.2	21.1	28.9	100.0	0.26(1.25)
		자녀성별 딸만	167	1.8	19.8	55.1	19.8	3.6	21.6	23.4	100.0	0.09(1.19)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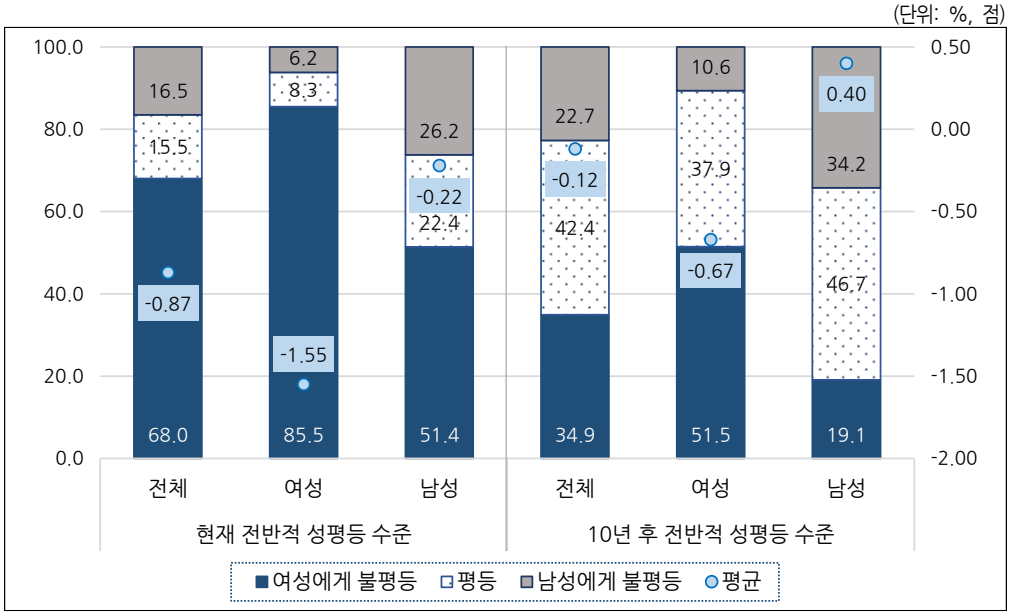
여성들은 현재(-0.22점)도 미래도(-0.48점) 여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일 것으로 보는 반면, 남성들은 현재 사회는 여성들에게 불평등하나(-0.22점), 미래는 남성들이 더 불평등(0.40점)한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에 있어서 여성은 현재는 85.5%, 미래는 51.5%가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일 것으로 예상하여 34.0%p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재가 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은 8.4%였으나 10년 후가 성평등 할 것이라는 응답은 37.9%로 29.5%p 차이를 나타낸다.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일 것이라는 응답도 4.4%p 증가하였다.

남성들은 현재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51.4%였으나 10년 후에도 여성에게 불평등할 것이라는 응답은 19.0%로 32.4%p 차이를 나타낸다. 현재가 평등하다는 응답은 22.4%, 10년 후가 성평등할 것이라는 응답은 46.7%로 22.4%p 상승하였다. 현재가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은 26.2%, 10년 후가 남성에게 불평등할 것이라는 응답은 34.2%로 8.0%p 증가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그림 3-13]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단위: %, 점)



주: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다. 가족가치 및 가족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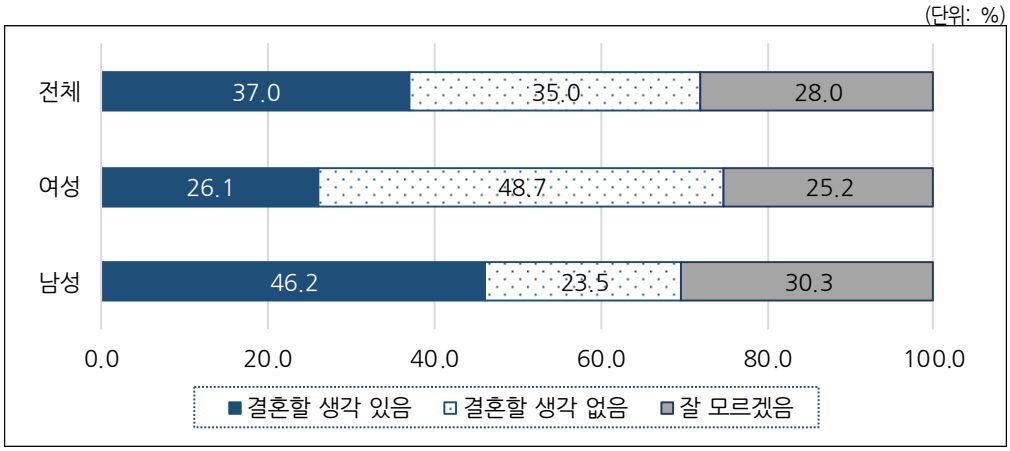
1) 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

가) 결혼에 대한 태도

미혼(비혼)자들의 결혼의사를 조사한 결과([표 3-36])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은 37.0%,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은 35.0%, 아직 결정 못한 사람이 28.0%로 결혼 의사가 확실히 있는 사람은 3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은 여성 중 26.1%에 불과하였고,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사람이 48.7%로 거의 과반에 이른다. 반면 남성들은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사람이 46.2%로 여성에 비해 많았다.

[그림 3-14] 미혼(비혼)자 결혼 의사

(단위: %)



사례수가 적어서 해석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지만, 연령이 증가할수록 여성과 남성 모두 결혼의사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남녀 모두 도시지역 거주자가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에 비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높았다. 경제활동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의 결혼의사가 뚜렷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6] 미혼(비혼)자의 결혼의사(응답자특성(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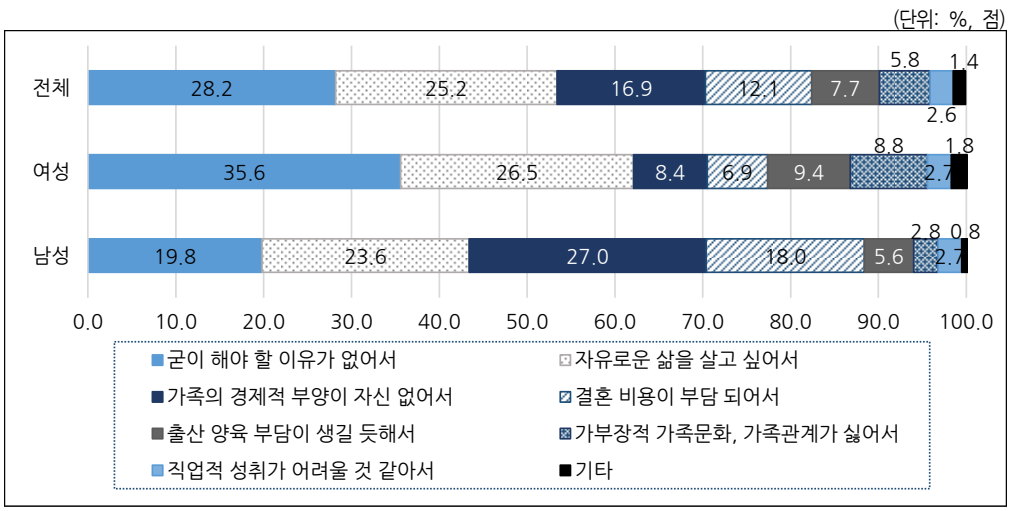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결혼할 생각이 있음	결혼할 생각이 없음	잘 모르겠음 (아직 결정 못함)	계
전체			786	37.0	35.0	28.0	100.0
성별		여성	357	26.1	48.7	25.2	100.0
		남성	429	46.2	23.5	30.3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74	31.6	41.4	27.0	100.0
		만30~39세	95	30.5	41.1	28.4	100.0
		만40~49세	54	11.1	63.0	25.9	100.0
		만50~64세	35	11.4	82.9	5.7	100.0
	남성	만19~29세	204	50.5	13.7	35.8	100.0
		만30~39세	122	41.8	31.1	27.0	100.0
		만40~49세	60	50.0	28.3	21.7	100.0
		만50~64세	42	31.0	42.9	26.2	100.0
지역	여성	도시	210	26.7	47.1	26.2	100.0
		도농복합·농촌	146	25.3	51.4	23.3	100.0
	남성	도시	260	46.2	21.5	32.3	100.0
		도농복합·농촌	169	46.2	26.6	27.2	100.0
경제활동	여성	일함	264	30.7	45.5	23.9	100.0
		일하지 않음	92	13.0	58.7	28.3	100.0
	남성	일함	330	50.6	22.4	27.0	100.0
		일하지 않음	98	30.6	27.6	41.8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미혼(비혼)자 중 결혼의사와 관련하여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1순위에서는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가 28.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가 25.2%,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자신이 없어서 16.9%, 집과 혼수 등 결혼 비용이 부담되어서 12.1%,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7.7%, 명절이나 제사 등 가부장적 가족문화나 가족관계가 싫어서 5.8%, 결혼하면 내 직업적 성취가 어려울 것 같아서 2.6%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그림 3-15]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순위)



그러나 성별로는 차이가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28.2%, 누군가와의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26.5%,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9.4%, 명절이나 제사 등 가부장적 가족문화나 가족관계가 싫어서가 8.8%로 남성에 비해 높았다. 남성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자신이 없어서 27.0%, 집과 혼수 등 결혼 비용이 부담되어서 18.0%에 대한 응답이 여성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보다는 40대 이상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응답이 높았으며, 경제적 부양에 대한 부담은 모든 연령대의 남성에게서 공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슈임을 알 수 있다.

경제활동 여부와 관련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남녀 모두 경제적 부담이나 결혼비용 부담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7]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순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가족의 경제적 부양이 자신 없어서	결혼 비용이 부담되어서	출산 양육 부담이 생길 듯해서	가부장적 가족문화, 관계가 싫어서	직업적 성취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기타	계
전체			496	28.2	25.2	16.9	12.1	7.7	5.8	2.6	1.4	100.0
성별		여성	264	35.6	26.5	8.4	6.9	9.4	8.8	2.7	1.8	100.0
		남성	232	19.8	23.6	27.0	18.0	5.6	2.8	2.7	0.8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19	29.4	21.8	10.9	7.6	10.9	12.6	3.4	3.4	100.0
		만30~39세	65	44.6	24.6	7.7	7.7	6.2	3.1	4.6	1.5	100.0
		만40~49세	48	31.2	33.3	6.2	4.2	10.4	12.5	2.1	-	100.0
		만50~64세	31	45.2	38.7	3.2	6.5	6.5	-	-	-	100.0
	남성	만19~29세	102	21.6	17.6	23.5	24.5	5.9	2.0	3.9	1.0	100.0
		만30~39세	73	16.4	20.5	31.5	19.2	5.5	1.4	4.1	1.4	100.0
		만40~49세	29	13.8	44.8	20.7	10.3	3.4	6.9	-	-	100.0
		만50~64세	29	24.1	31.0	34.5	-	6.9	3.4	-	-	100.0
지역	여성	도시	153	33.3	31.4	7.8	6.5	11.1	7.2	2.0	0.7	100.0
		도농복합·농촌	109	39.4	20.2	9.2	7.3	6.4	11.0	3.7	2.8	100.0
	남성	도시	139	16.5	22.3	31.7	16.5	6.5	2.2	4.3	-	100.0
		도농복합·농촌	91	24.2	25.3	19.8	19.8	4.4	3.3	1.1	2.2	100.0
경제활동	여성	일함	185	36.2	28.1	7.0	7.0	9.7	8.1	3.2	0.5	100.0
		일하지 않음	80	33.8	22.5	11.3	7.5	8.8	11.3	1.3	3.8	100.0
	남성	일함	162	21.6	25.3	24.1	16.7	4.9	3.1	3.7	0.6	100.0
		일하지 않음	68	16.2	19.1	33.8	20.6	5.9	1.5	1.5	1.5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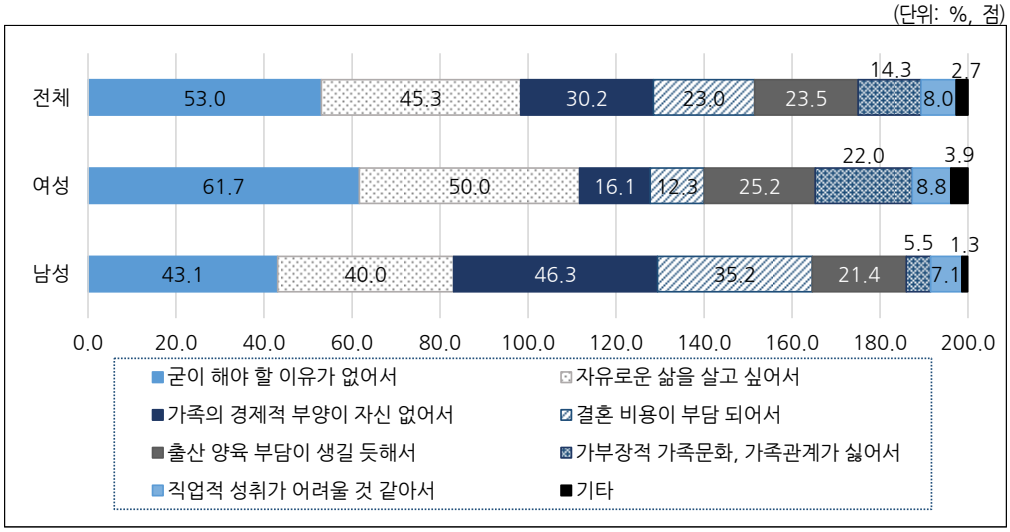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과반 이상의 사람들이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를 꼽으며(53.0%) 이후의 응답 순위 역시 1순위 응답과 동일하였다.

여성은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에 대한 응답이 61.7%였고, 누군가와의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가 50.0%였다. 남성은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자신이 없어서가 46.3%로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하였으며,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43.1%, 누군가와의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가 40.0%였다. 남성

의 경우 결혼 비용에 대한 부담(35.2%)이 높은 것에도 주목할 만하다. 여성은 결혼 자체나 결혼으로 인한 관계에 대한 부담이 크다면, 남성은 결혼 자체와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16]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2순위)

(단위: %, 점)



지역별 응답을 살펴보면 도시지역 거주자는 여성과 남성 모두 경제적 부양이나 결혼비용 등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는 결혼할 이유가 없어서에 대한 응답이 남녀 모두에서 높았다. 여성의 경우는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가 가부장적 가족문화나 가족관계가 싫다는 응답이 약간 높았다.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나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경제적 부담에 관련한 응답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더 높았다. 남성의 경우 가족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응답은 경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로 높았으나, 결혼비용에 대한 부담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뚜렷하게 높았다.

[표 3-38]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2순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가족의 경제적 부양이 자신 없어서	결혼 비용이 부담되어서	출산 양육 부담이 생길 듯해서	가부장적 가족 문화 관계가 싫어서	직업적 성취가 어려울 것 같아서	기타
전체			496	53.0	45.3	30.2	23.0	23.5	14.3	8.0	2.7
성별		여성	264	61.7	50.0	16.1	12.3	25.2	22.0	8.8	3.9
		남성	231	43.1	40.0	46.3	35.2	21.4	5.5	7.1	1.3
연령	여성	만19~29세	119	49.8	39.1	19.5	15.9	30.1	28.0	12.6	5.1
		만30~39세	66	66.0	49.5	18.9	13.4	24.8	12.2	11.6	3.7
		만40~49세	48	69.5	56.9	9.4	5.1	25.5	30.6	1.4	1.6
		만50~64세	31	85.9	81.8	7.4	7.3	7.2	6.8	-	3.6
	남성	만19~29세	102	40.1	36.4	39.9	40.8	24.9	8.2	7.5	2.3
		만30~39세	71	40.2	34.5	53.5	45.0	16.7	1.6	7.5	0.9
		만40~49세	30	50.1	52.1	45.6	17.0	23.0	6.9	5.2	-
		만50~64세	29	53.5	54.2	52.0	9.5	19.3	4.5	7.1	-
지역	여성	도시	154	59.1	49.7	18.4	13.1	27.6	19.9	8.8	3.4
		도농복합·농촌	110	65.3	50.4	12.7	11.1	22.0	24.9	8.8	4.7
	남성	도시	140	39.0	35.7	52.9	36.6	23.9	5.3	6.6	-
		도농복합·농촌	92	49.3	46.6	36.3	33.1	17.7	5.8	7.9	3.3
경제활동	여성	일함	184	63.9	53.8	12.4	11.1	22.8	23.0	9.9	3.1
		일하지 않음	80	56.5	41.3	24.4	15.1	30.9	19.7	6.4	5.7
	남성	일함	163	44.9	43.1	46.0	32.3	17.0	6.4	9.3	1.1
		일하지 않음	69	38.7	32.8	47.3	42.1	31.8	3.5	2.1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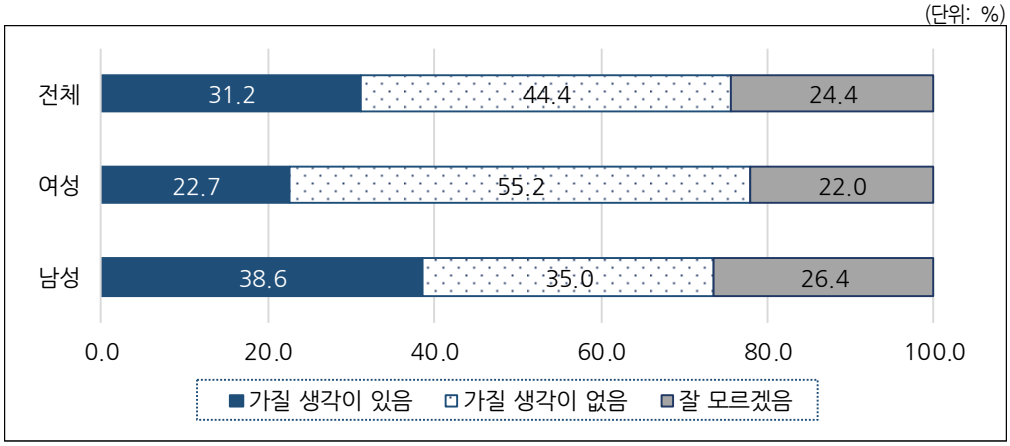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나) 자녀출산에 대한 태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녀를 가질 의사를 조사한 결과([표 3-39])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는 사람은 전체의 31.2%였고, 가질 생각이 없다는 사람은 44.4%였다.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 출산에 대한 의사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은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22.7%, 가질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절반이 넘는 55.2%였고, 남성은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38.6%, 가질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35.0%로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약간 더 높았다.

[그림 3-17] 자녀를 가질 의사

(단위: %)



연령별로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은 30대(32.8%), 남성은 20대 이하(46.1%)에서 가장 높았으며 이후 자녀 출산 의사는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별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자녀출산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별로는 여성은 기혼인 경우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다는 응답이 40.0%로 미혼의 19.0%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으나 남성의 경우는 미혼(비혼)인 경우(40.5%)가 기혼인 경우(26.8%)보다 자녀출산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혼자의 응답수가 충분하지 않은 관계로 해석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표 3-39] 자녀를 가질 의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질 생각이 있음	가질 생각이 없음	잘 모르겠음 (아직 결정 못함)	계
전체			923	31.2	44.4	24.4	100.0
성별		여성	431	22.7	55.2	22.0	100.0
		남성	492	38.6	35.0	26.4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82	25.8	49.5	24.7	100.0
		만30~39세	134	32.8	41.8	25.4	100.0
		만40~49세	68	7.4	70.6	22.1	100.0
		만50~64세	48	4.2	93.8	2.1	100.0
	남성	만19~29세	206	46.1	19.9	34.0	100.0
		만30~39세	148	40.5	33.8	25.7	100.0
		만40~49세	73	38.4	47.9	13.7	100.0
		만50~64세	68	11.8	69.1	19.1	100.0
지역	여성	도시	251	22.7	55.4	21.9	100.0
		도농복합·농촌	180	22.8	55.0	22.2	100.0
	남성	도시	300	37.7	35.7	26.7	100.0
		도농복합·농촌	193	39.9	34.2	25.9	100.0
경제활동	여성	일함	326	26.1	53.1	20.9	100.0
		일하지 않음	105	12.4	61.9	25.7	100.0
	남성	일함	388	40.7	35.6	23.7	100.0
		일하지 않음	104	30.8	32.7	36.5	100.0
혼인상태	여성	미혼(비혼)	357	19.0	58.8	22.1	100.0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70	40.0	37.1	22.9	100.0
		이혼/별거/사별	4	25.0	75.0	-	100.0
	남성	미혼(비혼)	430	40.5	30.2	29.3	100.0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56	26.8	66.1	7.1	100.0
		이혼/별거/사별	6	16.7	83.3	-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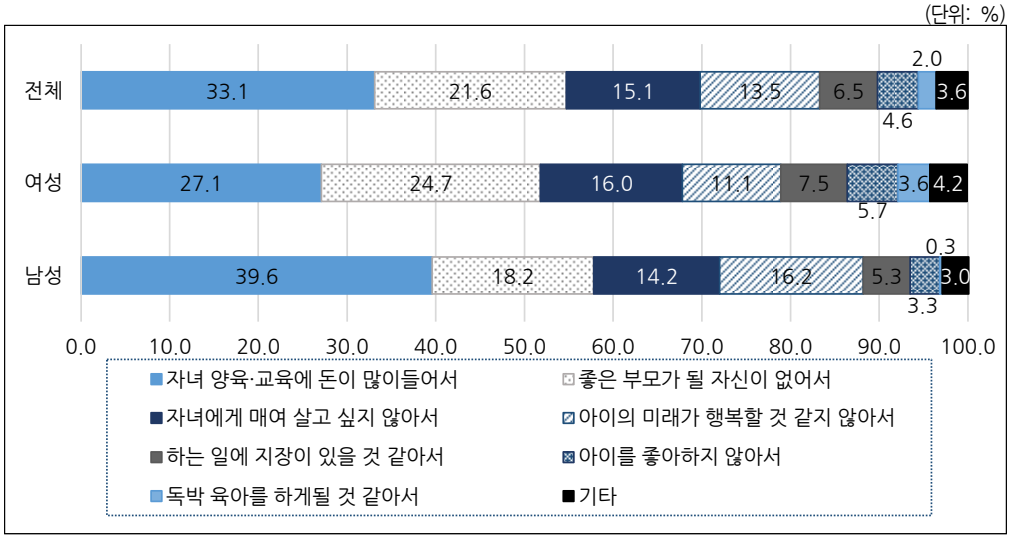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미혼(비혼)자 중 자녀출산의사와 관련하여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1순위에서는 자녀 양육·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서에 대한 응답이 33.1%로 가장 높았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21.6%, 자녀에게 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서 15.1%, 아이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6.5% 순이었다.

여성의 경우는 응답의 순서가 전체와 동일하였으나 비용 부담에 대한 응답(27.1%)은 전체보다 낮고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24.7%), 자녀에게 매여살고 싶지 않아서(16.0%)에 대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양육 및 교육비용 부담에 대한 응답이 39.6%로 여성(27.1%)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으며, 아이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에 대한 응답도 16.2%로 여성(11.1%)보다 높았다.

[그림 3-18] 자녀를 가질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순위)

(단위: %)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우 30대에서 자녀를 키우면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12.4%로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남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경제적 비용에 대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아서,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혼인상태별로는 미혼(비혼) 남성은 비용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었고, 기혼 남성의 경우는 자녀에게 매여살고 싶지 않아서에 대한 응답이 31.0%로 가장 높았다.

[표 3-40]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 양육·교육에 돈많이 들어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자녀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아서	아이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독박 육아를 하게될 것 같아서	기타	계
전체			635	33.1	21.6	15.1	13.5	6.5	4.6	2.0	3.6	100.0
성별		여성	332	27.1	24.7	16.0	11.1	7.5	5.7	3.6	4.2	100.0
		남성	303	39.6	18.2	14.2	16.2	5.3	3.3	0.3	3.0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34	32.1	23.1	14.2	11.9	5.2	6.7	5.2	1.5	100.0
		만30~39세	89	23.6	27.0	15.7	9.0	12.4	6.7	2.2	3.4	100.0
		만40~49세	62	25.8	25.8	21.0	9.7	8.1	1.6	4.8	3.2	100.0
		만50~64세	44	22.7	25.0	15.9	13.6	4.5	4.5	-	13.6	100.0
	남성	만19~29세	112	46.4	18.8	10.7	10.7	8.0	4.5	0.9	-	100.0
		만30~39세	87	42.5	16.1	17.2	20.7	3.4	-	-	-	100.0
		만40~49세	45	37.8	15.6	13.3	15.6	6.7	8.9	-	2.2	100.0
		만50~64세	60	23.3	21.7	16.7	20.0	3.3	1.7	-	13.3	100.0
지역	여성	도시	193	25.9	22.8	17.1	10.4	8.3	6.7	4.1	4.7	100.0
		도농복합·농촌	139	28.8	27.3	15.1	12.2	6.5	3.6	2.9	3.6	100.0
	남성	도시	185	38.4	18.4	17.3	16.2	5.4	2.2	0.5	1.6	100.0
		도농복합·농촌	115	42.6	17.4	9.6	15.7	5.2	5.2	-	4.3	100.0
경제활동	여성	일함	242	25.2	24.8	17.4	9.9	9.1	5.0	3.3	5.4	100.0
		일하지 않음	92	31.5	23.9	13.0	14.1	4.3	7.6	4.3	1.1	100.0
	남성	일함	230	39.1	16.1	17.0	16.5	5.7	3.0	-	2.6	100.0
		일하지 않음	73	41.1	24.7	5.5	15.1	5.5	4.1	1.4	2.7	100.0
혼인상태	여성	미혼(비혼)	289	26.3	26.0	16.3	11.8	6.2	5.9	3.8	3.8	100.0
		기혼	42	31.0	16.7	14.3	7.1	16.7	4.8	2.4	7.1	100.0
		이혼/별거/사별	3	66.7	33.3	-	-	-	-	-	-	100.0
	남성	미혼(비혼)	255	43.5	18.8	11.4	15.7	5.9	3.5	0.4	0.8	100.0
		기혼	42	19.0	14.3	31.0	16.7	2.4	2.4	-	14.3	100.0
		이혼/별거/사별	5	20.0	20.0	20.0	20.0	-	-	-	2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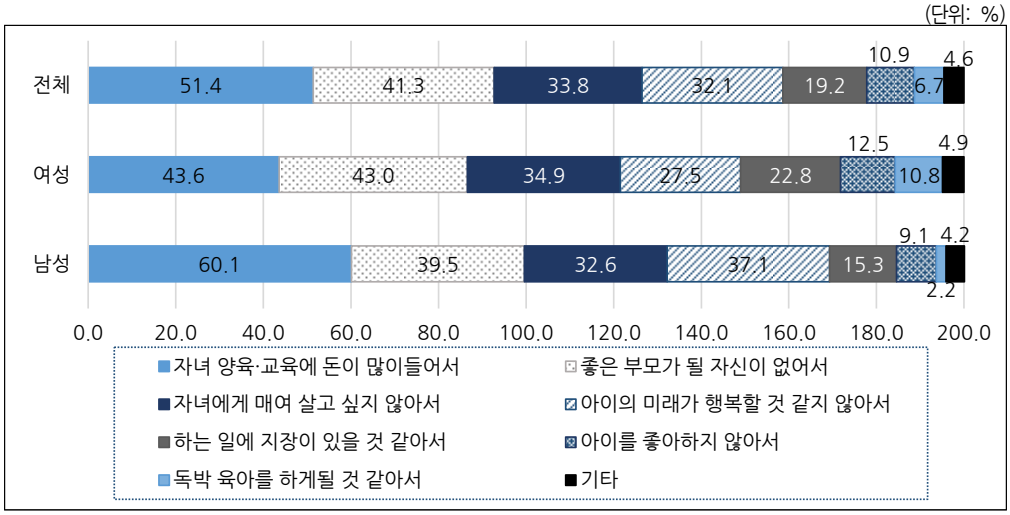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한 결과를 살펴보면 과반 이상의 사람들이 자녀 양육·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서를 꼽았으며(51.4%) 이후의 응답 순위 역시 1순위 응답과 동일하다.

여성은 자녀 양육·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서(43.6%)와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43.0%)에 대한 응답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전체 순위와 동일한 순서대로 응답이 나타나고 있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43.0%), 자녀에게 매여 살고싶지 않아서(34.9%),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22.8%),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12.5%), 독박육아를 하게 될 것 같아서(10.8%)에 대한 응답이 남성에 비해 높았다. 남성은 자녀 양육·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서가 60.1%로 여성에 비해 매우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고, 아이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37.1%)에 대한 응답이 여성에 비해 높았다.

[그림 3-19] 자녀를 가질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1+2순위)

(단위: %)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자녀 양육 및 교육 부담 관련 응답에 있어서 20~30대 남성들이 40대 이후 남성들에 비해 보다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에 따라서는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1순위와 마찬가지로 자녀에 매여살고 싶지 않아서나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에 대한 응답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혼인상태별로는 기혼 여성과 기혼 및 미혼(비혼)남성은 자녀 교육과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장 많이 꼽았고, 여성과 남성 모두 기혼자에 비해 미혼(비혼)인 사람들이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았다. 기혼 남성은 미혼(비혼) 남성에 비해 자녀에 매여 살고 싶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 또한 높았으며 기혼자들은 남녀 모두 아이의 미래가 행복

할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에 대한 응답도 미혼(비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41]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는 이유(1+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자녀 양육·교육에 돈많이 들어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자녀에게 매여 살고 싶지 않아서	아이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독박 육아를 하게 될 것 같아서	기타
전체			635	51.4	41.3	33.8	32.1	19.2	10.9	6.7	4.6
성별		여성	333	43.6	43.0	34.9	27.5	22.8	12.5	10.8	4.9
		남성	302	60.1	39.5	32.6	37.1	15.3	9.1	2.2	4.2
연령	여성	만19~29세	135	47.6	43.8	34.6	22.1	24.7	13.9	10.6	2.7
		만30~39세	89	43.5	36.0	36.6	32.6	24.1	11.5	10.8	4.9
		만40~49세	63	35.6	52.9	31.8	26.5	20.3	14.9	15.0	2.9
		만50~64세	46	42.7	40.3	36.9	34.5	18.6	7.1	5.8	14.1
	남성	만19~29세	111	62.3	40.5	29.2	33.6	18.5	10.9	3.6	1.3
		만30~39세	87	67.0	43.4	34.4	34.2	13.1	6.4	1.5	-
		만40~49세	45	59.2	27.4	37.4	37.7	20.0	14.9	-	3.4
		만50~64세	59	46.5	40.9	32.6	47.7	8.7	5.3	2.0	16.3
지역	여성	도시	194	41.8	40.8	35.2	27.4	24.7	13.7	11.1	5.4
		도농복합·농촌	139	46.1	45.9	34.5	27.6	20.3	10.9	10.5	4.3
	남성	도시	186	62.3	40.1	31.5	38.3	14.7	8.2	1.9	3.0
		도농복합·농촌	116	56.5	38.5	34.4	35.2	16.2	10.5	2.6	6.1
경제활동	여성	일함	241	42.6	41.2	37.6	24.6	24.9	12.3	11.1	5.8
		일하지 않음	92	46.1	47.7	28.0	35.0	17.5	13.0	10.0	2.7
	남성	일함	230	60.0	33.2	36.7	36.9	16.8	9.4	2.5	4.5
		일하지 않음	72	60.6	59.2	19.5	37.9	10.3	8.2	1.1	3.2
혼인상태	여성	미혼(비혼)	289	41.7	45.2	35.4	26.7	22.1	13.4	10.9	4.7
		기혼	42	54.5	28.7	30.3	34.4	29.8	7.2	8.2	7.0
	남성	미혼(비혼)	255	62.2	42.7	31.2	36.4	14.7	9.0	2.0	1.8
		기혼	42	52.2	20.2	41.4	40.4	20.1	10.5	-	15.2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3) 부부간 역할분담과 평등 인식

가) 유배우자 특성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이라고 응답한 응답자의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응답자 2,016명 중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1,157명으로 전체의 57.4%이다. 유배우자 중 여성은 584명(50.4%), 남성은 573명(49.5%)이었다. 여성은 30대 이하의 비율이 약간 높았고, 남성은 40대 이후 응답자 비율이 여성에 비해 약간 높았다.

여성 중 자녀가 있는 사람은 88.0%, 남성은 90.1%였다.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있는 사람 중 자녀가 2명인 사람이 각각 61.1%와 53.6%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남성은 여성에 비해 외동자녀(39.6%)와 3명이상 다자녀(6.8%)의 비율이 높았다. 자녀 성별은 여성과 남성 모두 아들만 있다고 한 사람이 38.4%와 34.9%로 가장 많았고, 여성보다 남성이 딸만 있는 경우가 31.5%로 더 많았다.

맞벌이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맞벌이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절반 이상이었으며(여성 54.3%, 남성 51.9%), 남편 외벌이는 여성(39.0%)에 비해 남성(44.2%)이 더 많았다. 아내 외벌이와 모두 일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여성에서 더 높았다.

가구소득은 200만원 미만과 600만원 이상은 여성 응답자 비율이, 200만원~600만원 미만은 남성 응답자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42] 유배우자의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전체	여성	남성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전체			1,157(100.0)	584(100.0)	573(100.0)
성별	여성		584(50.5)	584(100.0)	-
	남성		573(49.5)	-	573(100.0)
연령	만19~29세		21(1.8)	15(2.5)	6(1.0)
	만30~39세		185(16.0)	99(16.9)	86(15.0)
	만40~49세		364(31.5)	179(30.7)	185(32.4)
	만50~59세		384(33.2)	191(32.8)	193(33.6)
	만60~64세		203(17.5)	100(17.1)	103(18.0)
거주 지역[2]	도시		662(57.2)	347(59.4)	315(54.9)
	도·농복합 및 농촌		495(42.8)	237(40.6)	258(45.1)
자녀 유무	자녀 없음		127(11.0)	70(12.0)	57(9.9)
	자녀 있음		1,030(89.0)	514(88.0)	516(90.1)
	자녀수	1명	380(32.8)	175(29.9)	205(35.7)
		2명	591(51.1)	314(53.8)	277(48.3)
		3명 이상	59(5.1)	25(4.3)	35(6.1)
	자녀 성별	딸만 있음	307(26.5)	144(24.6)	163(31.5)
		아들만 있음	377(32.6)	197(33.8)	180(34.9)
		딸아들 모두 있음	345(29.8)	172(29.5)	173(33.6)
맞벌이 여부	맞벌이		615(53.2)	317(54.3)	298(51.9)
	남편 외벌이		481(41.6)	228(39.0)	253(44.2)
	아내 외벌이		31(2.7)	20(3.5)	11(1.8)
	모두 일하지 않음		31(2.7)	19(3.2)	12(2.0)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22(1.9)	13(2.2)	9(1.5)
	200만원~400만원 미만		195(16.9)	97(16.6)	98(17.1)
	400만원~600만원 미만		396(34.2)	185(31.6)	211(36.9)
	600만원~800만원 미만		236(20.4)	132(22.6)	104(18.2)
	800만원 이상		309(26.7)	158(27.0)	151(26.3)

주 1) 지역별, 성별 연령별 모집단 비율 반영 가중치 적용
2) 도시남부: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오산시,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도시북부: 의정부시, 고양시, 동두천시, 구리시
도·농복합남부: 용인시, 평택시, 이천시, 안성시, 김포시, 화성시, 광주시, 여주시
도·농복합북부: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포천시
농촌: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나) 부부간 주요 의사결정

‘자녀교육 관련 부부간 의사결정’([표 3-43])에서 부부가 똑같이 결정한다는 응답은 남성(33.2%)이 여성(2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27.7%로 남성의 8.7%에 비해 높았으며, 남편이 주로 또는 대체로 한다는 응답은 남성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40대에서 17.3%로 가장 낮았고, 60대가 34.3%로 가장 높았다. 40대는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38.0%로 가장 높았으며, 30대는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14.0%로 가장 낮았다. 남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똑같이 의사결정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30대 이하의 경우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은 없었고, 40대가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13.5%로 가장 높았다. 30대 이하에서는 주로 또는 대체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이 8.7%였다. 여성과 남성 모두 40대에서 자녀교육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대체로 또는 주로 아내가 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남성의 경우 도시지역 거주자의 자녀관련 의사결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보다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맞벌이인 경우 남성 외벌이인 경우보다 자녀교육의 의사결정에서 부부가 똑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성 외벌이인 경우는 아내의 역할이 더욱 두드러졌다.

‘투자와 자산관리 관련 부부간 의사결정’([표 3-44])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4.3%였고 똑같이 한다는 응답에 있어서 여성은 34.5%, 남성은 34.0%로 거의 유사하였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대체로 아내가(22.6%), 주로 아내가(17.1%)에 대한 응답이 남성에 비해 높았고 남성은 대체로 남편이(30.7%), 주로 남편이(16.9%)에 대한 응답이 높아 자신이 투자와 자산관리 관련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 여성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40대에서 41.3%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30대 이하에서 40.2%로 가장 높았다. 60대 남성의 경우 투자와 자산관리 관련하여 아내보다 남편의 주도권이 남성 중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맞벌이인 경우 아내와 남편이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여성 38.2%, 남성 40.3%), 남편 외벌이의 경우는 여성은 남편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29.9%)보다는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 비율(39.2%)이 높았

으나, 남성은 남편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55.0%)이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한 비율(31.8%)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

[표 3-43] 부부간 의사결정: 자녀교육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없음	계
전체			1,157	0.7	3.7	28.2	38.1	18.3	11.0	100.0
성별		여성	584	-	2.4	23.3	34.6	27.7	12.0	100.0
		남성	573	1.4	5.1	33.2	41.7	8.7	9.9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4	-	1.8	18.4	22.8	15.8	41.2	100.0
		만40~49세	179	-	1.1	17.3	36.9	38.0	6.7	100.0
		만50~59세	192	-	3.6	26.0	37.0	27.6	5.7	100.0
		만60~64세	99	-	3.0	34.3	39.4	22.2	1.0	100.0
	남성	만19~39세	92	1.1	7.6	28.3	38.0	-	25.0	100.0
		만40~49세	185	0.5	4.3	27.0	47.6	13.5	7.0	100.0
		만50~59세	191	3.1	4.2	35.6	39.3	11.0	6.8	100.0
		만60~64세	104	1.0	5.8	44.2	39.4	2.9	6.7	100.0
지역	여성	도시	347	-	2.0	23.9	33.7	28.5	11.8	100.0
		도농복합·농촌	238	-	3.4	22.3	35.7	26.5	12.2	100.0
	남성	도시	314	1.0	4.5	29.3	44.6	9.2	11.5	100.0
		도농복합·농촌	259	1.9	5.8	37.8	38.2	8.1	8.1	100.0
맞벌이 여부	여성	맞벌이	317	-	0.9	24.6	31.5	26.5	16.4	100.0
		남편 외벌이	228	-	3.9	18.4	39.9	31.6	6.1	100.0
		기타	39	-	5.1	41.0	28.2	15.4	10.3	100.0
	남성	맞벌이	298	2.3	6.7	35.6	36.6	6.4	12.4	100.0
		남편 외벌이	253	0.4	2.8	28.9	49.8	10.7	7.5	100.0
		기타	23	-	8.7	52.2	21.7	13.0	4.3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44] 부부간 의사결정: 투자와 자산관리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전체			1,157	11.5	25.1	34.3	18.7	10.4	100.0
성별		여성	585	6.2	19.7	34.5	22.6	17.1	100.0
		남성	573	16.9	30.7	34.0	14.7	3.7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4	8.8	21.1	33.3	16.7	20.2	100.0
		만40~49세	179	3.9	16.8	41.3	21.2	16.8	100.0
		만50~59세	191	4.7	20.4	29.8	27.2	17.8	100.0
		만60~64세	99	9.1	21.2	33.3	23.2	13.1	100.0
	남성	만19~39세	92	14.1	30.4	40.2	10.9	4.3	100.0
		만40~49세	185	19.5	28.6	29.7	18.4	3.8	100.0
		만50~59세	193	16.1	30.6	35.8	13.5	4.1	100.0
		만60~64세	103	15.5	34.0	34.0	13.6	2.9	100.0
지역	여성	도시	347	7.2	16.7	33.1	25.1	17.9	100.0
		도농복합·농촌	237	4.2	24.1	36.7	19.0	16.0	100.0
	남성	도시	315	14.6	32.1	34.3	14.9	4.1	100.0
		도농복합·농촌	258	19.8	28.7	33.7	14.7	3.1	100.0
맞벌이 여부	여성	맞벌이	317	6.3	15.8	38.2	21.1	18.6	100.0
		남편 외벌이	227	5.7	24.2	30.8	25.1	14.1	100.0
		기타	39	5.1	23.1	28.2	20.5	23.1	100.0
	남성	맞벌이	298	14.8	27.5	40.3	14.8	2.7	100.0
		남편 외벌이	253	20.2	34.8	26.5	14.2	4.3	100.0
		기타	22	9.1	22.7	36.4	22.7	9.1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생활비 지출 관련 부부간 의사결정’ ([표 3-45])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은 28.1%였고 대체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주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은 6.8%로 가장 낮았다.

여성은 대체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30.3%로 가장 높았고, 주로 아내가 22.2%, 똑같이 25.5%, 대체로 남편이 16.4%, 주로 남편이 5.6% 순이었다.

남성은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30.8%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아내가 28.7%, 대체로 남편이 20.4%, 주로 아내가 12.0%, 주로 남편이 8.0% 순으로 응답하였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여성과 남성 모두에 있어서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았고, 대체로 또는 주로 아내가 의사결정하는 비율은 가장 높았으며, 대체로 또는 주로 남편이 의사결정 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맞벌이여부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맞벌이인 경우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높고, 외벌이인 경우는 아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취업 및 직장이동 관련 부부간 의사결정’ ([표 3-46])은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39.6%, 여성의 38.4%, 남성의 40.8%였다. 여성과 남성 모두 아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에 비해 남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였는데, 남성은 30대 이하가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53.8%로 가장 높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40대 이후인 경우 남편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맞벌이의 경우는 여성(57.9%)과 남성(58.8%)모두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남편 외벌이의 경우는 남편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표 3-45] 부부간 의사결정: 생활비 지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전체			1,157	6.8	18.4	28.1	29.5	17.2	100.0
성별		여성	585	5.6	16.4	25.5	30.3	22.2	100.0
		남성	574	8.0	20.4	30.8	28.7	12.0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4	7.0	18.4	23.7	28.1	22.8	100.0
		만40~49세	179	7.8	13.4	29.1	27.4	22.3	100.0
		만50~59세	191	4.2	17.3	22.5	30.9	25.1	100.0
		만60~64세	100	3.0	18.0	27.0	37.0	15.0	100.0
	남성	만19~39세	91	11.0	9.9	42.9	25.3	11.0	100.0
		만40~49세	185	5.9	24.3	31.9	24.9	13.0	100.0
		만50~59세	192	8.9	18.8	25.5	33.9	13.0	100.0
		만60~64세	104	6.7	26.0	28.8	28.8	9.6	100.0
지역	여성	도시	346	6.4	18.8	21.4	30.1	23.4	100.0
		도농복합·농촌	236	4.7	12.7	31.4	30.9	20.3	100.0
	남성	도시	315	8.3	19.4	30.8	28.6	13.0	100.0
		도농복합·농촌	258	7.8	21.7	31.0	28.7	10.9	100.0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7	3.5	16.1	31.5	27.8	21.1	100.0
		남편 외벌이	227	9.7	15.9	17.6	34.8	22.0	100.0
		기타	39	-	20.5	23.1	25.6	30.8	100.0
	남성	맞벌이	298	5.4	25.8	34.2	25.8	8.7	100.0
		남편 외벌이	253	11.5	14.2	26.9	31.6	15.8	100.0
		기타	22	4.5	22.7	27.3	31.8	13.6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46] 부부간 의사결정: 취업, 직장 이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없음	계
전체			1,157	19.3	27.6	39.6	4.4	3.2	6.0	100.0
성별		여성	584	19.0	25.5	38.4	4.3	5.1	7.7	100.0
		남성	574	19.5	29.8	40.8	4.5	1.2	4.2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4	17.5	16.7	43.9	5.3	8.8	7.9	100.0
		만40~49세	179	23.5	25.1	38.0	6.1	2.8	4.5	100.0
		만50~59세	191	18.8	27.7	36.6	3.1	5.8	7.9	100.0
		만60~64세	100	13.0	32.0	36.0	2.0	4.0	13.0	100.0
	남성	만19~39세	93	17.2	15.1	53.8	5.4	1.1	7.5	100.0
		만40~49세	185	19.5	34.1	37.3	5.4	1.1	2.7	100.0
		만50~59세	193	20.2	31.1	39.4	3.6	2.1	3.6	100.0
		만60~64세	102	20.6	32.4	38.2	3.9	-	4.9	100.0
지역	여성	도시	348	19.5	24.7	38.2	4.0	5.2	8.3	100.0
		도농복합·농촌	238	18.1	26.5	38.2	5.0	5.0	7.1	100.0
	남성	도시	314	17.8	30.6	41.4	3.5	1.6	5.1	100.0
		도농복합·농촌	259	21.2	29.0	40.2	5.8	0.8	3.1	100.0
맞벌이 여부	여성	맞벌이	316	4.1	17.1	57.9	5.4	7.0	8.5	100.0
		남편 외벌이	228	41.2	40.4	11.4	1.3	0.4	5.3	100.0
		기타	40	7.5	7.5	37.5	12.5	17.5	17.5	100.0
	남성	맞벌이	296	7.1	25.3	58.8	3.0	1.7	4.1	100.0
		남편 외벌이	254	34.6	36.2	19.3	5.1	0.8	3.9	100.0
		기타	22	9.1	13.6	50.0	18.2	-	9.1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가사 등 집안 일 관련 부부간 의사결정’ ([표 3-47])은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27.0%)을 하기보다는 대체로(43.4%) 또는 주로(23.4%) 아내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19.0%)보다는 남성(35.1%)이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특히 여성들은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35.0%로 남성의 11.5%에 비해 높았다. 남성들은 대체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이 7.3%, 주로 남편이 한다는 응답이 1.4%로 여성의 3.4%와 0.3%에 비해서는 낮았지만, 가사 등 집안일의 의사결정은 대부분의 부부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임을 알 수 있다.

남녀 모두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맞벌이 여성은 24.0%만이 부부가 똑같이 집안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하여 남성 맞벌이의 42.1%에 비해 낮았다.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은 아내가(43.8%), 주로 아내가(26.8%) 의사결정을 한다는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다. 남편이 외벌이인 경우 여성은 주로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47.8%로 가장 높았고, 대체로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도 41.2%였다. 남성은 대체로 아내가 53.4%, 주로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16.6%였다.

‘가족 여가 관련 부부간 의사결정’ ([표 3-48])은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60.7%)이 가장 높은 항목이었다. 여성의 57.3%, 남성의 64.2%가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족 여가 역시 남편 또는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 여성은 아내가, 남성은 남편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우 30대 이하에서 의사결정을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68.4%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30대 이하와 60대가 72.8%로 가장 높았다.

맞벌이인 경우 남녀 모두 외벌이보다 부부가 똑같이 가족 여가를 결정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여성은 남편 외벌이인 경우 맞벌이에 비해 남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남편 또는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표 3-47] 부부간 의사결정: 가사 등 집안 일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전체			1,157	0.9	5.4	27.0	43.4	23.4	100.0
성별		여성	583	0.3	3.4	19.0	42.2	35.0	100.0
		남성	573	1.4	7.3	35.1	44.7	11.5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4	1.8	10.5	26.3	37.7	23.7	100.0
		만40~49세	179	-	1.7	16.2	41.9	40.2	100.0
		만50~59세	192	-	1.0	15.6	41.7	41.7	100.0
		만60~64세	100	-	3.0	23.0	49.0	25.0	100.0
	남성	만19~39세	91	1.1	15.4	48.4	28.6	6.6	100.0
		만40~49세	186	1.1	8.1	32.8	41.9	16.1	100.0
		만50~59세	193	1.6	4.7	32.6	49.7	11.4	100.0
		만60~64세	103	1.0	3.9	32.0	54.4	8.7	100.0
지역	여성	도시	346	0.3	3.2	18.5	43.1	35.0	100.0
		도농복합·농촌	236	0.4	3.8	19.9	41.1	34.7	100.0
	남성	도시	315	1.0	5.7	34.6	46.7	12.1	100.0
		도농복합·농촌	258	1.6	9.3	36.0	42.2	10.9	100.0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7	0.3	5.0	24.0	43.8	26.8	100.0
		남편 외벌이	228	-	0.9	10.1	41.2	47.8	100.0
		기타	40	2.5	5.0	32.5	35.0	25.0	100.0
	남성	맞벌이	297	2.0	10.1	42.1	38.4	7.4	100.0
		남편 외벌이	253	-	4.0	26.1	53.4	16.6	100.0
		기타	22	4.5	13.6	45.5	31.8	4.5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48] 부부간 의사결정: 가족 여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계
전체			1,157	3.4	15.2	60.7	15.9	4.8	100.0
성별		여성	585	1.7	14.0	57.3	20.0	7.0	100.0
		남성	573	5.1	16.4	64.2	11.7	2.6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4	0.9	6.1	68.4	17.5	7.0	100.0
		만40~49세	179	0.6	15.1	51.4	24.6	8.4	100.0
		만50~59세	192	2.6	16.7	54.2	18.8	7.8	100.0
		만60~64세	99	2.0	16.2	60.6	17.2	4.0	100.0
	남성	만19~39세	92	3.3	15.2	72.8	6.5	2.2	100.0
		만40~49세	185	7.0	16.8	55.7	15.1	5.4	100.0
		만50~59세	193	4.1	17.6	63.7	12.4	2.1	100.0
		만60~64세	103	4.9	13.6	72.8	8.7	-	100.0
지역	여성	도시	347	1.4	13.8	57.1	21.0	6.6	100.0
		도농복합·농촌	236	2.1	14.0	57.6	18.6	7.6	100.0
	남성	도시	315	3.8	14.0	66.0	13.3	2.9	100.0
		도농복합·농촌	259	6.9	19.3	61.4	9.7	2.7	100.0
맞벌이 여부	여성	맞벌이	317	0.9	10.4	61.5	20.5	6.6	100.0
		남편 외벌이	228	2.6	18.9	51.8	20.6	6.1	100.0
		기타	40	-	15.0	55.0	15.0	15.0	100.0
	남성	맞벌이	297	3.7	16.8	67.3	9.4	2.7	100.0
		남편 외벌이	253	7.1	15.4	60.9	14.6	2.0	100.0
		기타	23	-	21.7	56.5	8.7	13.0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내 부모 돌봄 관련 부부간 의사결정’ ([표 3-49])은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은 35.7%였고, 대체로 아내가 19.9%, 주로 아내가 13.4%, 대체로 남편이 6.9%, 주로 남편이 0.7% 순이었다. 여성들은 자신의 부모돌봄에 있어서 남편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는 매우 적었고, 부부가 똑같이 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부모 돌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자신이 대체로(13.6%), 주로(4.4%) 자신의 부모를 돌본다는 응답과 대체로 및 주로 아내가(16.4%) 돌본다는 응답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30대 이하에서 자신의 부모 돌봄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44.2%로 가장 높았고, 남성 역시 30대 이하가 52.2%로 가장 높았으나 이후 연령대에서도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40% 이상으로 높았다. 60대 남성의 경우 자신의 부모돌봄을 남편 자신이 결정하기보다 대체로 아내가 결정한다는 응답(19.4%)이 더 높았다. 연령의 증가에 따라 부모님의 사망 등으로 해당없음에 대한 응답이 높아지고 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남편 외벌이에 비해서 높았고, 남편 외벌이인 경우 아내의 의사결정 비율이 약간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배우자 부모 돌봄 관련 부부간 의사결정’ ([표 3-50])은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37.3%였고, 대체로 아내가 20.9%, 주로 아내가 9.2%, 대체로 남편이 6.6%, 주로 남편이 2.2%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은 33.4%였고, 남편의 부모지만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남편이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남성의 경우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은 41.2%였고,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남편이 한다는 응답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우 배우자 부모 돌봄을 아내가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0대 이후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특히 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의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남성 또한 여성과 유사한 추세로 40대를 기점으로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비율이 높다.

맞벌이 여부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맞벌이가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이 높고, 외벌이에서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는 비율이 높았다. 여성들은 맞벌이를 하더라도 배우자의 부모를 더 많이 돌보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돌봄 역할은 여성의 몫으로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9] 부부간 의사결정: 내 부모 돌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없음	계
전체			1,157	2.5	6.9	35.7	19.9	13.4	21.6	100.0
성별		여성	584	0.7	0.3	26.7	25.0	24.8	22.4	100.0
		남성	573	4.4	13.6	44.9	14.7	1.7	20.8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3	0.9	-	44.2	17.7	21.2	15.9	100.0
		만40~49세	180	-	0.6	27.2	25.6	26.7	20.0	100.0
		만50~59세	192	1.0	-	17.7	31.8	26.0	23.4	100.0
		만60~64세	100	1.0	2.0	22.0	19.0	23.0	33.0	100.0
	남성	만19~39세	92	3.3	9.8	52.2	9.8	4.3	20.7	100.0
		만40~49세	186	7.0	14.5	44.6	15.6	2.2	16.1	100.0
		만50~59세	194	4.1	16.0	40.7	13.4	1.5	24.2	100.0
		만60~64세	103	1.0	10.7	46.6	19.4	-	22.3	100.0
지역	여성	도시	348	0.9	0.6	24.7	27.9	26.1	19.8	100.0
		도농복합·농촌	238	0.4	0.4	29.4	20.6	22.7	26.5	100.0
	남성	도시	314	4.8	14.6	44.9	14.3	1.9	19.4	100.0
		도농복합·농촌	259	3.9	12.4	44.8	15.1	1.9	22.0	100.0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8	0.9	0.6	32.7	23.3	23.3	19.2	100.0
		남편 외벌이	228	0.4	-	18.9	28.1	27.2	25.4	100.0
		기타	40	-	2.5	22.5	22.5	22.5	30.0	100.0
	남성	맞벌이	297	3.0	13.8	46.1	14.8	0.7	21.5	100.0
		남편 외벌이	253	6.3	13.4	43.9	14.2	3.2	19.0	100.0
		기타	22	4.5	13.6	36.4	13.6	-	31.8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50] 부부간 의사결정: 배우자 부모 돌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부부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없음	계
전체			1,157	2.2	6.6	37.3	20.9	9.2	23.8	100.0
성별		여성	584	3.6	9.2	33.4	17.1	11.0	25.7	100.0
		남성	573	0.9	3.8	41.2	24.8	7.5	21.8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3	5.3	12.4	50.4	8.8	6.2	16.8	100.0
		만40~49세	179	4.5	6.1	34.6	20.7	10.6	23.5	100.0
		만50~59세	191	2.6	12.0	24.6	18.8	12.6	29.3	100.0
		만60~64세	100	1.0	6.0	29.0	17.0	14.0	33.0	100.0
	남성	만19~39세	92	2.2	5.4	53.3	9.8	7.6	21.7	100.0
		만40~49세	185	1.6	5.4	42.2	27.6	8.6	14.6	100.0
		만50~59세	193	-	2.1	35.8	25.4	8.3	28.5	100.0
		만60~64세	103	-	1.9	38.8	32.0	3.9	23.3	100.0
지역	여성	도시	347	4.3	9.5	32.3	17.6	11.2	25.1	100.0
		도농복합·농촌	237	2.1	9.3	35.0	16.5	10.5	26.6	100.0
	남성	도시	315	1.0	4.4	40.3	26.3	7.3	20.6	100.0
		도농복합·농촌	260	0.8	3.1	41.9	22.7	8.1	23.5	100.0
맞벌이 여부	여성	맞벌이	318	4.4	8.8	38.4	14.8	10.4	23.3	100.0
		남편 외벌이	228	2.6	10.1	27.6	21.5	10.5	27.6	100.0
		기타	39	2.6	7.7	28.2	10.3	17.9	33.3	100.0
	남성	맞벌이	297	-	3.7	45.8	22.6	5.1	22.9	100.0
		남편 외벌이	252	2.0	3.6	37.3	27.4	9.9	19.8	100.0
		기타	22	-	4.5	27.3	27.3	13.6	2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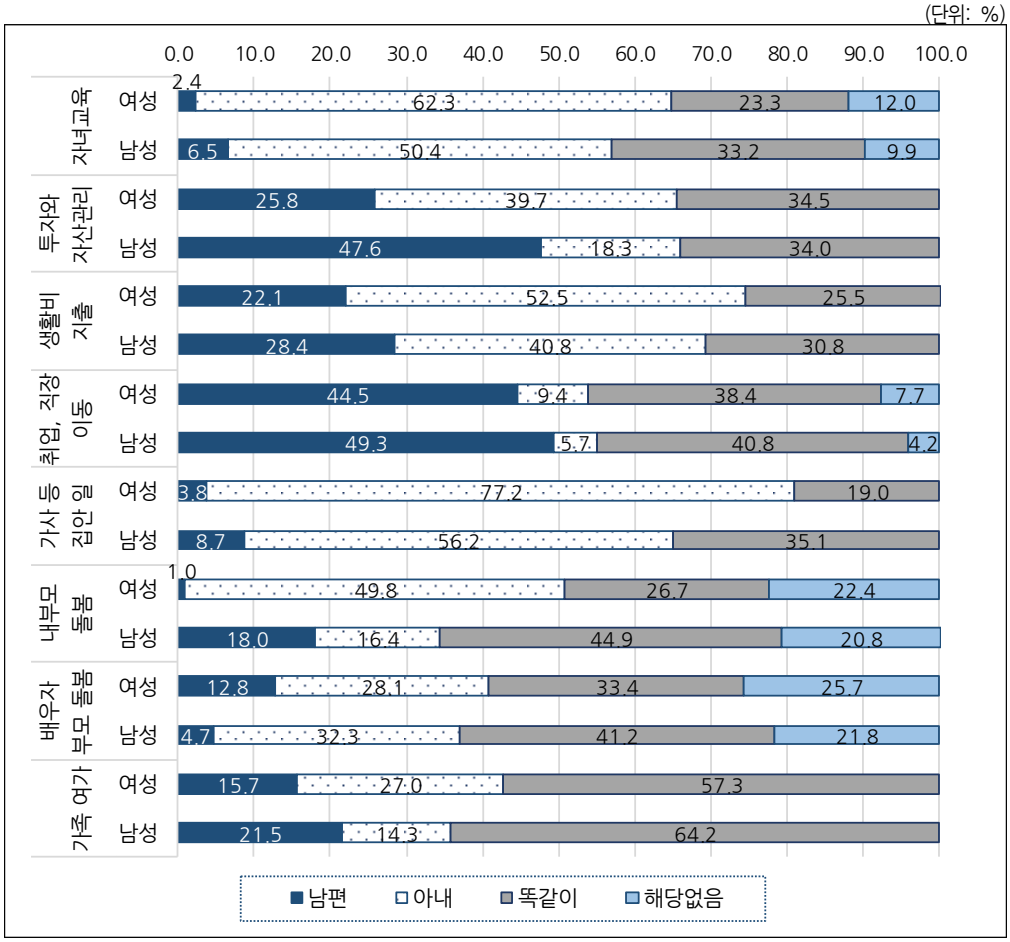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부부간 의사결정에서 부부가 가장 공평하게 똑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는 가족 여가로 여성과 남성 응답자 모두에서 과반 이상이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이 주되게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는 가사 등 집안일이었고 자녀교육, 생활비 지출에 있어서도 여성의 의사결정 비율이 높았다. 취업 및 직장이동, 투자와 자산관리는 여성과 남성의 응답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 남편이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높았다.

[그림 3-20] 부부간 의사결정

(단위: %)



자신의 부모 돌봄에 있어서 남성들은 똑같이라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서 높았고, 여성이 자신의 부모를 돌보는데 남편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은 미미한 점(1.0%),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는 데 있어서 남성 자신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 역시 낮은 점(4.7%), 배우자 돌봄에

있어서는 여성의 의사결정(27.0%)이 뚜렷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돌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겠다.

부부간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사, 가계 및 돌봄 등과 관련한 역할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남성들은 취업이나 직장이동, 투자와 자산관리 등을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전히 성역할이 공고히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 부부간 역할 분담 및 분담의 공평성

부부간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시장보기,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노동' ([표 3-51])은 아내가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았으며(63.9%),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은 31.1%, 남편이 한다는 응답은 5.0%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더 높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또는 남편이 한다는 응답이 낮았다.

여성은 모든 연령에서 과반 이상이 아내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고, 특히 40대를 기점으로 아내가 한다는 응답은 급증하고,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은 감소하였다. 그러나 60대가 되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증가하여, 노년기를 준비하면서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도 여성과 유사한 응답의 경향성을 나타내고 있었다.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인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가사노동을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남편 외벌이의 경우는 아내가 가사노동을 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맞벌이인 경우에도 여전히 아내가 가사노동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여성은 66.7%, 남성은 42.8%로 여성이 가사노동에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 양육과 교육' ([표 3-52]) 역시 여성의 역할이 높은 분야로, 아내가 해당 역할을 주로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5.2%, 여성의 64.0%, 남성의 46.2%였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역할은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40대(여성 72.8%, 남성 53.0%)와 50대(여성 69.8%, 남성 50.8%)에서 아내의 역할이 높았는데 이 시기는 자녀의 교육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맞벌이인 경우가 외벌이인 경우보다 부부가 똑같이 역할을 한다는 응답이 약간 높았으나, 여전히 아내의 역할이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3-51] 부부간 역할 수행: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남편	아내	부부가 똑같이	계
전체			1,157	5.0	63.9	31.1	100.0
성별		여성	584	1.7	74.8	23.5	100.0
		남성	573	8.4	52.7	38.9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3	5.3	58.4	36.3	100.0
		만40~49세	179	1.1	79.3	19.6	100.0
		만50~59세	191	-	83.2	16.8	100.0
		만60~64세	100	1.0	70.0	29.0	100.0
	남성	만19~39세	92	14.1	37.0	48.9	100.0
		만40~49세	185	7.6	56.8	35.7	100.0
		만50~59세	192	8.3	56.8	34.9	100.0
		만60~64세	103	3.9	53.4	42.7	100.0
지역	여성	도시	347	1.4	75.0	23.6	100.0
		도농복합·농촌	237	2.1	74.7	23.2	100.0
	남성	도시	315	8.6	54.6	36.8	100.0
		도농복합·농촌	258	8.1	50.4	41.5	100.0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8	2.8	66.7	30.5	100.0
		남편 외벌이	228	-	89.5	10.5	100.0
		기타	39	2.6	56.4	41.0	100.0
	남성	맞벌이	297	12.1	42.8	45.1	100.0
		남편 외벌이	254	2.8	66.5	30.7	100.0
		기타	22	22.7	27.3	50.0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52] 부부간 역할 수행: 자녀 양육과 교육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남편	아내	부부가 똑같이	해당없음	계
전체			1,157	2.7	55.2	31.2	11.0	100.0
성별		여성	584	0.9	64.0	23.1	12.0	100.0
		남성	574	4.5	46.2	39.4	9.9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4	0.9	43.0	14.9	41.2	100.0
		만40~49세	180	0.6	72.8	20.0	6.7	100.0
		만50~59세	192	0.5	69.8	24.0	5.7	100.0
		만60~64세	100	2.0	61.0	36.0	1.0	100.0
	남성	만19~39세	91	2.2	33.0	39.6	25.3	100.0
		만40~49세	185	7.0	53.0	33.0	7.0	100.0
		만50~59세	193	4.1	50.8	38.3	6.7	100.0
		만60~64세	103	2.9	36.9	53.4	6.8	100.0
지역	여성	도시	348	0.6	63.2	24.4	11.8	100.0
		도농복합·농촌	236	1.3	65.3	21.2	12.3	100.0
	남성	도시	315	3.8	49.8	34.9	11.4	100.0
		도농복합·농촌	258	5.4	41.9	44.6	8.1	100.0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7	0.6	59.9	23.0	16.4	100.0
		남편 외벌이	228	0.4	73.7	19.7	6.1	100.0
		기타	38	2.6	42.1	44.7	10.5	100.0
	남성	맞벌이	298	6.0	38.3	43.3	12.4	100.0
		남편 외벌이	254	2.0	56.3	34.3	7.5	100.0
		기타	22	13.6	36.4	45.5	4.5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표 3-53])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인 53.7%였다. 여성은 과반에 약간 못 미치는 49.7%, 남성은 과반이 넘는 57.8%였다. 여성과 남성 모두 본인의 부모나 친척과의 교제는 배우자가 아닌 본인이 챙기는 경우가 더 높았으나(여성 41.4%, 남성 26.5%) 남성의 경우는 아내가 챙긴다는 응답도 11.7%였다.

연령별로 여성과 남성 모두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에 대한 역할을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30대 이하에서 가장 높았고, 60대가 뒤를 이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여성은 맞벌이와 남편 외벌이 간 응답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의 경우 맞벌이인 경우 부부가 똑같이 챙긴다는 응답이 남편 외벌이에 비해 높았고 남편 외벌이는 맞벌이에 비해 남편 또는 아내가 챙긴다는 응답 또한 약간 높았다.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표 3-54])는 남녀 모두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챙긴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여성 547%, 남성 58.0%)이었다. 여성들은 아내가 배우자인 남편의 부모를 챙긴다는 응답이 22.7%로 남편이 스스로 자신의 부모를 챙기는 비율(16.1%)에 비해 높았으며, 남성들은 배우자인 아내의 부모를 자신이 챙긴다는 응답은 10.5%로 아내가 자신의 부모를 챙기는 28.0%에 비해 낮았다.

연령별로는 역시 남녀 모두 30대 이하에서 부부가 똑같이 챙긴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여성 64.0%, 남성 69.6%), 40~50대에서 여성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맞벌이 여부별로는 맞벌이 여성은 남편 외벌이 여성에 비해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은 낮고 남편 또는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약간 높았다. 맞벌이 남성은 남편 외벌이 남성에 비해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가계관리(각종 요금 납부, 생활비 관리, 저축 등)’ ([표 3-55])는 전체의 절반가량인 49.8%가 아내가 한다고 응답하였고 남편과 똑같이는 27.7%, 남편이 한다는 응답은 22.5%였다. 여성의 경우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61.6%로 높았고, 남성은 남편이 한다는 응답이 32.5%로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 이하는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여성 34.5%, 남성 39.1%로 다른 연령에 비해 높았으며, 아내가 한다는 응답은 여성 48.7%, 남성 31.5%였다. 30대 이하와 40대 남성의 경우 가계관리를 남편이 한다는 응답이 아내가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맞벌인 경우가 부부가 똑같이 가계관리를 한다는 응답이 높았고, 남편 외벌이의 경우 여성은 아내 또는 남편이 한다는 응답이, 남성은 아내가 한다는 응답이 맞벌이에 비해 높았다.

[표 3-53] 부부간 역할 수행: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남편	아내	부부가 똑같이	해당없음	계
전체			1,157	15.2	26.7	53.7	4.4	100.0
성별		여성	584	4.1	41.4	49.7	4.8	100.0
		남성	574	26.5	11.7	57.8	4.0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4	2.6	37.7	57.0	2.6	100.0
		만40~49세	179	2.8	43.6	48.6	5.0	100.0
		만50~59세	192	6.3	45.3	44.8	3.6	100.0
		만60~64세	100	5.0	34.0	52.0	9.0	100.0
	남성	만19~39세	92	19.6	12.0	68.5	-	100.0
		만40~49세	185	24.9	14.6	56.2	4.3	100.0
		만50~59세	192	31.8	10.9	52.6	4.7	100.0
		만60~64세	103	26.2	6.8	61.2	5.8	100.0
지역	여성	도시	346	3.5	41.3	50.9	4.3	100.0
		도농복합·농촌	238	5.0	41.6	47.9	5.5	100.0
	남성	도시	314	29.3	9.9	57.0	3.8	100.0
		도농복합·농촌	258	23.3	14.0	58.9	3.9	100.0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8	3.5	41.2	50.9	4.4	100.0
		남편 외벌이	228	4.4	42.5	48.7	4.4	100.0
		기타	39	7.7	38.5	43.6	10.3	100.0
	남성	맞벌이	298	23.2	10.1	64.4	2.3	100.0
		남편 외벌이	254	29.5	13.8	51.6	5.1	100.0
		기타	22	36.4	9.1	40.9	13.6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54] 부부간 역할 수행: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남편	아내	부부가 똑같이	해당없음	계
전체			1,157	13.3	25.3	56.4	5.0	100.0
성별		여성	585	16.1	22.7	54.7	6.5	100.0
		남성	572	10.5	28.0	58.0	3.5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4	16.7	17.5	64.0	1.8	100.0
		만40~49세	179	14.5	22.9	54.7	7.8	100.0
		만50~59세	192	16.7	27.6	50.0	5.7	100.0
		만60~64세	100	16.0	20.0	53.0	11.0	100.0
	남성	만19~39세	92	14.1	16.3	69.6	-	100.0
		만40~49세	185	8.1	30.3	57.8	3.8	100.0
		만50~59세	192	10.9	32.3	52.1	4.7	100.0
		만60~64세	104	10.6	26.0	59.6	3.8	100.0
지역	여성	도시	348	16.7	21.0	55.5	6.9	100.0
		도농복합·농촌	237	15.2	25.3	53.6	5.9	100.0
	남성	도시	314	10.8	28.7	56.7	3.8	100.0
		도농복합·농촌	258	10.1	27.1	59.7	3.1	100.0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7	17.7	23.3	53.6	5.4	100.0
		남편 외벌이	228	14.5	21.1	58.3	6.1	100.0
		기타	40	12.5	25.0	45.0	17.5	100.0
	남성	맞벌이	297	9.8	23.9	64.0	2.4	100.0
		남편 외벌이	252	10.3	32.9	52.0	4.8	100.0
		기타	22	22.7	22.7	50.0	4.5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55] 부부간 역할 수행: 가계관리(각종 요금 납부, 생활비 관리, 저축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남편	아내	부부가 똑같이	계
전체			1,157	22.5	49.8	27.7	100.0
성별		여성	584	12.7	61.6	25.7	100.0
		남성	573	32.5	37.7	29.8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3	16.8	48.7	34.5	100.0
		만40~49세	179	14.0	62.0	24.0	100.0
		만50~59세	191	8.9	67.5	23.6	100.0
		만60~64세	100	13.0	64.0	23.0	100.0
	남성	만19~39세	92	29.3	31.5	39.1	100.0
		만40~49세	186	36.0	33.9	30.1	100.0
		만50~59세	194	33.5	43.8	22.7	100.0
		만60~64세	103	26.2	38.8	35.0	100.0
지역	여성	도시	347	13.3	64.3	22.5	100.0
		도농복합·농촌	237	11.8	57.8	30.4	100.0
	남성	도시	314	31.5	38.9	29.6	100.0
		도농복합·농촌	259	33.6	36.3	30.1	100.0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7	11.4	60.9	27.8	100.0
		남편 외벌이	228	13.6	63.2	23.2	100.0
		기타	39	17.9	59.0	23.1	100.0
	남성	맞벌이	297	32.7	33.7	33.7	100.0
		남편 외벌이	253	32.4	42.3	25.3	100.0
		기타	22	31.8	40.9	27.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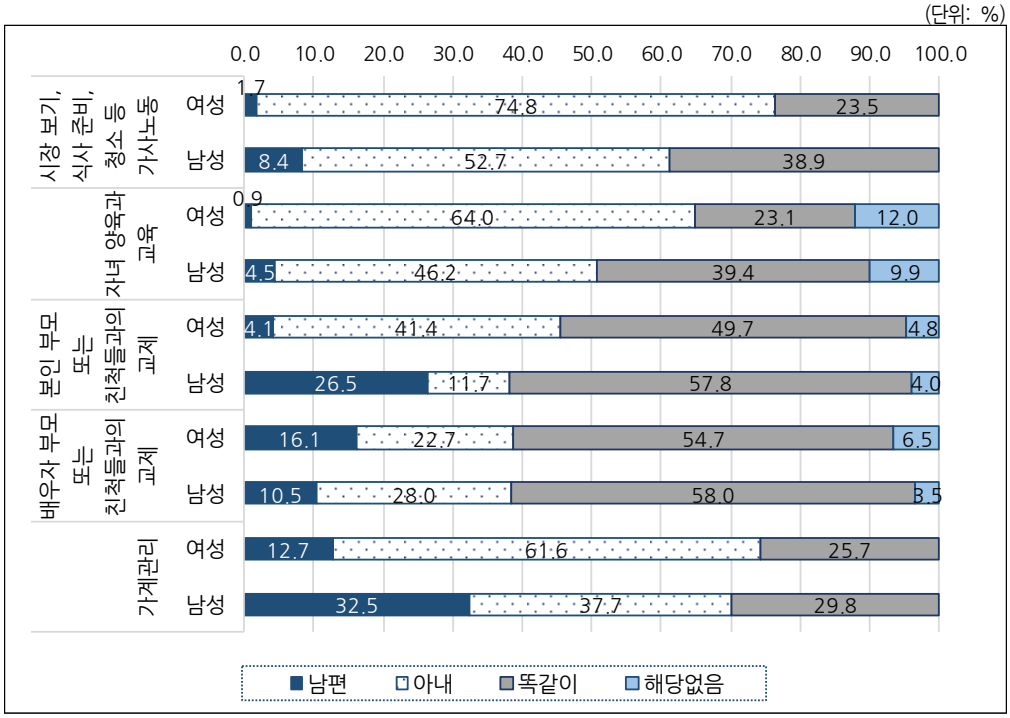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부부간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역할수행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이나 자녀 양육과 교육은 여성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모든 역할에 있어서 부부가 똑같이 또는 남성이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나 친척들과의 교제는 함께 한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이 또한 여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가계관리 역할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아내가 더 역할을 한다고 보았고, 남성은 남편이 해당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성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

[그림 3-21] 부부간 역할수행

(단위: %)



부부간 역할수행의 공평성과 관련하여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표 3-56])은 전체적으로는 공평하다는 의견이 불공평하다는 의견에 비해 약간 높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는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남성의 경우는 공평하다는 의견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에서 30대 이하는 공평하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높았고, 40대 이상 여성은 공평하다는 응답보다 불공평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특히 50대 여성이 불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56.6%), 매우 불공평하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40대가 22.2%로 가장 높았다. 남성들은 불공평하다는 응답이 60대에서 가장 높았으나 여성에 비하면 연령별로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여성들은 부부의 경제활동 상태와 상관없이 불공평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맞벌이인 경우보다 남편 외벌이인 경우 가사노동 수행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다(여성 58.4%, 남성 46.1%).

'자녀 양육 및 교육'([표 3-57])은 전체적으로는 공평하다는 의견이 불공평하다는 의견보다는 약간 높았으나, 여성은 불공평하다는 응답이, 남성은 공평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50대(55.7%)와 40대(55.5%)에서 불공평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고, 남성은 40대에서 불공평(43.8%)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여성은 30대 이하와 60대에서는 공평하다는 의견이 더 많았고, 남성은 모든 연령에서 공평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맞벌이인 경우보다 외벌이인 경우에 불공평하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표 3-58])에서는 공평하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았으나(67.0%) 여성(61.7%)에 비해 남성(72.3%)에게서 공평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3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성과 남성 모두 역할수행이 공평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여성 79.6%, 남성 76.8%). 그러나 40대 이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공평하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남편 외벌이인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에 있어서 불공평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표 3-59]) 역시 역할수행이 공평하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았고(65.9%) 여성(59.3%)에 비해 남성(72.7%)에게서 공평하다는 응답이 더 높았다. 연령이나 맞벌이 여부 등에 있어서도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표 3-56]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불공평	약간불공평	약간 공평	매우 공평	계
전체			1,157	11.4	36.8	36.2	15.6	100.0
성별		여성	584	18.5	37.0	29.5	15.1	100.0
		남성	573	4.2	36.6	43.0	16.2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4	7.9	28.1	37.7	26.3	100.0
		만40~49세	180	22.2	34.4	31.7	11.7	100.0
		만50~59세	191	20.9	44.5	23.0	11.5	100.0
		만60~64세	99	19.2	38.4	28.3	14.1	100.0
	남성	만19~39세	92	6.5	21.7	53.3	18.5	100.0
		만40~49세	186	3.2	38.7	43.5	14.5	100.0
		만50~59세	193	4.7	38.9	40.4	16.1	100.0
		만60~64세	103	2.9	41.7	37.9	17.5	100.0
지역	여성	도시	347	18.7	38.3	28.8	14.1	100.0
		도농복합·농촌	237	18.1	35.0	30.8	16.0	100.0
	남성	도시	314	5.1	40.4	37.3	17.2	100.0
		도농복합·농촌	259	3.1	32.0	50.2	14.7	100.0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7	16.4	38.5	30.0	15.1	100.0
		남편 외벌이	228	21.1	37.3	28.5	13.2	100.0
		기타	40	20.0	25.0	32.5	22.5	100.0
	남성	맞벌이	297	1.3	35.4	44.8	18.5	100.0
		남편 외벌이	254	7.9	38.2	41.3	12.6	100.0
		기타	22	-	36.4	40.9	22.7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57]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자녀 양육과 교육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불공평	약간불공평	약간 공평	매우 공평	해당없음	계
전체			1,157	8.0	32.8	35.9	12.4	11.0	100.0
성별		여성	584	13.5	34.6	28.8	11.1	12.0	100.0
		남성	573	2.4	30.9	43.1	13.6	9.9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3	6.2	21.2	16.8	14.2	41.6	100.0
		만40~49세	180	17.2	38.3	28.3	9.4	6.7	100.0
		만50~59세	192	17.2	38.5	28.6	9.9	5.7	100.0
		만60~64세	100	9.0	34.0	44.0	12.0	1.0	100.0
	남성	만19~39세	91	1.1	19.8	40.7	13.2	25.3	100.0
		만40~49세	185	3.8	40.0	36.8	12.4	7.0	100.0
		만50~59세	192	2.6	29.7	49.5	11.5	6.8	100.0
		만60~64세	104	1.0	26.9	45.2	20.2	6.7	100.0
지역	여성	도시	347	11.8	35.4	29.7	11.2	11.8	100.0
		도농복합·농촌	238	16.0	33.2	27.3	11.3	12.2	100.0
	남성	도시	315	2.9	32.7	41.0	12.1	11.4	100.0
		도농복합·농촌	259	1.9	28.6	45.9	15.4	8.1	100.0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7	13.6	34.1	25.6	10.4	16.4	100.0
		남편 외벌이	228	14.0	36.0	31.6	12.3	6.1	100.0
		기타	40	12.5	30.0	35.0	12.5	10.0	100.0
	남성	맞벌이	299	2.0	26.8	44.5	14.4	12.4	100.0
		남편 외벌이	253	3.2	36.8	41.5	11.1	7.5	100.0
		기타	22	-	22.7	45.5	27.3	4.5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58]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불공평	약간불공평	약간 공평	매우 공평	해당없음	계
전체			1,157	6.5	20.2	43.0	24.0	6.3	100.0
성별		여성	583	9.8	20.9	42.0	19.7	7.5	100.0
		남성	573	3.1	19.5	44.0	28.3	5.1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3	2.7	11.5	44.2	36.3	5.3	100.0
		만40~49세	179	10.1	23.5	38.0	19.6	8.9	100.0
		만50~59세	192	11.5	24.0	46.9	10.9	6.8	100.0
		만60~64세	99	14.1	21.2	36.4	19.2	9.1	100.0
	남성	만19~39세	93	2.2	14.0	40.9	37.6	5.4	100.0
		만40~49세	185	4.9	23.2	43.2	23.8	4.9	100.0
		만50~59세	192	3.1	20.8	42.7	29.2	4.2	100.0
		만60~64세	103	1.0	16.5	50.5	25.2	6.8	100.0
지역	여성	도시	347	8.9	22.5	41.2	19.9	7.5	100.0
		도농복합·농촌	237	11.0	19.0	43.0	19.4	7.6	100.0
	남성	도시	314	2.9	20.1	43.3	28.3	5.4	100.0
		도농복합·농촌	258	3.5	19.0	44.6	28.3	4.7	100.0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8	10.1	18.9	43.7	21.4	6.0	100.0
		남편 외벌이	229	7.9	25.3	39.7	17.9	9.2	100.0
		기타	40	20.0	12.5	40.0	17.5	10.0	100.0
	남성	맞벌이	298	1.7	17.4	44.6	32.6	3.7	100.0
		남편 외벌이	253	4.0	23.3	43.9	22.9	5.9	100.0
		기타	23	13.0	8.7	34.8	30.4	13.0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59]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매우불공평	약간불공평	약간 공평	매우 공평	해당없음	계
전체			1,157	5.5	21.5	41.8	24.1	7.0	100.0
성별		여성	584	8.6	23.3	39.4	19.9	8.9	100.0
		남성	573	2.4	19.7	44.3	28.4	5.1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3	5.3	11.5	42.5	33.6	7.1	100.0
		만40~49세	179	8.4	27.4	35.8	20.1	8.4	100.0
		만50~59세	191	9.4	27.7	42.4	10.5	9.9	100.0
		만60~64세	100	11.0	21.0	37.0	21.0	10.0	100.0
	남성	만19~39세	91	1.1	13.2	39.6	40.7	5.5	100.0
		만40~49세	185	2.7	23.8	42.7	25.9	4.9	100.0
		만50~59세	193	2.6	22.3	43.5	27.5	4.1	100.0
		만60~64세	103	2.9	13.6	53.4	24.3	5.8	100.0
지역	여성	도시	346	8.7	23.1	39.3	19.9	9.0	100.0
		도농복합·농촌	237	8.0	23.6	39.7	19.8	8.9	100.0
	남성	도시	315	2.9	21.6	42.5	27.9	5.1	100.0
		도농복합·농촌	258	1.9	17.8	46.5	29.1	4.7	100.0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7	8.8	22.4	40.4	21.1	7.3	100.0
		남편 외벌이	228	7.5	25.9	39.0	17.5	10.1	100.0
		기타	41	12.2	17.1	31.7	24.4	14.6	100.0
	남성	맞벌이	297	1.3	19.2	42.1	34.0	3.4	100.0
		남편 외벌이	253	3.6	21.3	47.4	21.3	6.3	100.0
		기타	22	4.5	9.1	36.4	36.4	13.6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가계관리’ ([표 3-60]) 역할 수행에 있어서의 공평성은 공평하다는 응답이 66.4%로 불공평하다는 응답(33.6%)보다 높았고, 여성(36.2%)이 남성(31.1%)에 비해 불공평함을 더 느끼고 있었다. 연령별로는 남녀 모두 30대 이하에서 공평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여성78.7%, 남성 73.6%) 맞벌이 여부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맞벌이인 경우가 남편 외벌이인 경우보다 가계관리 역할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다.

[표 3-60]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가계관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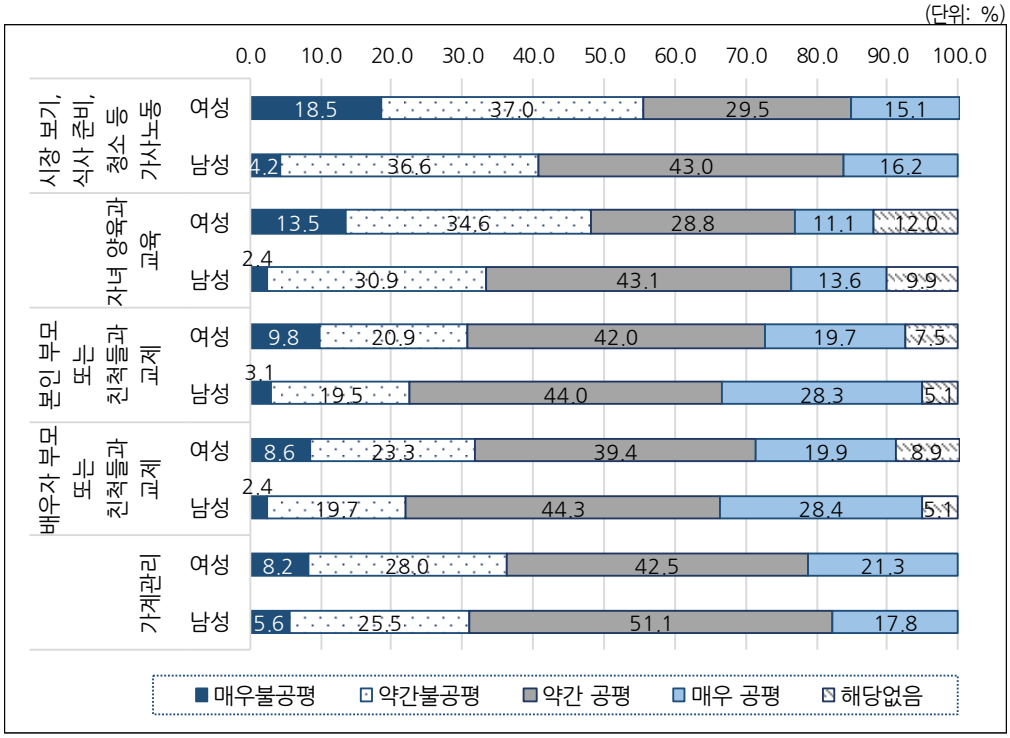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매우불공평	약간불공평	약간 공평	매우 공평	계
전체			1,157	6.9	26.7	46.8	19.6	100.0
성별		여성	583	8.2	28.0	42.5	21.3	100.0
		남성	573	5.6	25.5	51.1	17.8	100.0
연령	여성	만19~39세	113	2.7	18.6	44.2	34.5	100.0
		만40~49세	179	9.5	28.5	40.8	21.2	100.0
		만50~59세	192	8.9	34.9	41.1	15.1	100.0
		만60~64세	99	11.1	24.2	46.5	18.2	100.0
	남성	만19~39세	91	8.8	17.6	51.6	22.0	100.0
		만40~49세	186	3.8	31.7	48.4	16.1	100.0
		만50~59세	193	6.7	22.3	56.5	14.5	100.0
		만60~64세	103	2.9	27.2	46.6	23.3	100.0
지역	여성	도시	348	7.5	29.9	43.4	19.3	100.0
		도농복합·농촌	237	9.3	25.3	40.9	24.5	100.0
	남성	도시	314	4.8	25.5	53.2	16.6	100.0
		도농복합·농촌	259	6.2	25.5	49.0	19.3	100.0
맞벌이 여부	여성	맞벌이	318	9.1	26.7	42.5	21.7	100.0
		남편 외벌이	227	6.2	30.8	40.5	22.5	100.0
		기타	40	12.5	20.0	55.0	12.5	100.0
	남성	맞벌이	298	4.4	22.8	53.0	19.8	100.0
		남편 외벌이	253	6.7	27.7	52.2	13.4	100.0
		기타	23	4.3	34.8	17.4	43.5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부부간 역할 수행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에서 불공평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는 가사노동, 자녀양육 및 교육 관련이었다. 특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불공평함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남성들은 여성과 달리 가사노동,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불공평보다는 공평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역할수행의 공평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 실천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다른 정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22] 부부간 역할 수행 공평성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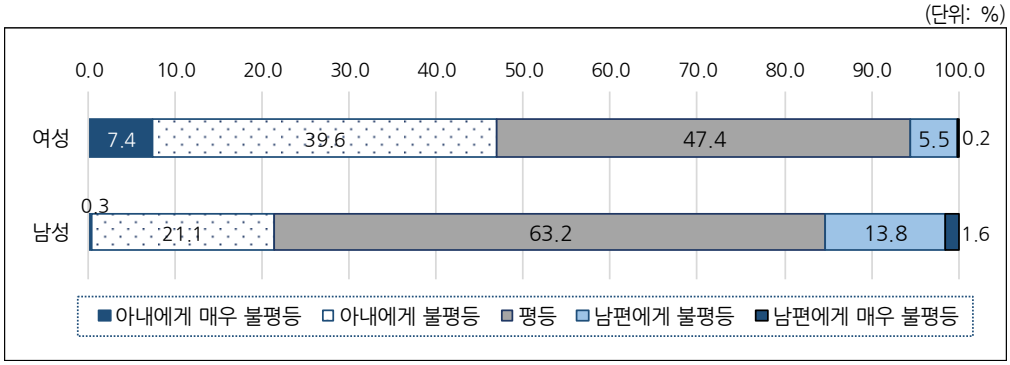
다) 부부간 관계 평등에 대한 인식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 수준에 대해 질문하였으며 응답은 앞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문항과 마찬가지로 ㉠ 아내에게 매우 불평등 ~ ⓪ 평등 ④ 남편에게 매우 불평등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평균값은 -4~4점 사이에 분포하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아내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편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부간 관계의 평등에 대한 인식은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평등하다는 응답이 47.4%였던데 반해 남성은 63.2%였고, 아내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여성은 46.9%, 남성은 21.5%였으며, 남편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여성은 5.7%, 남성은 15.4%였다. 평균은 전체 -0.37점, 여성은 -0.70점, 남성은 -0.03점으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전체 -0.87점, 여성 -1.55점, 남성 -0.22점) 보다는 높았다.

[그림 3-23]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평등 수준

(단위: %)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평등하다는 응답이 감소하고 아내에게 매우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남성이 가사노동 등 가족생활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60대보다는 50대에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의 성평등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평균 -0.82점)

남성 역시 연령의 증가에 따라 배우자와의 관계가 보다 아내에게 불평등한 경향성이 나타나는데, 역시 60대 보다는 50대가 아내에게 관계가 더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대체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0에 가까운 평균을 나타내어 대체로 부부관계의 평등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고, 30대 이하 남성은 오히려 부부관계가 남성에게 약간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남녀 모두 도시지역 거주자보다는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가 배우자와의 관계 평등 수준을 약간 낮게 인지하고 있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 맞벌이인 경우가 남편 외벌이인 경우보다 배우자 관계를 더 평등하게 인식하였다.

[표 3-61]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평등 수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 아내에 게매우 불평등	㉢+㉣	⓪ 평등	①+②	③+④ 남편에 게매우 불평등	㉠+㉡+㉢+㉣ 아내에 불평등	①+②+③+④ 남편에 불평등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57	3.9	30.4	55.2	9.6	0.9	34.3	10.5	100.0	-0.37(1.07)
성별		여성	584	7.4	39.6	47.4	5.5	0.2	46.9	5.7	100.0	-0.70(1.16)
		남성	573	0.3	21.1	63.2	13.8	1.6	21.5	15.4	100.0	-0.03(.85)
연령	여성	만19~39세	113	3.5	28.3	62.8	5.3	-	31.9	5.3	100.0	-0.45(.98)
		만40~49세	179	3.9	45.8	46.9	3.4	-	49.7	3.4	100.0	-0.72(.98)
		만50~59세	191	11.5	40.3	40.8	6.8	0.5	51.8	7.3	100.0	-0.82(1.36)
		만60~64세	100	10.0	40.0	44.0	6.0	-	50.0	6.0	100.0	-0.74(1.20)
	남성	만19~39세	91	-	7.7	74.7	13.2	4.4	7.7	17.6	100.0	0.20(.10)
		만40~49세	185	0.5	22.7	58.9	17.8	-	23.2	17.8	100.0	-0.06(.85)
		만50~59세	193	0.5	26.0	58.9	12.5	2.1	26.5	14.6	100.0	-0.09(.83)
		만60~64세	103	-	20.4	68.9	9.7	1.0	20.4	10.7	100.0	-0.08(.79)
지역	여성	도시	348	5.7	40.8	47.4	6.0	-	46.5	6.0	100.0	-0.67(1.09)
		도농복합·농촌	237	10.1	37.6	47.3	4.6	0.4	47.7	5.0	100.0	-0.76(1.26)
	남성	도시	314	-	19.4	65.9	13.1	1.6	19.4	14.7	100.0	0.00(.77)
		도농복합·농촌	258	0.8	23.3	60.1	14.7	1.2	24.1	15.9	100.0	-0.07(.95)
맞벌이여부	여성	맞벌이	317	6.6	37.9	48.3	7.3	-	44.5	7.3	100.0	-.67(1.19)
		남편 외벌이	227	7.9	41.0	47.1	3.5	0.4	48.9	4.0	100.0	-.72(1.13)
		기타	40	10.0	45.0	42.5	2.5	-	55.0	2.5	100.0	-.86(1.08)
	남성	맞벌이	297	0.3	17.2	66.7	13.8	2.0	17.5	15.8	100.0	.04(0.82)
		남편 외벌이	253	-	26.9	58.9	13.4	0.8	26.9	14.2	100.0	-.11(0.86)
		기타	22	4.5	9.1	68.2	18.2	-	13.6	18.2	100.0	-.11(1.14)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아내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편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라. 경제활동

1) 취업자 특성

전체 응답자 2,016명 중에서 취업자는 1,583명으로 78.5%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응답자 1,034명 중에서 취업자가 896명으로 86.7%를 차지했다. 반면, 여성의 경우 응답자 982명 중에서 취업자가 686명으로 69.9%를 차지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취업자 중 여성 비율은 43.4%로 나타났다.

취업자가 현재 일하는 사업체의 종사자(대표자 포함)는 300명 이상이 22.4%로 가장 많았다. 한편, 노동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율도 15.8%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특히, 여성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 비율이 21.0%로 남성(11.8%)에 두 배 가까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가 86.4%, 비임금근로자가 13.6%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73.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임시근로자(9.8%), 일용근로자(3.5%) 순으로 나타났다.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9.9%),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2.6%), 무급가족종사자(1.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65.7%로 남성(78.7%)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반면 임시근로자(14.0%),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12.5%)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근로형태를 살펴보면 취업자의 85.1%는 전일제, 14.9%는 시간제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전일제는 76.3%에 불과한 반면, 시간제가 23.7%로 남성에 비해 현저하게 많았다.

다음으로 취업자의 임금도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200만원대가 3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300만원대(18.4%), 100만원대(16.3%) 순으로 나타났다. 100만원 미만도 12.7%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남성의 경우 300만원대가 22.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600만원 이상도 19.4%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100만원 미만은 4.8%에 불과했다.

마지막으로 현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성별 비율을 살펴보았다. 여성의 경우 '여성이 많은 편'이 30.5%로 높은 편이었고, '여성이 매우 많은 편'도 12.9%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 '남성이 많은 편'이 3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남성이 매우 많은 편'(29.5%)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이 대체로 반반이라는 응답은 23.7%에 불과했다.

[표 3-62] 취업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가중치 적용 후[1)]		
		전체	여성	남성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사례수(비율)
전체		1,583 (100.0)	686 (100.0)	896 (100.0)
성별	여성	686 (43.4)	686 (100.0)	-
	남성	896 (56.6)	-	896 (100.0)
종사자 수	1~4명	250 (15.8)	144 (21.0)	106 (11.8)
	5~9명	206 (13.0)	121 (17.7)	85 (9.5)
	10~29명	269 (17.0)	104 (15.2)	165 (18.4)
	30~99명	298 (18.8)	140 (20.4)	158 (17.6)
	100~299명	205 (13.0)	64 (9.3)	141 (15.7)
	300명 이상	353 (22.4)	112 (16.4)	241 (26.9)
종사상 지위	상용근로자	1,156 (73.1)	451 (65.7)	705 (78.7)
	임시근로자	155 (9.8)	96 (14.0)	59 (6.6)
	일용근로자	55 (3.5)	27 (3.9)	28 (3.1)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포함)	157 (9.9)	86 (12.5)	71 (7.9)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2 (2.6)	10 (1.5)	31 (3.5)
	무급가족종사자	18 (1.1)	16 (2.3)	2 (0.2)
근로시간 형태	전일제	1,163 (85.1)	438 (76.3)	725 (91.5)
	시간제	203 (14.9)	136 (23.7)	67 (8.5)
월평균 근로소득	100만원 미만	131 (8.2)	87 (12.7)	43 (4.8)
	100~199만원	153 (9.6)	112 (16.3)	40 (4.5)
	200~299만원	368 (23.3)	220 (32.1)	148 (16.5)
	300~399만원	326 (20.6)	126 (18.4)	200 (22.3)
	400~499만원	220 (13.9)	52 (7.6)	168 (18.8)
	500~599만원	156 (9.9)	35 (5.1)	122 (13.6)
	600~699만원	127 (8.0)	19 (2.8)	107 (11.9)
	700~799만원	39 (2.5)	8 (1.2)	31 (3.5)
	800만원 이상	51 (3.2)	15 (2.2)	36 (4.0)
	소득 없음(무급가족종사자 등)	13 (0.8)	12 (1.7)	1 (0.1)
직장의 근로자 성별 비율	남성이 매우 많은 편	310 (22.7)	75 (13.1)	234 (29.5)
	남성이 많은 편	392 (28.7)	97 (16.9)	294 (37.1)
	남성과 여성이 대체로 반반	324 (23.7)	152 (26.5)	172 (21.7)
	여성이 많은 편	248 (18.2)	175 (30.5)	73 (9.2)
	여성이 매우 많은 편	93 (6.8)	74 (12.9)	19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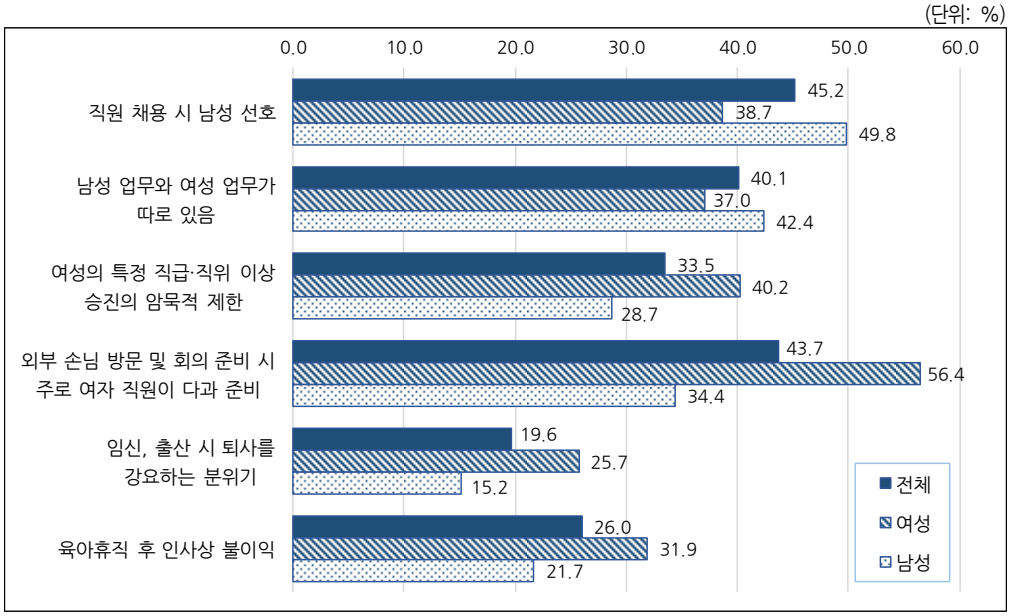
주: 지역별, 성별 연령별 모집단 비율 반영 가중치 적용

2) 직장 내 조직문화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일하는 직장(사업체)의 조직문화를 파악하였다. 현재 다니는 직장을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주로 여자 직원이 음료나 다과를 준비한다',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인다'의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림 3-24] 성차별적 인사관행

(단위: %)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의 합계임.

현 사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는 응답은 남성이 49.8%로 여성(38.7%)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30대(47.8%)와 20대(43.5%)가 상대적으로 현 직장이 남성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현 직장

이 남성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성별 업종 분리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즉, 40대 이상의 여성이 현실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는 '여성다수업종'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남성의 경우 60대(58.9%)와 30대(53.1%), 40대(52.0%)가 상대적으로 현 직장이 채용 시 남성을 더 선호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도시지역 취업자(35.5%)보다 도농복합(농촌)지역 취업자(43.5%)가 현 직장이 남성을 더 선호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 남성 응답자의 지역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무엇보다 현 직장의 근로자 성별 비율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남성이 많은 사업체일수록 현재 직장이 남성을 더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48.2%가 현 직장이 채용 시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경우 37.6%만이 현 직장이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변하였다.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표 3-64])에 대해서는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응답자의 40.1%가 현재 사업체에 성별에 따른 업무 분리가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남성(42.4%)이 여성(37.0%) 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60대(여성 46.1%, 남성 51.2%)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성별 업무 분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성별, 연령별로 볼 때, 성별 업무 분리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은 집단은 20대 여성으로 33.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도시지역 취업자(35.6%)보다 도농복합(농촌)지역 취업자(39.1%)가 현 직장에 성별 업무 분리가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도시지역 취업자(45.3%)가 도농복합(농촌)지역 취업자(38.5%) 보다 높았다.

성별 업무 분리에 대한 응답 또한 현 직장의 근로자 성별 비율에 따라 인식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남성이 많은 사업체일수록 현재 직장에 성별 업무 분리가 존재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5~30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응답자(50.5%)가 성별 업무 분리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반면, 100인 이상의 경우 32.3%만이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응답자의 33.5%가 현재 사업체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직위) 이상 승진하는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표 3-65])고 답변하였다. 즉,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40.2%로 남성(28.7%)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표 3-63] 성차별적 인사관행: 직원 채용 시 남성 선호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않음	③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66	12.8	42.1	36.6	8.5	54.8	45.2	100.0	2.41(.82)
성별		여성	574	15.4	45.8	31.4	7.3	61.3	38.7	100.0	2.31(.82)
		남성	793	10.9	39.3	40.4	9.4	50.2	49.8	100.0	2.48(.81)
연령	여성	만19~29세	113	17.9	38.7	37.8	5.6	56.5	43.5	100.0	2.31(.83)
		만30~39세	145	9.4	42.8	36.6	11.2	52.2	47.8	100.0	2.50(.82)
		만40~49세	139	15.1	48.4	29.3	7.2	63.5	36.5	100.0	2.29(.81)
		만50~59세	128	17.2	52.7	25.8	4.4	69.9	30.1	100.0	2.17(.76)
		만60~64세	48	24.1	46.4	21.3	8.2	70.4	29.6	100.0	2.14(.88)
	남성	만19~29세	147	22.3	33.3	35.7	8.7	55.6	44.4	100.0	2.31(.92)
		만30~39세	171	11.2	35.6	44.8	8.3	46.9	53.1	100.0	2.50(.80)
		만40~49세	214	7.6	40.4	37.5	14.6	48.0	52.0	100.0	2.59(.83)
		만50~59세	192	7.3	47.5	40.1	5.2	54.8	45.2	100.0	2.43(.71)
		만60~64세	68	5.9	35.2	49.6	9.4	41.1	58.9	100.0	2.62(.74)
지역	여성	도시	344	16.6	47.9	28.2	7.3	64.5	35.5	100.0	2.26(.82)
		도농복합·농촌	230	13.7	42.8	36.1	7.4	56.5	43.5	100.0	2.37(.81)
	남성	도시	452	10.4	38.9	41.5	9.1	49.3	50.7	100.0	2.49(.80)
		도농복합·농촌	340	11.5	39.8	38.9	9.8	51.4	48.6	100.0	2.47(.82)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10	5.1	22.1	48.4	24.4	27.2	72.8	100.0	2.92(.82)
		남성 많은 편	392	6.7	37.0	50.2	6.2	43.6	56.4	100.0	2.56(.71)
		남녀 대체로 반반	324	12.9	52.8	31.9	2.5	65.7	34.3	100.0	2.24(.70)
		여성 많은 편	248	20.0	61.4	16.9	1.7	81.4	18.6	100.0	2.00(.66)
		여성 매우 많은 편	93	44.5	41.0	9.3	5.2	85.5	14.5	100.0	1.75(.83)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9	17.4	45.0	31.4	6.2	62.4	37.6	100.0	2.26(.82)
		5~30인 미만	429	12.9	42.2	34.6	10.3	55.1	44.9	100.0	2.42(.84)
		30~100인 미만	282	14.1	43.4	35.5	6.9	57.6	42.4	100.0	2.35(.81)
		100인 이상	546	11.1	40.7	39.8	8.5	51.8	48.2	100.0	2.46(.80)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표 3-64] 성차별적 인사관행: 남성 업무와 여성 업무가 따로 있음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않음	③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66	17.3	42.6	32.8	7.3	59.9	40.1	100.0	2.30(.84)
성별		여성	574	19.3	43.7	31.9	5.1	63.0	37.0	100.0	2.23(.82)
		남성	791	15.8	41.8	33.5	8.9	57.6	42.4	100.0	2.35(.85)
연령	여성	만19~29세	114	24.6	41.6	30.5	3.4	66.2	33.8	100.0	2.13(.82)
		만30~39세	144	19.9	45.0	28.7	6.4	64.9	35.1	100.0	2.21(.84)
		만40~49세	139	20.8	41.8	32.8	4.6	62.6	37.4	100.0	2.21(.82)
		만50~59세	128	14.3	47.4	32.4	5.9	61.7	38.3	100.0	2.30(.79)
		만60~64세	47	13.4	40.6	41.1	5.0	53.9	46.1	100.0	2.38(.78)
	남성	만19~29세	146	26.1	31.5	28.8	13.6	57.6	42.4	100.0	2.30(1.01)
		만30~39세	172	15.6	39.3	39.0	6.1	54.9	45.1	100.0	2.36(.82)
		만40~49세	215	14.0	44.4	31.1	10.5	58.4	41.6	100.0	2.38(.85)
		만50~59세	193	14.4	48.0	32.1	5.5	62.4	37.6	100.0	2.29(.78)
		만60~64세	68	4.2	44.6	40.9	10.3	48.8	51.2	100.0	2.57(.74)
지역	여성	도시	343	20.6	43.8	31.6	4.1	64.4	35.6	100.0	2.19(.81)
		도농복합·농촌	229	17.3	43.7	32.4	6.7	60.9	39.1	100.0	2.29(.83)
	남성	도시	452	14.5	40.2	35.0	10.2	54.7	45.3	100.0	2.41(.86)
		도농복합·농촌	341	17.6	43.9	31.4	7.1	61.5	38.5	100.0	2.28(.84)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09	14.0	25.3	44.2	16.5	39.3	60.7	100.0	2.63(.92)
		남성 많은 편	392	9.2	46.9	37.7	6.2	56.1	43.9	100.0	2.41(.74)
		남녀 대체로 반반	324	18.5	48.6	28.7	4.2	67.1	32.9	100.0	2.18(.78)
		여성 많은 편	248	21.7	51.7	23.9	2.8	73.4	26.6	100.0	2.08(.75)
		여성 매우 많은 편	92	46.1	37.0	12.3	4.7	83.1	16.9	100.0	1.76(.85)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8	24.6	36.5	33.6	5.3	61.1	38.9	100.0	2.20(.87)
		5~30인 미만	430	15.7	33.9	40.4	10.1	49.5	50.5	100.0	2.45(.87)
		30~100인 미만	282	13.9	46.1	31.9	8.1	60.0	40.0	100.0	2.34(.82)
		100인 이상	546	18.8	48.9	27.1	5.1	67.7	32.3	100.0	2.19(.79)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표 3-65] 성차별적 인사관행: 여성의 특정 직급·직위 이상 승진의 암묵적 제한 있음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않음	③ 그러함	④ 매우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66	19.7	46.8	27.4	6.2	66.5	33.5	100.0	2.20(.82)
성별		여성	574	17.3	42.5	32.2	8.0	59.8	40.2	100.0	2.31(.85)
		남성	793	21.4	49.9	23.8	4.9	71.3	28.7	100.0	2.12(.80)
연령	여성	만19~29세	114	18.3	43.6	33.5	4.6	61.9	38.1	100.0	2.24(.81)
		만30~39세	144	17.6	36.1	30.6	15.7	53.7	46.3	100.0	2.44(.96)
		만40~49세	140	17.8	44.6	29.1	8.5	62.4	37.6	100.0	2.28(.86)
		만50~59세	129	14.7	49.0	34.8	1.4	63.7	36.3	100.0	2.23(.71)
		만60~64세	47	19.2	35.6	36.3	9.0	54.7	45.3	100.0	2.35(.90)
	남성	만19~29세	146	39.1	39.3	14.7	6.8	78.4	21.6	100.0	1.89(.90)
		만30~39세	172	24.0	49.6	22.0	4.5	73.5	26.5	100.0	2.07(.80)
		만40~49세	215	19.6	50.7	25.0	4.6	70.3	29.7	100.0	2.15(.78)
		만50~59세	193	11.9	56.0	28.1	4.1	67.9	32.1	100.0	2.24(.71)
		만60~64세	68	9.9	53.3	32.3	4.5	63.1	36.9	100.0	2.32(.72)
지역	여성	도시	344	17.0	41.1	34.6	7.2	58.1	41.9	100.0	2.32(.84)
		도농복합·농촌	230	17.7	44.5	28.6	9.1	62.2	37.8	100.0	2.29(.86)
	남성	도시	452	20.3	48.9	25.7	5.1	69.2	30.8	100.0	2.16(.80)
		도농복합·농촌	341	23.0	51.2	21.3	4.6	74.1	25.9	100.0	2.07(.79)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10	15.0	35.8	36.4	12.8	50.8	49.2	100.0	2.47(.90)
		남성 많은 편	392	10.9	52.0	31.7	5.4	62.9	37.1	100.0	2.32(.74)
		남녀 대체로 반반	324	21.0	50.0	24.9	4.1	71.0	29.0	100.0	2.12(.78)
		여성 많은 편	248	26.3	52.8	18.9	2.1	79.1	20.9	100.0	1.97(.73)
		여성 매우 많은 편	93	50.6	34.1	9.9	5.4	84.7	15.3	100.0	1.70(.86)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7	23.3	42.9	32.5	1.3	66.2	33.8	100.0	2.12(.78)
		5~30인 미만	429	20.3	47.3	26.4	6.1	67.5	32.5	100.0	2.18(.82)
		30~100인 미만	283	17.2	46.7	27.9	8.2	64.0	36.0	100.0	2.27(.84)
		100인 이상	546	19.8	47.2	26.8	6.2	67.0	33.0	100.0	2.19(.82)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 여성이 46.3%로 다른 집단에 비해 현 직장에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성 중에서는 60대가 36.9%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도시지역 취업자(41.9%)가 도농복합(농촌)지역 취업자(37.8%) 보다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남성도 마찬가지였다.

현 직장에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이 존재한다는 응답도 현 직장의 근로자 성별 비율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많은 사업체일수록 현재 직장에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이 존재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30~100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일하는 응답자(36.0%)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다.

임금근로자로 일하는 응답자의 43.7%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주로 여자 직원이 음료나 다과를 준비한다’ ([표 3-66])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성 의 경우 56.4%가 남성(34.4%)에 비해 ‘그렇다’ 는 응답이 현저히 높았다. 20대의 경우 여성 50.9%, 남성 49.1%로 성별 차이가 거의 없었지만, 30대의 경우 여성 62.0%, 남성 38.0%로 성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도 나타났다. 즉, 1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임금근로자의 경우 여자 직원이 음료나 다과를 준비한다는 응답이 36.3%로 100인 이하 사업체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현재 사업체에서 ‘임신·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표 3-67])에 대해서는 19.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25.7%로 남성(1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로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30대 여성의 경우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높았다. 현 직장의 근로자 성별 비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체보다는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그러한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즉, 5~30인 미만은 26.4%, 5인 미만은 25.8%인 반면, 100인 이상은 12.9%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 상 불이익이 있다’ ([표 3-68])에 대해서는 26.0%가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이 31.9%로 남성 21.7%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동일 집단 내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가 그렇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여성 중에서는 30대가 38.5%, 남성 중에서는 30대가 26.3%로 가장 높았다.

[표 3-66] 성차별적 인사관행: 외부 손님 방문 및 회의 준비 시 주로 여자 직원이 다과 준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않음	③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66	22.9	33.4	35.8	7.9	56.3	43.7	100.0	2.29(.91)
성별		여성	574	14.1	29.5	43.2	13.3	43.6	56.4	100.0	2.56(.89)
		남성	792	29.3	36.2	30.4	4.0	65.6	34.4	100.0	2.09(.87)
연령	여성	만19~29세	114	21.6	27.5	42.8	8.1	49.1	50.9	100.0	2.37(.91)
		만30~39세	145	9.2	28.8	43.5	18.5	38.0	62.0	100.0	2.71(.87)
		만40~49세	139	13.9	27.2	43.1	15.8	41.1	58.9	100.0	2.61(.92)
		만50~59세	128	13.9	29.7	44.4	12.0	43.6	56.4	100.0	2.54(.88)
		만60~64세	48	12.2	42.2	39.7	5.8	54.4	45.6	100.0	2.39(.78)
	남성	만19~29세	147	43.8	29.8	22.3	4.1	73.6	26.4	100.0	1.87(.90)
		만30~39세	172	33.7	38.3	24.3	3.7	72.0	28.0	100.0	1.98(.86)
		만40~49세	214	31.3	35.6	28.2	4.9	66.9	33.1	100.0	2.07(.89)
		만50~59세	192	20.5	37.8	39.3	2.5	58.2	41.8	100.0	2.24(.80)
		만60~64세	68	6.1	42.6	45.7	5.6	48.7	51.3	100.0	2.51(.70)
지역	여성	도시	344	15.6	27.6	44.0	12.8	43.2	56.8	100.0	2.54(.90)
		도농복합·농촌	229	11.9	32.3	41.8	14.0	44.2	55.8	100.0	2.58(.87)
	남성	도시	452	24.5	39.7	31.9	3.9	64.2	35.8	100.0	2.15(.84)
		도농복합·농촌	341	35.7	31.7	28.5	4.0	67.4	32.6	100.0	2.01(.90)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09	25.9	28.8	33.2	12.1	54.8	45.2	100.0	2.31(.99)
		남성 많은 편	391	20.5	34.7	39.6	5.2	55.3	44.7	100.0	2.29(.85)
		남녀 대체로 반반	324	21.9	36.8	33.2	8.1	58.7	41.3	100.0	2.28(.90)
		여성 많은 편	249	19.6	38.2	36.6	5.6	57.8	42.2	100.0	2.28(.84)
		여성 매우 많은 편	93	35.8	18.4	35.3	10.5	54.2	45.8	100.0	2.21(1.05)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8	23.7	27.1	42.3	6.9	50.8	49.2	100.0	2.32(.92)
		5~30인 미만	430	21.3	32.4	36.2	10.2	53.7	46.3	100.0	2.35(.93)
		30~100인 미만	283	17.0	31.3	40.4	11.3	48.4	51.6	100.0	2.46(.90)
		100인 이상	546	27.2	36.5	31.8	4.5	63.7	36.3	100.0	2.14(.87)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표 3-67] 성차별적 인사관행: 임신, 출산 시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음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않음	③ 그러함	④ 매우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66	34.6	45.7	17.0	2.6	80.4	19.6	100.0	1.88(.78)
성별		여성	574	27.7	46.6	21.5	4.2	74.3	25.7	100.0	2.02(.81)
		남성	792	39.7	45.1	13.8	1.4	84.8	15.2	100.0	1.77(.73)
연령	여성	만19~29세	114	31.4	43.1	23.5	1.9	74.6	25.4	100.0	1.96(.79)
		만30~39세	146	30.2	39.8	21.2	8.8	70.0	30.0	100.0	2.09(.93)
		만40~49세	139	25.8	47.5	23.8	2.9	73.3	26.7	100.0	2.04(.78)
		만50~59세	128	25.5	52.2	18.9	3.4	77.7	22.3	100.0	2.00(.76)
		만60~64세	48	22.3	58.3	17.3	2.1	80.6	19.4	100.0	1.99(.70)
	남성	만19~29세	146	57.0	25.9	12.9	4.2	82.9	17.1	100.0	1.64(.86)
		만30~39세	173	42.5	42.3	14.3	0.9	84.8	15.2	100.0	1.74(.73)
		만40~49세	214	39.7	44.6	15.1	0.6	84.3	15.7	100.0	1.77(.72)
		만50~59세	193	31.7	55.6	11.8	0.9	87.3	12.7	100.0	1.82(.66)
		만60~64세	68	18.1	65.2	15.8	0.8	83.3	16.7	100.0	1.99(.62)
지역	여성	도시	343	27.4	46.9	22.7	3.0	74.3	25.7	100.0	2.01(.79)
		도농복합·농촌	229	28.0	46.3	19.7	6.0	74.3	25.7	100.0	2.04(.85)
	남성	도시	452	36.3	48.9	13.1	1.7	85.2	14.8	100.0	1.80(.72)
		도농복합·농촌	340	44.1	40.1	14.8	1.1	84.2	15.8	100.0	1.73(.75)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09	33.2	48.9	13.9	4.0	82.1	17.9	100.0	1.89(.79)
		남성 많은 편	392	29.8	47.9	20.8	1.6	77.7	22.3	100.0	1.94(.75)
		남녀 대체로 반반	324	32.6	47.0	18.3	2.1	79.6	20.4	100.0	1.90(.76)
		여성 많은 편	248	39.4	41.9	15.7	3.0	81.3	18.7	100.0	1.82(.80)
		여성 매우 많은 편	93	54.4	31.9	10.8	3.0	86.3	13.7	100.0	1.62(.8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9	28.3	45.9	23.3	2.5	74.2	25.8	100.0	2.00(.79)
		5~30인 미만	430	27.8	45.7	22.7	3.8	73.6	26.4	100.0	2.02(.81)
		30~100인 미만	282	29.1	51.1	15.9	3.9	80.2	19.8	100.0	1.95(.78)
		100인 이상	546	44.1	42.9	11.9	1.1	87.1	12.9	100.0	1.70(.72)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표 3-68] 성차별적 인사관행: 육아휴직 후 인사상 불이익 있음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않음	③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66	27.2	46.8	21.8	4.1	74.0	26.0	100.0	2.03(.81)
성별		여성	573	21.1	47.0	26.7	5.2	68.1	31.9	100.0	2.16(.81)
		남성	793	31.6	46.7	18.3	3.4	78.3	21.7	100.0	1.93(.79)
연령	여성	만19~29세	114	25.3	44.6	25.4	4.7	69.9	30.1	100.0	2.09(.83)
		만30~39세	144	21.7	39.8	28.5	9.9	61.5	38.5	100.0	2.27(.91)
		만40~49세	138	21.8	47.0	27.5	3.7	68.8	31.2	100.0	2.13(.79)
		만50~59세	128	17.7	54.1	25.3	2.9	71.8	28.2	100.0	2.13(.73)
		만60~64세	47	16.8	55.2	26.0	2.1	72.0	28.0	100.0	2.13(.71)
	남성	만19~29세	146	46.3	33.7	14.6	5.5	80.0	20.0	100.0	1.79(.89)
		만30~39세	172	32.2	41.6	20.2	6.1	73.7	26.3	100.0	2.00(.88)
		만40~49세	214	33.3	44.4	19.2	3.1	77.7	22.3	100.0	1.92(.80)
		만50~59세	193	24.1	58.0	17.5	0.4	82.1	17.9	100.0	1.94(.66)
		만60~64세	68	14.7	63.1	20.8	1.4	77.8	22.2	100.0	2.09(.64)
지역	여성	도시	344	20.3	46.3	28.7	4.7	66.6	33.4	100.0	2.18(.81)
		도농복합·농촌	230	22.3	48.1	23.8	5.8	70.4	29.6	100.0	2.13(.82)
	남성	도시	452	30.6	47.0	19.8	2.6	77.6	22.4	100.0	1.94(.78)
		도농복합·농촌	341	33.0	46.3	16.3	4.4	79.3	20.7	100.0	1.92(.81)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09	25.3	47.7	19.9	7.1	73.1	26.9	100.0	2.09(.85)
		남성 많은 편	391	22.7	50.1	24.6	2.6	72.8	27.2	100.0	2.07(.76)
		남녀 대체로 반반	324	26.0	44.4	24.8	4.8	70.4	29.6	100.0	2.08(.83)
		여성 많은 편	248	33.1	47.6	17.4	1.8	80.7	19.3	100.0	1.88(.75)
		여성 매우 많은 편	93	41.1	36.4	18.1	4.4	77.5	22.5	100.0	1.86(.87)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7	24.4	51.3	20.7	3.7	75.7	24.3	100.0	2.04(.78)
		5~30인 미만	431	26.0	42.7	26.7	4.6	68.7	31.3	100.0	2.10(.84)
		30~100인 미만	283	22.7	51.1	20.8	5.5	73.7	26.3	100.0	2.09(.81)
		100인 이상	547	31.1	47.0	18.8	3.1	78.1	21.9	100.0	1.94(.79)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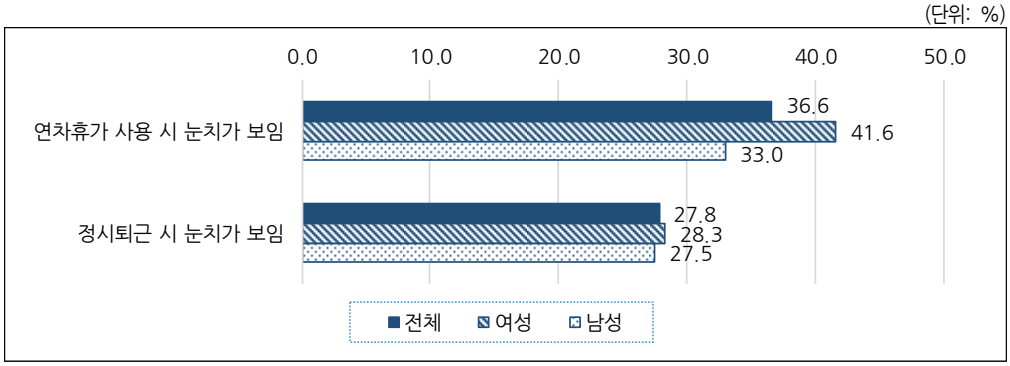
사업체의 근로자 성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 대체로 반반' 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29.6%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남성이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여성이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보다 불이익이 있다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5~30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가 31.3%로 가장 높았다.

다음은 근로시간 관련 사업장 문화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응답자의 36.6%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인다' ([표 3-69])고 응답하였다.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41.6%로 남성(33.0%)에 비해 높았다.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40대 이하, 남성은 40대 이상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상대적으로 더 눈치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의 경우 20대가 45.3%로 가장 높은 반면, 40대(42.6%)와 30대(42.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은 50대가 35.2%로 가장 높은 반면, 다음은 60대(34.2%), 40대(34.0%)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성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매우 많은 편' 인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42.8%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5~30인 미만(43.9%)이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응답자의 27.8%는 '정시퇴근 하면 눈치가 보인다' ([표 3-70])고 응답하였다. 이 항목의 경우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여성이 35.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남성 중에서는 50대가 29.4%로 가장 높았다. 거주 지역별 차이도 나타났는데, 남녀 모두 도농복합(농촌) 보다는 도시 지역에 거주할 경우 그렇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근로자 성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다수인 사업장에서 일할수록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나타났다.

[그림 3-25] 근로시간 관련 사업장 문화

(단위: %)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의 합계임.

[표 3-69] 성차별적 인사관행: 연차휴가 사용 시 눈치가 보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않음	③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66	24.6	38.8	28.0	8.6	63.4	36.6	100.0	2.21(.91)
성별		여성	574	21.3	37.2	31.5	10.1	58.4	41.6	100.0	2.30(.92)
		남성	792	27.1	39.9	25.5	7.5	67.0	33.0	100.0	2.13(.90)
연령	여성	만19~29세	114	27.4	27.3	33.3	12.0	54.7	45.3	100.0	2.30(1.00)
		만30~39세	144	23.5	34.2	28.5	13.7	57.8	42.2	100.0	2.32(.99)
		만40~49세	139	18.8	38.6	34.0	8.6	57.4	42.6	100.0	2.32(.88)
		만50~59세	127	17.6	45.1	27.7	9.6	62.7	37.3	100.0	2.29(.87)
		만60~64세	48	17.0	44.0	39.0	-	61.0	39.0	100.0	2.22(.72)
	남성	만19~29세	146	38.2	33.5	17.9	10.4	71.7	28.3	100.0	2.01(.99)
		만30~39세	172	33.8	33.4	26.1	6.7	67.2	32.8	100.0	2.06(.93)
		만40~49세	215	25.6	40.4	25.1	8.8	66.0	34.0	100.0	2.17(.91)
		만50~59세	192	16.3	48.4	30.6	4.7	64.8	35.2	100.0	2.24(.78)
		만60~64세	68	21.3	44.5	27.5	6.7	65.8	34.2	100.0	2.20(.85)
지역	여성	도시	344	20.6	38.6	31.7	9.1	59.2	40.8	100.0	2.29(.90)
		도농복합·농촌	230	22.3	35.0	31.1	11.6	57.2	42.8	100.0	2.32(.95)
	남성	도시	452	25.5	40.7	25.7	8.2	66.2	33.8	100.0	2.16(.90)
		도농복합·농촌	340	29.2	38.8	25.4	6.6	68.1	31.9	100.0	2.09(.90)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10	23.8	33.4	31.3	11.6	57.2	42.8	100.0	2.31(.96)
		남성 많은 편	391	20.0	44.8	27.6	7.7	64.7	35.3	100.0	2.23(.86)
		남녀 대체로 반반	325	27.1	38.5	27.7	6.6	65.6	34.4	100.0	2.14(.89)
		여성 많은 편	248	23.9	39.9	27.4	8.8	63.7	36.3	100.0	2.21(.91)
		여성 매우 많은 편	93	40.6	29.3	21.9	8.2	69.9	30.1	100.0	1.98(.98)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8	19.3	42.8	30.6	7.3	62.1	37.9	100.0	2.26(.85)
		5~30인 미만	430	22.5	33.7	33.8	10.0	56.1	43.9	100.0	2.31(.93)
		30~100인 미만	284	21.1	37.4	30.0	11.5	58.5	41.5	100.0	2.32(.93)
		100인 이상	547	29.3	42.7	21.9	6.2	71.9	28.1	100.0	2.05(.87)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표 3-70] 성차별적 인사관행: 정시퇴근 시 눈치가 보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않음	③ 그러함	④ 매우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366	28.8	43.4	23.0	4.9	72.2	27.8	100.0	2.04(.84)
성별	여성	573	28.5	43.2	22.6	5.6	71.7	28.3	100.0	2.05(.86)
	남성	792	29.0	43.4	23.2	4.3	72.5	27.5	100.0	2.03(.83)
연령	여성 만19~29세	114	36.5	27.9	23.1	12.5	64.4	35.6	100.0	2.12(1.05)
	여성 만30~39세	145	33.7	37.2	24.9	4.2	70.9	29.1	100.0	2.00(.87)
	여성 만40~49세	139	25.1	51.5	17.5	5.9	76.6	23.4	100.0	2.04(.82)
	여성 만50~59세	129	22.3	53.0	22.4	2.2	75.3	24.7	100.0	2.05(.73)
	여성 만60~64세	48	20.3	47.8	30.3	1.7	68.1	31.9	100.0	2.13(.75)
	남성 만19~29세	145	40.7	31.0	23.2	5.0	71.8	28.2	100.0	1.93(.92)
	남성 만30~39세	172	33.2	39.0	22.8	5.0	72.2	27.8	100.0	2.00(.87)
	남성 만40~49세	215	29.7	44.0	21.3	5.1	73.7	26.3	100.0	2.02(.85)
	남성 만50~59세	193	19.3	51.4	26.4	3.0	70.6	29.4	100.0	2.13(.75)
	남성 만60~64세	69	18.5	57.5	21.7	2.3	76.0	24.0	100.0	2.08(.70)
지역	여성 도시	343	27.2	42.1	24.5	6.2	69.3	30.7	100.0	2.10(.87)
	여성 도농복합·농촌	230	30.5	44.9	19.8	4.8	75.3	24.7	100.0	1.99(.84)
	남성 도시	452	27.6	43.3	24.9	4.3	70.8	29.2	100.0	2.06(.83)
	남성 도농복합·농촌	341	30.9	43.7	21.0	4.4	74.6	25.4	100.0	1.99(.83)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10	26.4	39.8	26.8	7.0	66.2	33.8	100.0	2.14(.89)
	남성 많은 편	391	23.4	46.3	25.9	4.5	69.7	30.3	100.0	2.11(.81)
	남녀 대체로 반반	324	30.8	41.0	24.2	4.1	71.7	28.3	100.0	2.02(.85)
	여성 많은 편	249	31.1	49.1	16.7	3.1	80.2	19.8	100.0	1.92(.77)
	여성 매우 많은 편	92	46.6	35.7	10.9	6.9	82.2	17.8	100.0	1.78(.9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8	24.3	48.0	24.8	2.9	72.4	27.6	100.0	2.06(.78)
	5~30인 미만	429	28.3	42.9	23.0	5.7	71.3	28.7	100.0	2.06(.86)
	30~100인 미만	283	25.5	45.2	22.6	6.7	70.7	29.3	100.0	2.11(.86)
	100인 이상	545	31.8	41.8	22.8	3.6	73.6	26.4	100.0	1.98(.83)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3)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다음은 응답자 중 임금근로자 1,366명을 대상으로 현재 직장의 일-생활 균형 관련 제도의 이용 용이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이다. 직장(일자리)에서 '출산전후휴가(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휴가',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을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직장 내 대상자 없거나 제도 없음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출산전후휴가(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6.9%는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26.8%는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15.2%는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1.2%는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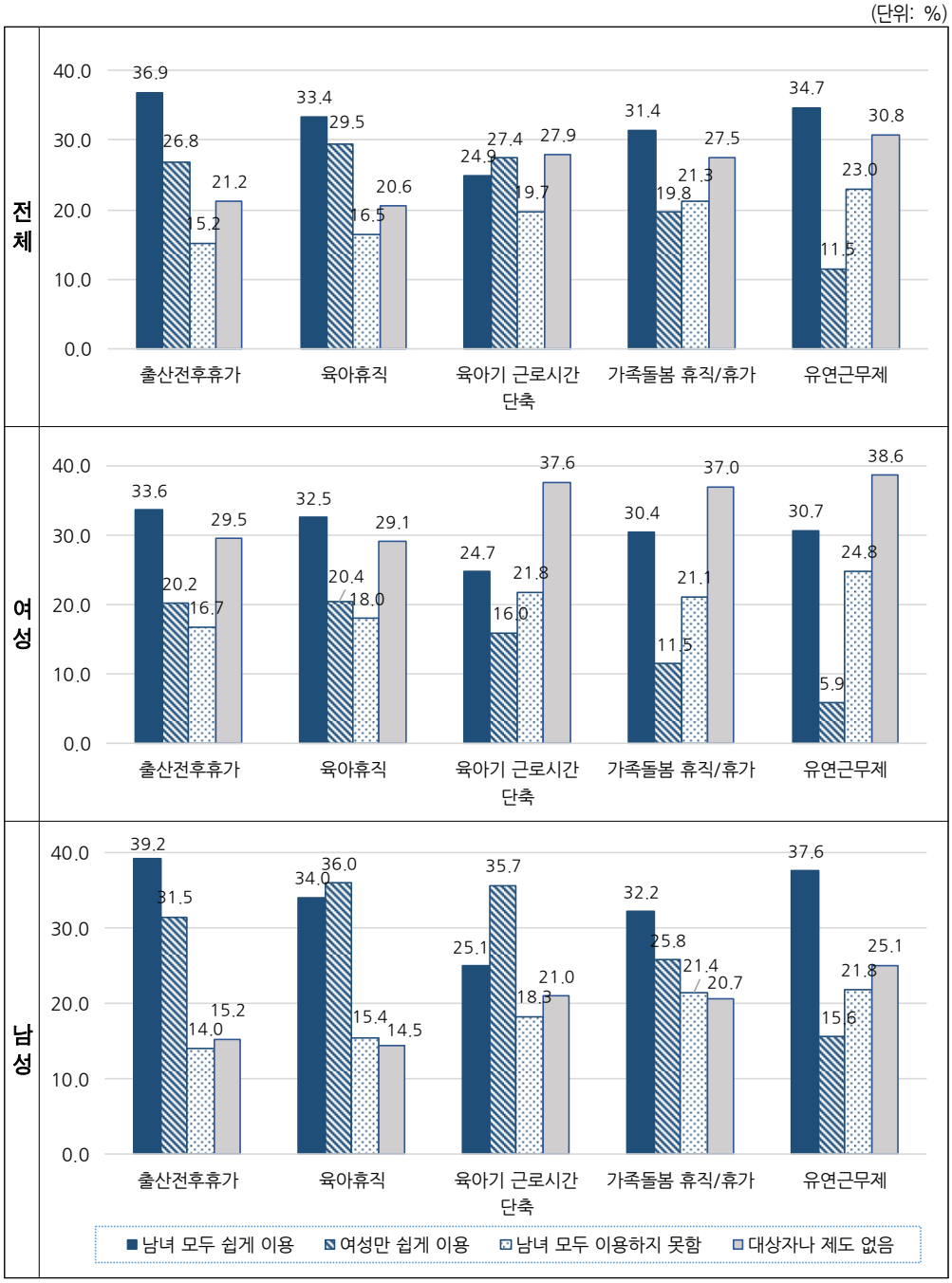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남성이 39.2%로 여성 33.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성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남성(44.0%)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30대 남성(41.5%), 50대 남성(41.0%), 30대 여성(3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도 남성이 31.5%로 여성(20.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60대 남성의 응답률이 38.8%로 가장 높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29.5%로 남성(15.2%)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대상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은 60대 여성(40.9%)을 제외하고는 20대 여성이 36.7%로 가장 높다. 성과 연령에 따라 업종 및 직종이 분리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응답자인 60대 여성이 다수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대상자'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대 여성 응답자의 36.7%가 직장 내 출산전후휴가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것은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사업체의 근로자 성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이 많은 사업장의 응답자는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그림 3-26]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단위: %)



[표 3-71]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 출산전후휴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남녀 모두 쉽게 이용 가능	여성만 쉽게 이용 가능	남녀 모두 쉽게 이용 못함	직장 내 대상자나 제도 없음	계
전체			1,366	36.9	26.8	15.2	21.2	100.0
성별		여성	574	33.6	20.2	16.7	29.5	100.0
		남성	793	39.2	31.5	14.0	15.2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15	28.6	17.2	17.5	36.7	100.0
		만30~39세	145	39.4	22.7	15.7	22.2	100.0
		만40~49세	140	33.8	22.7	15.8	27.7	100.0
		만50~59세	129	35.7	20.0	15.3	29.0	100.0
		만60~64세	49	22.0	12.9	24.1	40.9	100.0
	남성	만19~29세	145	44.0	25.3	10.5	20.1	100.0
		만30~39세	172	41.5	32.0	15.1	11.4	100.0
		만40~49세	214	36.4	34.2	13.2	16.2	100.0
		만50~59세	193	41.0	30.4	15.4	13.3	100.0
		만60~64세	67	26.9	38.8	17.7	16.6	100.0
지역	여성	도시	343	34.2	21.0	17.9	26.9	100.0
		도농복합·농촌	230	32.8	18.9	14.9	33.4	100.0
	남성	도시	451	38.4	33.0	14.5	14.1	100.0
		도농복합·농촌	341	40.3	29.6	13.4	16.6	100.0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10	31.6	29.7	14.8	23.9	100.0
		남성 많은 편	392	33.8	32.3	18.8	15.0	100.0
		남녀 대체로 반반	323	38.9	26.4	16.8	17.9	100.0
		여성 많은 편	248	42.2	21.0	11.2	25.6	100.0
		여성 매우 많은 편	92	45.7	10.3	5.8	38.1	100.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8	9.3	24.2	14.6	51.9	100.0
		5~30인 미만	429	23.6	24.7	16.8	34.9	100.0
		30~100인 미만	283	36.4	23.7	22.0	17.9	100.0
		100인 이상	546	53.0	30.5	10.4	6.1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마지막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100인 이상은 53.0%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51.9%나 되었다. 5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3-72]는 '육아휴직'의 사용 용이성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4%가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다음으로는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29.5%),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20.6%),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없다(29.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즉, 남성 36.0%, 여성 20.4%였다. 반면, 여성은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29.1%로 남성(14.5%)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성별 연령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20대 남성의 경우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3.8%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한편, 30대 남성의 경우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1.1%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반면, 여성 중에서는 60대 여성을 제외하면, '직장 내 대상자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은 20대 여성이 34.6%로 높았다.

사업체의 근로자 성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육아휴직에 대해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많은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이 많은 사업장의 응답자는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경우도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100인 이상은 49.4%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54.9%나 되었다.

[표 3-72]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 육아휴직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남녀 모두 쉽게 이용가능	여성만 쉽게 이용가능	남녀 모두 쉽게 이용 못함	직장 내 대상자나 제도 없음	계
전체			1,366	33.4	29.5	16.5	20.6	100.0
성별		여성	573	32.5	20.4	18.0	29.1	100.0
		남성	793	34.0	36.0	15.4	14.5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14	27.4	21.4	16.5	34.6	100.0
		만30~39세	145	38.5	22.7	16.7	22.2	100.0
		만40~49세	140	31.3	18.6	23.1	27.0	100.0
		만50~59세	128	37.5	20.4	13.9	28.2	100.0
		만60~64세	48	16.6	16.7	22.1	44.6	100.0
	남성	만19~29세	146	43.8	25.2	11.8	19.2	100.0
		만30~39세	172	31.3	41.1	17.7	9.9	100.0
		만40~49세	214	31.7	37.9	15.4	15.0	100.0
		만50~59세	192	34.9	36.9	13.6	14.6	100.0
		만60~64세	68	24.9	38.2	22.6	14.3	100.0
지역	여성	도시	343	33.2	21.1	18.9	26.9	100.0
		도농복합·농촌	229	31.4	19.5	16.7	32.3	100.0
	남성	도시	452	33.5	36.0	17.0	13.6	100.0
		도농복합·농촌	341	34.7	36.1	13.4	15.8	100.0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10	29.5	30.2	17.1	23.2	100.0
		남성 많은 편	392	28.0	39.5	17.9	14.7	100.0
		남녀 대체로 반반	324	34.5	26.3	20.5	18.7	100.0
		여성 많은 편	248	42.0	21.3	12.4	24.3	100.0
		여성 매우 많은 편	94	41.8	18.0	5.9	34.3	100.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8	8.8	19.8	16.6	54.9	100.0
		5~30인 미만	430	21.6	26.1	18.4	34.0	100.0
		30~100인 미만	283	29.8	29.6	22.2	18.4	100.0
		100인 이상	546	49.4	34.0	12.1	4.5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다음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표 3-73])의 사용 용이성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는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27.4%),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24.9%)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19.7%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이용 용이성과 관련해서는 성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직장 내 대상자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37.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의 경우 44.3%를 차지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35.7%로 높게 나타났다. 50대 남성의 경우 40.9%를 차지했다. 거주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도농복합(농촌)에 거주할 경우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사업체의 근로자 성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많은 사업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이 많은 사업장의 응답자는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경우도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100인 이상은 34.3%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57.3%나 되었다.

[표 3-73]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남녀 모두 쉽게 이용가능	여성만 쉽게 이용가능	남녀 모두 쉽게 이용 못함	직장 내 대상자나 제도 없음	계
전체			1,366	24.9	27.4	19.7	27.9	100.0
성별		여성	574	24.7	16.0	21.8	37.6	100.0
		남성	793	25.1	35.7	18.3	21.0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14	17.9	15.7	22.1	44.3	100.0
		만30~39세	144	28.4	21.3	15.5	34.9	100.0
		만40~49세	140	27.9	12.9	25.5	33.7	100.0
		만50~59세	127	26.9	16.5	21.0	35.5	100.0
		만60~64세	48	14.5	8.5	30.8	46.2	100.0
	남성	만19~29세	146	34.9	27.3	13.2	24.6	100.0
		만30~39세	172	26.5	31.8	22.9	18.8	100.0
		만40~49세	214	22.6	39.8	16.2	21.4	100.0
		만50~59세	192	21.3	40.9	17.9	19.9	100.0
		만60~64세	68	19.3	35.3	24.9	20.5	100.0
지역	여성	도시	343	24.8	18.4	22.1	34.7	100.0
		도농복합·농촌	229	24.6	12.4	21.2	41.9	100.0
	남성	도시	452	24.6	38.0	19.0	18.3	100.0
		도농복합·농촌	341	25.7	32.5	17.3	24.5	100.0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09	19.8	26.5	20.2	33.6	100.0
		남성 많은 편	392	21.3	35.3	20.8	22.6	100.0
		남녀 대체로 반반	325	25.9	28.0	20.6	25.5	100.0
		여성 많은 편	248	33.1	19.0	19.1	28.9	100.0
		여성 매우 많은 편	93	32.3	17.4	12.6	37.8	100.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8	9.3	14.0	19.4	57.3	100.0
		5~30인 미만	429	16.6	19.3	21.7	42.5	100.0
		30~100인 미만	282	25.6	24.1	22.2	28.1	100.0
		100인 이상	546	34.3	38.1	17.0	10.6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가족돌봄휴직(휴가)’ ([표 3-74]) 제도의 사용 용이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31.4%),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27.5%),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없다(21.3%),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19.8%)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은 직장 내 대상자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37.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20대 여성이 48.5%로 가장 높았다. 반면, 남성은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25.8%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성이 30.5%로 가장 높았다. 거주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도농복합(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40.1%)이 높았다.

사업체의 근로자 성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많은 사업장일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다른 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크게 나타났다. 특히, 100인 이상은 45.0%로 나타났다.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연근무제도’ ([표 3-75])의 사용 용이성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이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34.7%),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30.8%),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없다(23.0%),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11.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은 직장 내 대상자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38.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히, 20대, 50대, 60대 여성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남성은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15.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 남성이 22.7%로 가장 높았다. 거주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도농복합(농촌)에 거주하는 경우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44.8%)이 높았다.

사업체의 근로자 성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남성이 매우 많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응답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남성 또는 여성, 즉, 특정성별의 근로자가 매우 많은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다른 제도에 비해 100인 이상과 100인 이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00인 이상의 경우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8.4%로 현저하게 높았다.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표 3-74]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 가족돌봄 휴직/휴가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남녀 모두 쉽게 이용가능	여성만 쉽게 이용가능	남녀 모두 쉽게 이용 못함	직장 내 대상자나 제도 없음	계
전체			1,366	31.4	19.8	21.3	27.5	100.0
성별		여성	573	30.4	11.5	21.1	37.0	100.0
		남성	792	32.2	25.8	21.4	20.7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14	21.8	10.4	19.3	48.5	100.0
		만30~39세	145	33.4	14.4	15.0	37.2	100.0
		만40~49세	139	34.8	10.7	24.9	29.7	100.0
		만50~59세	128	34.2	11.3	21.2	33.4	100.0
		만60~64세	48	19.0	8.6	32.5	40.0	100.0
	남성	만19~29세	147	39.5	18.4	18.4	23.6	100.0
		만30~39세	172	30.6	30.5	21.1	17.8	100.0
		만40~49세	215	30.3	26.4	18.7	24.7	100.0
		만50~59세	192	33.1	27.2	22.0	17.7	100.0
		만60~64세	68	23.6	23.7	35.1	17.6	100.0
지역	여성	도시	343	32.6	12.6	19.9	34.9	100.0
		도농복합·농촌	230	27.1	9.8	23.0	40.1	100.0
	남성	도시	452	32.9	26.9	21.3	18.9	100.0
		도농복합·농촌	340	31.2	24.3	21.4	23.0	100.0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10	25.5	18.3	23.6	32.6	100.0
		남성 많은 편	392	28.8	26.1	22.0	23.2	100.0
		남녀 대체로 반반	324	31.5	21.9	21.7	24.9	100.0
		여성 많은 편	248	39.1	13.7	19.4	27.9	100.0
		여성 매우 많은 편	93	41.9	7.0	13.9	37.3	100.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8	15.0	11.8	18.7	54.5	100.0
		5~30인 미만	429	20.3	13.8	23.9	41.9	100.0
		30~100인 미만	282	28.5	22.1	23.0	26.5	100.0
		100인 이상	546	45.0	24.9	18.7	11.4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75] 일-생활 균형제도 이용 용이성 :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남녀 모두 쉽게 이용가능	여성만 쉽게 이용가능	남녀 모두 쉽게 이용 못함	직장 내 대상자나 제도 없음	계
전체			1,366	34.7	11.5	23.0	30.8	100.0
성별		여성	573	30.7	5.9	24.8	38.6	100.0
		남성	793	37.6	15.6	21.8	25.1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15	32.0	2.6	22.7	42.7	100.0
		만30~39세	144	32.8	7.7	22.3	37.2	100.0
		만40~49세	139	32.8	7.3	26.9	33.0	100.0
		만50~59세	128	28.2	6.4	24.1	41.3	100.0
		만60~64세	49	22.1	3.3	32.7	41.9	100.0
	남성	만19~29세	147	38.2	12.8	21.1	27.9	100.0
		만30~39세	172	35.9	22.7	21.9	19.5	100.0
		만40~49세	214	36.4	16.2	21.2	26.3	100.0
		만50~59세	192	38.9	13.0	21.8	26.2	100.0
		만60~64세	68	40.3	8.6	24.6	26.5	100.0
지역	여성	도시	343	33.6	6.4	25.7	34.4	100.0
		도농복합·농촌	230	26.5	5.3	23.4	44.8	100.0
	남성	도시	452	35.4	15.9	24.1	24.6	100.0
		도농복합·농촌	342	40.4	15.1	18.7	25.8	100.0
근로자 성비		남성 매우 많은 편	309	27.1	9.2	24.3	39.5	100.0
		남성 많은 편	392	36.7	15.3	23.4	24.6	100.0
		남녀 대체로 반반	324	38.0	13.9	22.1	26.0	100.0
		여성 많은 편	248	36.7	9.3	21.7	32.2	100.0
		여성 매우 많은 편	93	34.6	0.7	24.0	40.7	100.0
사업체 규모		5인 미만	108	21.7	7.7	21.9	48.8	100.0
		5~30인 미만	430	24.2	10.5	23.5	41.8	100.0
		30~100인 미만	283	29.3	11.6	27.1	32.1	100.0
		100인 이상	546	48.4	13.0	20.8	17.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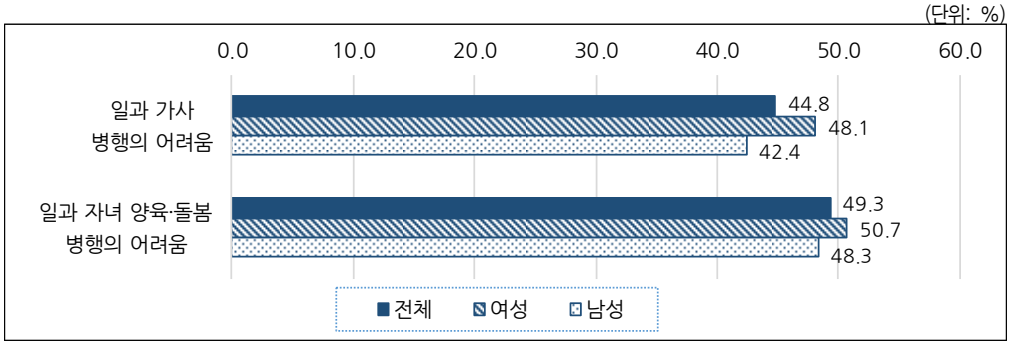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4) 가사 및 자녀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

일-생활균형과 관련하여 취업자에 대해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어려움' 과 '일과 자녀양육·돌봄을 병행하는 어려움' 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① 전혀 어렵지 않음, ② 어렵지 않음, ③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으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림 3-27] 일과 가사 및 자녀양육·돌봄 병행의 어려움

(단위: %)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어려움'과 '매우 어려움'의 합계임.

조사결과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어려움' ([표 3-76])과 관련해서는 어렵다(매우 어려움 포함)는 응답이 44.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48.1%로 남성(42.4%)로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성 중에서는 40대 여성이 53.0%로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40대 이외에도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45% 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연령별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40대 남성은 50.4%로 높았지만, 60대(27.7%)와 20대(36.6%)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여성은 기혼(51.7%), 남성은 이혼/별거/사별(55.6%)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녀유무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자녀가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어려움' ([표 3-77])을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어렵다(매우 어려움 포함)는 응답이 49.3%로 나타났으며, 여성 50.7%, 남성 48.3%로 성별 차이는 다른 항목에 비해 크지 않았다. 여성 중에서는 20대~40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이는 자녀의 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남성도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즉, 30대(64.8%)와 40대(61.8%)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었다.

[표 3-76] 일과 가사 병행의 어려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어렵지않음	② 어렵지않음	③ 어려움	④ 매우어려움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1,583	10.6	44.6	39.4	5.4	55.2	44.8	100.0	2.40(.75)
성별		여성	686	9.6	42.3	42.1	5.9	51.9	48.1	100.0	2.44(.75)
		남성	897	11.3	46.3	37.4	5.0	57.6	42.4	100.0	2.36(.75)
연령	여성	만19~29세	129	8.4	46.0	37.4	8.2	54.4	45.6	100.0	2.45(.76)
		만30~39세	158	13.8	38.1	43.1	5.1	51.9	48.1	100.0	2.39(.79)
		만40~49세	171	9.6	37.5	44.9	8.1	47.0	53.0	100.0	2.52(.78)
		만50~59세	170	7.6	47.0	41.4	3.9	54.6	45.4	100.0	2.42(.69)
		만60~64세	58	7.1	46.3	44.3	2.3	53.4	46.6	100.0	2.42(.66)
	남성	만19~29세	149	25.6	37.8	32.9	3.8	63.4	36.6	100.0	2.15(.85)
		만30~39세	187	12.4	47.3	33.0	7.3	59.7	40.3	100.0	2.35(.79)
		만40~49세	235	7.7	41.8	44.1	6.3	49.6	50.4	100.0	2.49(.73)
		만50~59세	234	7.4	47.4	40.9	4.4	54.7	45.3	100.0	2.42(.69)
		만60~64세	92	5.5	66.9	27.0	0.6	72.3	27.7	100.0	2.23(.55)
지역	여성	도시	405	8.7	44.2	42.6	4.5	52.9	47.1	100.0	2.43(.71)
		도농복합·농촌	282	10.9	39.7	41.5	7.9	50.6	49.4	100.0	2.46(.79)
	남성	도시	512	8.7	47.7	37.7	5.9	56.4	43.6	100.0	2.41(.73)
		도농복합·농촌	385	14.9	44.4	36.8	3.8	59.3	40.7	100.0	2.30(.76)
혼인상태	여성	미혼(비혼)	266	11.7	45.1	36.8	6.4	56.8	43.2	100.0	2.38(.77)
		기혼	385	7.5	40.8	46.0	5.7	48.3	51.7	100.0	2.50(.72)
		이혼/별거/사별	38	18.4	36.8	39.5	5.3	55.2	44.8	100.0	2.33(.86)
	남성	미혼(비혼)	330	19.4	43.0	33.0	4.5	62.4	37.5	100.0	2.23(.81)
		기혼	540	6.1	49.3	39.3	5.4	55.4	44.7	100.0	2.44(.69)
		이혼/별거/사별	27	18.5	25.9	51.9	3.7	44.4	55.6	100.0	2.38(.85)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325	12.3	45.8	36.3	5.5	58.1	41.8	100.0	2.35(.77)
		자녀 있음	360	7.2	39.2	47.5	6.1	46.4	53.6	100.0	2.53(.72)
	남성	자녀 없음	388	18.0	46.4	31.2	4.4	64.4	35.6	100.0	2.22(.79)
		자녀 있음	509	6.3	46.2	42.0	5.5	52.5	47.5	100.0	2.47(.70)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매우 어려움=1' ~ '전혀 어렵지 않음=4'의 평균임.

[표 3-77] 일과 자녀 양육 병행의 어려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어렵지않음	② 어렵지않음	③ 어려움	④ 매우어려움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869	8.4	42.2	42.2	7.1	50.7	49.3	100.0	2.48(.75)
성별		여성	360	10.0	39.2	42.7	8.1	49.3	50.7	100.0	2.49(.78)
		남성	508	7.3	44.3	42.0	6.4	51.7	48.3	100.0	2.47(.72)
연령	여성	만19~29세	4	-	29.8	43.2	27.0	29.8	70.2	100.0	2.97(.84)
		만30~39세	41	5.7	26.1	50.4	17.7	31.9	68.1	100.0	2.80(.80)
		만40~49세	113	7.9	33.6	49.4	9.1	41.5	58.5	100.0	2.60(.77)
		만50~59세	142	12.6	45.6	37.4	4.3	58.3	41.7	100.0	2.33(.75)
		만60~64세	58	11.6	45.1	36.7	6.6	56.7	43.3	100.0	2.38(.78)
	남성	만19~29세	5	36.0	28.1	36.0	-	64.0	36.0	100.0	2.00(.94)
		만30~39세	62	6.8	28.4	53.5	11.3	35.2	64.8	100.0	2.69(.76)
		만40~49세	170	4.6	33.6	54.4	7.4	38.2	61.8	100.0	2.65(.69)
		만50~59세	185	7.5	50.3	35.8	6.4	57.8	42.2	100.0	2.41(.72)
		만60~64세	86	10.8	65.2	22.7	1.3	76.0	24.0	100.0	2.14(.61)
지역	여성	도시	214	9.0	40.2	45.3	5.5	49.2	50.8	100.0	2.47(.74)
		도농복합·농촌	145	11.4	37.9	38.7	11.9	49.3	50.7	100.0	2.51(.85)
	남성	도시	281	6.5	42.6	44.3	6.5	49.1	50.9	100.0	2.51(.72)
		도농복합·농촌	228	8.3	46.5	39.0	6.2	54.8	45.2	100.0	2.43(.73)
혼인상태	여성	기혼	327	8.0	40.4	43.7	8.0	48.4	51.7	100.0	2.52(.75)
		이혼/별거/사별	34	29.4	29.4	32.4	8.8	58.8	41.2	100.0	2.18(.98)
	남성	기혼	487	7.0	43.9	42.7	6.4	50.9	49.1	100.0	2.48(.72)
		이혼/별거/사별	22	13.6	50.0	27.3	9.1	63.6	36.4	100.0	2.26(.82)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매우 어려움=1' ~ '전혀 어렵지 않음=4'의 평균임.

5) 비취업자 관련 실태

다음은 응답자 중에서 현재 비취업자에게 지난 일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는지 질문한 결과이다([표 3-78]). 조사결과 가사육아(39.5%),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23.9%), 그냥 쉬었음(23.1%), 통학(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78] 비취업자 하는 일(응답자특성(1))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가사·육아	구직활동, 취업준비	그냥 쉬었음	통학 (학교, 학원)	기타	계
전체			433	39.5	23.9	23.1	10.9	2.7	100.0
성별		여성	296	54.8	15.5	18.5	8.1	3.1	100.0
		남성	138	6.5	41.9	32.8	17.0	1.9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62	6.6	37.4	16.3	35.1	4.7	100.0
		만30~39세	35	60.1	27.7	12.2	-	-	100.0
		만40~49세	69	84.8	7.7	5.9	1.7	-	100.0
		만50~59세	75	60.6	8.3	24.6	1.5	5.0	100.0
		만60~64세	53	59.2	2.7	33.7	-	4.4	100.0
	남성	만19~29세	63	1.9	41.0	21.8	35.3	-	100.0
		만30~39세	23	0.7	52.5	36.3	5.6	4.9	100.0
		만40~49세	15	17.9	50.4	31.7	-	-	100.0
		만50~59세	16	24.3	24.2	45.9	-	5.6	100.0
		만60~64세	21	6.1	39.2	52.1	-	2.6	100.0
지역	여성	도시	173	56.2	15.0	16.6	9.0	3.1	100.0
		도농복합·농촌	123	52.8	16.2	21.3	6.7	2.9	100.0
	남성	도시	82	5.2	42.3	35.1	15.7	1.7	100.0
		도농복합·농촌	55	8.6	41.3	29.2	18.8	2.1	100.0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105	9.5	21.0	38.1	27.6	3.8	100.0
		자녀 있음	191	79.6	1.0	3.1	13.6	2.6	100.0
	남성	자녀 없음	104	1.9	22.1	45.2	28.8	1.9	100.0
		자녀 있음	34	20.6	-	32.4	44.1	2.9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비취업자의 현재 상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예상할 수 있듯이, 여성의 경우 가사육아가 54.8%로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구직활동(취업준비)이 41.9%로 현저하게 높았고, 그냥 쉬었음도 3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남녀 모두 통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는 구직활동(취업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60대와 50대 여성은 그냥 쉬었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 30대와 40대가 구직활동(취업준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가사육아가 79.6%로 높게 나타났다.

[표 3-79]에서 보듯이 비취업자 중에서 86.1%는 과거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여성이 88.5%로 남성 80.8%에 비해 높았다.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 둔 주된 이유로는 학업 등 다른 일 준비(25.2%), 근로조건 문제(22.2%), 자녀 등 가족 돌봄(16.9%), 임신출산(10.7%), 결혼(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은 자녀 등 가족 돌봄, 임신출산, 결혼의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학업 등 다른 일 준비와 근로조건 문제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녀 모두 연령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20대 여성은 학업 등 다른 일 준비가 71.2%로 현저히 높았다. 반면, 40대와 50대 여성은 자녀 등 가족돌봄, 30대 여성은 임신출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의 경우도 20대는 학업 등 다른 일 준비가 81.5%로 현저히 높았다. 반면, 50대, 40대, 30대 남성의 경우 근로조건문제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유무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녀 모두 자녀가 없는 경우 학업 등 다른 일 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 한편,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등 가족 돌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취업자에게 향후 3년 이내의 경제활동 계획을 질문한 결과 취업(54.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일할 계획이 없음(26.8%), 프리랜서(14.2%), 창업(4.4%) 순으로 나타났다([표 3-80]).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취업이 68.2%로 여성(48.2%)에 비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일할 계획 없음이 32.4%를 차지했다. 남녀 모두 연령별로 차이가 있었다. 여성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취업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높아졌다. 특히, 20대와 30대 여성의 경우 70%이상이 취업할 계획이라고 응답하였다. 여성의 경우 프리랜서를 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13~14%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 50대는 프리랜서와 창업을 희망한다는 응답이 다른 연령대 남성에 비해 높았다. 거주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도농복합(농촌) 지역에 거주할 경우 취업이 51.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 프리랜서가 17.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79] 경제활동 여부 및 일을 그만둔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경제활동 경험 없음	경제활동 경험 있음	일을 그만둔 이유						
						학업 등 다른 일 준비	근로 조건 문제	자녀 등 가족 돌봄	임신·출산	결혼	기타	계
전체			433	60 (13.9)	373 (86.1)	25.2	22.2	16.9	10.7	6.1	18.8	100.0
성별		여성	296	34 (11.5)	262 (88.5)	17.2	18.9	23.1	15.2	8.3	17.3	100.0
		남성	138	27 (19.2)	111 (80.8)	44.0	30.1	2.3	-	1.1	22.4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62	12 (18.5)	50 (81.5)	71.2	12.4	-	2.7	-	13.7	100.0
		만30~39세	36	7 (18.2)	29 (81.8)	19.3	14.7	17.4	38.5	3.6	6.5	100.0
		만40~49세	70	6 (8.5)	64 (91.5)	-	18.2	36.5	24.5	14.8	5.9	100.0
		만50~59세	75	5 (7.1)	70 (92.9)	3.7	23.9	32.5	14.3	6.5	19.0	100.0
		만60~64세	53	5 (8.9)	48 (91.1)	2.1	22.0	19.2	3.2	13.5	40.0	100.0
	남성	만19~29세	62	17 (27.6)	45 (72.4)	81.5	9.4	2.6	-	-	6.6	100.0
		만30~39세	24	7 (28.5)	17 (71.5)	46.8	49.1	-	-	-	4.1	100.0
		만40~49세	15	1 (8.6)	14 (91.4)	19.6	55.1	-	-	9.4	16.0	100.0
		만50~59세	15	1 (7.8)	14 (92.2)	6.1	64.8	10.3	-	-	18.8	100.0
		만60~64세	22	-	22 (100.0)	3.4	20.2	-	-	-	76.4	100.0
지역	여성	도시	173	21 (11.9)	152 (88.1)	19.8	17.9	21.6	15.1	8.8	16.8	100.0
		도농복합·농촌	123	13 (10.8)	110 (89.2)	13.5	20.3	25.2	15.4	7.5	18.0	100.0
	남성	도시	83	14 (17.1)	69 (82.9)	43.8	32.3	2.1	-	-	21.8	100.0
		도농복합·농촌	55	12 (22.4)	43 (77.6)	44.5	26.5	2.7	-	3.0	23.4	100.0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105	22 (21.0)	83 (79.0)	49.4	27.7	1.2	1.2	3.6	16.9	100.0
		자녀 있음	191	12 (6.3)	179 (93.7)	2.2	14.5	33.5	21.8	10.6	17.3	100.0
	남성	자녀 없음	104	24 (23.1)	80 (76.9)	57.5	28.7	3.8	-	-	10.0	100.0
		자녀 있음	33	2 (6.1)	31 (93.9)	9.7	32.3	-	-	3.2	54.8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80] 비취업자의 향후 3년 이내 일할 계획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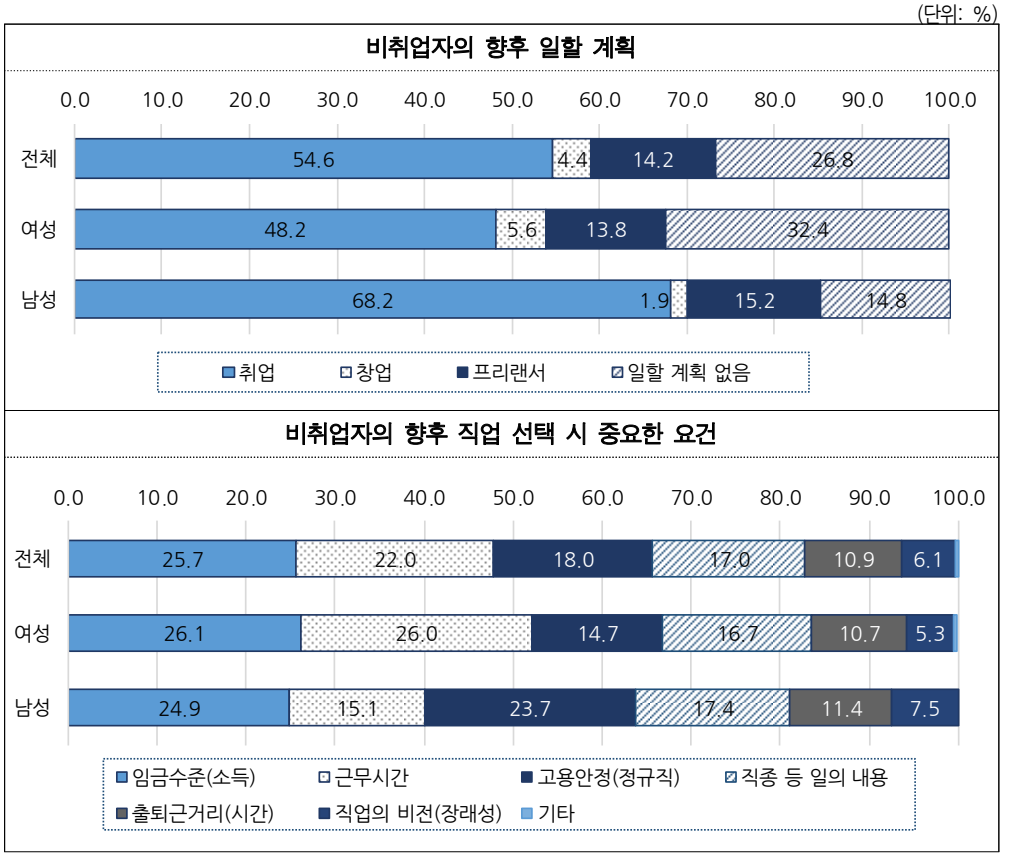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취업	창업	프리랜서	일할 계획 없음	계
전체			433	54.6	4.4	14.2	26.8	100.0
성별		여성	296	48.2	5.6	13.8	32.4	100.0
		남성	138	68.2	1.9	15.2	14.8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62	75.9	1.7	13.4	9.0	100.0
		만30~39세	36	70.5	5.7	13.3	10.6	100.0
		만40~49세	70	53.9	4.7	14.5	26.9	100.0
		만50~59세	76	35.8	11.4	14.1	38.7	100.0
		만60~64세	54	11.4	2.9	13.0	72.7	100.0
	남성	만19~29세	62	77.1	-	12.9	10.0	100.0
		만30~39세	23	76.6	-	9.2	14.1	100.0
		만40~49세	14	82.8	-	8.6	8.6	100.0
		만50~59세	15	37.7	13.4	39.4	9.5	100.0
		만60~64세	22	44.5	2.6	15.8	37.0	100.0
지역	여성	도시	172	45.8	4.8	17.0	32.5	100.0
		도농복합·농촌	122	51.7	6.7	9.2	32.4	100.0
	남성	도시	82	67.0	1.7	16.5	14.7	100.0
		도농복합·농촌	54	69.9	2.1	13.1	14.8	100.0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106	17.9	11.3	5.7	65.1	100.0
		자녀 있음	190	40.5	14.7	5.8	38.9	100.0
	남성	자녀 없음	104	12.5	13.5	-	74.0	100.0
		자녀 있음	35	22.9	20.0	8.6	48.6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향후 3년 이내에 일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에게 향후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을 질문하였다([표 3-81]). 그 결과 임금수준(25.7%), 근무시간(22.0%), 고용안정(18.0%), 직종 등 일의 내용(17.0%), 출퇴근 거리(10.9%), 직업의 비전(6.1%)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근무시간(26.0%)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남성의 경우 고용안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 차이도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30대와 20대는 고용안정을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그림 3-28] 비취업자의 향후 일할 계획 및 직업 선택의 요건

(단위: %)



[표 3-81] 비취업자의 향후 직업 선택 시 중요한 요건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금수준(소득)	근무시간	고용안정(정규직)	직종 등 일의 내용	출퇴근 거리(시간)	직업의 비전(장래성)	기타	계
전체			317	25.7	22.0	18.0	17.0	10.9	6.1	0.3	100.0
성별		여성	199	26.1	26.0	14.7	16.7	10.7	5.3	0.4	100.0
		남성	117	24.9	15.1	23.7	17.4	11.4	7.5	-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56	31.7	10.8	16.6	19.5	10.4	9.6	1.4	100.0
		만30~39세	32	26.0	29.7	19.4	14.3	8.5	2.1	-	100.0
		만40~49세	52	18.9	34.7	11.4	14.7	14.2	6.1	-	100.0
		만50~59세	47	29.7	30.0	15.2	11.5	10.3	3.3	-	100.0
		만60~64세	15	19.0	33.2	6.9	35.3	5.6	-	-	100.0
	남성	만19~29세	56	10.4	21.9	26.8	13.9	15.9	11.1	-	100.0
		만30~39세	19	26.4	15.6	35.9	15.5	-	6.6	-	100.0
		만40~49세	13	45.8	-	19.6	15.9	9.4	9.4	-	100.0
		만50~59세	14	62.3	-	6.2	21.0	10.5	-	-	100.0
		만60~64세	13	23.9	16.8	14.3	32.3	12.6	-	-	100.0
지역	여성	도시	117	24.5	21.6	17.6	18.4	12.1	5.0	0.7	100.0
		도농복합·농촌	83	28.3	32.2	10.6	14.4	8.7	5.8	-	100.0
	남성	도시	71	26.4	15.5	28.7	11.7	9.5	8.1	-	100.0
		도농복합·농촌	48	22.6	14.6	16.1	25.9	14.2	6.6	-	100.0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85	32.9	5.9	21.2	20.0	10.6	8.2	1.2	100.0
		자녀 있음	114	21.1	41.2	9.6	14.0	10.5	3.5	-	100.0
	남성	자녀 없음	91	17.6	16.5	28.6	17.6	11.0	4.0	-	100.0
		자녀 있음	25	52.0	8.0	8.0	16.0	12.0	7.8	-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마. 차별과 안전

1) 차별경험

가) 성별로 인한 차별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2.5%가 여자답게 또는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42.6%였고,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의 성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33.4%였다.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은 32.7%, 임금(소득)에서의 성차별은 32.3%,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은 31.8%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은 각 29.1%와 28.8%였다.

그러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성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한다. 여성 응답자의 60% 이상이 성희롱(62.2%)과 여성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61.6%)을 경험하였으며, 과반에 가까운 여성들이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의 성차별(48.9%),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47.4%), 임금(소득)에서의 성차별(46.6%)을 경험하였다고 했다. 직장생활(40.2%), 학교생활(37.0%), 재산분배(30.5%)에서의 성차별 또한 남성에 비해 높은 응답수준을 나타낸다. 남성들은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43.8%)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성희롱(24.0%), 구직(22.2%), 학교생활(21.7%)에서의 성차별 순으로 응답 빈도가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은 50대의 53.9%가 경험이 있다고 하여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고 50대 이후가 이전 연령대에 비해 경험한 비율이 높았다. 재산분배에서의 성차별 역시 50대(45.3%)를 기점으로 경험했다는 응답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은 연령이 낮을수록 경험 비율이 높았는데, 20대 여성의 절반 이상인 51.1%가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을 경험했다고 한다. 구직에서의 성차별은 50대가 여성이 50.9%로 가장 높았으나, 여성은 모든 연령에서 40% 이상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었다.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은 60대가 48.2%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으며 30대 이상 여성들은 모두 40% 이상이 직장생활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였다. 임금(소득)에서의 성차별은 40대 여성이 54.8%로 가장 높았고, 20대를 제외하고는 30대 이상에서 응답률이 46% 이상이어서 과반에 육박하거나 과반을 넘는 여성들이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의 성차별은 30대(52.8%)에서 경험이 가장 높았으며 모든 연령의 여성에게서 45% 이상의 응답이 나타났다. 여성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은 20대의

68.4%가 응답하여 가장 높았으며, 가장 응답을 적게 한 60대의 경우도 55.9%의 응답을 나타내었다. 성희롱 경험은 30대가 69.1%로 가장 높았고 이후 연령의 증가와 함께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40대까지는 65% 이상의 여성이 성희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성희롱 경험률이 매우 높았다.

[표 3-82] 성차별 경험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성장 과정	재산 분배	학교 생활	구직	직장 생활	임금 (소득)	운전 대중교통	성별 답게	성희롱
전체			2,016	31.8	20.8	29.1	32.7	28.8	32.3	33.4	52.5	42.6
성별		여성	982	47.4	30.5	37.0	43.8	40.2	46.6	48.9	61.6	62.2
		남성	1,033	17.0	11.6	21.7	22.2	17.9	18.8	18.7	43.8	24.0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43.7	18.4	51.1	40.0	21.1	26.3	45.8	68.4	65.8
		만30~39세	194	40.7	24.2	35.9	45.6	43.6	46.2	52.8	64.4	69.1
		만40~49세	242	47.1	24.4	32.4	42.1	45.2	54.8	51.2	61.8	66.9
		만50~59세	245	53.9	45.3	33.1	43.3	43.7	53.9	45.7	56.7	55.1
		만60~64세	111	51.4	43.8	32.4	50.9	48.2	48.6	49.5	55.9	49.5
	남성	만19~29세	211	18.0	6.6	29.9	23.2	12.8	10.4	14.7	45.5	28.0
		만30~39세	211	19.4	12.8	25.1	22.7	15.7	14.8	20.5	52.4	25.1
		만40~49세	250	19.6	14.8	22.4	24.8	20.3	20.4	16.4	43.6	25.2
		만50~59세	249	12.9	10.4	15.2	18.8	18.4	23.2	20.0	37.2	18.8
		만60~64세	113	15.0	15.2	12.4	21.2	25.7	28.3	23.9	39.3	24.8
지역	여성	도시	577	45.1	28.9	36.3	43.9	39.1	44.8	46.7	60.7	60.8
		도농복합·농촌	405	50.6	32.9	37.9	43.5	41.6	49.1	52.0	63.0	64.2
	남성	도시	595	16.5	9.7	21.5	22.5	18.7	19.7	18.0	42.9	23.7
		도농복합·농촌	439	17.8	14.4	21.9	21.6	16.9	17.5	19.4	45.1	24.4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남성은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은 40대에서 19.6%로 가장 높았으나 30대의 19.4%와 큰 차이가 나지 않으며, 40%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내는 여성들과 응답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족 내 재산(상속) 분배에서의 성차별은 60대에서 15.2%로 가장 높았으나, 역시 40% 이상의 경험을 보고하는 50~60대 여성과 비교하면 낮은 수치이다.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은 20대 이하에서 29.9%로 가장 높았으나 역시 같은 연령의 여성의 응답률 51.1%와 비교 시 낮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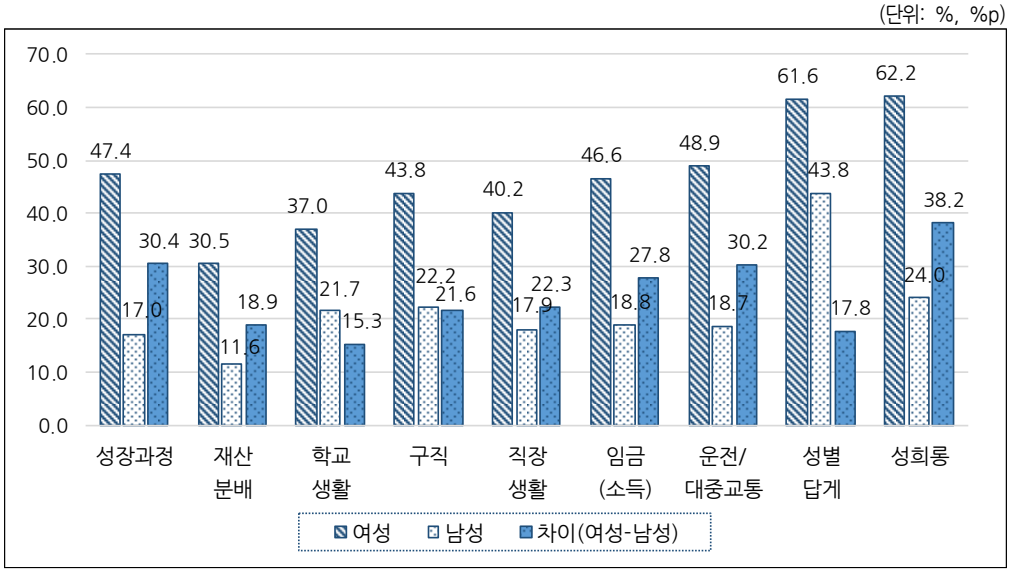
다. 구직에서의 성차별은 40대 남성이 24.8%로 가장 높았으나 같은 연령의 여성에서는 해당 응답이 보다 높게 나타나며, 직장생활, 임금에서의 성차별,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의 성차별 역시 마찬가지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에게서도 응답률이 높은 항목이었다. 남성들 중에서는 30대의 응답이 52.4%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37.2%로 가장 낮았다. 성희롱의 경우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모든 연령에서 응답률이 여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여성의 경우 구직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 있어서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의 응답률이 더 높았다. 남성은 구직, 직장생활, 임금을 제외한 영역에서 남성의 응답률이 높았다.

성차별 경험에 있어서 가장 성별 경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성희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38.2%p 높았다.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은 30.4%p,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의 성차별은 30.2%p, 임금(소득)에서의 성차별은 27.8%p의 성별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모든 조사영역과 연령에서 성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그림 3-29] 성차별 경험

(단위: %, %p)



나) 외모로 인한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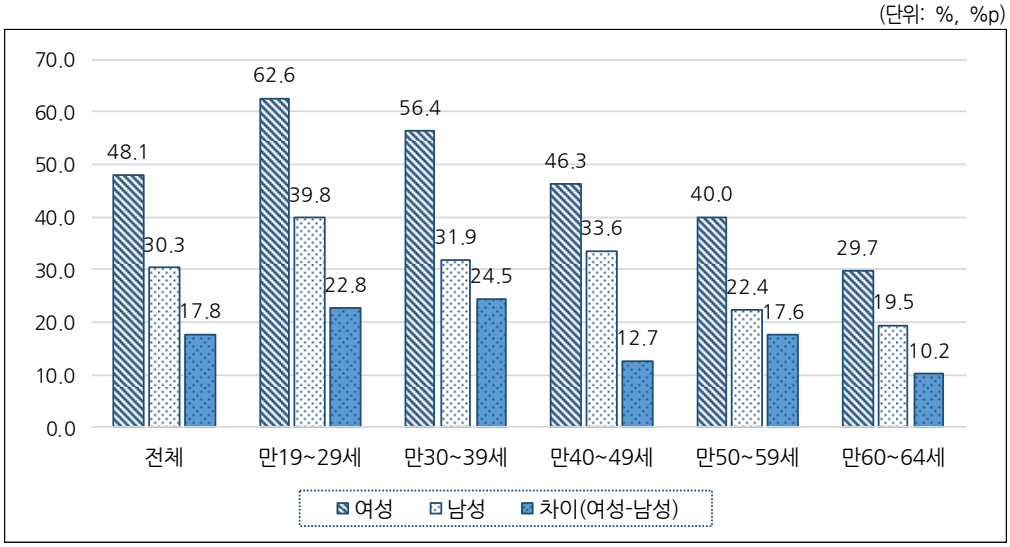
외모로 인한 차별과 관련하여 '외모 지적 및 비하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38.9%, 실제로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0%였다.

외모 지적 및 비하 발언을 들은 경험과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여성이 각 48.1%와 26.4%로 남성의 30.3%와 14.0%에 비해 높았다. 여성의 1/2, 남성의 1/3 가까이가 외모에 대한 지적 및 비하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이다.

남녀모두 20대 이하에서 외모에 대한 지적 및 비하발언을 들은 경험이 가장 높았고(여성 62.6%, 남성 39.8%),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경험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남성의 경우 30대(33.6%)보다 40대(33.6%)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그림 3-30] 외모 지적 및 비하발언을 들은 경험

(단위: %, %p)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성은 20대가 32.6%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40대가 17.2%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40대 이하에서는 여성이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같은 연령대의 남성에 비하여 두 배 이상 높았다.

지역별로는 여성의 경우 외모지적 및 비하 발언을 듣거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도시지역 거주자보다 도농복합 및 농촌지역 거주자에게서 약간 높았고, 남성의 경우도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도농복합지역 및 농촌에서 약간 높았다.

[표 3-83] 외모로 인한 차별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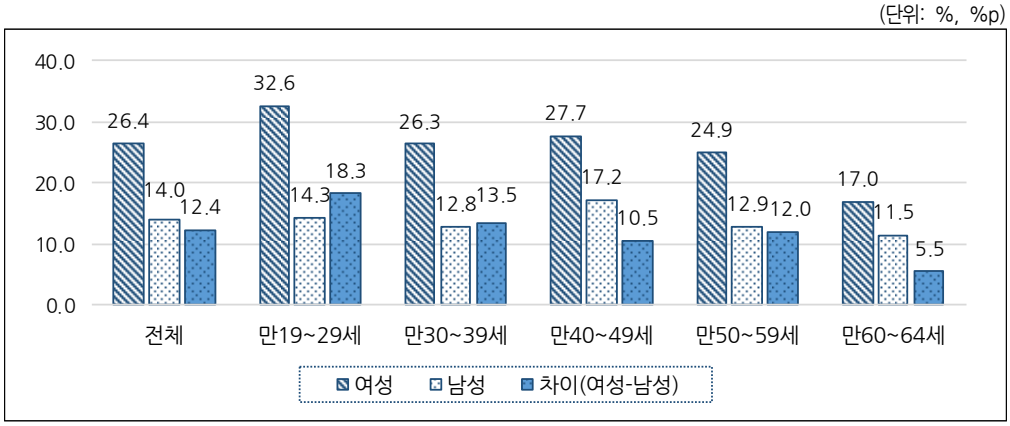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외모 지적 및 비하 발언 들음	외모로 인한 불이익, 차별 받음	직장 또는 학교에서	구직 활동 과정에서	소개팅, 맞선 등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동호회, 동아리 등 각종 모임에서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기타
전체			2,016	785 (38.9)	404 (20.0)	55.1	54.8	34.1	30.7	28.5	16.9	8.3	2.6
성별		여성	982	472 (48.1)	259 (26.4)	57.5	58.2	31.6	26.4	25.7	17.6	9.0	3.5
		남성	1,034	313 (30.3)	145 (14.0)	51.0	48.8	38.7	38.2	33.6	15.5	7.1	1.0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119 (62.6)	62 (32.6)	71.0	44.0	14.3	32.3	24.6	18.8	7.5	2.7
		만30~39세	195	110 (56.4)	51 (26.3)	69.4	50.9	41.6	35.9	35.4	14.1	10.3	7.4
		만40~49세	242	112 (46.3)	67 (27.7)	52.5	67.1	35.8	24.8	26.2	14.8	8.8	1.0
		만50~59세	245	98 (40.0)	61 (24.9)	39.0	64.4	35.5	17.8	19.9	21.6	11.6	5.0
		만60~64세	111	33 (29.7)	19 (17.0)	57.7	73.2	33.9	15.3	20.2	20.2	3.0	-
	남성	만19~29세	211	84 (39.8)	30 (14.3)	60.3	40.6	17.0	46.2	26.5	24.8	8.5	-
		만30~39세	210	67 (31.9)	27 (12.8)	48.4	44.8	36.4	50.2	38.9	19.6	5.0	-
		만40~49세	250	84 (33.6)	43 (17.2)	56.6	51.7	42.0	29.6	37.5	10.0	9.6	3.2
		만50~59세	250	56 (22.4)	32 (12.9)	41.9	57.1	56.3	33.1	25.6	14.5	2.4	-
		만60~64세	113	22 (19.5)	13 (11.5)	38.5	45.4	39.0	36.4	46.7	5.8	11.6	-
지역	여성	도시	578	277 (47.9)	146 (25.3)	55.1	60.4	27.2	23.2	24.1	15.7	7.9	3.9
		도농복합·농촌	405	196 (48.4)	113 (27.9)	60.6	55.3	37.4	30.6	27.8	20.1	10.5	3.0
	남성	도시	595	181 (30.4)	81 (13.6)	51.0	54.1	39.7	34.6	35.9	14.7	6.9	1.7
		도농복합·농촌	440	132 (30.0)	65 (14.8)	50.9	42.1	37.3	42.8	30.8	16.5	7.4	-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그림 3-31]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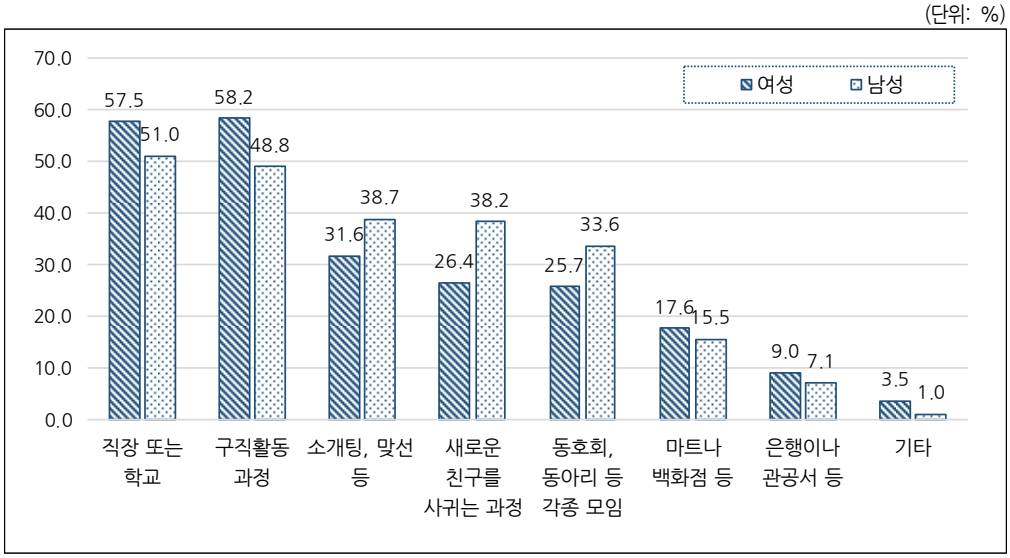
(단위: %, %p)



여성이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지만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만을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서 해당 경험을 하였는지 질문한 결과 여성은 구직활동과정에서가 58.2%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직장 또는 학교에서가 51.0%로 가장 높았다. 직장이나 학교, 구직활동 과정에서는 여성과 남성에게서 가장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항목이었다.

[그림 3-32]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한 상황

(단위: %)



2) 안전 관련 불안 및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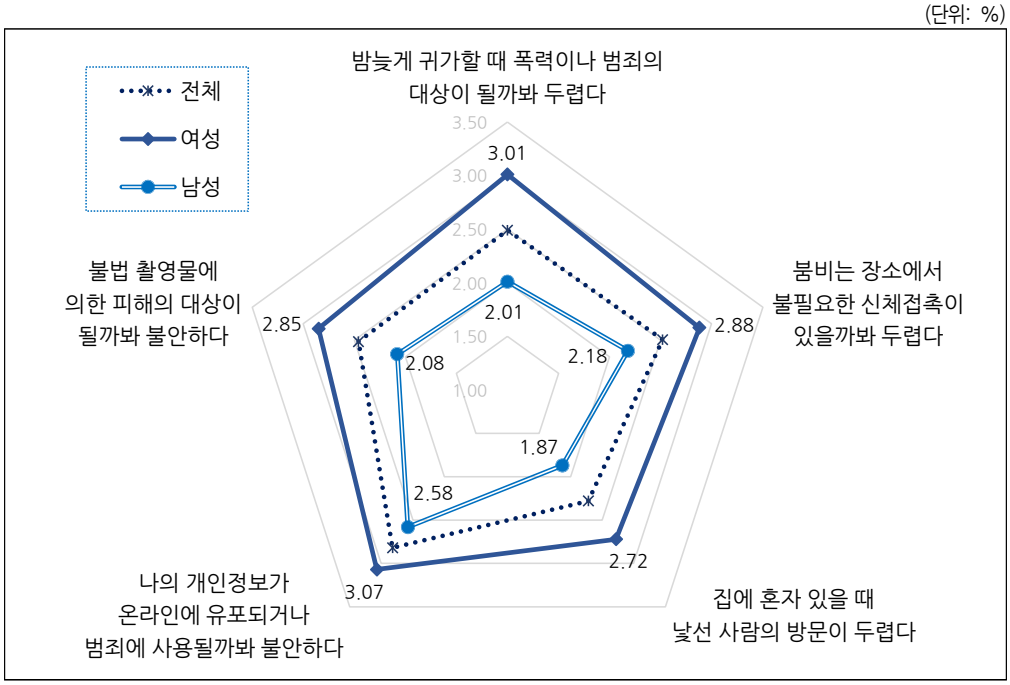
가) 폭력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안전 관련 두려움 및 불안은 ‘밤늦게 귀가할 때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될까봐 두렵다’, ‘붐비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을까봐 두렵다’,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의 방문이 두렵다’, ‘나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죄에 사용될까봐 불안하다’, ‘불법 촬영물에 의한 피해의 대상이 될까봐 불안하다’의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두려움이나 불안이 크다고 해석한다.

안전 관련 두려움 및 불안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죄에 사용되는 것과 밤늦게 귀가할 때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높았다.

[그림 3-33] 안전 관련 두려움 및 불안

(단위: %)



주: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남성은 대체로 안전관련 문항들에 있어서 두려움이나 불안이 낮은 편이었는데 다른 항목들에 비해 개인정보 유포 및 범죄사용에 대한 두려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밤늦게 귀가할 때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렵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응답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여성은 전체의 82.8%가 ③ 그렇다 또는 ④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나, 남성은 23.9%만이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였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30대~50대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높았으며, ④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0대가 24.7%로 가장 높았다. 남성은 60대에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응답이 32.5%로 가장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평균이 높았다.

[표 3-84] 밤늦게 귀가할 때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될까 두려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않음	③ 그렇함	④ 매우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4.1	33.3	41.8	10.8	47.4	52.6	100.0	2.49(.87)
성별		여성	982	2.6	14.6	62.2	20.6	17.2	82.8	100.0	3.01(.68)
		남성	1,034	25.0	51.1	22.4	1.5	76.1	23.9	100.0	2.01(.73)
연령	여성	만19~29세	189	4.8	17.5	57.1	20.6	22.3	77.7	100.0	2.93(.76)
		만30~39세	194	1.5	14.4	59.3	24.7	15.9	84.0	100.0	3.07(.68)
		만40~49세	241	1.2	12.9	66.0	19.9	14.1	85.9	100.0	3.04(.62)
		만50~59세	245	2.9	11.8	66.1	19.2	14.7	85.3	100.0	3.01(.66)
		만60~64세	111	2.7	19.8	59.5	18.0	22.5	77.5	100.0	2.92(.70)
	남성	만19~29세	210	40.5	40.0	18.1	1.4	80.5	19.5	100.0	1.81(.78)
		만30~39세	210	33.3	42.4	21.9	2.4	75.7	24.3	100.0	1.94(.81)
		만40~49세	250	18.8	60.8	18.0	2.4	79.6	20.4	100.0	2.04(.68)
		만50~59세	250	15.2	57.6	26.8	0.4	72.8	27.2	100.0	2.12(.65)
		만60~64세	114	15.8	51.8	32.5	-	67.6	32.5	100.0	2.17(.68)
지역	여성	도시	577	2.8	14.6	62.2	20.5	17.4	82.7	100.0	3.00(.68)
		도농복합·농촌	404	2.5	14.6	62.1	20.8	17.1	82.9	100.0	3.01(.67)
	남성	도시	593	24.1	50.3	23.9	1.7	74.4	25.6	100.0	2.03(.74)
		도농복합·농촌	440	25.9	52.3	20.5	1.4	78.2	21.9	100.0	1.97(.72)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붐비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을까봐 두렵다’ 역시 여성에게서 두렵다는 응답은 75.8%로 남성의 34.3%에 비해 매우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40대까지 두렵다는 응답이 증가하다가 50대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③ 그렇다와 ④ 매우 그렇다는 응답의 합은 40대가 80.1%로 가장 높았고, ④ 매우 그렇다는 응답은 30대 여성이 21.5%로 가장 높았다. 남성은 30대에서 신체접촉이 두렵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높았고, 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0대 이하에서 34.1%로 가장 높았다.

[표 3-85] 붐비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을까봐 두려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않음	③ 그렇함	④ 매우 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2.7	32.8	44.3	10.2	45.5	54.5	100.0	2.52(.84)
성별		여성	982	2.4	21.8	60.6	15.2	24.2	75.8	100.0	2.88(.67)
		남성	1,033	22.4	43.3	28.8	5.5	65.7	34.3	100.0	2.18(.84)
연령	여성	만19~29세	191	5.8	24.1	51.3	18.8	29.9	70.1	100.0	2.84(.79)
		만30~39세	195	2.6	21.5	54.4	21.5	24.1	75.9	100.0	2.95(.73)
		만40~49세	242	0.4	19.4	66.5	13.6	19.8	80.1	100.0	2.93(.59)
		만50~59세	245	2.0	20.8	64.1	13.1	22.8	77.2	100.0	2.88(.64)
		만60~64세	112	1.8	25.2	66.7	6.3	27.0	73.0	100.0	2.77(.58)
	남성	만19~29세	211	34.1	32.7	24.2	9.0	66.8	33.2	100.0	2.07(.97)
		만30~39세	211	29.4	33.6	33.2	3.8	63.0	37.0	100.0	2.11(.88)
		만40~49세	249	19.7	45.8	26.5	8.0	65.5	34.5	100.0	2.23(.86)
		만50~59세	250	11.6	53.6	31.2	3.6	65.2	34.8	100.0	2.26(.71)
		만60~64세	113	15.9	52.2	30.1	1.8	68.1	31.9	100.0	2.16(.70)
지역	여성	도시	578	2.4	22.3	60.7	14.5	24.7	75.2	100.0	2.87(.67)
		도농복합·농촌	404	2.5	21.0	60.4	16.1	23.5	76.5	100.0	2.90(.68)
	남성	도시	594	21.9	43.3	30.0	4.9	65.2	34.9	100.0	2.18(.83)
		도농복합·농촌	439	23.0	43.3	27.3	6.4	66.3	33.7	100.0	2.17(.86)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택배, 수리기사 등)의 방문이 두렵다’ 는 문항 역시 여성이(63.1%)이 남성(18.5%)보다 두렵다는 응답이 매우 높았다. 여성의 경우 ④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0대에서 20.6%로 가장 높았고, 30대 역시 20.0%로 높았다. 반대로 남성들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0대에서 48.6%로 가장 높았고 30대도 40.5%로 높았다. 여성은 60대에서 낯선 사람의 방문에 대한 두려움을 가장 덜 느끼고, 남성은 두려움을 가장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6]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택배, 수리기사 등)의 방문 두려움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그렇함	④ 매우 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20.0	39.8	32.0	8.2	59.8	40.2	100.0	2.28(.88)
성별		여성	982	5.5	31.5	48.6	14.5	37.0	63.1	100.0	2.72(.78)
		남성	1,035	33.7	47.7	16.2	2.3	81.4	18.5	100.0	1.87(.76)
연령	여성	만19~29세	189	10.1	22.8	46.6	20.6	32.9	67.2	100.0	2.78(.89)
		만30~39세	195	3.1	33.8	43.1	20.0	36.9	63.1	100.0	2.80(.79)
		만40~49세	242	3.3	34.3	51.2	11.2	37.6	62.4	100.0	2.70(.70)
		만50~59세	245	6.5	29.8	51.4	12.2	36.3	63.6	100.0	2.69(.76)
		만60~64세	111	5.4	38.7	49.5	6.3	44.1	55.8	100.0	2.57(.70)
	남성	만19~29세	212	48.6	31.1	15.6	4.7	79.7	20.3	100.0	1.76(.88)
		만30~39세	210	40.5	41.0	14.3	4.3	81.5	18.6	100.0	1.83(.83)
		만40~49세	250	28.0	54.8	16.0	1.2	82.8	17.2	100.0	1.91(.70)
		만50~59세	251	25.9	57.0	16.7	0.4	82.9	17.1	100.0	1.92(.66)
		만60~64세	112	23.2	56.3	20.5	-	79.5	20.5	100.0	1.97(.67)
지역	여성	도시	577	5.9	32.2	48.0	13.9	38.1	61.9	100.0	2.70(.78)
		도농복합·농촌	405	4.9	30.4	49.4	15.3	35.3	64.7	100.0	2.75(.77)
	남성	도시	595	31.6	49.6	17.1	1.7	81.2	18.8	100.0	1.89(.74)
		도농복합·농촌	439	36.7	45.3	14.8	3.2	82.0	18.0	100.0	1.85(.79)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나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죄에 사용될까봐 불안하다’ 는 문항 역시 여성이(82.6%)이 남성(58.0%)보다 불안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다른 문항들에 비해 해당 문항은 남성들이 불안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여성의 26.5%가 ④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56.1%가 ③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남성은 ④ 매우 그렇다가 12.1%, ③ 그렇다가 45.9%였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60대에서 개인정보의 유포 및 범죄사용에 대한 불안이 가장 낮았고, 남성은 60대가 불안이 가장 높았다.

[표 3-87] 나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죄에 사용될까봐 불안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않음	③ 그렇함	④ 매우 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7.2	22.8	50.9	19.1	30.0	70.0	100.0	2.82(.82)
성별		여성	982	2.4	15.0	56.1	26.5	17.4	82.6	100.0	3.07(.71)
		남성	1,034	11.7	30.3	45.9	12.1	42.0	58.0	100.0	2.58(.85)
연령	여성	만19~29세	189	6.3	11.6	49.7	32.3	17.9	82.0	100.0	3.07(.83)
		만30~39세	194	1.0	14.9	55.2	28.9	15.9	84.1	100.0	3.12(.68)
		만40~49세	241	0.4	13.7	62.7	23.2	14.1	85.9	100.0	3.08(.62)
		만50~59세	245	2.9	13.1	60.0	24.1	16.0	84.1	100.0	3.05(.70)
		만60~64세	111	0.9	27.0	46.8	25.2	27.9	72.0	100.0	2.95(.75)
	남성	만19~29세	211	24.6	22.3	38.9	14.2	46.9	53.1	100.0	2.43(1.01)
		만30~39세	210	17.1	30.0	44.8	8.1	47.1	52.9	100.0	2.44(.87)
		만40~49세	250	7.2	39.2	40.8	12.8	46.4	53.6	100.0	2.59(.80)
		만50~59세	250	4.0	31.2	52.4	12.4	35.2	64.8	100.0	2.74(.72)
		만60~64세	112	3.6	24.1	58.9	13.4	27.7	72.3	100.0	2.81(.70)
지역	여성	도시	577	2.3	16.1	56.5	25.1	18.4	81.6	100.0	3.05(.71)
		도농복합·농촌	404	2.7	13.4	55.4	28.5	16.1	83.9	100.0	3.10(.72)
	남성	도시	594	13.0	29.5	45.8	11.8	42.5	57.6	100.0	2.56(.86)
		도농복합·농촌	439	9.8	31.4	46.2	12.5	41.2	58.7	100.0	2.62(.83)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불법 촬영물에 의한 피해의 대상이 될까봐 불안하다’ 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70.6%가 ③ 그렇다 또는 ④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남성은 28.6%가 불안하다고 하였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불법 촬영물에 의한 피해의 대상이 될까 불안하다는 응답이 많았고, 30대 이하에서 ④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남성은 30대 이하에서 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3-88] 불법 촬영물에 의한 피해의 대상이 될까 불안함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그렇지않음	② 그렇지않음	③ 그렇함	④ 매우 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4.6	36.4	37.8	11.2	51.0	49.0	100.0	2.46(.87)
성별		여성	982	3.9	25.5	51.9	18.7	29.4	70.6	100.0	2.85(.76)
		남성	1,034	24.8	46.7	24.5	4.1	71.5	28.6	100.0	2.08(.80)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6.3	14.2	55.3	24.2	20.5	79.5	100.0	2.97(.80)
		만30~39세	195	2.6	22.1	48.7	26.7	24.7	75.4	100.0	2.99(.77)
		만40~49세	242	1.2	30.2	52.9	15.7	31.4	68.6	100.0	2.83(.69)
		만50~59세	244	5.3	26.6	53.3	14.8	31.9	68.1	100.0	2.77(.76)
		만60~64세	111	4.5	36.9	47.7	10.8	41.4	58.5	100.0	2.65(.74)
	남성	만19~29세	211	39.8	33.6	20.4	6.2	73.4	26.6	100.0	1.93(.92)
		만30~39세	211	31.8	37.9	27.0	3.3	69.7	30.3	100.0	2.02(.85)
		만40~49세	249	20.5	50.6	25.3	3.6	71.1	28.9	100.0	2.12(.77)
		만50~59세	249	14.1	57.8	24.1	4.0	71.9	28.1	100.0	2.18(.72)
		만60~64세	113	16.8	54.9	25.7	2.7	71.7	28.4	100.0	2.14(.71)
지역	여성	도시	577	4.2	26.2	53.0	16.6	30.4	69.6	100.0	2.82(.75)
		도농복합·농촌	405	3.5	24.4	50.4	21.7	27.9	72.1	100.0	2.90(.77)
	남성	도시	594	23.4	48.3	25.4	2.9	71.7	28.3	100.0	2.08(.77)
		도농복합·농촌	438	26.7	44.7	23.1	5.5	71.4	28.6	100.0	2.0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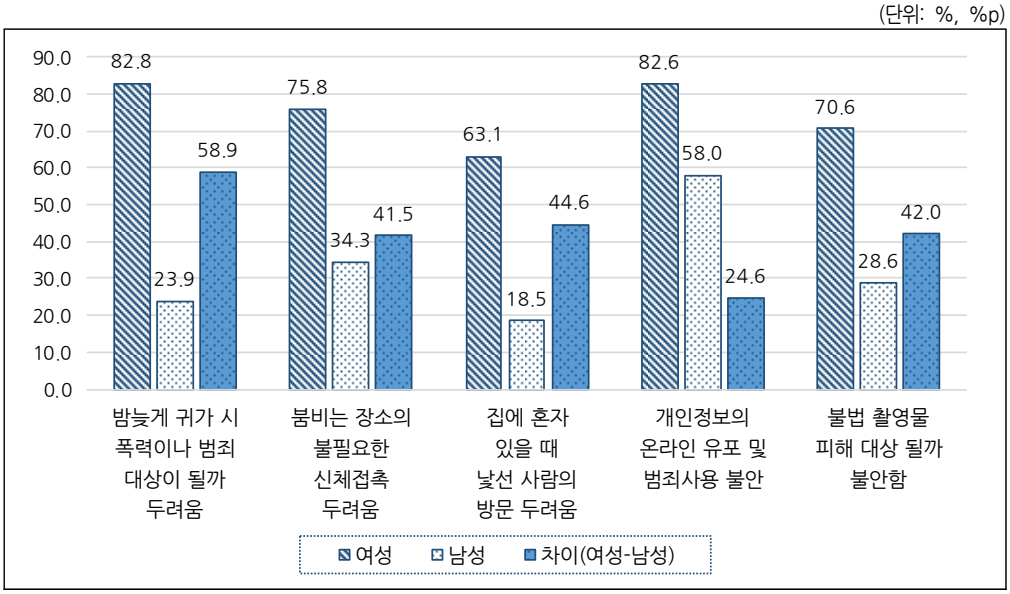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여성들이 폭력 및 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죄에 사용되는 것(82.6%)이었고 밤늦게 귀가 시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82.8%) 또한 높았다. 남성들은 개인정보의 온라인 유포 및 범죄사용만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58.0%였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특히 두려움이나 불안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응답차이가 큰 항목은 밤늦게 귀가할 때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58.9%p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온라인 유포 및 범죄사용 불안을 제외하고는 여성과 남성의 응답 차이가 모두 40%p 이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 보다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34] 폭력 및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단위: %, %p)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그렇함'과 '매우 그러함'의 합계임.

나) 폭력 및 범죄 상황 목격 시 행동

폭력 및 범죄 상황과 관련하여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을 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바로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을 때’, ‘직장, 학교 등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목격했을 때’로 나누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질문하였다.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을 때’에 여성들은 관계기관에 알린다가 48.3%로 가장 많았고, 주위에 알린다 28.5%, 관여하지 않는다가 14.6%였다. 남성들도 관계기관에 알린다가 39.0%, 주위에 알린다가 25.8%, 관여하지 않는다가 18.6% 순이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관계기관에 알린다와 주위에 알린다에 대항 응답은 낮았고 관여하지 않는다와 직접 나서서 말린다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와 관련해서는 여성들(55.0%)이 남성들(44.7%)에 비해 관계기관에 알린다는 응답이 높았고, 남성들은 관여하지 않는다(16.2%)와 직접 나서서 말린다(15.6%)에 대한 응답이 여성(10.8%, 9.3%)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는 관계기관에 달린다는 의견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높았다.

‘바로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을 때’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70.8%, 남성들의 54.6%가 관계기관에 알린다고 응답하였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관여하지 않는다(18.5%), 주위에 알린다(18.3%), 직접 나서서 말린다(8.6%)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관여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이하 및 60대 여성(15.3%)과 30대 이하 남성(20.9%)에서 가장 높았고, 주위에 알린다는 응답은 여성과 남성 모두 60대(여성 18.0%, 남성 24.8%)에서 가장 높았다. 직접 나서서 말린다는 응답은 20대 이하 남성은 16.6%로 여성의 3.2%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 관계기관에 알린다는 응답은 30대 여성(78.4%)과 40대 남성(58.6%)에서 높았다.

‘직장, 학교 등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목격했을 때’는 여성의 41.5%와 남성의 31.8%가 주위에 알린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관계기관에 알린다는 여성의 28.5%, 남성의 24.1%가 응답하였고 직접 나서서 말린다는 여성 15.6%, 남성 22.2%, 관여하지 않는다는 여성 14.4%, 남성 21.9%였다.

연령별로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20대 이하 여성(18.4%)과 30대 남성(30.5%)에서 높았고, 주위에 알린다는 60대 여성(46.4%)과 남성(34.5%)에서 높았다. 직접 나서서 말린다는 40대 여성

(18.6%)과 60대 남성(34.5%)에서 가장 높았으며 관계기관에 알린다는 30대 여성(33.5%)과 20대 이하 남성(27.5%)에서 가장 높았다.

[표 3-89] 폭력 및 범죄 상황에서 행동: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성추행 장면 목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여하지 않음	주위에 알림	직접 나서서 말림	관계기관 (경찰 등)에 알림	계
전체			2,016	16.6	27.1	12.7	43.5	100.0
성별		여성	982	14.6	28.5	8.7	48.3	100.0
		남성	1,034	18.6	25.8	16.6	39.0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10.0	18.9	11.1	60.0	100.0
		만30~39세	194	12.4	27.3	14.4	45.9	100.0
		만40~49세	242	17.4	26.4	6.2	50.0	100.0
		만50~59세	244	16.8	34.4	7.4	41.4	100.0
		만60~64세	112	15.2	38.4	2.7	43.8	100.0
	남성	만19~29세	212	19.8	22.2	21.2	36.8	100.0
		만30~39세	210	23.8	27.1	11.4	37.6	100.0
		만40~49세	250	14.8	28.4	16.4	40.4	100.0
		만50~59세	250	20.0	23.6	16.4	40.0	100.0
		만60~64세	112	12.5	29.5	18.8	39.3	100.0
지역	여성	도시	578	12.3	30.3	8.8	48.6	100.0
		도농복합·농촌	404	17.8	26.0	8.4	47.8	100.0
	남성	도시	595	21.0	26.4	16.6	36.0	100.0
		도농복합·농촌	439	15.5	24.8	16.6	43.1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90] 폭력 및 범죄 상황에서 행동: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장면 목격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여하지 않음	주위에 알림	직접 나서서 말림	관계기관(경찰 등)에 알림	계
전체			2,016	13.5	24.2	12.5	49.7	100.0
성별		여성	982	10.8	24.9	9.3	55.0	100.0
		남성	1,033	16.2	23.5	15.6	44.7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7.9	22.1	9.5	60.5	100.0
		만30~39세	195	6.7	25.1	14.4	53.8	100.0
		만40~49세	242	13.6	19.4	8.3	58.7	100.0
		만50~59세	244	13.5	27.5	8.2	50.8	100.0
		만60~64세	110	10.9	36.4	3.6	49.1	100.0
	남성	만19~29세	211	19.0	20.9	17.1	43.1	100.0
		만30~39세	210	21.4	24.8	12.4	41.4	100.0
		만40~49세	250	12.8	24.0	17.2	46.0	100.0
		만50~59세	250	16.4	22.4	14.4	46.8	100.0
		만60~64세	113	8.0	28.3	17.7	46.0	100.0
지역	여성	도시	578	8.7	27.2	10.4	53.8	100.0
		도농복합·농촌	405	13.8	22.0	7.7	56.5	100.0
	남성	도시	595	18.7	24.4	15.6	41.3	100.0
		도농복합·농촌	438	12.8	22.4	15.5	49.3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91] 폭력 및 범죄 상황에서 행동: 바로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관여하지 않음	주위에 알림	직접 나서서 말림	관계기관 (경찰 등)에 알림	계
전체			2,016	15.9	16.0	5.7	62.5	100.0
성별		여성	983	13.1	13.5	2.5	70.8	100.0
		남성	1,034	18.5	18.3	8.6	54.6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15.3	10.0	3.2	71.6	100.0
		만30~39세	194	8.8	10.3	2.6	78.4	100.0
		만40~49세	241	12.4	13.3	1.7	72.6	100.0
		만50~59세	245	14.7	16.7	2.9	65.7	100.0
		만60~64세	111	15.3	18.0	1.8	64.9	100.0
	남성	만19~29세	211	20.9	12.3	16.6	50.2	100.0
		만30~39세	211	20.9	19.4	6.6	53.1	100.0
		만40~49세	251	15.5	18.7	7.2	58.6	100.0
		만50~59세	249	18.1	18.9	6.4	56.6	100.0
		만60~64세	113	16.8	24.8	5.3	53.1	100.0
지역	여성	도시	577	11.1	14.0	2.6	72.3	100.0
		도농복합·농촌	405	16.0	12.6	2.5	68.9	100.0
	남성	도시	595	19.3	20.3	7.9	52.4	100.0
		도농복합·농촌	440	17.5	15.5	9.5	57.5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92] 폭력 및 범죄 상황에서 행동: 직장, 학교 등에서 성적 불쾌감 일으키는 말과 행동 목격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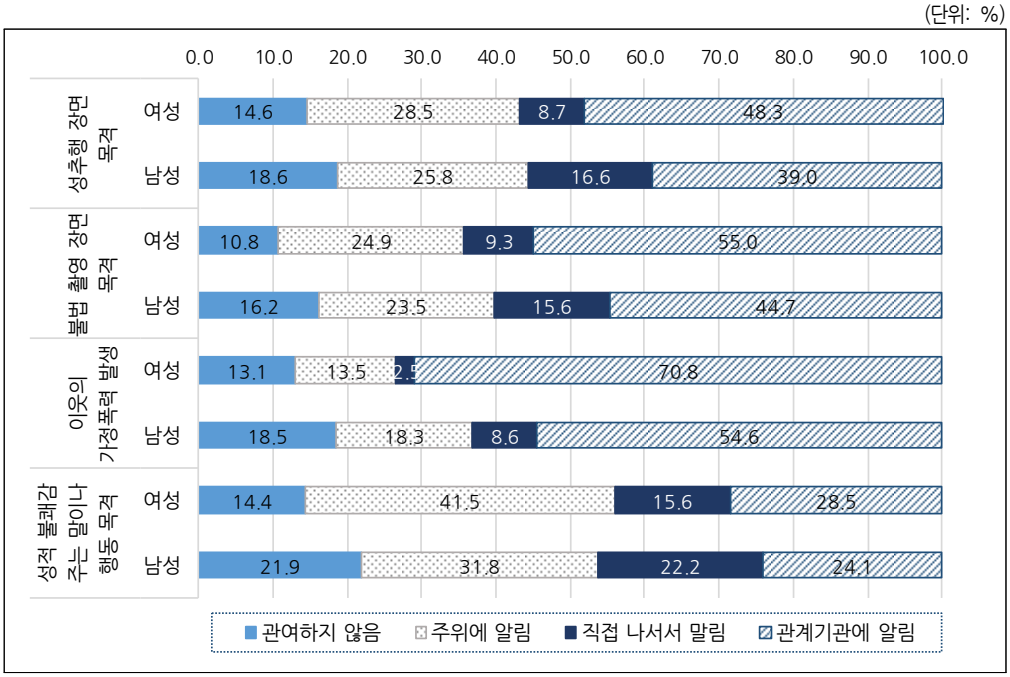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관여하지 않음	주위에 알림	직접 나서서 말림	관계기관(경찰 등)에 알림	계
전체			2,016	18.2	36.6	18.9	26.3	100.0
성별		여성	982	14.4	41.5	15.6	28.5	100.0
		남성	1,033	21.9	31.8	22.2	24.1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18.4	38.4	15.8	27.4	100.0
		만30~39세	194	9.3	43.8	13.4	33.5	100.0
		만40~49세	242	11.2	38.0	18.6	32.2	100.0
		만50~59세	244	17.6	43.4	15.6	23.4	100.0
		만60~64세	112	16.1	46.4	12.5	25.0	100.0
	남성	만19~29세	211	26.1	24.6	21.8	27.5	100.0
		만30~39세	210	30.5	32.4	15.2	21.9	100.0
		만40~49세	250	18.8	34.4	20.0	26.8	100.0
		만50~59세	251	19.1	33.5	25.1	22.3	100.0
		만60~64세	113	11.5	34.5	34.5	19.5	100.0
지역	여성	도시	578	13.1	43.8	15.9	27.2	100.0
		도농복합·농촌	405	16.0	38.3	15.1	30.6	100.0
	남성	도시	595	26.1	30.9	20.2	22.9	100.0
		도농복합·농촌	439	16.2	33.0	24.8	26.0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을 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바로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을 때’와 관련해서는 남녀 모두 관계기관에 알린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해당 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특히 이웃에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을 때 여성의 2/3 이상(70.8%)이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을 선택하였다. 남성들의 경우는 모든 문항에서 관여하지 않는다와 직접 나서서 말린다를 많이 선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또는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성추행이나 불법촬영, 가정폭력과 달리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목격했을 때는 관계기관에 알리기보다는 주위에 알린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법적인 처벌보다는 해당 문제를 직장이나 학교 등 조직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다.

[그림 3-35] 폭력 및 범죄 상황에서의 행동

(단위: %)



바. 성평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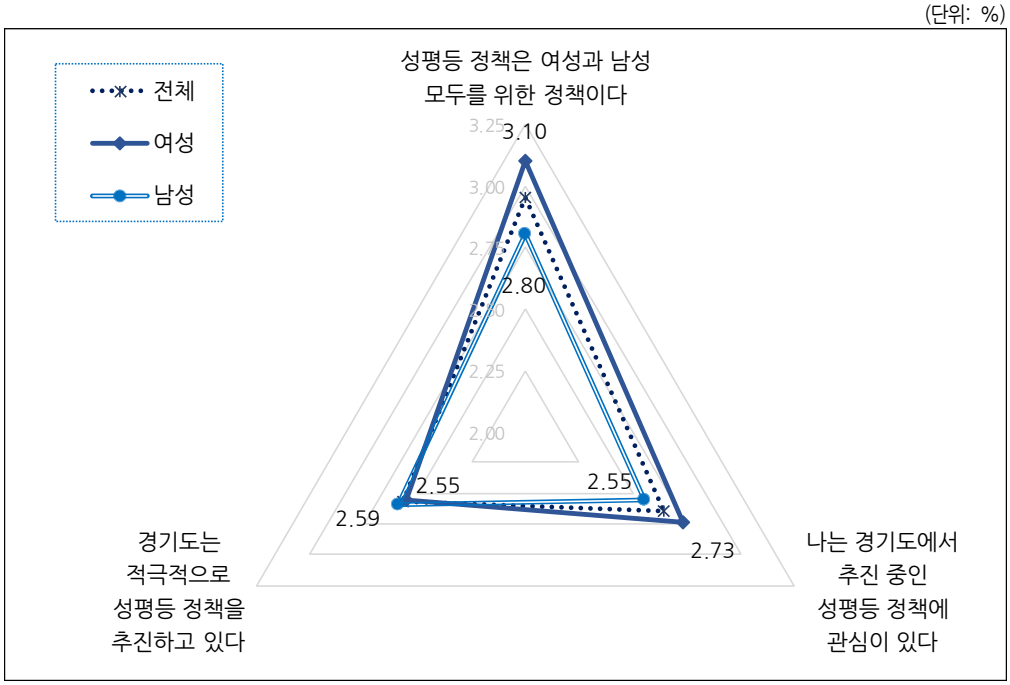
1)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을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나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의 3문항으로 질문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성평등 정책에 동의하거나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약간 더 동의하고 있었다.

[그림 3-36]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단위: %)



주: '전혀 그렇지 않음=1' ~ '매우 그러함=4'의 평균임.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 이라는 데 여성의 85.6%, 남성의 70.4%가 동의(매우 그렇다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① 전혀 그렇지 않다와 ② 그렇지 않다가 10.0%와 19.6%로 여성의 1.6%와 12.7%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었고, 20대 이하가 90.9%로 그렇다(매우 그렇다 포함)는 응답과 평균(3.22점) 모두 가장 높았다. ④ 매우 그렇다는 의견 역시 20대 이하에서 31.2%로 가장 높았으며, 20대 이하에서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없었다.

남성들은 연령별로 응답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40대 이하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0% 선이었으나 50대는 80.2%, 60대는 90.5%로 매우 높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에서 해당 문항에 동의하는 비율이 여성 80.5%, 남성 61.2%로 가장 낮았고, 평균도 여성 30.3점, 남성 2.61점으로 낮았다.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성평등 수용의 응답과 유사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 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의 65.5%와 남성의 56.6%가 ③ 그렇다 또는 ④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①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10.6%)이 여성(3.1%)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6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여성 75.9%, 남성 75.2%), 평균도 여성 2.88점, 남성 2.84점으로 성별 연령 중 가장 높았다. 여성과 남성 모두 30대 이하에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 없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해당 연령대에서 여성은 관심이 없다는 응답이 40% 내외, 남성은 50% 이상이었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은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3]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5.9	16.3	55.0	22.8	22.2	77.8	100.0	2.95(.79)
성별		여성	982	1.6	12.7	59.4	26.2	14.4	85.6	100.0	3.10(.67)
		남성	1,034	10.0	19.6	50.9	19.5	29.6	70.4	100.0	2.80(.87)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	9.0	59.8	31.2	9.1	90.9	100.0	3.22(.60)
		만30~39세	194	3.1	16.1	54.9	25.9	19.5	80.5	100.0	3.03(.74)
		만40~49세	241	1.7	14.5	60.7	23.1	16.1	83.9	100.0	3.05(.67)
		만50~59세	245	1.2	11.4	61.2	26.1	12.8	87.2	100.0	3.12(.64)
		만60~64세	111	2.7	11.6	60.7	25.0	14.3	85.7	100.0	3.08(.68)
	남성	만19~29세	211	17.1	19.5	42.9	20.5	36.7	63.3	100.0	2.67(.99)
		만30~39세	211	14.7	24.2	46.9	14.2	38.8	61.2	100.0	2.61(.91)
		만40~49세	250	9.2	25.3	49.4	16.1	34.7	65.3	100.0	2.72(.84)
		만50~59세	250	4.8	14.8	56.0	24.4	19.8	80.2	100.0	2.99(.77)
		만60~64세	113	0.9	8.8	66.4	23.9	9.5	90.5	100.0	3.14(.58)
지역	여성	도시	578	1.4	13.0	60.0	25.6	14.5	85.5	100.0	3.10(.66)
		도농복합·농촌	404	2.0	12.2	58.8	27.0	14.3	85.7	100.0	3.11(.68)
	남성	도시	595	11.1	20.7	51.1	17.1	31.8	68.2	100.0	2.74(.87)
		도농복합·농촌	439	8.4	18.0	50.8	22.8	26.6	73.4	100.0	2.88(.86)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2.1	10.4	56.8	30.6	12.5	87.4	100.0	3.16(.68)
		자녀 있음	550	1.3	14.5	61.5	22.7	15.8	84.2	100.0	3.05(.65)
	남성	자녀 없음	491	16.1	22.2	45.2	16.5	38.3	61.7	100.0	2.62(.94)
		자녀 있음	541	4.4	17.2	56.2	22.2	21.6	78.4	100.0	2.96(.76)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94]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나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6.9	32.1	51.1	9.8	39.0	60.9	100.0	2.64(.75)
성별		여성	982	3.1	31.5	55.1	10.4	34.6	65.5	100.0	2.73(.68)
		남성	1,034	10.6	32.8	47.4	9.2	43.4	56.6	100.0	2.55(.80)
연령	여성	만19~29세	189	3.7	36.0	50.8	9.5	39.7	60.3	100.0	2.66(.71)
		만30~39세	194	5.7	35.1	49.5	9.8	40.8	59.3	100.0	2.63(.74)
		만40~49세	242	2.1	31.8	57.0	9.1	33.9	66.1	100.0	2.73(.65)
		만50~59세	245	2.0	28.2	58.0	11.8	30.2	69.8	100.0	2.80(.67)
		만60~64세	112	0.9	23.2	63.4	12.5	24.1	75.9	100.0	2.88(.61)
	남성	만19~29세	212	19.3	31.1	36.8	12.7	50.4	49.5	100.0	2.43(.94)
		만30~39세	211	13.3	37.4	43.1	6.2	50.7	49.3	100.0	2.42(.80)
		만40~49세	250	8.4	34.4	48.8	8.4	42.8	57.2	100.0	2.57(.76)
		만50~59세	250	6.4	34.0	51.6	8.0	40.4	59.6	100.0	2.61(.73)
		만60~64세	113	3.5	21.2	61.9	13.3	24.7	75.2	100.0	2.84(.69)
지역	여성	도시	579	3.6	29.5	55.8	11.1	33.1	66.9	100.0	2.74(.70)
		도농복합·농촌	405	2.2	34.1	54.1	9.6	36.3	63.7	100.0	2.71(.67)
	남성	도시	594	11.4	32.2	47.6	8.8	43.6	56.4	100.0	2.54(.81)
		도농복합·농촌	440	9.5	33.6	47.0	9.8	43.1	56.8	100.0	2.57(.79)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3.7	34.8	52.2	9.3	38.5	61.5	100.0	2.67(.69)
		자녀 있음	551	2.5	28.7	57.4	11.4	31.2	68.8	100.0	2.78(.67)
	남성	자녀 없음	493	16.6	34.1	40.2	9.1	50.7	49.3	100.0	2.42(.87)
		자녀 있음	543	5.3	31.7	53.8	9.2	37.0	63.0	100.0	2.67(.71)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는 문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고 있었다. 남성의 41.2% 여성의 32.2%가 ③ 그렇다 또는 ④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여성이 39.9%, 남성이 29.4%였다. 여성들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모르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남성들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20대 이하에서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이 47.7%로 가장 높았으며, 30대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았다. 남성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50대에서 35.2%로 가장 높았고,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한다는 응답은 60대에서 58.0%로 가장 높았으며, 부정적인 응답은 30대가 38.0%로 가장 높았다.

자녀유무별로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것이 연령효과인지, 자녀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

또한 성평등 정책에 대한 동의 및 관심과 적극적 정책추진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성평등의식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60대 집단에서 동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패널조사에 참여하는 60대가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높은 집단인지 또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의한 응답결과인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 및 논의가 필요하다.

[표 3-95]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그러함	④ 매우 그러함	잘 모르겠다	①+②	③+④	계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4.8	23.8	31.3	5.5	34.5	28.6	36.8	100.0	2.57(.75)
성별		여성	982	3.8	24.1	27.6	4.6	39.9	27.9	32.2	100.0	2.55(.73)
		남성	1,034	5.8	23.6	34.8	6.4	29.4	29.4	41.2	100.0	2.59(.77)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3.2	26.8	17.4	4.7	47.9	30.0	22.1	100.0	2.45(.74)
		만30~39세	195	8.7	26.7	21.0	4.1	39.5	35.4	25.1	100.0	2.35(.80)
		만40~49세	242	3.7	30.2	28.1	3.7	34.3	33.9	31.8	100.0	2.48(.68)
		만50~59세	246	1.6	18.7	33.3	5.7	40.7	20.3	39.0	100.0	2.72(.67)
		만60~64세	111	1.8	13.5	42.3	5.4	36.9	15.3	47.7	100.0	2.83(.62)
	남성	만19~29세	211	8.1	23.7	31.8	6.2	30.3	31.8	38.0	100.0	2.52(.82)
		만30~39세	211	10.0	28.0	28.4	7.6	26.1	38.0	36.0	100.0	2.46(.85)
		만40~49세	249	4.8	25.7	33.3	6.4	29.7	30.5	39.7	100.0	2.59(.75)
		만50~59세	250	3.2	19.6	36.8	5.2	35.2	22.8	42.0	100.0	2.68(.69)
		만60~64세	112	1.8	18.8	50.9	7.1	21.4	20.6	58.0	100.0	2.79(.63)
지역	여성	도시	578	2.8	24.9	27.9	4.2	40.3	27.7	32.1	100.0	2.56(.69)
		도농복합·농촌	404	5.2	23.0	27.2	5.2	39.4	28.2	32.4	100.0	2.54(.77)
	남성	도시	595	6.4	25.2	32.6	6.2	29.6	31.6	38.8	100.0	2.55(.78)
		도농복합·농촌	439	5.0	21.4	37.6	6.6	29.4	26.4	44.2	100.0	2.65(.75)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4.9	25.8	19.7	3.2	46.4	30.7	22.9	100.0	2.40(.74)
		자녀 있음	551	3.1	22.9	33.6	5.6	34.8	26.0	39.2	100.0	2.64(.70)
	남성	자녀 없음	492	9.1	24.4	29.7	6.1	30.7	33.5	35.8	100.0	2.47(.83)
		자녀 있음	542	2.8	22.7	39.5	6.8	28.2	25.5	46.3	100.0	2.70(.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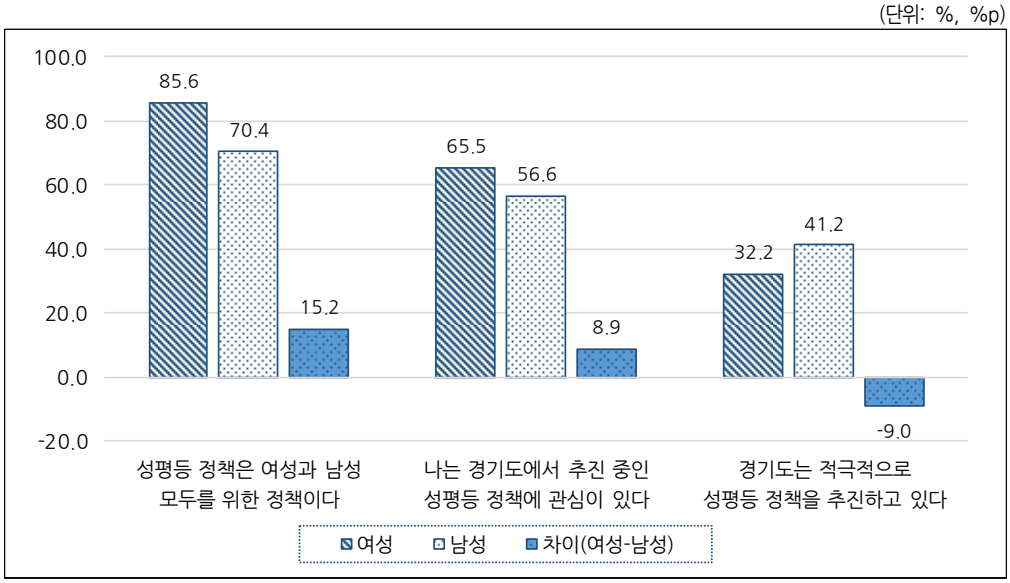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응답자들은 대체로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었으나 정책에 대한 관심은 정책에 대한 동의 보다는 낮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남성들이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모두가 여성에 비해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에 비해서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성평등 의식이 낮고, 성평등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욕구도 적어서 오히려 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여성에 비해 호의적일 수도 있다.

[그림 3-37]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성별 차이)

(단위: %, %p)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그러함'과 '매우 그러함'의 합계임.

2)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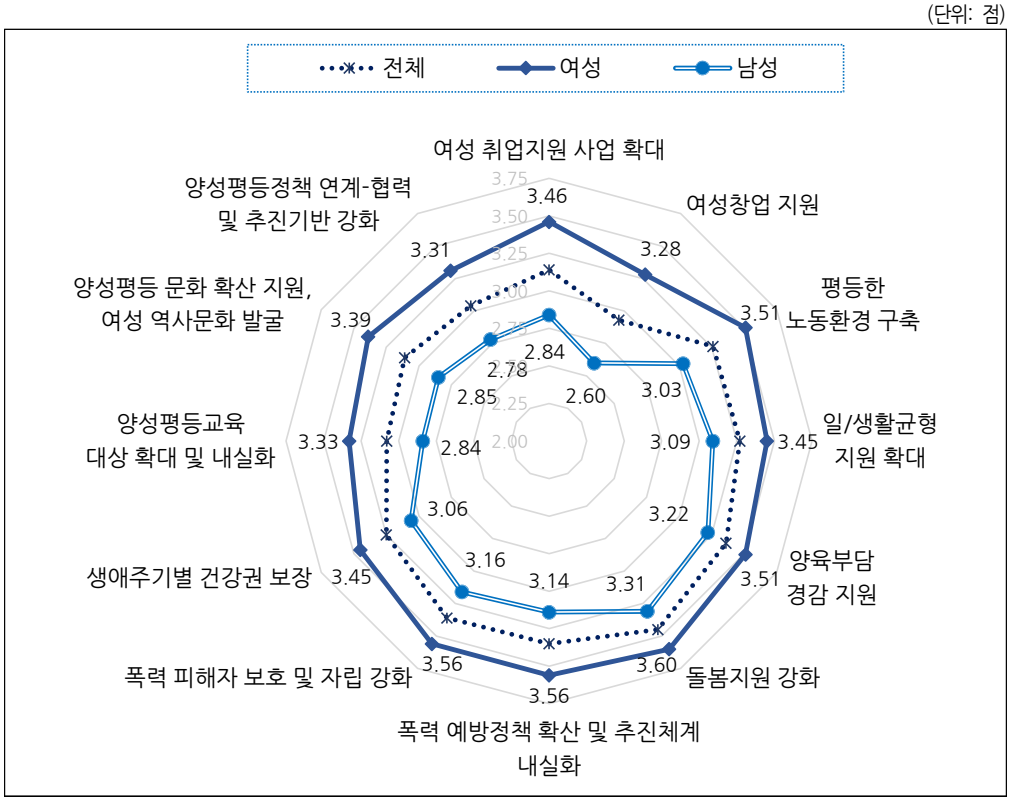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정책별 중요도를 질문하였다.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 '여성창업 지원',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양육부담 경감 지원’, ‘돌봄지원 강화’, ‘폭력 예방정책 확산 및 추진체계 내실화’,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및 여성 역사문화유산 지속 발굴 등’, ‘양성평등 정책 연계-협력 및 추진기반 강화’에 대해 정책 추진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서는 ①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② 동의하지 않는다, ③ 동의한다, ④ 매우 동의한다로 응답하게 하였다. 평균이 높을수록 해당 정책이 중요성이 높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책별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지원 강화 정책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여성 창업지원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

[그림 3-38]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

(단위: 점)



주: ‘전혀 중요하지 않음=1’ ~ ‘매우 중요함=4’의 평균임.

‘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 ‘여성창업 지원’,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과 관련하여 해당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여성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표 3-96]).

여성은 ‘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에서 해당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모든 연령대에서 90% 이상이었고 평균의 차이 또한 크지 않았다. ‘여성창업 지원’에 있어서는 30대 이하보다 40대 이상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높았고 평균도 높게 나타났다. 남성은 60대가 해당 정책들이 중요하다는 응답과 평균 모두가 가장 높았다. ‘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 ‘여성창업 지원’은 중요하다는 응답이 20대 이하에서 58.3%와 40.3%로 가장 낮았으며,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은 30대에서 74.9%로 가장 낮았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는 자녀유무에 따른 응답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고, ‘여성 창업지원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다. 남성의 경우는 세 정책 모두에서 일관되게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양육부담 경감 지원’, ‘돌봄지원 강화’ 역시 여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평균 모두 남성에 비해 높았다([표 3-97]). 여성은 세 분야 모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고, 돌봄지원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95.5%)과 평균(3.60점)이 가장 높았다. 남성도 돌봄지원 강화가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88.2%, 3.31점) 여성에 비해서는 낮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양육부담 경감 지원에 있어서는 20대 이하가 평균이 가장 높았고(3.59점, 3.61점), 중요하다는 응답은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는 30대(96.9%), 양육부담 경감 지원은 40대(95.9%)에서 가장 많았다. 돌봄지원 강화는 60대가 평균 및 중요하다는 응답 모두에서 가장 높았다(3.65점, 98.2%). 그러나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는 60대를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양육부담 경감지원 및 돌봄지원 강화는 모든 연령에서 중요도를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연령별 중요도 인식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남성은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는 30대에서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82.9%), 양육부담 경감지원과 돌봄지원 강화는 50대(90.4%, 92.0%)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남성은 대체로 해당 정책들에 있어서 20대 이하의 중요도 인식이 낮은 편이었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와 양육부담 경감 지원은 자녀가 없는 사람이(95.8%, 94.9%), 돌봄지원 강화는 자녀가 있는 경우(96.2%)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으

나 평균은 모두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높게 나타났다. 남성들은 역시 세 정책 모두에 있어서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평균 모두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3-96]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1)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			여성창업 지원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①+② 중요하지않음	③+④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①+② 중요하지않음	③+④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①+② 중요하지않음	③+④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6.3	83.7	3.14(.80)	25.5	74.5	2.93(.86)	12.2	87.8	3.26(.74)
성별		여성	983	5.8	94.2	3.46(.62)	10.9	89.1	3.28(.68)	5.2	94.8	3.51(.61)
		남성	1,034	26.3	73.7	2.84(.84)	39.5	60.5	2.60(.88)	18.8	81.2	3.03(.78)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7.4	92.6	3.42(.63)	16.8	83.2	3.22(.74)	2.6	97.4	3.63(.54)
		만30~39세	194	4.1	95.9	3.47(.60)	17.0	83.0	3.14(.76)	4.1	95.9	3.55(.64)
		만40~49세	241	5.8	94.2	3.45(.64)	7.1	92.9	3.30(.62)	5.8	94.2	3.42(.60)
		만50~59세	245	6.1	93.9	3.49(.61)	7.8	92.2	3.38(.62)	6.9	93.1	3.51(.63)
		만60~64세	112	5.4	94.6	3.49(.60)	5.4	94.6	3.36(.62)	5.5	94.5	3.46(.61)
	남성	만19~29세	211	41.7	58.3	2.53(.94)	59.7	40.3	2.19(.98)	20.9	79.1	2.97(.89)
		만30~39세	210	36.7	63.3	2.63(.90)	46.9	53.1	2.41(.96)	25.1	74.9	2.94(.81)
		만40~49세	250	21.6	78.4	2.99(.78)	38.8	61.2	2.73(.83)	22.0	78.0	2.99(.78)
		만50~59세	250	16.8	83.2	3.02(.72)	26.8	73.2	2.83(.70)	12.9	87.1	3.11(.69)
		만60~64세	113	9.7	90.3	3.12(.56)	16.8	83.2	2.98(.61)	8.0	92.0	3.20(.59)
지역	여성	도시	578	5.5	94.5	3.46(.61)	10.9	89.1	3.27(.67)	5.2	94.8	3.52(.60)
		도농복합·농촌	404	5.9	94.1	3.46(.63)	10.6	89.4	3.29(.69)	5.4	94.6	3.50(.62)
	남성	도시	594	28.5	71.5	2.79(.84)	41.0	59.0	2.54(.89)	19.5	80.5	2.99(.78)
		도농복합·농촌	439	23.5	76.5	2.92(.84)	37.3	62.7	2.69(.87)	17.8	82.2	3.09(.77)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5.6	94.4	3.48(.61)	14.8	85.2	3.22(.74)	3.0	97.0	3.60(.57)
		자녀 있음	551	5.8	94.2	3.44(.62)	7.8	92.2	3.33(.63)	6.9	93.1	3.44(.63)
	남성	자녀 없음	492	37.0	63.0	2.62(.92)	52.1	47.9	2.33(.95)	24.4	75.6	2.91(.84)
		자녀 있음	542	16.5	83.5	3.05(.70)	28.0	72.0	2.85(.73)	13.8	86.2	3.14(.70)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중요하지 않음=1' ~ '매우 중요함=4'의 평균임.

[표 3-97]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2)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양육부담 경감 지원			돌봄지원 강화		
				①+② 중요하지않음	③+④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①+② 중요하지않음	③+④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①+② 중요하지않음	③+④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3.1	86.9	3.27(.73)	9.6	90.4	3.36(.70)	8.2	91.8	3.45(.70)
성별		여성	982	6.9	93.1	3.45(.63)	5.3	94.7	3.51(.62)	4.5	95.5	3.60(.60)
		남성	1,034	19.0	81.0	3.09(.77)	13.7	86.3	3.22(.75)	11.8	88.2	3.31(.77)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4.2	95.8	3.59(.57)	5.8	94.2	3.61(.64)	4.2	95.8	3.64(.59)
		만30~39세	194	3.1	96.9	3.51(.60)	5.6	94.4	3.55(.62)	5.2	94.8	3.63(.62)
		만40~49세	241	6.6	93.4	3.44(.62)	4.1	95.9	3.49(.61)	5.0	95.0	3.57(.61)
		만50~59세	245	9.4	90.6	3.40(.66)	6.1	93.9	3.44(.62)	4.5	95.5	3.55(.59)
		만60~64세	112	14.3	85.7	3.26(.69)	4.5	95.5	3.51(.60)	1.8	98.2	3.65(.52)
	남성	만19~29세	211	25.6	74.4	2.98(.87)	18.1	81.9	3.16(.85)	16.2	83.8	3.26(.86)
		만30~39세	210	17.1	82.9	3.14(.74)	13.7	86.3	3.22(.77)	15.7	84.3	3.25(.84)
		만40~49세	250	17.2	82.8	3.10(.76)	15.6	84.4	3.23(.73)	10.0	90.0	3.34(.74)
		만50~59세	250	18.4	81.6	3.13(.77)	9.6	90.4	3.26(.70)	8.0	92.0	3.36(.69)
		만60~64세	113	14.2	85.8	3.09(.61)	10.6	89.4	3.20(.64)	8.8	91.2	3.35(.64)
지역	여성	도시	578	6.4	93.6	3.47(.62)	4.3	95.7	3.53(.61)	4.2	95.8	3.61(.60)
		도농복합·농촌	404	7.4	92.6	3.42(.64)	6.9	93.1	3.49(.64)	4.7	95.3	3.59(.60)
	남성	도시	595	20.2	79.8	3.05(.76)	13.9	86.1	3.19(.75)	11.3	88.7	3.28(.75)
		도농복합·농촌	439	17.3	82.7	3.15(.78)	13.7	86.3	3.26(.75)	12.5	87.5	3.34(.79)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4.2	95.8	3.53(.59)	5.1	94.9	3.57(.63)	5.1	94.9	3.63(.61)
		자녀 있음	551	9.1	90.9	3.39(.65)	5.3	94.7	3.47(.62)	3.8	96.2	3.58(.59)
	남성	자녀 없음	492	24.0	76.0	3.01(.84)	17.0	83.0	3.16(.81)	15.2	84.8	3.24(.84)
		자녀 있음	542	14.4	85.6	3.16(.69)	10.9	89.1	3.27(.68)	8.9	91.1	3.38(.69)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전혀 중요하지 않음=1' ~ '매우 중요함=4'의 평균임.

‘폭력 예방정책 확산 및 추진체계 내실화’,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또한 여성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과 평균 모두 남성에 비해 높았다([표 3-98]). 여성은 세 분야 모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은 동의율을 나타내었고 남성들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82~83% 정도였다.

폭력 예방정책 확산 및 추진체계 내실화는 60대(98.2%),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강화는 50대(97.1%),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은 40대(96.7%)에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평균은 20대 이하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3.61점, 3.67점, 3.50점). 그러나 여성들은 모든 연령별로 전체적으로 해당 정책들에 대한 중요성을 매우 높이 인식하고 있어 연령 간 정책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다. 남성들은 이들 세 정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모두 6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94.6%, 92.9%, 90.2%), 30대 이하에서 낮게 나타났다.

자녀유무에 있어서도 여성은 자녀 유무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매우 작았으나,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 비해 해당 정책들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및 여성 역사문화유산 지속 발굴 등’, ‘양성평등 정책 연계-협력 및 추진기반 강화’ 역시 여성들의 응답이 남성들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표 3-99]).

연령별로는 여성들은 다른 정책영역들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20대 이하에서 정책들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성들은 60대가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30대 이하의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도 남성들에 있어서 자녀유무에 따른 응답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정책의 중요도를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표 3-98]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3)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폭력 예방정책 확산 및 추진체계 내실화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강화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①+② 중요하지않음	③+④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①+② 중요하지않음	③+④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①+② 중요하지않음	③+④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0.5	89.5	3.35(.72)	9.9	90.1	3.36(.73)	11.0	89.0	3.25(.72)
성별		여성	983	3.5	96.5	3.56(.57)	3.4	96.6	3.56(.57)	4.8	95.2	3.45(.61)
		남성	1,034	17.1	82.9	3.14(.79)	16.2	83.8	3.16(.81)	16.9	83.1	3.06(.77)
연령	여성	만19~29세	190	4.2	95.8	3.61(.57)	3.7	96.3	3.67(.54)	6.3	93.7	3.50(.64)
		만30~39세	195	5.1	94.9	3.49(.62)	4.6	95.4	3.51(.63)	4.1	95.9	3.45(.62)
		만40~49세	241	3.3	96.7	3.54(.60)	3.3	96.7	3.53(.57)	3.3	96.7	3.47(.60)
		만50~59세	246	2.0	98.0	3.58(.53)	2.9	97.1	3.56(.55)	5.7	94.3	3.39(.60)
		만60~64세	111	1.8	98.2	3.60(.53)	3.6	96.4	3.53(.56)	4.5	95.5	3.50(.58)
	남성	만19~29세	210	24.8	75.2	2.95(.90)	20.4	79.6	3.06(.94)	21.3	78.7	2.89(.88)
		만30~39세	210	22.4	77.6	3.02(.82)	26.1	73.9	2.95(.91)	24.2	75.8	2.91(.87)
		만40~49세	250	16.0	84.0	3.19(.74)	15.6	84.4	3.17(.75)	15.5	84.5	3.14(.71)
		만50~59세	250	12.0	88.0	3.30(.73)	8.4	91.6	3.35(.70)	12.0	88.0	3.17(.66)
		만60~64세	112	5.4	94.6	3.29(.61)	7.1	92.9	3.30(.60)	9.8	90.2	3.21(.61)
지역	여성	도시	578	3.1	96.9	3.57(.57)	2.9	97.1	3.58(.56)	4.8	95.2	3.43(.60)
		도농복합·농촌	405	4.0	96.0	3.55(.58)	4.0	96.0	3.53(.59)	4.7	95.3	3.48(.62)
	남성	도시	595	18.5	81.5	3.10(.78)	17.5	82.5	3.10(.80)	16.6	83.4	3.02(.73)
		도농복합·농촌	440	15.5	84.5	3.20(.79)	14.3	85.7	3.25(.83)	17.5	82.5	3.11(.82)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3.7	96.3	3.59(.58)	3.5	96.5	3.62(.57)	4.6	95.4	3.48(.60)
		자녀 있음	551	2.9	97.1	3.54(.57)	3.4	96.6	3.51(.57)	4.9	95.1	3.43(.61)
	남성	자녀 없음	492	24.4	75.6	2.99(.86)	23.5	76.5	3.01(.90)	22.4	77.6	2.90(.83)
		자녀 있음	542	10.5	89.5	3.29(.69)	9.4	90.6	3.30(.70)	12.0	88.0	3.19(.68)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99]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4)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지원, 여성 역사문화유산 지속 발굴			양성평등 정책 연계 - 협력 및 추진기반 강화		
				①+② 중요하지않음	③+④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①+② 중요하지않음	③+④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①+② 중요하지않음	③+④ 중요함	평균 (표준편차)
전체			2,016	19.2	80.8	3.08(.82)	17.5	82.5	3.11(.82)	20.3	79.7	3.04(.84)
성별		여성	982	10.1	89.9	3.33(.69)	7.2	92.8	3.39(.65)	9.7	90.3	3.31(.68)
		남성	1,034	27.9	72.1	2.84(.85)	27.3	72.7	2.85(.87)	30.5	69.5	2.78(.89)
연령	여성	만19~29세	189	6.3	93.7	3.47(.68)	5.2	94.8	3.50(.67)	8.4	91.6	3.41(.67)
		만30~39세	194	12.9	87.1	3.29(.73)	6.7	93.3	3.42(.66)	10.8	89.2	3.29(.71)
		만40~49세	242	10.7	89.3	3.31(.70)	7.9	92.1	3.36(.64)	10.0	90.0	3.27(.68)
		만50~59세	245	9.8	90.2	3.32(.67)	6.5	93.5	3.36(.62)	8.2	91.8	3.33(.65)
		만60~64세	111	9.0	91.0	3.22(.63)	10.7	89.3	3.29(.67)	11.7	88.3	3.23(.67)
	남성	만19~29세	211	38.4	61.6	2.64(1.01)	37.4	62.6	2.64(1.01)	39.5	60.5	2.61(1.02)
		만30~39세	211	37.4	62.6	2.65(.94)	37.6	62.4	2.67(.93)	41.0	59.0	2.60(.97)
		만40~49세	250	27.2	72.8	2.92(.83)	24.5	75.5	2.95(.84)	26.0	74.0	2.88(.86)
		만50~59세	250	19.2	80.8	2.97(.68)	19.6	80.4	2.99(.73)	23.3	76.7	2.88(.75)
		만60~64세	113	10.6	89.4	3.08(.56)	13.3	86.7	3.08(.64)	19.5	80.5	2.98(.68)
지역	여성	도시	578	9.2	90.8	3.32(.68)	6.1	93.9	3.40(.65)	8.7	91.3	3.31(.66)
		도농복합·농촌	404	11.4	88.6	3.33(.71)	8.9	91.1	3.37(.66)	11.1	88.9	3.31(.70)
	남성	도시	595	29.4	70.6	2.78(.83)	29.0	71.0	2.79(.87)	32.3	67.7	2.72(.90)
		도농복합·농촌	439	25.7	74.3	2.92(.88)	25.1	74.9	2.94(.86)	28.0	72.0	2.86(.87)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8.6	91.4	3.39(.69)	5.8	94.2	3.45(.66)	10.2	89.8	3.34(.71)
		자녀 있음	551	11.2	88.8	3.28(.69)	8.3	91.7	3.34(.65)	9.4	90.6	3.28(.65)
	남성	자녀 없음	492	37.4	62.6	2.65(.95)	36.9	63.1	2.66(.96)	40.7	59.3	2.57(.98)
		자녀 있음	542	19.2	80.8	3.01(.71)	18.6	81.4	3.03(.74)	21.2	78.8	2.97(.76)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여성들은 모든 정책 이슈들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정책들의 중요성을 보다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를 제외한 모든 정책들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고,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 또한 중요하다는 응답이 89.9%로 거의 90%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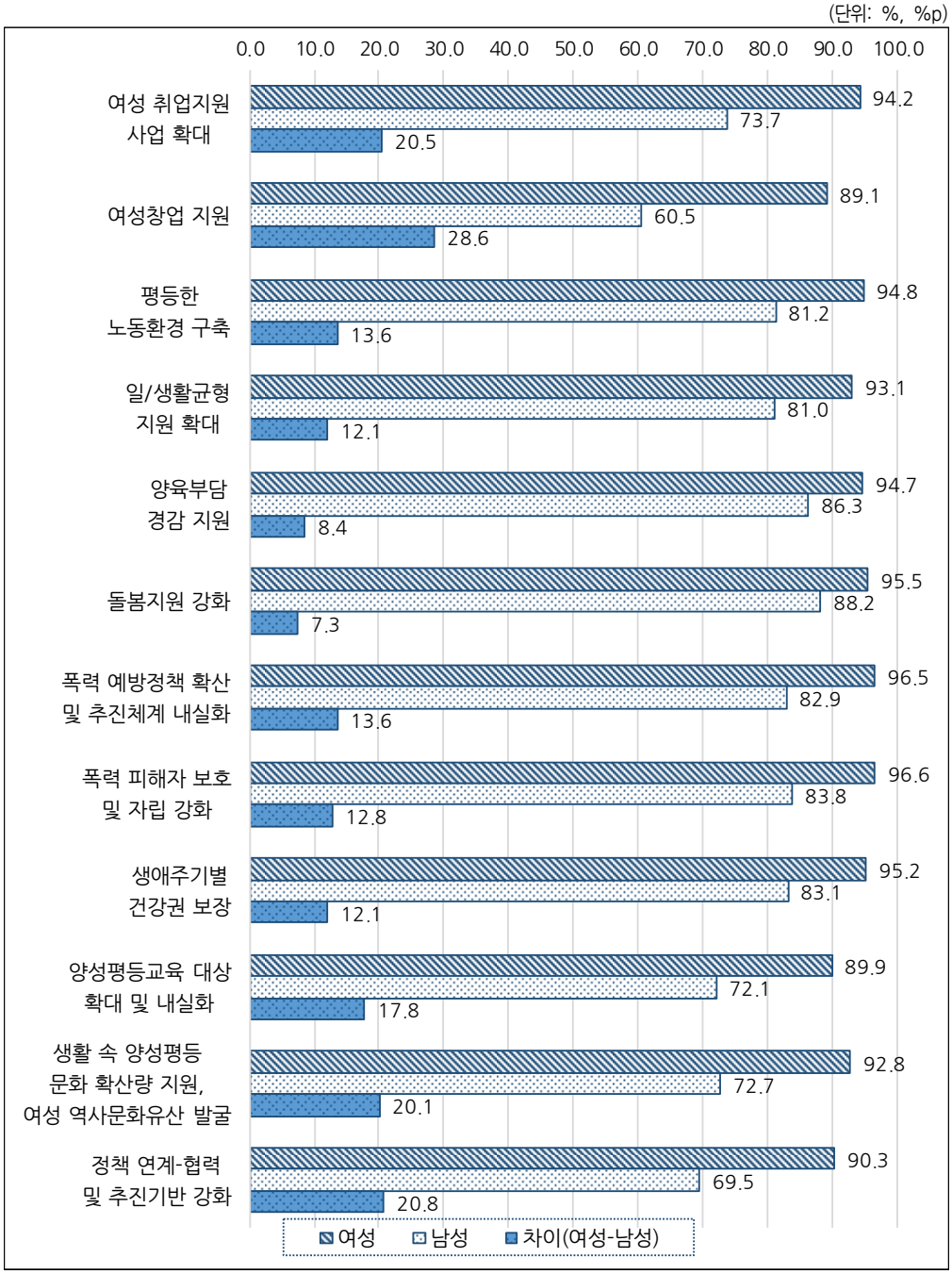
반면 남성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정책 분야는 돌봄지원 강화로 88.2%였고, 중요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았던 정책은 여성창업지원으로 60.5%였다.

여성과 남성의 정책별 중요도에 대한 응답에서 차이가 가장 많았던 것은 여성창업 지원으로 여성과 남성 간에 28.6%p의 응답 차이가 나타났고, 양성평등 정책 연계-협력 및 추진기반 강화는 20.8%p, 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는 20.5%p의 차이가 나타났다. 반면 성별 응답의 차이가 적었던 항목은 돌봄지원 강화(7.3%p)와 양육부담 경감 지원(8.4%p)이었다.

여성들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들이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남성들은 여성 일자리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이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책추진기반 강화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지 않아서 성별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자녀양육 및 돌봄, 안전과 건강권 등과 관련해서는 남성들도 정책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여 정책의 중요도에 있어서 성별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3-39]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정책별 중요도(성별 차이)

(단위: %, %p)



주: 여성과 남성의 비율은 '중요함'과 '매우 중요함'의 합계임.

3)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응답자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임신,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하 여성의 경력단절'(34.0%)이었고,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34.0%), '여성에 대한 폭력'(13.8%),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12.1%),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8.5%), '학교교육, 활동 등에서 성별고정관념'(6.5%), '인터넷 개인방송, 뮤직비디오, AI 등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4.3%), '주요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낮은 참여 기회'(3.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여성의 경력단절(36.3%), 고용상 성차별(14.3%), 여성 폭력(14.3%) 등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남성은 온라인에서의 성별 혐오와 공격(11.4%), 학교 교육 및 활동 등에서 성별고정관념(7.5%),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기회(4.5%)에 대한 응답이 여성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해서 여성은 40대(43.2%)가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고, 남성은 60대(41.1%)가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았다. 고용상의 성차별은 여성과 남성 모두 60대가(여성 23.4%, 남성 25.9%),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과 남성 모두 50대가(여성 16.3%, 남성 16.4%)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온라인에서의 성별 혐오와 공격은 여성과 남성 모두 20대 이하(여성 12.0%, 남성 21.9%)에서 가장 많은 응답이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20대가 1순위로 꼽은 성불평등 문제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었고, 60대 남성들과 생각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학교교육, 활동 등에서의 성별고정관념은 여성은 60대(9.0%) 남성은 30대와 50대(각 10.0%)에서 응답이 높았다.

자녀 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41.3%),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16.7%), 고용상 성차별(14.5%), 여성에 대한 폭력12.2%)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여성의 경력단절(30.1%), 고용상 성차별(18.8%), 여성에 대한 폭력(16.9%), 남성의 낮은 돌봄 참여(13.4%) 순이었다. 남성은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의 경력단절(36.0%), 고용상 성차별(16.3%), 여성 폭력(13.5%), 남성의 낮은 돌봄참여(10.0%) 순이었고, 자녀가 없는 경우는 여성의 경력단절(27.2%),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16.5%), 고용상 성차별(13.8%), 여성 폭력(13.0%) 순이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여성과 남성 모두 여성의 경력단절과 돌봄에서의 낮은 돌봄참여가 무자녀인 경우보다 응답이 높았으며,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은 자녀가 없는 경우 응답이 더 높았다.

[표 3-100]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신, 육아, 돌봄 등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	학교 교육, 활동 등에서 성별고정관념	인터넷 방송, M/V, AI 등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 기회	기타	계
전체			2,016	34.0	15.6	13.8	12.1	8.5	6.5	4.3	3.3	1.9	100.0
성별		여성	983	36.3	16.3	14.3	15.3	5.4	5.6	4.5	1.9	0.4	100.0
		남성	1,033	31.8	15.0	13.3	9.0	11.4	7.5	4.2	4.5	3.3	100.0
연령	여성	만19~29세	191	27.2	17.3	16.2	14.1	12.0	5.2	5.2	2.6	-	100.0
		만30~39세	194	41.2	12.9	14.9	11.9	5.7	5.2	5.2	2.1	1.0	100.0
		만40~49세	241	43.2	14.5	12.0	17.0	4.1	3.7	2.5	2.5	0.4	100.0
		만50~59세	246	32.9	16.3	16.3	19.5	2.4	6.5	4.9	1.2	-	100.0
		만60~64세	111	36.0	23.4	10.8	9.9	3.6	9.0	5.4	.9	0.9	100.0
	남성	만19~29세	210	24.3	11.4	10.5	7.6	21.9	4.8	6.2	5.2	8.1	100.0
		만30~39세	211	33.6	13.3	12.3	9.5	11.8	10.0	1.4	4.7	3.3	100.0
		만40~49세	249	32.9	12.0	13.7	12.4	10.0	7.2	3.6	4.8	3.2	100.0
		만50~59세	250	31.2	18.0	16.4	8.0	6.8	10.0	5.6	3.6	0.4	100.0
		만60~64세	112	41.1	25.9	13.4	5.4	4.5	1.8	3.6	4.5	-	100.0
지역	여성	도시	579	36.1	15.0	14.5	16.6	5.7	5.7	4.3	1.9	0.2	100.0
		도농복합·농촌	404	36.6	18.1	14.1	13.4	5.0	5.4	4.7	2.0	0.7	100.0
	남성	도시	594	32.5	15.3	12.0	10.8	10.4	6.7	3.5	5.6	3.2	100.0
		도농복합·농촌	440	30.7	14.5	15.0	6.8	12.7	8.4	5.0	3.4	3.4	100.0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2	30.1	18.8	16.9	13.4	8.3	5.8	4.2	1.9	0.7	100.0
		자녀 있음	550	41.3	14.4	12.2	16.7	3.1	5.5	4.7	2.0	0.2	100.0
	남성	자녀 없음	492	27.2	13.8	13.0	7.9	16.5	7.1	4.1	4.1	6.3	100.0
		자녀 있음	541	36.0	16.3	13.5	10.0	6.7	7.8	4.3	5.0	0.6	100.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와 관련하여 1순위와 2순위를 통합한 결과는 [표 3-101]과 같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1순위 또는 2순위로 꼽은 사람은 전체의 56.1%였으며, 여성의 61.2%, 남성의 51.2%가 응답하였다. 남성의 낮은 돌봄참여는 전체의 32.7%가 꼽았으며, 여성의 41.0%, 남성의 24.9%가 응답하였다. 고용상 성차별은 여성의 30.7%, 남성의 27.1%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라고 하였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은 여성의 25.9%, 남성의 27.1%가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남성들은 온라인상의 성별 혐오와 공격에 대한 응답이 26.1%로 높았고, 학교교육과 활동 등에서의 성별고정관념에 대한 의견도 17.3%로 여성의 12.4%와 10.2%에 비해 높았다.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이 중에서도 특히 30대(68.0%)와 40대(67.0%)가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에 대한 응답이 20.0%로 높았고, 40대 여성은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50.2%)를 많이 꼽았다.

남성은 20대 이하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라고 하였으며, 60대가 66.0%로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20대는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에 대한 응답이 41.4%로 가장 높았다. 60대 남성의 경우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응답이 41.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남성의 낮은 돌봄참여, 학교교육, 활동 등에서의 성별고정관념과 같이 자녀양육의 문제와 연결된 이슈들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남성은 자녀가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 학교교육, 활동 등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1~3순위를 모두 통합한 결과([표 3-102]) 역시 1~2순위 통합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01]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1+2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신, 육아, 돌봄 등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	학교 교육, 활동 등에서 성별고정 관념	인터넷 방송, M/V, AI 등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 기회	기타
전체			2,016	56.1	28.9	26.5	32.7	19.4	13.8	12.3	8.0	2.3
성별		여성	982	61.2	30.7	25.9	41.0	12.4	10.2	12.3	5.7	0.5
		남성	1,034	51.2	27.1	27.1	24.9	26.1	17.3	12.2	10.2	3.9
연령	여성	만19~29세	191	53.3	34.4	28.2	36.4	20.0	7.7	13.8	6.2	-
		만30~39세	194	68.0	26.9	22.8	38.6	10.2	12.2	11.2	8.1	2.0
		만40~49세	241	67.0	28.3	23.6	50.2	10.7	5.2	8.2	6.4	0.4
		만50~59세	246	57.3	30.5	29.5	41.8	9.1	12.3	15.0	4.5	-
		만60~64세	111	63.3	39.5	23.1	34.0	8.8	15.0	11.6	4.1	0.7
	남성	만19~29세	210	40.9	21.2	19.7	20.2	41.4	18.7	15.2	12.6	10.1
		만30~39세	211	53.3	23.3	24.8	24.3	30.0	21.9	7.6	11.4	3.3
		만40~49세	249	53.5	22.2	28.7	29.1	23.5	17.0	13.0	9.1	3.9
		만50~59세	250	54.3	31.7	33.0	27.0	16.5	16.1	12.6	8.3	0.4
		만60~64세	112	66.0	41.7	25.0	25.0	12.2	9.6	12.2	8.3	-
지역	여성	도시	579	59.4	31.2	26.7	42.5	12.5	9.6	12.2	5.5	0.4
		도농복합·농촌	404	64.3	31.5	24.5	39.2	11.0	10.6	11.6	6.4	0.8
	남성	도시	594	53.6	29.1	24.7	25.5	25.7	16.9	9.9	10.8	3.8
		도농복합·농촌	440	52.6	25.5	28.5	25.1	24.3	17.1	14.5	9.0	3.4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55.3	34.0	28.4	39.1	15.8	8.4	12.0	6.1	0.9
		자녀 있음	551	65.8	28.2	24.0	42.5	9.8	11.6	12.6	5.4	0.2
	남성	자녀 없음	492	44.6	24.9	23.4	23.0	35.4	20.3	10.8	10.4	7.1
		자녀 있음	542	57.2	29.1	30.4	26.7	17.6	14.5	13.5	9.9	1.0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표 3-102]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1+2+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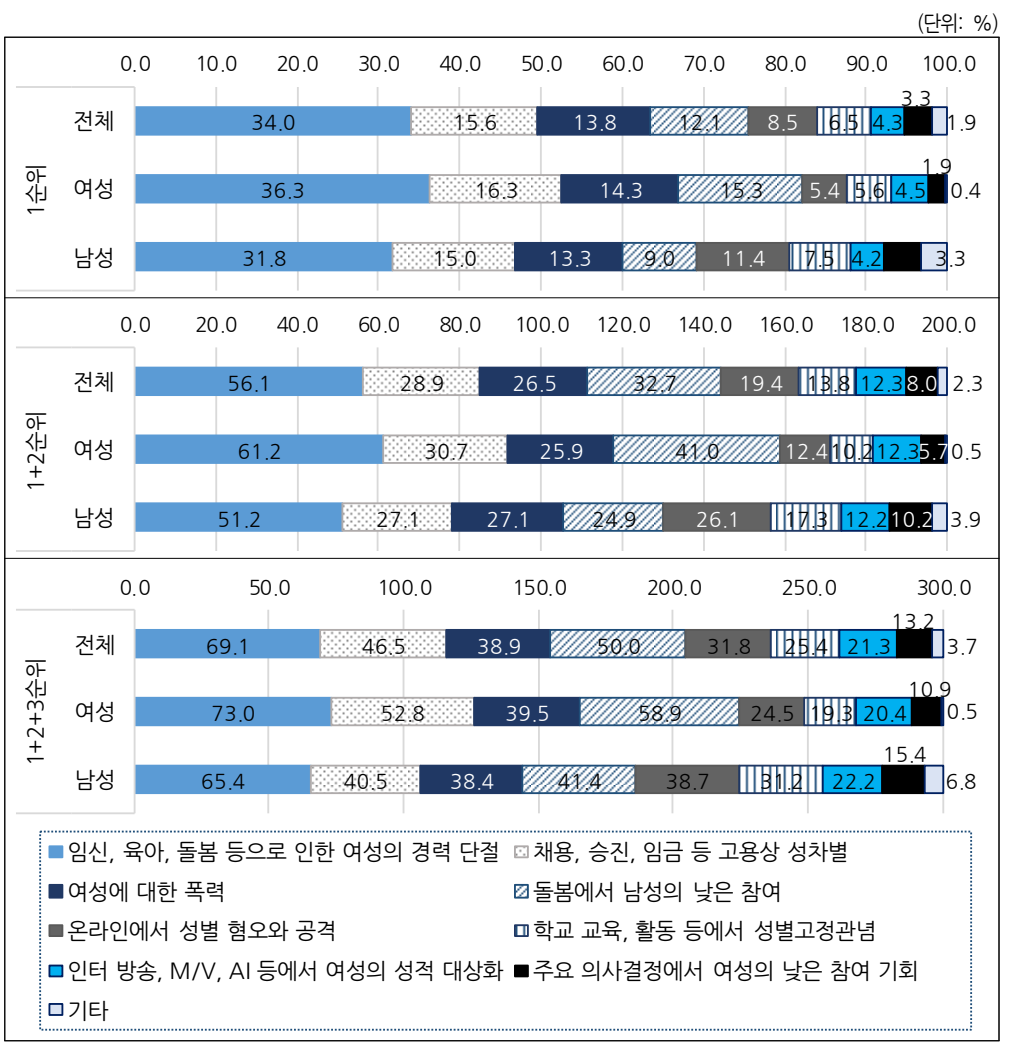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임신, 육아, 돌봄 등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	학교 교육, 활동 등에서 성별고정 관념	인터넷 방송, M/V, AI 등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 기회	기타
전체			2,016	69.1	46.5	38.9	50.0	31.8	25.4	21.3	13.2	3.7
성별		여성	982	73.0	52.8	39.5	58.9	24.5	19.3	20.4	10.9	0.5
		남성	1,034	65.4	40.5	38.4	41.4	38.7	31.2	22.2	15.4	6.8
연령	여성	만19~29세	191	69.5	50.1	38.6	52.1	36.9	17.1	24.3	11.4	-
		만30~39세	194	76.0	50.0	36.1	56.9	23.7	21.4	20.2	14.0	1.8
		만40~49세	241	75.1	56.3	37.8	67.9	20.9	16.3	15.3	9.9	0.5
		만50~59세	246	70.0	49.2	43.6	61.1	24.1	20.3	23.2	8.4	-
		만60~64세	111	75.6	63.0	41.4	49.8	13.5	24.4	19.3	12.6	0.5
	남성	만19~29세	210	56.9	26.1	32.5	36.7	57.1	34.0	24.6	17.9	14.1
		만30~39세	211	63.4	34.8	32.2	42.6	43.0	41.2	14.9	18.0	9.8
		만40~49세	249	69.3	35.2	38.2	43.3	40.6	32.0	23.5	13.4	4.5
		만50~59세	250	64.1	52.1	48.9	41.8	26.0	23.6	26.5	13.9	3.1
		만60~64세	112	79.5	64.4	38.0	43.2	20.5	21.8	18.6	13.4	0.7
지역	여성	도시	579	71.4	53.7	40.4	59.0	24.9	19.2	20.6	10.5	0.2
		도농복합·농촌	404	75.2	51.5	38.2	58.8	23.9	19.5	20.3	11.6	1.0
	남성	도시	594	66.8	42.2	37.1	42.2	37.3	30.1	20.0	16.7	7.6
		도농복합·농촌	440	63.6	38.3	40.2	40.5	40.7	32.6	25.0	13.6	5.7
자녀유무	여성	자녀 없음	431	68.2	52.1	39.5	56.5	30.4	18.5	21.8	12.2	0.9
		자녀 있음	551	76.7	53.4	39.5	60.9	19.9	20.0	19.4	10.0	0.2
	남성	자녀 없음	492	59.7	34.8	34.0	40.1	50.4	33.8	20.5	15.4	11.3
		자녀 있음	542	70.6	45.7	42.4	42.7	28.1	28.7	23.7	15.4	2.7

주: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임신,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고용상 성차별이나 여성에 대한 폭력, 돌봄에서의 낮은 남성의 참여는 모든 성별에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꼽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문제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임신,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었으며,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 여성에 대한 폭력 또한 주요한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은 돌봄 관련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다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성별혐오나 교육에서의 성별고정관념 등을 주요 이슈로 꼽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0]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



사.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성평등 의식

앞서 논의하였듯이 성평등 가치에 대한 인정과 성평등 실천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은 성평등 의제의 지속과 함께 이제는 성평등이 하나의 도덕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평등 가치의 수용 또는 성평등 가치의 규범화가 실질적인 실천과 성평등 문화로 이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성평등 실천 문항 중에서 성평등 가치의 인정이나 성평등 실천과 관련한 문항은 동의 정도가 높지만,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다' 는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은 동의율을 나타낸다. 이는 도덕적이고 사회적 가치에 따른 응답이 아니라 응답자의 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라 응답자들의 성평등 의식, 성별 갈등·혐오·폭력 등의 심각성 인식,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심들이 실질적인 성평등 의식의 변화와 정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표 3-103]는 성평등·성차별 이슈(이하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차이가 있는지를 성별로 살펴본 결과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있는 집단에서 뚜렷하게 높았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는 문항은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성들보다 남성들에 있어서 '자녀를 돌보는 여성' 에 대한 고정관념은 여전히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103]는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로 남성의 지위변화 수용과 성차별주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남성의 지위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집단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뚜렷하게 높았다. 즉,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경우 남성의 지위변화를 보다 잘 수용하고 있었다.

반면 [표 3-104]에서 보듯이 성차별주의와 관련하여서는 여성은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비해 성차별주의 태도에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표 3-103]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성역할 고정관념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하지않음	② 동의하지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동의함	χ^2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여성	관심 있음	678	22.9	56.6	19.9	0.6	8.872*
			관심 없음	304	14.8	63.5	21.4	0.3	
		남성	관심 있음	593	16.4	46.4	33.6	3.7	9.507*
			관심 없음	441	10.9	49.2	37.9	2.0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여성	관심 있음	679	33.4	55.2	9.9	1.5	17.080***
			관심 없음	303	23.1	63.0	13.9	-	
		남성	관심 있음	594	17.8	46.8	29.1	6.2	6.928
			관심 없음	441	12.2	49.4	32.9	5.4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여성	관심 있음	679	48.3	47.4	4.1	0.1	12.216**
			관심 없음	304	37.2	55.6	6.9	0.3	
		남성	관심 있음	594	29.6	53.2	13.6	3.5	14.270**
			관심 없음	441	22.0	62.8	13.8	1.4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	여성	관심 있음	678	49.4	39.5	10.2	0.9	19.557***
			관심 없음	304	34.5	49.3	14.5	1.6	
		남성	관심 있음	593	27.0	48.2	19.6	5.2	19.765***
			관심 없음	440	17.7	52.0	27.3	3.0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여성	관심 있음	678	49.9	42.6	7.4	0.1	49.748***
			관심 없음	304	28.0	54.9	16.1	1.0	
		남성	관심 있음	594	25.8	56.4	15.7	2.2	10.530*
			관심 없음	440	18.2	63.2	17.5	1.1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여성	관심 있음	678	52.9	42.3	4.7	-	23.546***
			관심 없음	303	36.6	58.7	4.6	-	
		남성	관심 있음	593	30.0	55.5	11.8	2.7	15.981**
			관심 없음	440	20.5	61.4	16.6	1.6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여성	관심 있음	678	42.9	46.9	9.3	0.9	42.414***
			관심 없음	303	23.4	56.1	17.8	2.6	
		남성	관심 있음	594	19.9	41.8	27.6	10.8	12.500**
			관심 없음	441	12.0	42.9	33.3	11.8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여성	관심 있음	678	13.4	23.2	53.5	9.9	29.850***
			관심 없음	303	3.0	19.8	63.7	13.5	
		남성	관심 있음	594	5.4	15.2	58.6	20.9	0.918
			관심 없음	439	4.1	15.3	59.2	21.4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다'와 관련하여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은 관심 있음으로, 동의하지 않음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관심 없음으로 분류함.
3) *p<0.05, **p<0.01, ***p<0.001

[표 3-104]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남성의 지위변화 수용과 성차별주의 태도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하지않음	② 동의하지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동의함	χ^2
남성의 지위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여성	관심 있음	679	40.4	39.2	19.6	0.9	17.648***
			관심 없음	304	26.6	47.4	24.3	1.6	
		남성	관심 있음	593	25.3	42.5	27.2	5.1	17.274***
			관심 없음	441	17.0	49.7	31.1	2.3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여성	관심 있음	679	52.0	42.0	5.6	0.4	22.880***
			관심 없음	303	35.6	57.1	6.9	0.3	
		남성	관심 있음	594	33.5	48.5	15.0	3.0	13.113**
			관심 없음	439	23.2	56.3	17.5	3.0	
적대적 성차별 주의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여성	관심 있음	678	25.4	50.6	20.5	3.5	8.930*
			관심 없음	304	21.1	48.0	28.6	2.3	
		남성	관심 있음	594	16.8	47.5	28.6	7.1	3.849
			관심 없음	440	13.0	47.3	31.1	8.6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여성	관심 있음	678	29.4	40.0	25.4	5.3	56.858***
			관심 없음	303	10.6	37.6	42.6	9.2	
		남성	관심 있음	594	6.2	29.6	43.4	20.7	2.323
			관심 없음	439	5.0	26.7	47.4	21.0	
온정적 성차별 주의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여성	관심 있음	678	18.0	49.4	30.4	2.2	17.663***
			관심 없음	304	8.9	48.4	40.1	2.6	
		남성	관심 있음	594	12.0	32.8	47.8	7.4	2.624
			관심 없음	440	11.8	31.6	51.4	5.2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여성	관심 있음	679	13.4	39.8	42.0	4.9	23.760***
			관심 없음	303	5.3	37.6	54.8	2.3	
		남성	관심 있음	592	9.6	26.4	54.1	10.0	11.703**
			관심 없음	440	9.1	32.0	54.1	4.8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다'와 관련하여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은 관심 있음으로, 동의하지 않음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관심 없음으로 분류함.
3) *p<0.05, **p<0.01, ***p<0.001

그러나 남성은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 유무별로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는 문항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남성들은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든 없든 공통적으로 성차별주의적인 태도를 여성에 비해 강하게 견지하고 있었다. 특히 온정적 성차별주의에 대해서는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남성들이 해당 문항들에 더 강한 동의를 나타내고 있는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남성들은 힘들고 위험한 일을 남성이 하고, 남성이 여성을

보호하는 또한 일종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가치로 여기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을 통해 남성들이 관심 있어 하는 젠더이슈와 남성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이 여성의 것과 다르다는 것을 유추 가능하다.

한편 [표 3-105]에서 보듯이 성역할 변화 수용과 성평등 실천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젠더 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성역할 변화와 성평등 가치를 수용하고, 생활 속에서도 성평등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성평등과 관심 있는 젠더 이슈가 다르다고 할 때, 여성과 남성이 실천하는 성평등 또한 매우 다른 종류의 것일 수 있다.

[표 3-105]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성역할 변화 수용 및 성평등 실천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χ^2
성역할 변화 수용 정도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여성	관심 있음	680	3.5	3.7	34.1	58.7	20.326***
			관심 없음	304	2.0	4.6	48.4	45.1	
		남성	관심 있음	594	3.2	10.4	54.5	31.8	10.205*
			관심 없음	440	4.5	13.9	58.0	23.6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여성	관심 있음	677	1.9	3.8	40.9	53.3	44.419***
			관심 없음	303	3.0	5.9	60.7	30.4	
		남성	관심 있음	594	0.8	9.3	64.0	25.9	54.613***
			관심 없음	441	3.9	17.2	68.3	10.7	
성평등 실천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여성	관심 있음	678	1.0	2.4	47.6	49.0	135.767***
			관심 없음	304	2.0	12.2	73.0	12.8	
		남성	관심 있음	594	0.8	5.4	58.2	35.5	118.279***
			관심 없음	440	4.3	17.3	68.4	10.0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여성	관심 있음	678	0.1	11.2	78.3	10.3	108.006***
			관심 없음	304	1.6	37.5	57.6	3.3	
		남성	관심 있음	594	0.5	6.6	76.6	16.3	129.999***
			관심 없음	440	4.1	27.3	65.2	3.4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다'와 관련하여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은 관심 있음으로, 동의하지 않음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관심 없음으로 분류함.
3) *p<0.05, **p<0.01, ***p<0.001

[표 3-106]은 성별 갈등, 혐오, 폭력 등의 심각성 인식과 관련된 것이다. 여성과 남성 모두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우리 사회의 성별 갈등,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여성과 남성에 대한 혐오, 온라인상에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등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만큼 해당 문제들에 대한 민감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당 이슈들을 더 자주 접했다고 볼 수 있다.

[표 3-106]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성별 갈등, 폭력, 혐오 등의 심각성 인식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심각하지않음	② 심각하지않음	③ 심각함	④ 매우심각함	χ^2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여성	관심 있음	678	0.1	13.1	64.5	22.3	40.208***
		관심 없음	304	-	29.3	56.9	13.8	
	남성	관심 있음	594	1.0	16.3	57.1	25.6	15.055**
		관심 없음	439	2.3	24.8	51.5	21.4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여성	관심 있음	679	0.1	5.4	52.0	42.4	56.265***
		관심 없음	303	0.3	16.5	61.1	22.1	
	남성	관심 있음	594	3.5	23.6	52.4	20.5	26.910***
		관심 없음	440	5.5	31.1	53.9	9.5	
여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여성	관심 있음	678	0.4	9.7	53.5	36.3	65.836***
		관심 없음	304	-	27.3	54.3	18.4	
	남성	관심 있음	594	2.9	27.6	51.3	18.2	25.576***
		관심 없음	440	6.1	35.0	49.8	9.1	
남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여성	관심 있음	678	4.3	34.7	46.9	14.2	11.729**
		관심 없음	303	0.7	40.9	46.5	11.9	
	남성	관심 있음	595	1.0	27.1	50.1	21.8	15.035**
		관심 없음	440	3.9	32.5	46.1	17.5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여성	관심 있음	678	0.1	5.0	49.7	45.1	34.561***
		관심 없음	303	0.3	14.5	53.8	31.4	
	남성	관심 있음	594	0.7	12.5	55.2	31.6	32.662***
		관심 없음	441	2.7	21.8	55.3	20.2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다'와 관련하여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은 관심 있음으로, 동의하지 않음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관심 없음으로 분류함.
3) *p<0.05, **p<0.01, ***p<0.001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 여부에 따라서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과 현 배우자와의 관계 평등 수준 인식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결과 여성들은 젠더 이슈 관심 여부에 따라 평등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지만 남성들의 경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3-107]).

여성들은 젠더이슈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젠더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과 향후 10년 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을 여성에게 더 불리한 사회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현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내에게 더 불평등하다고 응답하였다. 성평등 이슈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들 중에서도 여성은 성인지 관점이 높고, 이러한 특성은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에 더욱 민감성을 갖게 하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상대적으로 여성에게 불리하다는 것을 더 느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배우자 관계에 있어서의 평등 수준 인식이 젠더이슈 관심유무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 역시, 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평등과 차별에 대한 민감성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107]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성평등 수준 인식

(단위: 명, 점)

구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t값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여성	관심 있음	678	-1.74	1.327	-7.844***
		관심 없음	304	-1.12	1.060	
	남성	관심 있음	594	-0.29	1.610	-1.689
		관심 없음	440	-0.13	1.460	
향후 10년 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	여성	관심 있음	678	-0.79	1.306	-4.926***
		관심 없음	304	-0.41	1.047	
	남성	관심 있음	594	0.41	1.495	0.251
		관심 없음	440	0.39	1.398	
현 배우자와의 관계 평등 수준	여성	관심 있음	395	-0.78	1.225	-2.538*
		관심 없음	189	-0.54	0.992	
	남성	관심 있음	334	-0.04	0.856	-0.386
		관심 없음	239	-0.01	0.854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다'와 관련하여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은 관심 있음으로, 동의하지 않음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관심 없음으로 분류함.
3) 평균값의 범위는 -4~4점이며, 0에 가까울수록 평등, -4에 가까울수록 여성에게 불평등, 4에 가까울수록 남성에게 불평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함.
4) *p<0.05, **p<0.01, ***p<0.001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라 성평등 수준 인식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현재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성차별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여성보다는 덜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남성들조차도 자신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에 여성의 성차별 경험을 추상적으로만 인지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남성들의 관심 젠더이슈나 성평등에 대한 정의가 여성의 것과는 다른 것일 가능성 또한 엿볼 수 있다.

젠더이슈 관심 여부에 상관없이 남성들은 10년 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은 남성들에게 약간 더 차별적인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는 젠더이슈에 대한 남성들의 개인적 관심보다는 여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 태도가 미래 전망에 보다 적극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은 [표 3-108]에서 보듯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심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여성과 남성 모두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들이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에 더 강하게 동의하고 있었고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도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8]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동의 하지않음	② 동의하지 않음	③ 동의함	④ 매우 동의함	잘 모르겠다	χ^2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여성	관심 있음	678	2.2	10.6	56.9	30.2	-	28.428***
		관심 없음	304	0.3	17.4	65.1	17.1		
	남성	관심 있음	594	10.3	14.6	49.5	25.6	-	44.512***
		관심 없음	440	9.5	26.4	52.7	11.4		
나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	여성	관심 있음	679	1.9	23.3	61.1	13.7	-	93.444***
		관심 없음	304	5.6	49.7	41.8	3.0		
	남성	관심 있음	594	5.6	25.4	56.6	12.5	-	98.045***
		관심 없음	440	17.5	42.7	35.0	4.8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	관심 있음	679	3.7	24.9	29.3	5.4	36.7	12.317*
		관심 없음	303	4.0	22.4	23.8	2.6	47.2	
	남성	관심 있음	593	5.9	19.1	40.3	7.8	27.0	31.084***
		관심 없음	441	5.7	29.7	27.4	4.5	32.7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다'와 관련하여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은 관심 있음으로, 동의하지 않음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관심 없음으로 분류함.
3) *p<0.05, **p<0.01, ***p<0.001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이 젠더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높았다. 그러나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여성의 36.7%, 남성의 27.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28.6%, 남성의 25.0%는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음 포함)고 하였다.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여성의 34.8%, 남성의 48.1%만이 경기도가 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

각하는 것은 향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과 홍보에 있어서 시사점을 남긴다.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정책별 중요도에 대해서는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응답자들이 정책별로 동의하는 정도가 높았다. 특히 모든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확연히 높은 것을 볼 수 있다([표 3-109], [표 3-110]).

[표 3-109]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경기도 성평등 정책 중요도 인식(1)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중요 하지않음	② 별로중요 하지않음	③ 약간 중요함	④ 매우 중요함	χ^2
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	여성	관심 있음	678	0.1	4.1	37.8	58.0	33.642***
		관심 없음	303	1.0	8.3	51.5	39.3	
	남성	관심 있음	593	8.6	14.2	52.8	24.5	25.783***
		관심 없음	440	9.3	21.6	56.1	13.0	
여성창업 지원	여성	관심 있음	678	0.4	7.5	47.1	45.0	34.632***
		관심 없음	303	2.0	15.2	54.5	28.4	
	남성	관심 있음	594	13.1	22.1	46.8	18.0	30.012***
		관심 없음	441	14.3	31.1	47.4	7.3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여성	관심 있음	678	0.3	3.8	29.2	66.7	85.974***
		관심 없음	303	0.3	7.3	57.4	35.0	
	남성	관심 있음	595	4.5	10.3	51.9	33.3	37.280***
		관심 없음	440	5.7	18.6	57.7	18.0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여성	관심 있음	679	0.1	4.6	35.6	59.6	53.470***
		관심 없음	303	0.7	11.2	52.5	35.6	
	남성	관심 있음	593	2.7	13.0	49.2	35.1	14.592**
		관심 없음	441	3.6	19.5	51.0	25.9	
양육부담 경감 지원	여성	관심 있음	679	0.3	3.7	33.1	62.9	32.154***
		관심 없음	305	2.0	6.6	46.2	45.2	
	남성	관심 있음	593	2.4	9.6	44.7	43.3	15.355**
		관심 없음	440	3.4	12.7	52.3	31.6	
돌봄지원 강화	여성	관심 있음	678	0.4	3.8	26.1	69.6	21.239***
		관심 없음	304	1.0	3.6	40.1	55.3	
	남성	관심 있음	594	3.2	5.6	40.2	51.0	22.081***
		관심 없음	440	3.9	12.3	44.3	39.5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다'와 관련하여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은 관심 있음으로, 동의하지 않음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관심 없음으로 분류함.
3) *p<0.05, **p<0.01, ***p<0.001

[표 3-110] 성평등·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유무별 경기도 성평등 정책 중요도 인식(2)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① 전혀중요 하지않음	② 별로중요 하지않음	③ 약간 중요함	④ 매우 중요함	χ^2
폭력 예방정책 확산 및 추진체계 내실화	여성	관심 있음	678	0.1	1.8	31.0	67.1	51.507***
		관심 없음	304	0.7	5.9	49.3	44.1	
	남성	관심 있음	594	3.7	10.8	44.1	41.4	24.747***
		관심 없음	441	3.9	16.8	52.2	27.2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강화	여성	관심 있음	679	-	2.5	32.1	65.4	35.756***
		관심 없음	304	1.0	4.6	47.7	46.7	
	남성	관심 있음	593	5.4	8.4	42.7	43.5	27.513***
		관심 없음	440	4.5	14.5	51.8	29.1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여성	관심 있음	678	0.3	3.4	40.1	56.2	29.227***
		관심 없음	304	1.3	5.9	54.3	38.5	
	남성	관심 있음	594	4.9	8.6	54.2	32.3	26.071***
		관심 없음	441	5.0	16.8	57.1	21.1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	여성	관심 있음	679	0.4	7.2	43.2	49.2	34.479***
		관심 없음	304	3.6	11.8	51.0	33.6	
	남성	관심 있음	594	8.9	13.8	51.7	25.6	37.038***
		관심 없음	441	8.8	26.1	51.2	13.8	
생활 속 양성평등문화 확산 지원, 여성 역사문화유산 지속 발굴 등	여성	관심 있음	678	0.3	3.7	41.7	54.3	61.066***
		관심 없음	303	2.6	11.6	53.8	32.0	
	남성	관심 있음	594	8.8	13.3	49.7	28.3	42.977***
		관심 없음	440	10.5	24.1	52.0	13.4	
양성평등정책 연계-협력 및 추진기반 강화	여성	관심 있음	678	0.4	5.6	45.1	48.8	62.337***
		관심 없음	304	3.0	14.8	55.9	26.3	
	남성	관심 있음	594	11.8	13.0	50.8	24.4	44.267***
		관심 없음	439	10.5	27.8	48.1	13.7	

주 1) 통계표에 수록된 사례수는 가중치 적용 결과임.
2)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다'와 관련하여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은 관심 있음으로, 동의하지 않음과 전혀 동의하지 않음은 관심 없음으로 분류함.
3) *p<0.05, **p<0.01, ***p<0.001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관심이 없는 사람에 비해 남녀 모두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 태도는 낮고 성역할변화 수용 및 성평등 실천은 높으며, 성평등정책에 대한 관심과 중요도도 보다 높이 인식하였다. 그러나 여성에게서만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과 관련해서 젠더이슈 관심 유무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은 관심이 없는 여성들보다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여성에게 더 불리

하다고 보았고 배우자와의 성평등 수준 또한 낮게 인식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경우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이 성평등 의식으로 이어지고, 성평등 이슈에 대한 민감성이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과 같은 젠더 불평등을 보다 민감하게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우는 젠더이슈에 대한 관심 유무에 따라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이는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에서 보듯이 남성이 여성에 비해 직접적인 차별경험이 덜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으며, '성평등'이 남성들에게 하나의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결과일 수도 있을 것이다.

Ⅳ

연구결과 요약 및 정책제언

1. 주요결과 요약 및 논의
2. 정책제언

1. 주요결과 요약 및 논의

가. 주요결과 요약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023년 5월 12일부터 6월 6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는 조사 당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016명이 조사에 유효하게 참여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가) 성평등 의식

보수적이고 차별적인 의식과 관련한 내용은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성역할에 대한 변화 수용과 성평등에 대한 이해 및 관심과 실천은 성평등 수용의 두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이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동의,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성차별주의 태도(적대적 성차별주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모두에 있어서 남성이 더 동의하고 있었다.

성과 연령을 고려하여 살펴보면 여성들은 대체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 성차별주의 태도의 대부분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연령에 따른 일관적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에 대한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과 관련하여 가족의 생계책임은 20대 이하가 고정관념이 가장 낮고 60대의 고정관념이 가장 높았지만 남성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거나 여성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이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문항에서는 30대 이하가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다(20대 이하 남성19.5%, 30대 남성 18.9%). 또한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에 대해서도 30대 이하가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는데(20대 이하 남성 48.8%, 30대 남성 50.3%) 이는 남성의 여성이 많은 직업군 진출에 비해서 더 부정적이고 방어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남성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여성은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으나(20대 이하 여성 7.9%, 60대 여성 21.4%), 남성들은 20대 이하와 60대가 40% 이상의 동의율을 보였

고 동의율이 가장 낮은 50대도 34.1%로 높아 남성들 스스로가 남성의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는 응답은 남녀 모두 동의율이 낮은 편이나(여성 10.6%, 남성 18.3%),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는 여성과 남성 모두 동의율이 매우 높았다(여성 67.6%, 남성 80.0%). 이는 자녀 돌봄의 책임이 여성만의 것이 아니라는 사회문화의 변화를 수용하면서도 여전히 돌봄자로서의 여성에 대한 성고정관념이 의식 속에 굳건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관련해서는 남녀 모두 연령의 증가와 함께 동의하는 비율이 높아서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차별주의와 관련해서는 전통적 역할을 따르는 여성을 보호하고 돌보는 호의적인 감정으로서의 온정적 차별주의는 남녀 모두 동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역시 남성에게서 동의율이 더 높았다. 남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여성에 대한 적대감으로서의 적대적 차별주의는 남성이 뚜렷하게 높았는데, 50대 이상 남성보다 40대 이하 남성들에게서 더욱 동의율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에 대해서는 여성은 37.2%가 동의한 반면, 남성은 65.9%가 동의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20대 이하 남성의 31.8%가 ‘매우 동의한다’ 고 하여(20대 이하 여성은 3.7%) 적대적 차별의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남성의 연령대별로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을 합한 비율은 60~70% 정도로 큰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이 낮을수록 ‘매우 동의한다’ 는 비율이 높고 여성들의 경우는 연령이 낮을수록 동의하는 비율도 확연히 낮아져서 큰 차이가 있다. 고연령대에서는 해당 이슈에 대한 성별 차이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반면, 20~40대에서는 인식 차이가 명확하여 젠더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성평등 수용은 성역할 변화 수용 정도와 성평등 실천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역시 성별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성이 높게 나타났다면, 성평등 수용은 성평등 실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여성의 동의율이 높았다.

성평등 수용과 관련하여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와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에 대해서 여성은 90% 이상, 남성은 80% 이상의 동의율을 나타내었다.

성평등 실천에 대해서는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에 대해서도 여성의 93.2%, 남성의 87.2%가 동의하였으나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

다’ 에 대해서는 여성의 69.1%, 남성의 57.4%가 동의하여 가치의 중요성 인식에 비해 관심도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역시 남녀 모두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동의하고 있었다.

나) 폭력과 혐오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 여성에 대한 폭력, 성별 혐오, 온라인상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남녀 모두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갈등, 혐오, 폭력 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 여성들은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91.7%로 가장 높았고,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91.0%, 여성에 대한 혐오 84.6%,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 81.8%, 남성에 대한 혐오 60.2% 순이었다. 남성 역시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많았으나 여성과 남성간의 갈등 78.4%,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68.9%, 남성에 대한 혐오 68.4%, 여성에 대한 혐오 65.0% 순이었다. 남성에 대한 혐오만 남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이외의 문항들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심각성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들은 모든 문항에 있어서 연령이 낮을수록 심각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성들은 성별 갈등과 성별 혐오는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 폭력은 연령이 높을수록 심각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다) 성평등 수준

우리 사회의 영역별 성평등 수준과 관련해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우리 사회가 더 평등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여성은 6개의 영역 중 승진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이 89.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을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86.6%)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남성은 63.7%가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에 있어서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라고 응답하였고, 승진이 62.3%로 뒤를 잇는다. 교육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 있어서 평등하다는 응답(여성 56.0%, 남성 63.4%)이 가장 높은 영역이었다.

남성에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은 여성은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분담에서 나타나나 7.6%에 불과하였고, 남성은 취업에 있어서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인식이 18.5%, 교육이 16.7%로 성별 인식 차이가 상대적으로 뚜렷하였다.

연령별로 여성들은 모든 영역에서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나, 남성들은 반대로 연령이 낮을수록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을 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영역별로 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은 여성은 대체로 연령이 낮을수록 높았고, 남성 역시 교육을 제외하고는 낮은 연령에서 해당 응답이 더 높았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에 있어서 여성은 현재는 85.5%, 미래는 51.5%가 여성에게 불평등한 사회일 것으로 예상하여 34.0%p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현재가 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은 8.4%였으나 10년 후가 성평등 할 것이라는 응답은 37.9%로 29.5%p 차이를 나타낸다.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일 것이라는 응답도 4.4%p 증가하였다.

남성들은 현재가 여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51.4%였으나 10년 후에도 여성에게 불평등할 것이라는 응답은 19.0%로 32.4%p 차이를 나타낸다. 현재가 평등하다는 응답은 22.4%, 10년 후가 성평등할 것이라는 응답은 46.7%로 22.4%p 상승하였다. 현재가 남성에게 불평등한 사회라는 응답은 26.2%, 10년 후가 남성에게 불평등할 것이라는 응답은 34.2%로 8.0%p 증가하여 차이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10년 후에는 성평등 수준이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할 것으로 생각하는 반면 남성들은 거의 평등한 사회를 예상하고 있었다. 한편, 30대 이하 남성은 남성에게 약간 불평등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응답한 점에도 주목할 수 있다.

2) 가족가치 및 가족생활

가) 결혼 의사와 자녀출산 의사

미혼(비혼) 여성의 결혼의사는 남성에 비해 뚜렷하게 낮았다(여성 26.0%, 남성 46.0%). 결혼할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는 여성은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1순위 35.6%, 1+2순위 61.7), 남성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자신 없어서’(1순위 27.0%, 1+2순위 46.3%)로 가장 높았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1순위, 1+2순위 모두에서 ‘가부장적 가족문화나 가족관계가 싫어서’라는 응답이 높았고(1순위 8.8%, 1+2순위 22.0%), 남성은 1순위 응답에서는 ‘결혼 비용이 부담되어서’(18.0%), 1+2순위 응답은 ‘출산 양육 부담이 생길 듯해서’(35.2%)가 높았다. 여성은 결혼 자체나 결혼으로 인한 관계에 대한 부담이 남성보다 크다면, 남성은 결혼 준비나 결혼으로 인한 생계부양의 문제 등 경제적 문제에 있어서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

고 볼 수 있다.

자녀가 없는 사람들의 자녀 출산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다(여성 55.2%, 남성 35.0%). 자녀를 가질 의사가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로 1순위(여성 27.1%, 남성 39.6%)와 1+2순위(여성 43.6%, 남성 60.1%)에서 공통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자녀 양육과 교육에 돈이 많이 들어서'를 가장 많이 꼽았다. 남녀 모두 연령이 낮을수록 비용부담의 문제를 크게 느끼고 있었다.

나) 부부간 역할분담 및 관계 평등

부부간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여전히 자녀교육, 가사 등 집안일은 여성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간 의사결정에서 부부가 가장 공평하게 똑같이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는 가족 여가로 여성과 남성 응답자 모두에서 과반 이상이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여성 57.3%, 남성 64.2%)하였다.

여성이 주되게 의사결정을 하는 분야는 가사 등 집안일(여성의 77.2%, 남성의 56.2%가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이었고 자녀교육(여성의 62.3%, 남성의 50.4%가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 생활비 지출(여성의 52.5%, 남성의 40.8%가 아내가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에 있어서도 여성의 의사결정 비율이 높았다. 취업 및 직장이동(여성의 44.5%, 남성의 49.3%가 남편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 투자와 자산관리는 여성과 남성의 응답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으나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남성들의 의사결정이 높았다(여성의 25.8%, 남성의 47.6%가 남편이 의사결정을 한다고 응답).

남성들은 자신의 부모를 돌보는 데는 비교적 의사결정 비율이 높으나, 여전히 돌봄과 관련한 의사결정에서 여성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부부간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사, 가계 및 돌봄 등과 관련한 역할은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고, 남성들은 취업이나 직장이동, 투자와 자산관리 등을 주로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사결정에 있어서 여전히 성역할이 공고히 남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부간 의사결정과 마찬가지로 역할수행에 있어서도 가사노동(여성의 74.8%, 남성의 52.7%가 아내가 역할수행을 한다고 응답)이나 자녀 양육과 교육(여성의 64.0%, 남성의 46.2%가 아내가 역할수행을 한다고 응답)은 여성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계관리 역할과 관련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의견 차이가 있었다. 여성은 아내가 더 역할을 한다고 보

았고(61.6%), 남성은 남편이 해당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비율(여성 12.7%, 남성 32.5%)이 여성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 한편, 남성들이 모든 역할에 있어서 부부가 똑같이 또는 남성이 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역할수행의 강도와 의미에 있어서 남녀가 각기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부부가 똑같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응답과 역할수행을 한다는 응답은 젊은 세대에서 더 높이 나타났다. 영역별 역할수행은 60대에 접어들면 부부가 똑같이 한다는 응답이 다시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역할분담에 있어서 맞벌이인 경우 부부가 역할을 똑같이 분담한다는 비율이 높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의 역할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부간 역할 수행의 공평성에 대한 인식에서 불공평을 가장 크게 느끼는 분야는 가사노동(여성 55.5%, 남성 40.8%), 자녀양육 및 교육((여성 48.1%, 남성 33.3%) 이었다. 특히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불공평함을 크게 느끼고 있었으며, 남성들은 여성과 달리 가사노동, 자녀양육 및 교육에 있어서 불공평보다는 공평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더 많았다. 역할수행의 공평성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공평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성역할 고정관념 및 성역할 분업은 점차 완화되는 추세지만 여전히 가족 내에서 성역할 분업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부부관계 평등은 사회적 평등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은 전체 -0.87점, 여성 -1.55점, 남성 -0.22점이었으나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 평등 수준은 전체 -0.37점, 여성은 -0.70점, 남성은 -0.03점이었다. 전반적으로 응답자들의 온정적 성차별주의 인식이 높은 만큼, 가족 내 성역할 분업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겨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역할 수행의 공평성과 마찬가지로 부부간 관계의 평등에 대한 인식은 여성과 남성에 있어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여성은 평등하다는 응답이 47.4%였던데 반해 남성은 63.2%였고, 아내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여성은 46.9%, 남성은 21.5%였으며, 남편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은 여성은 5.7%, 남성은 15.4%였다. 여성이 여전히 가족 내 역할 수행과 관련하여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것이 역할 수행의 공평성과 배우자와의 관계 평등에 있어서 보다 불공평하고 불평등하다는 인식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3) 경제활동

전체 응답자 2,016명 중에서 취업자는 1,583명(78.5%)이었다. 성별로는 남성은 응답자의 86.7%, 여성은 응답자의 69.9%가 취업자에 해당하였다.

가) 조직문화

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일하는 직장(사업체)의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현 사업체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한다' 는 응답은 남성이 49.8%로 여성(38.7%)에 비해 높았다. 40대 이상 여성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현 직장이 남성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낮아졌는데, 이는 성별 업종 분리 현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에 대해서는 남성(42.4%)이 여성(37.0%)보다 그렇다는 응답이 높았고 남성이 많은 사업체일수록 현재 직장에 성별업무분리가 존재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한편, 응답자의 33.5%가 현재 사업체에서 '여성이 특정 직급(직위) 이상 승진하는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고 답변하여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남성이 많은 사업체일수록 현재 직장에 여성에 대한 '유리천장' 이 존재한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그런가 하면 응답자의 43.7%는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주로 여자 직원이 음료나 다과를 준비한다' 고 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56.4%가 남성(34.4%)에 비해 '그렇다' 는 응답이 현저히 높았다.

근로시간 관련 조직문화와 관련하여 응답자의 36.6%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인다' 고 하였는데 특히 여성(41.6%)이 남성(33.0%)에 비해 응답이 높았다. 또한 응답자의 27.8%는 '정시퇴근 하면 눈치가 보인다' 고 하였는데, 이 항목의 성별 차이는 거의 없었지만 성별*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 여성이 35.6%로 다른 집단에 비해 눈치가 보인다는 응답이 높았다.

모성보호 관련 조직문화에 대한 조사결과와 관련하여 현재 사업체에서 '임신·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에 대해서는 19.6%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25.7%로 남성(15.2%)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주로 임신·출산을 경험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30대 여성의 경우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높았다. 한편,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에 대해서는 26.0%가 불이익이 있다고 응답

했는데, 여성이 31.9%로 남성 21.7%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녀 모두 동일 집단 내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대가 그렇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나) 일-생활 균형

실제로 일-생활 균형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쉬운지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남성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36.9%는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26.8%는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15.2%는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21.2%는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29.5%로 남성(15.2%)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출산전후휴가는 법정 휴가이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대상자가 없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은 60대 여성(40.9%)을 제외하고는 20대 여성이 36.7%로 가장 높다. 성과 연령에 따라 업종 및 직종이 분리된 한국 노동시장의 구조를 고려할 때 응답자인 60대 여성이 다수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대상자' 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대 여성 응답자의 36.7%가 직장 내 출산전후휴가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고 응답한 것은 관련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홍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51.9%나 되었다. 5인 미만의 사업체에도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제도가 적용되는 만큼 관련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33.4%가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응답했고, 성별로는 남성은 여성에 비해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고 응답한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남성 36.0%, 여성 20.4%). 반면, 여성은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 는 응답률이 29.1%로 남성(14.5%)에 비해 뚜렷하게 높았다. 육아휴직의 경우도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54.9%나 되었다.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의 경우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27.9%로 가장 높았다.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더욱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리고 '가족돌봄휴직(휴가)'의 경우도 여성은 직장 내 대상자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37.0%로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특히 20대 여성이 48.5%로 가장 높았다.

또한 '유연근무제도'에 대해서도 여성은 직장 내 대상자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이 38.6%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다른 제도에 비해 100인 이상과 100인 이하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100인 이상의 경우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8.4%로 현저하게 높았다. 반면,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직장 내 대상자가 없거나 제도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어렵다는 응답이 44.8%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48.1%로 남성(42.4%)로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여성 중에서는 40대 여성이 53.0%로 가장 높았다. 특히, 남녀 모두 자녀가 있는 경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를 대상으로 '일과 자녀양육을 병행하는 어려움'을 조사한 결과 어렵다는 응답이 49.3%로 나타났으며, 여성 50.7%, 남성 48.3%로 성별 차이는 다른 항목에 비해 크지 않았다. 여성 중에서는 20대~40대가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는 자녀의 연령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 비취업자 실태

응답자 중 비취업자의 지난 1주일간 주된 활동은 가사육아(39.5%), 구직활동 및 취업준비(23.9%), 그냥 쉬었음(23.1%), 통학(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가사육아가 54.8%로 과반을 차지한 반면, 남성의 경우 구직활동(취업준비)가 41.9%로 현저하게 높았고, 그냥 쉬었음도 32.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남녀 모두 연령별 응답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남녀 모두 통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대와 30대는 구직활동(취업준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반면, 60대와 50대 여성은 그냥 쉬었음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성은 30대와 40대의 구직활동(취업준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녀가 있는 여성은 가사육아가 79.6%로 높았다.

비취업자 중에서 86.1%는 과거 경제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여성이 88.5%로 남성 80.8%에 비해 높았다. 가장 최근에 일자리를 그만 둔 주된 이유로는 여성은 자녀 등 가족 돌봄, 임신출산, 결혼의 비율이 높았고, 남성은 학업 등 다른 일 준비와 근로조건 문제가 차지하는 비

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남녀 모두 연령별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등 가족 돌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비취업자에게 향후 3년 이내의 경제활동 계획을 질문한 결과 남성의 경우 취업이 68.2%로 여성(48.2%)에 비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일할 계획 없음이 32.4%를 차지했다. 경제활동 계획이 있는 여성의 경우 프리랜서를 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전 연령대에서 13~14%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도시에 거주할 경우 프리랜서를 할 계획이라는 응답이 17.0%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향후 3년 이내에 일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에게 향후 직업 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을 질문한 결과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근무시간(26.0%)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 차별경험 및 안전

가) 차별경험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52.5%가 여자답게 또는 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42.6%였고,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의 성차별을 경험한 사람은 33.4%였다. 구직과정에서의 성차별은 32.7%, 임금(소득)에서의 성차별은 32.3%, 성장 과정에서의 성차별은 31.8% 학교생활과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은 각 29.1%와 28.8%였다. 그러나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모든 영역에서 더 많은 성차별을 경험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성차별 경험에 있어서 가장 성별 경험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성희롱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38.2%p 높았다.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은 30.4%p,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의 성차별은 30.2%p, 임금(소득)에서의 성차별은 27.8%p의 성별 경험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모든 조사영역과 연령에서 성차별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성장과정, 재산분배에서의 성차별은 높은 연령에서 더 많이 경험하였으나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이나 여성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 성희롱은 40대 이하에서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차별에 대한 경험 비율이 낮았고, 학교생활이나 남성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은 40대 이하에서 더 많이 경험하였으며, 여성에 비해 차별 경험의 연령 간 편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외모로 인한 차별과 관련하여 ‘외모 지적 및 비하 발언’을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전체의 38.9%, 실제로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0.0%였다.

외모 지적 및 비하 발언을 들은 경험과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은 여성이 각 48.1%와 26.4%로 남성의 30.3%와 14.0%에 비해 높았다.

남녀모두 20대 이하에서 외모에 대한 지적 및 비하 발언을 들은 경험이 가장 높았고(여성 62.6%, 남성 39.8%),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경험은 감소하는 추세이다. 남성의 경우 30대(33.6%)보다 40대(33.6%)가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근소하게 높았다.

여성이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성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았고, 외모로 인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경험한 상황은 여성의 경우 구직활동과정에서가 58.2%로 가장 높았고, 남성은 직장 또는 학교에서가 51.0%로 가장 높았다. 직장이나 학교, 구직활동 과정에서는 여성과 남성에게서 가장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 항목이었다.

나) 안전

안전 관련 두려움 및 불안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높은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죄에 사용되는 것과 밤늦게 귀가할 때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높았다.

여성들이 폭력 및 범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는 것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죄에 사용되는 것(82.6%)이었고 밤늦게 귀가 시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82.8%) 또한 높았다. 남성들은 개인정보의 온라인 유포 및 범죄사용만이 불안하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58.0%였고,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서는 여성 응답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낮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특히 두려움이나 불안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응답차이가 큰 항목은 밤늦게 귀가할 때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58.9%p 높은 응답을 나타내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의 온라인 유포 및 범죄사용 불안을 제외하고는 여성과 남성의 응답 차이가 모두 40%p 이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폭력이나 범죄에 대해 보다 큰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높았고,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불안과 두려움이 높게 나타났다.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을 때’,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바로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을 때’와 관련해서는 남녀 모두 관계기관에 알린다는 응답기 가장 많았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해당 응답을 선택한 비율이 높았다. 남성들의 경우는 모든 문항에서 관여하지 않는다와 직접 나서서 말린다를 많이 선택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성추행이나 불법 촬영, 가정폭력과 달리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목격했을 때는 관계기관에 알리기보다는 주위에 알린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는 법적인 처벌보다는 해당 문제를 직장이나 학교 등 조직 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 경우가 더 많다고도 볼 수 있다.

5) 성평등 정책

가)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

성평등 정책에 대한 생각과 관련하여 여성은 남성에 비해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에 대한 동의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약간 더 동의하고 있었다.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여성의 85.6%, 남성의 70.4%가 동의(매우 그렇다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80% 이상이었으나 남성들은 연령별로 응답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40대 이하에서는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는 비율이 60% 선이었으나 50대는 80.2%, 60대는 90.5%로 매우 높았다. 여성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남성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동의하는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성평등 수용의 응답과 유사한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여성의 65.5%와 남성의 56.6%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남성(10.6%)이 여성(3.1%)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여성과 남성 모두 6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은 여성과 남성 모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는 문항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보다 긍정적인 응답을 나타내고 있었다. 남성의 41.2% 여성의 32.2%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하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여성이 39.9%, 남성이 29.4%였다. 여성들은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반응보다는 모르겠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남성들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과 마찬가지로 남녀 모두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았다. 이것이 연령효과인지, 자녀가 살아갈 미래를 위해 정책적으로 보다 관심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더 필요하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었으나 정책에 대한 관심은 정책에 대한 동의 보다는 낮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더욱 낮아진다.

남성들이 성평등 정책이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는 것과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대한 관심 모두가 여성에 비해서 낮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에 비해서 높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성평등 의식이 낮고, 성평등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욕구도 적어서 오히려 성평등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여성에 비해 호의적일 가능성도 존재한다.

나)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중요도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정책별 중요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정책별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지원 강화 정책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여성창업지원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았다.

여성들은 모든 정책 이슈들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정책들의 중요성을 보다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를 제외한 모든 정책들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응답이 90% 이상이었고, 여성창업 지원과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 또한 중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89.1%와 89.9%로 거의 90%에 달한다. 반면 남성은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던 정책 분야는 돌봄지원 강화로 88.2%였고, 중요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았던 정책은 여성창

업지원으로 60.5%였다. 경제활동에 있어서 취업보다는 창업의 비중이 낮고, 창업은 사업자금이 필요하고 실패할 경우 개인이 높은 경제적 위험을 감당해야하는 만큼(정형옥, 2023) 여성 창업 지원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지원 현황과는 달리 창업을 매우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여성 창업지원의 중요성을 낮게 생각하는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

여성과 남성의 정책별 중요도에 대한 응답에서 차이가 가장 많았던 것은 여성창업 지원으로 여성과 남성 간에 28.6%p의 응답 차이가 나타났고, 양성평등 정책 연계-협력 및 추진기반 강화는 20.8%p, 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는 20.5%p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렇듯 여성들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들이 대부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남성들은 여성 일자리 및 성평등한 노동환경이나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책추진기반 강화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지 않아서 성별 인식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반면 성별 응답의 차이가 작았던 항목은 돌봄지원 강화(7.3%p)와 양육부담 경감 지원(8.4%p)으로 자녀양육 및 돌봄, 안전과 건강권 등과 관련해서는 남성들도 정책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여 정책의 중요도에 있어서 성별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연령별로는 여성들은 다른 정책영역들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20대 이하에서 정책들의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남성들은 60대가 중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30대 이하의 중요도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도 남성들에 있어서 자녀유무에 따른 응답 차이가 크게 나타났는데,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정책의 중요도를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다)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 불평등 문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로 응답자들이 1순위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임신,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34.0%)이었고,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34.0%), ‘여성에 대한 폭력’(13.8%),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12.1%),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8.5%), ‘학교교육, 활동 등에서 성별고정관념’(6.5%), ‘인터넷 개인방송, 뮤직비디오, AI 등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4.3%), ‘주요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낮은 참여기회’(3.3%)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은 남성과 비교하여 임신,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36.3%),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14.3%), 여성에 대한 폭력(14.3%) 등에 대한 응답이 높았고, 남성은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11.4%), 학교 교육 및 활동 등에서 성별고정관념(7.5%), 주요 의사결정에서의 여성의 낮은 참여기회(4.5%)에 대한 응답이 여성보다 높았다.

1순위와 2순위의 통합 결과 역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 불평등 문제로 여성의 경력단절을 가장 많이 꼽았다(전체 56.1%, 여성 61.2%, 남성 51.2%). 그러나 1순위와 달리 1순위와 2순위 통합 결과에-서는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가 두 번째로 많이 응답한 항목이었으며, 특히 여성의 응답이 높았다(전체 32.7%, 여성 41.0%, 남성 24.9%).

연령별 응답을 살펴보면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의 경력단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이 중에서도 특히 30대(68.0%)와 40대(67.0%)가 가장 높았다. 20대 이하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에 대한 응답이 20.0%로 높았고, 40대 여성은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50.2%)를 많이 꼽았다.

자녀유무에 따라서는 여성은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이나 남성의 낮은 돌봄참여, 학교 교육 및 활동 등에서의 성별고정관념과 같이 자녀 양육의 문제와 연결된 이슈들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남성은 자녀가 없는 경우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 학교 교육 및 활동 등에서 성별 고정관념과 같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자녀가 있는 사람들에 비해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나. 시사점

1) 성별, 세대별 인식격차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결과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 의식과 관련 경험 및 정책관심사 등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들은 여성들과 비교하여 모든 영역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 태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성의 지위 변화에 대해서도 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남성들은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이나 강한 남성의 이미지에 여전히 자신을 더 강하게 묶어놓는 경향이 존재하였으며, 생계부양자로서의 남성의 역할에 대한 인식은 실업률이 높을 때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나,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이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차별주의 문항 중 여성들이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남성 응답자의 2/3 가량인 65.9%가 동의하여 여성의 37.2%와 매우 큰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남성의 권력에 도전하는 여성들에 대한 적대감으로서의 적대적 차별주의 의식으로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실제로 응답자 대부분이 여성과 남성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여성의 81.8%, 남성의 78.4%가 젠더갈등이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뿐 아니라 여성과 남성에 대한 혐오,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모두 심각성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여성들의 심각성 인식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성별로 인한 차별 경험이나 외모로 인한 차별 또한 여성들이 경험한 비율이 남성보다 매우 높았고, 안전과 관련된 이슈들에서도 여성의 두려움이나 불안이 두드러지게 높다.

그 결과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인식 차이가 크게 존재하였고, 10년 후의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 전망 또한 명확한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현재도 10년 후 미래에도 우리 사회가 성평등하다거나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응답이 여성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아서 성평등과 관련한 현실 인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경험의 차이는 성평등 정책에 대한 중요도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경기도민들이 생각하는 성평등의 정의가 성별로 동일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분석 결과 남성은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에 동의하는 비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았고, 성평등 가치에 대한 동의와 성평등 이슈에 대한 관심은 낮은 편임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에게서 성평등 실천에 대한 응답이 약간 높다는 것은 여성과 남성이 생각하는 성평등과 성평등 실천에 대한 정의가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성별 차이뿐 아니라 세대 간 차이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 태도 또한 분명하게 증가한다. 20대 여성과 60대 여성의 성평등 의식에는 매우 큰 격차가 존재하여 세대 간 이해와 인식격차 해소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남성들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세대 간 인식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나 여성들의 세대 간 인식 차이에 비해서는 남성 중심의 보수성에 기반하여 세대 간 인식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20~30대 남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동의를 보이고 남성의 지위변화에 대해서는 가장 수용적인 모습을 보이지만, 동시에 강한 남성이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뿐만 아

니라 20~30대 남성들은 이후의 연령대 남성들에 비해 우리 사회가 평등하거나 남성들에게 불평등한 사회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성평등정책과 성평등한 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20~30대 남성들의 거부감을 반영하는 것이며, 이러한 20~30대 남성들의 특성은 가족에서 개인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와(임혜경, 2020) 젠더갈등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사회문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변화하는 인식, 변하지 않는 성역할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 및 정형옥·신경아(2016)의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수요조사」와 현재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본 조사가 고학력, 고소득 집단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성평등 의식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2021년 「양성평등실태조사」에서는 지난 5년간 가족 내 성역할 분업과 직업에서의 성별 분리에 대한 통념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마경희 외, 2021). 10년 후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전망 또한 우리 사회가 보다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가 드러난다. 뿐만 아니라, 본 조사에서는 성평등 수용과 관련한 문항과 성평등 가치에 대한 동의와 실천 관련 문항은 응답자의 80% 이상이 동의하고 있었다.

이렇듯 전반적으로 성평등 가치에 대한 인정과 성평등 실천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은 성평등 의제의 지속과 함께 이제는 성평등이 하나의 도덕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의 변화가 실질적인 성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 성평등 가치의 수용과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문항은 성별 응답 차이도 적고 문항에 대한 동의율도 낮은 편이었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는 응답은 고정관념 및 차별주의 관련 문항 중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하여 양가적인 인식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성역할에 있어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함은 인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여성의 돌봄역할에 대한 기대와 ‘모성’에 대한 신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가치와 기존의 가치가 일치되지 못하고 혼재하는 양상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응답자의 대다수가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였지만, 유배우자의 경우 부부간에 여전히 전통

적인 성역할 분업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혼(비혼)의 경우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망설이는 이유 중에서 '가부장적 가족 문화, 관계가 싫어서' 라는 응답이 여성들에게서 여전히 유의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 관련 문항을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대한 관심이 있다' 는 문항은 성평등 수용 관련 문항에서 응답자들에게 가장 적은 동의를 받은 문항이며, 성별 응답의 차이가 가장 큰 문항이기도 하다. 이는 도덕적이고 사회적 가치에 따른 응답이 아니라 응답자의 성평등에 대한 생각을 더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도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정책의 중요성 인식이 높았다. 성평등 가치의 인정과 관심, 실천 간의 괴리는 향후 성평등 이슈의 확산 노력에 있어서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다.

3) 자녀유무 및 자녀 성별에 따른 인식격차

자녀에 따른 부모의 성역할 인식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한 경우 성역할 인식이 보다 전통적이라는 여러 연구들(Fan and Marini, 2000; Perales et al., 2018; Warner, 1991; Warner and Steel, 1999)이 있으며, 남성 부모와 관련해서는 자녀가 있는 남성이 자녀가 없는 남성들 보다 보수적이라는 연구(김영미·류연규, 2016; Perales et al., 2018), 직접 자녀양육을 경험한 남성은 성역할 태도가 성평등하게 변화한다는 연구(김진욱·권진, 2014; 김영미·류연규, 2016; 나성은, 2014) 등이 있다(재인용, 류지아, 2020). 이 외에도 자녀의 성별과 관련하여 딸이 부모에게 진보적이거나 성평등적인 인식을 갖도록 한다는 연구(Warner, 1991; Warner and Steel, 1999; Washington, 2008; Shafer and Malhotra, 2011; Oswald and Powdthavee, 2010), 오히려 딸의 존재가 전통적인 입장을 강화한다는 연구(Conley and Rauscher, 2013; Perales et al., 2018), 딸의 존재가 어떤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연구(Lee and Conley, 2016)등이 있다. 아들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아들이 있는 어머니들이 보다 전통적인 성역할을 가진다는 연구(Downey et al., 1994)와 더 성평등적이라는 연구(Katzev et al., 1994) 등이 혼재한다(재인용, 류지아, 2020). 류지아(2020)는 부모의 성역할 관념에 영향을 미치는 반대 성별 자녀효과를 분석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자녀 성별 구성에서 아들의 비중이 커질수록 성역할 관념이 전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남성들은 유의미한 수준에서 자녀성별 구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은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보다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중요도도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아들만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딸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성평등 수준을 딸만 있는 사람들에 비해 높게 보고 있었다. 반면, 남성들은 자녀 유무에 따라 성별 고정관념과 성평등 수용이 여성들만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성평등 정책의 의미와 관심, 정책별 중요도에 있어서는 자녀가 있는 사람들이 자녀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동의와 중요성 인식이 뚜렷하게 높았다. 남성들은 딸만 있는 사람들이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낮고 성차별주의 태도도 약간 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뚜렷한 차이나 일관적 경향성이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아들만 있는 사람들이 딸이 있는 사람들에 비해 현재와 미래의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였다. 여성은 딸만 있는 사람이 여성에 대한 혐오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고, 남성은 아들만 있는 사람이 남성에 대한 혐오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였다.

이러한 차이들은 자녀의 존재와 자녀의 성별이 일정 부분 부모의 가치관이나 젠더이슈 등 사회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작고, 일관적이지 않은 경향성이 있는데, 이는 남성의 자녀에 대한 감정이입이 여성에 비해 덜하거나, 남성 자신의 정체성과 자녀의 입장 사이에서 가치의 혼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향후 부모 대상 성인지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해당 이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 여전히 존재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차별

한국 사회의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직간접적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은 다양한 지표를 통해 확인되는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실태를 조사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경기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가사 및 육아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또한 취업한 경우에도 남성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의 조직문화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성별직종(업종)분리, 승진을 가로막는 ‘유리천장’, 임신·출산에 따른 퇴사강요, 육아휴직 사용의 어려움 및 불이익 등 성차별적 조직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관련 제도를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실제 사용하는 것이 쉽지 않은 조직문화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실로 인해 본 연구의 조사에 응답한 경기도민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불평등 문제에 대해 '임신·육아·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4.0%로 가장 높았다. 다음 순위도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 상 성차별' 이 15.6%로 높게 나타났다. 즉, 경기도민들은 경제활동 분야에 대한 성차별 문제를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5) 성평등 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과 체감도

본 조사의 결과를 통해 중요하게 고민해야 할 지점 중 하나는 응답자들의 성평등 가치에 대한 동의나 성평등 정책에 대한 동의에 비해 성평등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매우 낮다는 것이다. 전체 응답자 중 36.8%만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여성은 32.2%만이 해당 질문에 동의하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4.5%였으며, 여성의 39.9%, 남성의 29.4%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특히 20대 이하 여성은 절반에 가까운 47.9%, 30대 여성의 39.5%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20대 이하 여성의 22.1%, 30대 여성의 25.1%만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여,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30.0%와 35.4%로 더 높았다. 20~30대 여성들은 성평등 의식이 높고, 우리 사회의 성평등 관련 이슈와 정책의 중요도에 대한 민감도 또한 높은 집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경기도의 성평등 정책을 모르겠다고 하거나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보다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의 추진과 성평등 정책 추진에 따른 홍보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젠더이슈에 관심유무별로는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에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응답이 젠더이슈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서 높았다. 그러나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여성의 36.7%, 남성의 27.0%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28.6%, 남성의 25.0%는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동의하지 않음 포함)고 하였다. 젠더이슈에 관심이 있는 여성의 34.8%, 남성의 48.1%만이 경기도가 성평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향후 경기도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과 홍보에 있어서 역시 시사점을 남기는 부분이다.

2. 정책제언

가. 젠더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

조사결과 여성과 남성의 성별고정관념과 성차별주의 태도, 성평등에 대한 수용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특히 남성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뚜렷하게 높았다. 여성들은 성평등 가치를 더 빨리 수용하고 내면화하고 있었으며,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성평등 가치의 수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는 오히려 20~30대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나 전통적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 같은 연령 안에서도 성별 인식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젠더 갈등의 발생과 여성 또는 남성에 대한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 또한 높아지게 된다.

실제로 전체응답자의 80.1%가 우리 사회의 젠더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심각성의 인식은 30대 이하에서 보다 두드러진다. 여성 또는 남성 혐오 현상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또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젠더갈등 완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임혜경(2023)은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발굴」 연구를 통하여 청년세대의 인식과 경험을 중심으로 젠더갈등 대응을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제로 ‘양성평등 긍정모델 확산’, ‘미래세대 양성평등 시민역량 강화’, ‘양성평등 공감정책 확대’, ‘양성평등 협력과 지지기반 구축’을 제안한 바 있다. 젠더갈등 대응을 위해서는 해당 정책과제를 토대로 경기도 차원의 협력과 지지기반 구축을 토대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미래사회의 성평등한 시민역량강화를 모색해야 한다. 청년층의 젠더갈등 해소는 곧 성평등한 미래사회의 초석이 될 수 있다.

노년층과 청년층의 성평등 의식의 격차 또한 갈등의 소지가 있는 만큼 노년 대상 성평등 의식 확산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성인지 교육 사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해야 하며, 노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성별이 부모의 성평등 의식 등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영유아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과 부모교육 프로그램 등에서도 성인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더불어 여성대상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여성 대상 폭력문제를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여성들이 폭력이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젠더 폭력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제의 연구들이 심도 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제안된 정책제언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는 순환구조의 확립이 요구된다. 2022년에는 「경기도 여성폭력실태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 뿐 아니라 젠더 폭력 관련 실태 조사도 꾸준하게 정기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 1인가구들은 여성 대상의 폭력이나 범죄 등에 대한 불안을 더욱 크게 느낀다(노경혜, 2018; 정혜원·노경혜·노혜진, 2021). 따라서 여성 1인가구를 중심으로 하는 안전사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1인가구 대상 안전사업들은 궁극적으로는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

더불어 장기적이고 통합적 관점의 젠더폭력 통합대응체계 구축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젠더폭력 피해자 대상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을 확보할 뿐 아니라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접근을 통하여 젠더폭력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돌봄 이슈의 확장 및 지원 강화

조사를 통해 성평등 가치가 어느 정도 사회의 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족 내 성역할 분업은 존재하며, 특히 돌봄과 관련한 역할은 여전히 여성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한 돌봄 역할은 여성의 경력단절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이에 응답자들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관련 정책 중 양육부담 경감 지원과 돌봄지원 강화 등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요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었다. 양육부담 경감 및 돌봄지원의 강화는 여전히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돌봄 책임을 완화하여 돌봄으로 인해 제한된 여성들의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거나 돌봄으로 인한 일-생활균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기존의 돌봄지원 정책들을 강화하되 돌봄에 대한 가치의 재인식과 성평등한 돌봄 문화 형성을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돌봄지원은 경기도 뿐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돌봄의 사회적 책임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돌봄에서 지역사회와 가족의 역할도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족과 지역사회 안에서 남성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기획이 필요하여, 성평

등한 돌봄참여의 의미와 공감대 확산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한편 현재의 돌봄에 대한 인식과 돌봄지원 정책은 대부분 자녀돌봄에 한정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라 노인 돌봄에 대한 이슈 또한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다양한 돌봄으로의 정책 이슈 확산이 필요하다. 노인돌봄 역시 여전히 주된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으며, 돌봄 서비스 또한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과거에는 며느리 돌봄이 많았다면 효와 같은 가족가치의 변화에 따라 그 자리를 비혼의 여성 자녀들이 대체하고 있는 실정이다(노경혜, 2023). 그리고 노인복지 정책이 돌봄 대상자로서의 노인에 주로 집중하며 노인을 돌보는 돌봄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고, 돌봄 서비스에 있어서 돌봄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고 있기도 하다. 비혼 자녀의 노부모 돌봄 경험과 관련한 노경혜(2023)의 연구에 따르면 비혼 자녀의 성별에 따라서 돌봄의 특성과 정책 요구 등에서 차이가 존재하였고, 유급 돌봄 서비스에서 남성 돌봄노동자에 대한 욕구가 뚜렷하였다. 따라서 자녀 돌봄과 더불어 노인 및 장애인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돌봄에 있어서 돌봄 대상자 뿐 아니라 돌봄자들의 젠더이슈를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돌봄대상자와 돌봄자의 젠더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들이 적극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돌봄의 질과 다양한 돌봄의 욕구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가치가 평가절하 되어 있는 돌봄노동시장의 개선이 필요하다. 돌봄은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과 돌봄노동에 대한 낮은 가치 인식 등으로 인하여 업무의 강도나 의미에 비해 돌봄노동은 전반적으로 낮은 보수체계를 가지고 있다. 돌봄노동 시장의 보수체계를 개편하거나 보조하는 방식 등을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를 재평가 하고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려는 노력 또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 성 평등한 노동시장 환경 구축 지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성평등 실태를 조사한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서는 여전히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차별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지역노동시장의 성차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경기도 여성들이 취업하는데 있어서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고, 임신·출산 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으면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들이 성 평등한 노동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때 무엇보다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취업자의

성별은 물론 사업체 규모에 따라 성차별적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즉, 소규모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더욱 성차별적 조직문화를 경험하고 있었다. 따라서 경기도 사업체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중에서도 중기업과 소기업의 노동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성차별적 조직문화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법제도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육아휴직은 물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가족 돌봄 휴직(휴가) 등 다양한 일・생활 균형 제도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경기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훈련, 취・창업지원 사업 등 경제활동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2022년 기준 경기도 여성의 고용률은 53.7%로 경기도 남성(74.6%)에 비해 20.9%p나 낮기 때문이다[3]. 이와 관련 경기도는 중장년여성 취업지원 사업, 고학력・고숙련 취업지원 사업, 디딤돌 취업지원(사후관리) 사업, 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사업, 온라인 경력개발센터 '꿈날개' 운영,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등 다양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노동시장 변화와 이에 따른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에 대한 성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정책을 개선・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에도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 정책홍보 강화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들은 성평등 가치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정하고,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정책별 중요도 또한 높게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잘 추진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34.5%). 한편 경기도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28.6%여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양성평등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도민들이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성평등한 경기도 구현을 위하여 의미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들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보다는 무관심 또는 부정적 반응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정책 홍보가 더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적극적인 정책 추진 노력도 중요하지만,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지에 도민들이 관심과 공감대를 가지게 하는 것 또한 성공적인 정책 추진의 필수 요소이기

3)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2022년 상반기 자료. https://kosis.kr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상대적으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여성 창업지원과 양성평등정책 추진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방식의 접근과 적극적 홍보가 요구된다. 해당 사업들이 가지는 의미를 공유함으로써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 또한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조사에서 나타난 성별과 세대별 인식차이를 고려한 다양한 방식의 정책홍보 노력이 요구된다.

마. 정기적인 조사 실시

본 조사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기획한 '첫 번째'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이다. 기존에 재단에서 추진했던 실태조사들은 주로 일회성 조사에 그쳐, 정기적인 추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양성평등실태조사」는 5년 주기로 시행될 뿐 아니라 경기도 데이터만을 추출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조사」는 2~3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경기도민의 성평등 의식과 실태의 변화추이를 파악하여 보다 실질적인 성평등정책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조사 시에는 현재의 조사 추진 상에서 드러난 문제를 적극적으로 보완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온라인 조사로 추진 시 조사 참여자의 학력과 소득 수준 등에 대한 추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본 조사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되었는데, 조사업체의 패널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등록한 사람들로 한정되므로 디지털리터러시가 높고, 전체 모집단에 비하여 학력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경향성을 나타낸다. 본 조사는 성별과 연령, 지역별 분포는 경기도민 모집단 비율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나, 학력과 소득수준 등은 통제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가 추진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응답자의 학력과 소득수준 등이 모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성을 나타낸다. 특히 50대 이상의 응답자의 경우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실제 모집단과의 차이가 더 클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로 인하여 조사 결과를 조사문항의 기초가 된 「양성평등실태조사」나 정형옥·신경아의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수요조사」 결과와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한편, 경기도는 지역별 특성과 이로 인한 인구분포에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경기도민 대상 조사연구에서 지역별 특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경우는 인구비율이 워낙 적은 지역이어서 한정된 사례수 내에서 농촌지역의 특성만을 분석하는 것 또한 한

계가 있었다. 소수의 의견이 농촌지역을 대표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곱근비례할당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촌지역 거주자는 전체 응답자의 5.9%에 불과하여 도농복합지역과 통합하여 분석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에서 지역별 특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농촌지역과 도농복합지역을 통합한 것과 더불어 지역 특성과 관계 없이 교육수준과 디지털리터러시가 높은 패널들이 주로 조사에 참여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사 참여자의 학력과 소득 수준에 대한 통제 뿐 아니라 조사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조사문항의 일부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외부 전문가들은 자문을 통해 일부 문항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조사의 사용이나, 문항자체가 명료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한 세부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조사 연구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위해 현재 연구진 중 최소 1인은 차년도 연구에 포함되거나 자문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고보혜·이미영·박주희·김영신. (2017). **광주광역시 성평등 정책 수요조사**. 광주여성재단.

김수연. (2015). **경상북도 남성의 양성평등의식 및 정책수용성 조사**. 경북여성정책개발원.

김양희·정경아. (1999).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종철·정숙정. (2015). **충남 남성의 성평등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노경혜. (2023). **경기도 비혼 자녀의 노부모 돌봄 경험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류지아. (2020). 부–모의 성역할 관념에 대한 반대 성별 자녀의 영향–결혼경험이 있는 유자녀 성인남녀의 자녀성별구성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74, 93-122.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 (2019).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_____·황정임·이은아·문희영. (2021). **2021년 양성평등 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안상수·이순미·김인순·김금미. (2016).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Ⅰ): 검사 타당화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23). **제3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2027)**.

이나련·정유진. (2022). **경기도민의 가족다양성 인식조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이수연·김인순·고재훈. (2019). **개정 한국형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Ⅱ: 표준화 규준 마련 및 검사활용 매뉴얼 제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이윤경·변수정·김은정·진화영·주보혜·남궁은하·김주현·정윤경. (2020).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 인식 및 가치관 심층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해웅·신승배. (2019). **제주도민 성평등 의식 실태조사**.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임현정·박지영. (2018). **부산지역 가족 내 성평등 실태와 개선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임혜경·김선희·심선희·이나련·정형옥·정혜원. (2022).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2023~ 2027 수립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형옥. (2023). **경기도 여성창업지원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_____·신경아. (2016).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정책 수요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_____·안태윤. (2012). **2012년 경기도민 여성가족정책 수요조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혜원·김미정·노경혜. (2021). **포스트 코로나시대, 여성가족정책 변화와 미래**. 경기도여성

가족재단.

정희경·정영태. (2017). **대구여성정책 풍향계: 대구청년여성 실태와 시민양성평등 의식 연구**. 대구여성가족재단.

조선미·주재선·김영란·이동선·김은정·이진숙·임연규·강정한·손창균. (2022). **2022년 여성가족 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자경. (2018). **대학생 성평등 의식 및 성평등교육 실태조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주재선·김효주·김은정·민보람. (2022).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주혜진·장은정. (2012). **성차인식 및 성평등 실태조사를 통한 성주류화전략 확산방안**. 대전발전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9.01.15). **보도자료: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안 인식조사**.

한국행정연구원. (2022).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홍미영·신희영. (2017). **부산지역 양성평등 정책 성별 수용성 분석과 정책과제**. 부산여성가족개발원.

홍미희. (2014). **인천시 성평등 수준 및 성평등의식에 관한 연구**. 인천여성가족재단.

부 록

1.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부록.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한국갤럽
03167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70 한국갤럽조사연구소 T_02-3702-2629 H_www.gallup.co.kr
70 Sajik-ro Jongno-gu Seoul 03167, South Korea F_02-3702-2121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

Gallup 2023-221-007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의 의뢰로 '경기도민 성평등 의식 및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모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모든 질문에는 옳고 그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평소 생각과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조사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주관기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조사기관	Gallup
문 의 처	한국갤럽 조반석 차장 (Tel : 02-3702-2629 , Email : bsjo@gallup.co.kr)		

SQ1) 현재,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경기도 이외 설문 중단)

① 서울특별시➔ 조사중단 ② 부산광역시 ➔ 조사중단 ③ 대구광역시➔ 조사중단
④ 인천광역시➔ 조사중단 ⑤ 광주광역시 ➔ 조사중단 ⑥ 대전광역시➔ 조사중단
⑦ 울산광역시➔ 조사중단 ⑧ 세종특별자치시➔ 조사중단 ⑨ 경기도
⑩ 강원도 ➔ 조사중단 ⑪ 충청북도 ➔ 조사중단 ⑫ 충청남도 ➔ 조사중단
⑬ 전라북도 ➔ 조사중단 ⑭ 전라남도 ➔ 조사중단 ⑮ 경상북도 ➔ 조사중단
⑯ 경상남도 ➔ 조사중단 ⑰ 제주특별자치도➔ 조사중단

SQ1-1) 현재, 귀하가 살고 계시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가평군 ② 고양시 ③ 과천시 ④ 광명시 ⑤ 광주시 ⑥ 구리시
⑦ 군포시 ⑧ 김포시 ⑨ 남양주시 ⑩ 동두천시 ⑪ 부천시 ⑫ 성남시
⑬ 수원시 ⑭ 시흥시 ⑮ 안산시 ⑯ 안성시 ⑰ 안양시 ⑱ 양주시
⑲ 양평군 ⑳ 여주시 ㉑ 연천군 ㉒ 오산시 ㉓ 용인시 ㉔ 의왕시
㉕ 의정부시 ㉖ 이천시 ㉗ 파주시 ㉘ 평택시 ㉙ 포천시 ㉚ 하남시
㉛ 화성시

SQ2) 귀하의 출생년도는 몇 년도 이십니까?

_____세 ➔ 만19세 미만과 만65세 이상은 조사중단

SQ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① 여성 ② 남성

※ 다음의 문항은 귀하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 관심사 등에 대한 질문입니다.
잘 읽고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성평등 의식과 성평등 수준

문1. 귀하는 다음 제시된 내용들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항 목	전혀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하지 않는다	동의 한다	매우 동의 한다
(1) 가족의 생계는 주로 남성이 책임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2) 남성은 약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3) 여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간호사, 보육교사 등)은 남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4) 실업률이 높을 때 여성보다 남성이 우선 채용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5)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주된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	①	②	③	④
(6) 여성은 강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7) 남성들이 주로 일하고 있는 직업(직업군인, 경찰 등)은 여성에게 적합하지 않다	①	②	③	④
(8) 아내의 소득이 남편의 소득보다 많으면 남편은 기가 죽는다	①	②	③	④
(9) 남성이 여성 밑에서 일하는 것은 불편하다	①	②	③	④
(10) 여성이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11) 남성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12) 남성은 여성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하다	①	②	③	④
(13) 요즘 여성들은 평등을 주장하면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	①	②	③	④
(14) 힘들고 위험한 일은 여성보다 남성이 하는 것이 좋다	①	②	③	④
(15)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16)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줄 엄마가 있어야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	①	②	③	④
(17)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이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성평등이나 성차별 이슈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19) 나는 생활 속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①	②	③	④

문2.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다음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지 않다	심각 하다	매우 심각 하다
(1)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2)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	①	②	③	④
(3) 여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①	②	③	④
(4) 남성에 대한 혐오(비하, 조롱, 폄하 등)	①	②	③	④
(5) 온라인상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 표현이나 농담	①	②	③	④

문3.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아래의 각 항목별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 ← 평등 →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								
1) 교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가족에 대한 돌봄책임 분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취업(일자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승진(관리직 진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 임금(소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6) 정치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4-1. 귀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성평등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 하십니까?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한 사회 ← 평등 →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한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4-2. 귀하는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에 우리 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이 현재와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십니까?

여성에게 매우 불평등한 사회 ← 평등 → 남성에게 매우 불평등한 사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5. 귀하는 **현재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다음의 문항은 귀하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귀하의 생각과 현재 상황 및 경험을 묻는 문항들입니다.

Ⅱ. 가족가치 및 가족생활

문6. 귀하의 현재 혼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① 미혼(비혼) ②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③ 이혼/별거 ④ 사별

문7. 귀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은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몇 명입니까?
(※현재 혼자 거주하고 있는 경우 1명으로 표시)
총 ( )명 **[1명일 경우 문8로 이동]**

문7-1. **[문7의 2명 이상 응답자만]** 현재 귀하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모두 체크해주세요.

관 계	동거 여부 (있으면 체크)	관 계	동거 여부 (있으면 체크)
1) 배우자(사실혼, 비혼동거 포함)	□	2) 자녀	□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	4) 손자녀	□
5) 본인 또는 배우자의 조부모	□	6) 자녀의 배우자	□
7)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	8) 손자녀의 배우자	□
9) 기타( )	□		

[문6 ①,③,④ 응답자는 배우자 응답불가]

응답 결과를 토대로 분류 분석할 때 아래와 같이 분류할 예정

① 1세대 가구	⑪ 부부 ⑫ 부부+형제자매 ⑬ 부부+기타친인척 ⑭ 형제자매 ⑮ 기타친인척 ⑯ 기타 1세대 가구
② 2세대 가구	㉑ 부부+자녀 ㉒ 부+자녀 ㉓ 모+자녀 ㉔ 부부+양친 ㉕ 부부+한부모 ㉖ 부부+자녀+부부형제자매 ㉗ 조부모+손자녀 ㉘기타 2세대가구
③ 3세대 가구	㉛ 부부+자녀+양친 ㉜ 부부+자녀+한부모 ㉝ 기타 3세대 가구
④ 1인 가구	
⑤ 비혈연 가구	

문8. 귀하께는 자녀가 있습니까? **[문7-1 2,4,6,8 응답자는 ② 아니오 응답불가]**

① 예 ➜ 문8-1 ② 아니오 ➜ 문9

문8-1. 몇 명의 자녀가 있습니까?
총 ( )명

문8-2. 자녀의 성별은 어떻게 됩니까? **[문8-1 응답값 만큼 자녀 수 활성화]**

분 야	자녀성별	
	딸	아들
첫째 자녀	①	②
둘째 자녀	①	②
셋째 자녀	①	②
넷째 자녀	①	②
다섯째 자녀	①	②

문8-3.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됩니까? [문8-1 응답값 만큼 자녀 수 활성화]

분 야	자녀연령			
	영유아 (만0~5세)	초등아동 (만6~12세)	청소년 (만13~18세)	성인 (만19세 이상)
첫째 자녀	①	②	③	④
둘째 자녀	①	②	③	④
셋째 자녀	①	②	③	④
넷째 자녀	①	②	③	④
다섯째 자녀	①	②	③	④

문9. **[문6의 ① 미혼(비혼) 응답자만]** 귀하는 결혼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

① 결혼할 생각이 있다 ➜ 문14
② 결혼할 생각이 없다 ➜ 문9-1
③ 잘 모르겠다(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문9-1

문9-1. **[문9의 ③,④ 응답자만]** 결혼을 할 생각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 응답 후 문14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명절, 제사 등 가부장적 가족 문화나 가족 관계가 싫어서
② 가족을 경제적으로 부양할 자신이 없어서
③ 집, 혼수 등 결혼 비용이 부담되어서
④ 누군가와의 관계에 구속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⑤ 결혼하면 내 직업적 성취가 어려울 것 같아서
⑥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하는 부담이 생길 것 같아서
⑦ 굳이 결혼을 해야 할 이유가 없어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10. **[문6 ②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응답자만]** 귀하는 귀하와 배우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내에게 매우 불평등	◀			평등				남편에게 매우 불평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문11. **[문6 ②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다음의 일을 남편과 아내 중 누가 주도적으로 결정합니까? (※ 현재 내 부모 또는 배우자 부모가 없는 경우 '⑥ 해당없음'으로 응답)

분 야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해당 없음
(1) 자녀교육 **[문8 ② 아니오 응답자는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⑥
(2) 투자와 자산관리(금융, 부동산 등)	①	②	③	④	⑤	
(3) 생활비 지출	①	②	③	④	⑤	
(4) 취업, 직장 이동	①	②	③	④	⑤	⑥
(5) 가사 등 집안 일	①	②	③	④	⑤	
(6) 내 부모 돌봄(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7) 배우자 부모 돌봄(일상적 돌봄, 간병 등 모두 포함)	①	②	③	④	⑤	⑥
(8) 가족 여가	①	②	③	④	⑤	

문12-1. **[문6 ②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다음의 역할을 주로 누가 수행하고 있습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분 야	남편	아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해당 없음
(1)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	①	②	③	
(2) 자녀 양육과 교육 **[문8 ② 아니오 응답자는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3)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가족모임, 경조사 등)	①	②	③	④
(4)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가족모임, 경조사 등)	①	②	③	④
(5) 가계관리(각종 요금 납부, 생활비 관리, 저축 등)	①	②	③	

문12-2. **[문6 ②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응답자만]** 귀댁에서는 다음의 역할들이 배우자와 얼마나 공평하게 분담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답해 주십시오.

분 야	매우 불공평	약간 불공평	약간 공평	매우 공평	해당 없음
(1) 시장 보기, 식사 준비, 청소 등 가사 노동	①	②	③	④	
(2) 자녀 양육과 교육 **[문8 ② 아니오 응답자는 해당없음]**	①	②	③	④	⑤
(3) 본인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가족모임, 경조사 등)	①	②	③	④	⑤
(4) 배우자 부모 또는 친척들과의 교제(가족모임, 경조사 등)	①	②	③	④	⑤
(5) 가계관리(각종 요금 납부, 생활비 관리, 저축 등)	①	②	③	④	

문13. **[문6 ② 기혼(사실혼, 동거 포함) 응답자만]** 귀댁의 경제활동 상황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맞벌이 ➜ 문13-1
② 남편 외벌이
③ 아내 외벌이
④ 부부 모두 일하지 않음

문13-1. **[문13의 ① 맞벌이 응답자만]** 그렇다면, 누구의 소득이 더 높습니까?

① 남편의 소득이 더 높음
② 아내의 소득이 더 높음
③ 둘의 소득이 비슷함
④ 배우자의 소득을 잘 모름

문14. **[문8 ② 자녀 없음 응답자만]** 귀하는 자녀를 가질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가질 생각이 있다
② 가질 생각이 없다 ➜ 문14-1
③ 잘 모르겠다(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 문14-1

문14-1. **[문14 ②, ③ 응답자만]** 자녀를 가질 생각이 없거나 아직 결정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의 보기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① 자녀 양육·교육에 많은 돈이 들어서
② 자녀를 키우면 내가 하는 일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③ 자녀에게 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서
④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어서
⑤ 아이를 좋아하지 않아서
⑥ 독박 육아를 하게 될 것 같아서
⑦ 아이의 미래가 행복할 것 같지 않아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Ⅲ. 경제활동

문15. 귀하는 **지난 일주일 동안** 수입(소득)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또는 돈을 받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의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을 하셨습니까?

※ 부업, 아르바이트 등 수입이 있는 일을 1시간 이상 하였거나 일시적인 병, 사고 또는 연(휴)가, 육아, 노사분규, 사업부진, 조업중단 등으로 일시휴직 중이신 분도 '① 예 - 일을 하였다'에 해당됩니다.

① 예 - 일을 하였다 ➜ 문19
② 아니오 - 일을 하지 않았다 ➜ 문16

[미취업자만 응답]

문16. **[문15의 ② 응답자만(미취업자)]**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주로 무엇을 했습니까?**

① 가사 · 육아
② 통학(학교, 학원)
③ 구직활동 또는 취업준비
④ 그냥 쉬었음
⑤ 기타(적을 것 : _____)

문17. 귀하는 **과거에 수입(소득)을 목적으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있음 ➜ 문17-1
② 없음 ➜ 문18

문17-1. 귀하가 **가장 최근 일자리를 그만 둔 주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① 결혼
② 임신·출산
③ 자녀 등 가족 돌봄
④ 근로조건 문제
⑤ 학업 등 다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⑥ 기타(적을 것 : _____)

문18. 귀하는 **향후 3년 이내**에 소득을 얻기 위해 일할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일하기를 희망합니까?

① 일할 계획 없음 ➜ 문28
② 취업 ➜ 문18-1
③ 창업 ➜ 문18-1
④ 프리랜서 ➜ 문18-1

문18-1. 귀하가 향후 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건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 **응답 후 문28**

① 임금수준(소득)
② 고용안정(정규직)
③ 출퇴근거리(시간)
④ 근무시간(정시퇴근, 유연근무제)
⑤ 직업의 비전(장래성)
⑥ 직종 등 하는 일의 내용
⑦ 기타(적을 것 : _____)

[취업자만 응답]

문19. **[문15의 ① 응답자만(취업자)]** 귀하가 다니는 **직장(사업체)의 종사자(대표자 포함)는 모두 몇 명**입니까?

① 1~4명
② 5~9명
③ 10~29명
④ 30~99명
⑤ 100~299명
⑥ 300~499명
⑦ 500명 이상

문20. 지난 3개월을 기준으로 귀하의 **월평균 근로소득(임금소득 또는 사업소득)**은 얼마입니까? **세전 기준으로** 작성해주십시오.

① 100만원 미만
② 100~199만원
③ 200~299만원
④ 300~399만원
⑤ 400~499만원
⑥ 500~599만원
⑦ 600~799만원
⑧ 800~999만원
⑨ 1,000만원 이상
⑩ 소득 없음(무급가족종사자 등)

문21. 귀하는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① 전혀 어렵지 않음 ② 어렵지 않음 ③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문22. **[문8의 ① 자녀있음 응답자만]** 귀하는 **일과 자녀 양육·돌봄을 병행**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① 전혀 어렵지 않음 ② 어렵지 않음 ③ 어려움 ④ 매우 어려움

문23. 귀하의 **직장(일)에서의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임금 근로자 : 다른 사람 또는 회사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자신의 근로에 대해 임금, 봉급, 일당 등 어떠한 형태로든 일한 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통상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근로자로 구분됨. 직장, 아르바이트 등 포함
- ■ 상용 근로자 : 임금 근로자 중에서 고용 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혹은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소정의 채용 절차에 의해 입사하여 인사관리 규정을 적용받는 사람
- ■ 임시 근로자 : 임금 근로자 중에서 고용 계약 기간을 1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혹은 고용 계약 기간을 정하는 계약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사업(1년 안에 완료)에 필요하여 고용된 경우
- ■ 일용 근로자 :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매일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을/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경우 등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농림·어업 경영자 포함)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 가족 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일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 (농림·어업 경영자 포함)
※ 무급 가족 종사자 : 같은 가구 내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나 농장 등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을 말하며, 조사 대상 주간에 18시간 이상 일한 사람

① 상용근로자 ➜ 문24
② 임시근로자 ➜ 문24
③ 일용근로자 ➜ 문24
④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프리랜서 포함) ➜ 문28
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 문28
⑥ 무급가족종사자 ➜ 문28

문24. **[문23의 ①,②,③ 응답자만]** **현재 근로시간 형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전일제 : 보통 하루 평균 8시간 근무하는 형태.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소정의 근로시간 동안 일하는 경우 (경비, 공장 가동 등으로 격일제 근무, 2~3교대 근무하는 경우도 전일제 근로에 해당)
※ 시간제 : 보통 하루 평균 8시간 미만 근무하는 형태. 직장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일자리(직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경우 (동일 회사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 동료가 없는 경우 평소 근로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시간제 근로에 해당)

① 전일제
② 시간제

문25. **귀하가 다니는 직장의 근로자 성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① 남성이 매우 많은 편
② 남성이 많은 편
③ 남성과 여성이 대체로 반반
④ 여성이 많은 편
⑤ 여성이 매우 많은 편

문26. 다음은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현재 다니는 직장을 기준**으로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을 더 선호 한다	①	②	③	④
(2) 남성이 하는 업무와 여성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다	①	②	③	④
(3) 여성이 특정 직급이나 직위 이상으로 승진하는 데 암묵적인 제한이 있다	①	②	③	④
(4)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회의를 준비할 때 주로 여자 직원이 음료나 다과를 준비한다	①	②	③	④
(5) 임신, 출산을 하면 퇴사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있다	①	②	③	④
(6) 육아휴직을 하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다	①	②	③	④
(7)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 눈치가 보인다	①	②	③	④
(8) 정시퇴근 하면 눈치가 보인다	①	②	③	④

문27. **귀하의 직장(일자리)에서는 다음 제도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으십니까?

항 목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여성만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남녀 모두 쉽게 이용하지 못한다	직장 내 대상자 없거나 제도 없음
(1) 출산전후휴가(남성의 경우 배우자출산휴가)	①	②	③	④
(2) 육아휴직	①	②	③	④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②	③	④
(4) 가족 돌봄 휴직/휴가	①	②	③	④
(5)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①	②	③	④

Ⅳ. 차별과 안전

문28.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다음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항 목	있음	없음	해당 없음
(1) 가족 내 성장과정에서의 성차별	①	②	
(2) 가족 내 재산(상속) 분배 성차별	①	②	
(3) 학교생활에서의 성차별	①	②	
(4) 일자리를 구하는데 있어서의 성차별	①	②	③
(5) 직장생활에서의 성차별(업무배치, 승진 등)	①	②	③
(6) 임금(소득)에서의 성차별	①	②	③
(7) 운전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성차별 (욕설, 무시, 비하 등)	①	②	
(8) 여자답게/남자답게 행동하라는 지적이나 압박	①	②	
(9) 성희롱(성적 불쾌감을 느끼는 발언이나 행동)	①	②	

문29. 귀하는 외모와 관련하여 다음을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항 목	있음	없음
(1) 외모에 대한 지적, 비하 발언을 들음	①	②
(2) 외모 때문에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음	① ➜ 문29-1	②

문29-1. **[문29 (2)의 ① 있다 응답자만]** 귀하께서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을 경험하신 사항에 **모두** 표시해주십시오.

① 소개팅, 맞선 등에서
②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과정에서
③ 구직활동 과정에서
④ 동호회, 동아리 등 각종 모임에서
⑤ 직장 또는 학교에서
⑥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⑦ 은행이나 관공서 등에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문30. 귀하는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밤늦게 귀가할 때 폭력이나 범죄의 대상이 될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2) 붐비는 장소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을까봐 두렵다	①	②	③	④
(3) 집에 혼자 있을 때 낯선 사람(택배, 수리기사 등)의 방문이 두렵다	①	②	③	④
(4) 나의 개인 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거나 범죄에 사용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5) 불법 촬영물에 의한 피해의 대상이 될까봐 불안하다	①	②	③	④

문31. 귀하는 다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항 목	관여하지 않는다	주위에 알린다	직접 나서서 말린다	관계기관 (경찰 등)에 알린다
(1) 거리,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성추행 장면을 목격했을 때	①	②	③	④
(2)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불법 촬영하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	①	②	③	④
(3) 바로 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을 때	①	②	③	④
(4) 직장, 학교 등에서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말과 행동을 목격했을 때	①	②	③	④

※ 다음은 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평소에 생각하거나 느끼는 바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V. 성평등 정책

문32. 귀하는 다음 항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잘 모르겠다
(1) 성평등 정책은 여성과 남성 모두를 위한 정책이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성평등 정책에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3)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33. 다음은 현재 성평등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이거나 추진을 준비 중인 정책 방안들입니다.
귀하께서는 성평등한 경기도 실현을 위해 이러한 정책의 추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분 야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1) **여성 취업지원 사업 확대**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유지 지원,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경력단절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농업·농촌분야 여성역량 강화 등	①	②	③	④
(2) **여성창업 지원** : 시·군 여성창업플랫폼 설치 및 여성창업경진대회, 고부가가치 여성창업 활성화 지원 등	①	②	③	④
(3) **평등한 노동환경 구축** : 성평등 실천 문화 확산(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가족친화 직장문화 확산(가족친화 인증 및 인센티브) 등	①	②	③	④
(4) **일·생활균형 지원 확대** : 일-생활 균형지원 플랫폼 구축·운영, 일-생활 균형 우수사례 시상 및 홍보 등	①	②	③	④
(5) **양육부담 경감 지원** : 한부모 아동 양육비 및 이행지원 강화, 한부모 주거지원 확대, 청소년 부모 양육지원 강화 등	①	②	③	④
(6) **돌봄지원 강화** : 아이돌봄서비스 및 공동육아 지원 확대,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지역사회 아동보호체계 구축,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및 영유아 돌봄서비스 확대, 가족돌봄자 지원 등	①	②	③	④

분 야	전혀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약간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7) **폭력 예방정책 확산 및 추진체계 내실화** : 성별 기반 폭력피해 지원 전문성 강화,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대응체계 기반구축, 불법촬영 점검 지원,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	①	②	③	④
(8) **폭력 피해자 보호 및 자립 강화** :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체계 강화, 성매매피해자 탈성매매 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 체계 구축 지원, 이주여성 폭력피해 지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등	①	②	③	④
(9)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 : 여성장애인 출산 및 교육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가임기 여성 의료 상담 서비스 제공, 청소년 성교육, 생리용품 보편지원 등	①	②	③	④
(10) **양성평등교육 대상 확대 및 내실화** : 도민대상 성인지 교육, 성인지 정책 교육과정 다양화 및 체계화,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보급 등	①	②	③	④
(11) **생활 속 양성평등 문화 확산** : 양성평등 가족문화 확산 캠페인, 청소년·청년 대상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추진, 남성의 돌봄참여 지원, 시군 여성친화도시 조성 역량 지원, 여성 역사문화유산 지속 발굴 등	①	②	③	④
(12) **양성평등 정책 연계·협력 및 추진기반 강화** : 중앙-경기도 간 양성평등 정책 연계 강화, 국제협약 이행과 협력,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개선 및 역량강화, 여성관리자 확대 및 네트워크 활성화 등	①	②	③	④

문34. 다음 항목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성 불평등 문제들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를 **순서대로 3개**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3순위:_____

1) 채용, 승진, 임금 등 고용상 성차별
2) 임신, 육아, 돌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
3) 가사 및 육아, 돌봄에서 남성의 낮은 참여
4) 국회의원, 공공 기관, 기업 등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참여 기회
5) 여성에 대한 폭력
6) 인터넷 개인 방송, 뮤직비디오, AI(인공지능) 등에서 여성의 성적 대상화
7)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에서 성별 혐오와 공격
8)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 교육, 활동 등에서 성별고정관념
9) 기타( )

개인 일반 사항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 중학교 졸업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 재학/졸업
④ 대학교 재학/졸업
⑤ 대학원 재학/수료/졸업 이상

DQ2. 귀댁의 작년(2022.1.1.~2022.12.31.) 세금 납부(공제) 전의 월평균 총 가구소득은 얼마입니까?
연간 총소득을 월평균으로 환산하여 가구소득을 응답해주세요.
※ 가구소득은 전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이전소득 등의 합계입니다.

① 99만원 이하
② 100만원~199만원 이하
③ 200만원~299만원 이하
④ 300만원~399만원 이하
⑤ 400만원~499만원 이하
⑥ 500만원~599만원 이하
⑦ 600만원~699만원 이하
⑧ 700만원~799만원 이하
⑨ 800만원~899만원 이하
⑩ 900만원~999만원 이하
⑪ 1000만원 이상

DQ3. 귀하는 현재까지 경기도에 총 몇 년 동안 거주하셨습니까?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5년 미만
③ 5년 이상~10년 미만
④ 10년 이상~15년 미만
⑤ 15년 이상~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DQ4. 소득, 재산, 학력, 직업 등을 고려할 때 귀댁은 다음 중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층
② 중상층
③ 중층
④ 중하층
⑤ 하층